軍史

2023. 6. 제127호

Military History

•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선박 제조
• 임진왜란을 보는 '새로운' 창
• 이순신(李舜臣)의 행적과 전쟁에 나타난 군사사상(軍事思想) 고찰
• 북한군 제8사단의 제4차 전역 준비와 수리산-마산 전투
•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 연구(1964-1972)
• 제3제국에 대한 군부 내 저항

[서 평]
•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으로 본 러일전쟁
- 그물(김문자 지음·김흥수 옮김),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러일 개전의 정설을 뒤엎다』-

[참관기]
• 학·덕·업 일치의 장
- 2023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군사연구세미나
: 군사사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제127호 | 2023년 6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Contents | 2023. 6. 제127호

1 ▶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선박 제조 최진열

35 ▶ 임진왜란을 보는 '새로운' 창 박민수 김영진

77 ▶ 이순신(李舜臣)의 행적과 전쟁에 나타난 군사사상(軍事思想) 고찰 배일수 정희태

143 ▶ 북한군 제8사단의 제4차 전역 준비와 수리산-마산 전투 박희성

179 ▶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 연구(1964-1972) 김상범

231 ▶ 제3제국에 대한 군부 내 저항 이병철

Military History

軍史

Contents | 2023. 6. 제127호

[서 평]

275 ▶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으로 본 러일전쟁 김흥수
- 그물(김문자 지음 · 김흥수 옮김),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러일 개전의 정설을 뒤엎다』 -

291 [참관기] 이제혁
▶ 학 · 덕 · 업 일치의 장
- 2023 육군사관학교 · 화랑대연구소 군사연구세미나
: 군사사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

[부 록]

305 ▶ 연구소 동정
308 ▶ 신간 도서 소개
310 ▶ 학술행사 안내
311 ▶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313 ▶ 『軍史』誌 投稿案內
316 ▶ 연구윤리 규정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1-35
https://doi.org/10.29212/mh.2023..12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선박 제조

-제조 인력과 건조 비용의 재정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목 차

1. 서론
2. 선박 건조 기사 검토
3. 선박 건조 지역의 人力 징발
4. 선박 건조 비용
5. 결론

초 록 이 논문은 貞觀 18년(644), 貞觀 21-22년(647-648) 唐의 高句麗 침공을 위한 선박 제조와 재정 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唐太宗은 高句麗 침략을 위해 병사와 군량 운반을 위해 많은 선박을 건조하였다. 唐은 貞觀 18년(644) 900척, 貞觀 21년(647) 1,350척, 貞觀 22년(648) 최소 1,100척의 漕運船 또는 戰艦을 건조하였다. 貞觀 22년(648) 劍南 지역에 건조하도록 할당한 선박의 수가 史書에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唐太宗은 高句麗 침공을 위해 최소 3,350척의 배를 만들었다.

배를 만드는데 동원된 인부의 수를 계산하면 貞觀 18년(644)과 貞觀 21년(647) 洪州・饒州・江州와 越州都督府・婺州・洪州의 인구만으로 부과된 배를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주변 州縣에서 따로 人力을 차출해야 했을 것이다.

선박 건조 비용은 貞觀 18년(644) 추산 租庸調 총액의 18.3%, 貞觀 21년(647) 27.5%, 貞觀 22년(648) 최소 22.4%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연도 재정 중 선박 건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요컨대 3개 연도에 건조한 3,350척에 든 造船 비용 총액은 貞觀 13년(639) 丁의 租庸調 총액의 68.2%에 해당한다. 이는 劍南 지역에서 건조한 선박 비용, 벌목과 목재 운반 비용은 제외한 수치였다. 貞觀 22년(648) 劍南道에 부과한 선박 건조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음을 명시하였다. 나머지는 아마도 백성들의 무상노동으로 배를 만들었을 것인데, 동원된 백성들의 부담이 무거웠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군함, 조운선, 선박 건조 비용, 동원 인력, 재정 부담, 高唐 전쟁, 强偉墓誌, 해군, 唐, 高句麗

(원고투고일 : 2023. 4. 8, 심사수정일 : 2023. 5. 17, 게재확정일 : 2023. 6. 5.)

1. 서론

唐太宗은 貞觀 19년(645), 21년(647), 22년(648) 高句麗를 침략하였다. 唐前期에 해양 교통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唐太宗이 高句麗를 공격하기 위해 많은 선박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이러한 선박 건조는 高唐 전쟁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지만 재정 지출 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선행연구에서 唐代 造船業의 전체적 특징,[1] 각 지역별 造船業의 현황,[2] 造船 기술,[3] 항해,[4] 唐代 선박 유물의 발

---

1) 王賽時, 「論唐代的造船業」, 『中國史研究』 1998-2, 1998, 70-77쪽; 姜浩, 「隋唐造船業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4.

2) 劉希爲, 『隋唐交通』, 臺北: 新文豐出版印刷公司, 1992; 張澤咸, 『唐代工商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席龍飛, 『中國造船史』, 湖北教育出版社, 2000; 房仲甫·李二和, 『中國水運史』, 新華出版社, 2003; 夏自金, 「隋唐五代時期西南地區造船業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張劍光, 「隋唐五代江南造船業發展」, 『江蘇技術師範學院學報』 24-1, 2009.

3) 中國古代造船發展史編寫組, 「唐宋時期我國造船技術的發展」, 『大連理工大學學報』 1975-4, 1975; 王冠倬, 「從文物資料看中國古代造船技術的發展」, 『中國歷史文物』 1983; 祝慈壽, 『中國古代工業史』, 學林出版社, 1988; 唐志拔, 『中國舰船史』, 海軍出版社, 1989; 劉景華, 「鄭和以前中國造船技術的歷史考察」, 『長沙電力學院學報』 1994-1, 1994; 王崇煥, 『中國古代交通』, 商務印書館, 1996; 張靜芬, 『中國古代的造船與航海』, 商務印書館, 1997; 林聲, 「中國古代的"車船"-中國古代造船史料彙考之一」, 『鄭州大學學報』 1997-1, 1997; 軍事科學院 主編, 『中國軍事通史』 第九卷·第十卷, 軍事科學出版社, 1998; 王冠倬, 『中國古船圖譜』, 三聯書店, 2000; 闞緒杭·龔昌奇·席龍飛, 「隋唐運河柳孜唐船及其拖舵的研究」, 『哈爾濱工業大學學報』 2001-4, 2001; 龔昌奇·席龍飛, 「隋代五牙舰及其復原研究」, 『武漢理工大學學報』 2004-4, 2004; 頓賀·程雯慧, 「中國古代船泊的造型特徵研究」, 『武漢理工大學學報』 2004-3, 2004; 程曉, 「我國古代造船技術的興衰及其啓示」, 武漢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4) 金秋鵬, 『中國古代的造船與航海』, 中國青年出版社, 1985; 馮普仁, 『吳地文化交通』, 南京大學出版社, 1997; 孫光圻, 『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굴,[5] 海軍,[6] 海軍을 이용한 唐의 高句麗 침공,[7] 高句麗의 해군[8] 등을 다루었다. 일부 연구에서 唐太宗의 海軍 운용이나 선박 건조를 언급했지만 선박 건조와 재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唐太宗은 貞觀 18년(644)과 貞觀 21년(647), 貞觀 22년(648)에 모두 여섯 차례나 선박 건조를 지시하였다. 史書에 唐太宗 시기에 건조한 선박의 숫자와 선박 제조에 동원된 지역, 배 1척의 건조 비용과 관련한 기사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唐太宗 시기 高句麗 침략을 위한 선박 건조의 비용과 동원된 인력을 추산하고 당시 전쟁의 병참체계와 재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실마리로 본고에서 唐太宗 시기의 선박 또는 군함 제조를 위한 인력 동원과 선박 건조 비용을 추산하고 그 재정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貞觀 18년(644)과 貞觀 21년(647), 貞觀 22년(648)의 선박 건조 기사를 검토한다. 3장에서 선박 건조

2005; 房仲甫·姚斕, 『哥倫布之前的中國航海』, 海洋出版社, 2008.

5) 南京博物院, 「如皐發現的唐代木船」, 『文物』 1974-5, 1974, 84왼쪽-90오른쪽; 商丘市文物工作隊, 「河南永城市侯嶺唐代木船」, 『考古』 2001-3, 2001, 51왼쪽-56오른쪽.

6) 熊義民, 「唐代海軍初探」, 『史學月刊』 2002-11, 2002, 18왼쪽-23왼쪽; 熊義民, 「從平百濟之役看唐初海軍」,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3, 79-90쪽.

7) 楊秀祖, 「隋煬帝征高句麗的幾個問題」, 『通化師院學報』 1996-1, 1996; 于賡哲, 「貞觀十九年唐對高麗的戰爭及其影響」,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0; 于賡哲, 「隋·唐兩代伐高句麗比較研究」,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2003; 劉炬·姜維東, 『唐征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 2006; 喬鳳岐, 『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中國社會出版社, 2010; 張國亮, 「唐征高句麗之戰的戰略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이민수,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2021, 129-169쪽; 서영교, 「唐太宗의 고구려 침공과 水軍」, 『동양학』 90, 2023, 79-102쪽.

8) 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2003.

지역의 인구와 선박 건조에 필요한 人力을 계산하여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지역 백성들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선박 건조 비용을 계산하고 당시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선박 제조와 唐太宗 시기 재정 문제의 관계를 검토한다.

2. 선박 건조 기사 검토

唐太宗은 高句麗를 침공하기 1년 전인 貞觀 18년 七月 辛卯日(644. 8. 20)에 將作大監[9] 閻立德에게 洪州·饒州·江州 3州로 가서 군량을 실어나를 배 400척을 만들도록 명령하였다.[10] 『新唐書』「閻讓傳」에서 바다에 떠다니는 大航 500척을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11] 양자의 기록에서 만들도록 명령한 배의 수가 다르다. 「强偉墓誌」에 强偉가 貞觀 18년에 將作大匠 閻立德이 江南에서 배를 만들 때 判佐에 임명되어 활동했다고 기록되었으나[12] 건조한 배의 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다를 떠다니

9) 『新唐書』「閻讓傳」에 따르면 閻讓(閻立德)의 벼슬은 將作大監이 아니라 將作大匠이었다(『新唐書』 卷100 「閻讓傳」, 3941쪽). 이하 正史와 『資治通鑑』은 中華書局標點校勘本에 의거한다.

10) 『冊府元龜』(王欽若 等編纂, 周勛初 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十八年七月條, 11404쪽, "於是敕將作大匠閻立德 · 括州刺史趙元楷 · 宋州刺史王波利往洪 · 饒 · 江等州造船艦四百艘可以載軍糧泛海攻戰者, 且遣輕騎數千至遼東城以觀其勢.";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唐太宗貞觀十八年條, 6209-6210쪽, "上將征高麗, 秋七月辛卯, 敕將作大監閻立德等詣洪 · 饒 · 江三州, 造船四百艘以載軍糧."

11) 『新唐書』 卷100 「閻讓傳」, 3941쪽, "未幾, 復為大匠, 即洪州造浮海大航五百艘, 遂從征遼, 攝殿中監, 規築土山, 破安市城."

12) 「□□□□□□□□輕車都尉强君(强偉)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麟德026, 413쪽, "至貞觀十八年, 將作大匠閻立德江南造船, 召爲判佐." 이하 '强偉墓誌'로 약칭한다.

는 大航 500척은 張亮이 지휘한 4만 3천인을 싣고 갈 전함 500척과 같은 수이다. 그리고 張亮 등에게 명령을 내린 시점이 貞觀 18년 十一月 甲午日(644. 12. 28)이다.[13] 따라서 군량을 수송할 400척과 다른 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韋挺과 崔仁師가 지휘한 河北道와 河南道의 水運 및 海運을 통한 물자 수송[14]은 貞觀 18년 말부터 貞觀 19년 正月까지 진행되었다.[15] 그 이후에도 漕運을 위해 배가 여전히 필요했으므로 張亮은 군량 수송의 400척과 별도의 戰艦 500척으로 高句麗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閻立德[16] 등이 건조한 배는 군량 수송을 위한 400척과 戰艦 500척을 따로 만들었다는 해석이 정합적이다.

高句麗 親征에서 패한 唐太宗은 다시 高句麗를 침공하기 위해 貞觀 21년 九月(647. 10-11) 宋州刺史 王波利와 中郎將 丘孝忠을 보내 江南 12州에서 入海大船과 艓船 350艘를 만들라고 명령하였다.[17] 胡三省의 註釋에 따르면 선박 건조에 동원된 江南

---

13)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甲午, 以光祿大夫·刑部尚書·鄖國公張亮為使持節平壤道行軍大總管, 以左領軍將軍·武水縣伯常何·瀘州都督·戴國公左難當為副總管, 汾州刺史·黃國公冉仁德·眉州刺史·下傳縣男劉英·銀青光祿大夫·行撫州刺史張文翰·雲麾將軍·行中郎將龐孝恭·右驍衛將軍·東平郡公程名振並為行軍總管以隸之, 率江淮嶺硤勁卒四萬, 長安·洛陽召募三千, 戰艦五百艘, 自萊州泛海趣平壤."

14) 『舊唐書』 卷74 「崔仁師傳」, 2621-2622쪽; 『新唐書』 卷99 「崔仁師傳」, 3921쪽.

15) 『資治通鑑』에 따르면 韋挺과 崔仁師가 貞觀 19년 正月에 免官되었는데(『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春正月條, 6216쪽, "十九年春正月, 韋挺坐不先行視漕渠, 運米六百餘艘至盧思臺側, 淺塞不能進, 械送洛陽; 丁酉, 除名, 以將作少監李道裕代之. 崔仁師亦坐免官."), 이는 이때까지 轉運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16) 閻立德의 본명은 讓이고 字가 立德인데, 『舊唐書』는 閻立德으로, 『新唐書』는 閻讓으로 표기하였다.

17)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九月條, 11405쪽, "九月, 遣宋州刺史王波利·中郎將丘孝忠發江南十二州, 造入海大船及艓船三百五十艘, 將征高麗."

12州가 宣·潤·常·蘇·湖·杭·越·台·婺·括·江·洪 12州였다.[18] 같은 해에[19] 虞部員外郎 唐遜이 海舷 1천 艘를 만들 때 强偉가 부관으로 참여하였고 宋州刺史 王波利가 海船을 만들 때도 부관으로 차출되었다.[20] 唐遜이 海船 1천 艘를 건조한 기사는 『冊府元龜』와 『資治通鑑』 등 사서에 기록되지 않지만 王波利가 造船을 관리한 기사는 사서에 존재한다. 따라서 「强偉墓誌」의 1천 척 건조 기사가 史書에 누락되었지만 貞觀 21년에 발생한 사실이었다. 즉 貞觀 21년(647)에 모두 1,350척의 선박을 만들었다.[21]

唐太宗은 다음 해인 貞觀 22년 六月(648. 6-7)에 高句麗 정복을 위해 江南에 大船을 만들고 陝州刺史 孫伏伽에게 병사를 召募하고 萊州刺史 李道裕에게 식량과 器械을 운반하여

---

18)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八月戊戌條胡註, 6249쪽, "十二州: 宣·潤·常·蘇·湖·杭·越·台·婺·括·江·洪也."

19) 「强偉墓誌」에서 "十一年"이라고 표기했는데, 전후의 시간적 흐름을 보면 "二十一年"의 誤記임을 알 수 있다.

20) 「强偉墓誌」, 413쪽, "至貞觀十八年, 將作大匠閻立德江南造船, 召爲判佐. 十一年副虞部員外郎唐遜造海舷一千艘. 其年勅差副宋州刺史王波利更造海船."

21) 이 1천 艘의 배는 貞觀 22년 越州都督府와 婺州洪州 등에 제작하라고 한 海船과 雙舫 1,100艘(『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八月丁丑條, 6261쪽)와 선박의 수가 비슷하다. 그래서 强偉가 虞部員外郎 唐遜과 만든 배 1,000艘가 貞觀 22년 건조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强偉는 선박 건조 이후 兵部員外郎 裴明禮와 함께 遼碣, 즉 高句麗와의 국경 지역으로 군량을 운송하였다(强偉墓誌」, 413쪽, "十一年(??)副虞部員外郎唐遜造海舷一千艘. 其年勅差副宋州刺史王波利更造海船. 事異畢副兵部員外郎裴明禮運糧遼碣."). 따라서 이때 만들어진 배가 貞觀 22년 전쟁에 투입되었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貞觀 22년(648) 正月에 薛萬徹과 裴行大가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高句麗를 공격했고(『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正月條, 11406쪽), 같은 해 四月에 烏胡鎭將 石神感(『資治通鑑』에는 古神感으로 표기)이 步騎 5천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高句麗를 공격했기 때문이다(『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四月條, 11406쪽). 烏胡鎮은 唐의 山東半島와 高句麗 사이의 바다에 있는 섬이었으므로, 烏胡鎮에 운송할 배와 烏胡鎮에서 高句麗를 공격할 배가 필요했다. 즉 35,000인의 군사와 군량을 수송할 배가 필요했는데, 이 배는 전해인 貞觀 21년에 건조한 海船이었을 것이다.

烏胡島에 저장하도록 명령하였다.[22] 『資治通鑑』에서 唐太宗이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다음 해에 高句麗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劍南 지역에 전함 건조를 맡겼다고 기록하였다.[23] 그러나 戰船 제조의 부담 때문에 巴·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 邛·眉·雅 3州의 獠가 반란을 일으켰다.[24] 劍南 사람들도 이를 감당하지 못해 造船의 役을 縑 등의 물자로 대납한 후 長江 중류의 洞庭湖 남쪽에 있는 潭州 사람들을 고용하여 배를 만들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太宗의 허락을 받았으나 田宅과 자녀를 팔아도 庸絹(船庸)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25] 劍南道의 선박 건조 기사에 구체적으로 몇 척의 戰船을 건조했는지 기록하지 않았다.

唐太宗은 八月 丁丑日(648. 9. 21)에도 越州都督府와 婺州·洪州 등에 海船과 雙舫 1,100척을 만들도록 명령하였다.[26] 越州都督府는 唐太宗 시기에 越·婺·泉·建·台·括 6州를 거느렸다.[27] 唐太宗 시기의 泉州는 開元 13년(725) 福州로 개칭되었으며[28] 이때 泉州와 福州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越州都督

22) 『冊府元龜』 卷135 「帝王部」135 好邊功 唐太宗貞觀二十二年條, 1503쪽, "太宗命江南造大船, 遣陝州刺史孫伏伽召募勇敢之士, 莢州刺史李道裕運糧及器械, 貯於烏湖島, 將欲大舉以伐高麗, 不果行."

23)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六月條, 6258쪽, "上以高麗困弊, 議以明年發三十萬眾, 一舉滅之. 或以為大軍東征, 須備經歲之糧, 非畜乘所能載, 宜具舟艦為水運. 隋末劍南獨無寇盜, 屬者遼東之役, 劍南復不預及, 其百姓富庶, 宜使之造舟艦. 上從之."

24)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5쪽, "乃詔劍南大治船, 蜀人願輸財江南, 計直作舟, 舟取縑千二百, 巴 · 蜀大騷, 邛 · 眉 · 雅三州獠皆反, 發隴西 · 峽內兵二萬擊定之."

25)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九月條, 6261-6262쪽. 지면 관계상 반복되는 사료의 원문은 생략하며 원문은 주)55 참조.

26)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八月丁丑條, 6261쪽, "丁丑, 勑越州都督府及婺 · 洪等州造海船及雙舫千一百艘."

27) 『舊唐書』 卷40 「地理志」3 十道郡國3·江南東道·越州中都督府條, 1589쪽, "貞觀元年, 更督越 · 婺 · 泉 · 建 · 台 · 括六州."

28) 『舊唐書』 卷40 「地理志」3 十道郡國3·江南東道·明州條, 1590쪽, "開元二十六年, 於越州鄮縣置明州."

府에 속하는 6州에 속하지 않는 明州는 開元 26년(738)에 越州에서 분리되었고[29] 溫州는 貞觀元年(627) 括州에 속했으며[30] 汀州는 福州와 撫州의 일부를 할양해 설치하였으므로[31] 일부는 福州에 속하였다. 즉 越州都督府의 관할구역은 『舊唐書』「地理志」에 기록된 6州가 아니라 明·福·溫·汀 4州도 포함하였다. 이 4州는 현재의 杭州·湖州 등을 제외한 浙江省 동부·남부와 福建省의 대부분에 해당하였다. 洪州는 越州都督府와 접하지 않은 지역이고 鄱陽湖의 남쪽에 위치하며 贛水가 흘러가는 곳에 있었다. 주변의 산지에서 벤 목재를 贛水 등을 통해 洪州로 보내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資治通鑑』에 기록된 '洪州'가 洪州都督府에 속한 屬州라면 洪·饒·撫·吉·虔·袁·江·鄂 8州를 포함한다.[32] 즉 唐太宗이 八月 丁丑日(648. 9. 21)에 海船과 雙舫 1,100척을 만들라고 명령한 지역은 越州都督府와 洪州都督府에 속한 18州였을 것이다.

요컨대 貞觀 18년(644) 900척, 貞觀 21년(647) 1,350척, 貞觀 22년(648) 최소 1,100척의 漕運船 또는 戰艦을 건조하였다. 貞觀 22년(648) 劍南 지역에서 건조해야 할 누락된 선박 수를 제외하더라도 唐太宗은 高句麗 침공을 위해 최소 3,350척의

---

29) 『舊唐書』 卷40 「地理志」3 十道郡國3·江南東道·福州中都督府條, 1598쪽, "隋建安郡之閩縣. 貞觀初, 置泉州. 景雲二年, 改為閩州, 置都督府, 督閩·泉·建·漳·湖五州. 開元十三年, 改為福州, 依舊都督府, 仍置經略使."

30) 『舊唐書』 卷40 「地理志」3 十道郡國3·江南東道·溫州條, 1597쪽, "隋永嘉郡之永嘉縣. 武德五年, 置東嘉州, 領永嘉·永寧·安固·樂成·橫陽五縣. 貞觀元年, 廢東嘉州, 以縣屬括州."

31) 『舊唐書』 卷40 「地理志」3 十道郡國3·江南東道·汀州條, 1600쪽, "開元二十四年, 開福·撫二州山洞, 置汀州."

32) 『舊唐書』 卷40 「地理志」3 十道郡國3·江南西道·洪州上都督府條, 1604-1605쪽, "隋豫章郡. 武德五年, 平林士弘, 置洪州總管府, 管洪·饒·撫·吉·虔·南平六州, 分豫章置鍾陵縣. 洪州領豫章·豐城·鍾陵三縣. 八年, 廢孫州·南昌州·米州, 以南昌·建昌·高安三縣來屬. 省鍾陵·南昌二縣入豫章. 貞觀二年, 加洪·饒·撫·吉·虔·袁·江·鄂等八州."

배를 만들었다.

唐太宗이 세 해에 모두 최소 3,350척의 배를 만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군사들을 먹일 군량의 수송이다. 貞觀 18년(644) 군량 수송의 책임자 韋挺은 河北의 군량 수송을 맡았는데 대운하와 桑乾河 등 하천을 통해 幽州까지 군량을 운반하였다.[33] 太僕少卿 蕭銳는 河南道 諸州의 米糧을 수로와 육로를 통해 海上의 古大人城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34] 崔仁師가 河南道의 水運도 맡았는데, 수로를 통해 바닷가로 군량을 운반하였다.[35] 强偉는 貞觀 21년(647)에 선

33)『舊唐書』卷77「韋挺傳」, 2670-2671쪽, "挺至幽州, 令燕州司馬王安德巡渠通塞. 先出幽州庫物, 市木造船, 運米而進. 自桑乾河下至盧思臺, 去幽州八百里, 逢安德還曰: '自此之外, 漕渠壅塞.' 挺以北方寒雪, 不可更進, 遂下米於臺側權貯之, 待開歲發春, 方事轉運, 度大兵至, 軍糧必足, 仍馳以聞. 太宗不悅, 詔挺曰: '兵尚拙速, 不貴工遲. 朕欲十九年春大舉, 今言二十年運漕, 甚無謂也.' 乃遣繁畤令韋懷質往挺所支度軍糧, 檢覆渠水. 懷質還奏曰: '挺不先視漕渠, 輒集工匠造船, 運米即下. 至盧思臺, 方知渠閉, 欲進不得, 還復水涸, 乃便貯之, 無達平夷之日. 又挺在幽州, 日致飲會, 實乖至公. 陛下明年出師, 以臣度之, 恐未符聖策.' 太宗大怒, 令將作少監李道裕代之, 仍令治書侍御史唐臨馳傳械挺赴洛陽, 依議除名, 仍令白衣散從."; 『新唐書』卷98「韋挺傳」, 3903쪽, "帝親解貂裘及中廄馬賜之. 挺遣燕州司馬王安德行渠, 作漕艫轉糧, 自桑乾水抵盧思臺, 行八百里, 渠塞不可通. 挺以方苦寒, 未可進, 遂下米臺側, 廩之, 待凍泮乃運以為解. 即上言: '度王師至, 食且足.' 帝不悅曰: '兵寧拙速, 無工遲. 我明年師出, 挺乃度它歲運, 何哉?' 即詔繁畤令韋懷質馳按. 懷質還劾: '挺在幽州, 日置酒, 弗憂職, 不前視渠長利, 即造船行粟, 緜八百里, 乃悟非是, 欲進則不得, 還且水涸. 六師所須, 恐不如陛下之素.' 帝怒, 遣將作少監李道裕代之."

34)『冊府元龜』卷498「帝王部」漕運, 5659쪽, "太宗貞觀十七年時征遼東, 先遣太常卿韋挺于河北諸州徵軍糧, 貯於營州. 又令太僕少卿蕭銳於河南道諸州轉糧入海, 至十八年八月, 銳奏稱海中古大人城, 西去黃縣二十三里, 北至高麗四百七十里地, 多甜水. 山島接連, 貯納軍糧, 此為尤便. 詔從之. 於是自河南道運轉米糧, 水陸相繼渡海, 軍糧皆貯此."

35)『舊唐書』卷74「崔仁師傳」, 2621-2622쪽, "後仁師密奏請立魏王為太子, 忤旨, 轉為鴻臚少卿, 遷民部侍郎. 征遼之役, 詔太常卿韋挺知海運, 仁師為副, 仁師又別知河南水運. 仁師以水路險遠, 恐遠州所輸不時至海, 遂便宜從事, 遞發近海租賦以充轉輸. 及韋挺以壅滯失期, 除名為民, 仁師以運夫逃走不奏, 坐免官."; 『新唐書』 卷99 「崔仁師傳」, 3921쪽, "及征遼東, 副韋挺知海運,

박을 건조한 이후 兵部員外郎 裴明禮와 함께 遼碣, 즉 高句麗와의 국경 지역으로 군량을 운송하였다.[36] 다음으로 水軍의 수송과 해상 공격이다. 張亮은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 당시 수군을 이끌고 卑沙城을 공격하였다.[37] 唐太宗은 貞觀 21-22년(647-649) '기습 국지전' 전략으로 바꾸었다. 貞觀 21년 三月(647. 4-5) 左武衛大將軍 青丘道行軍大總管 牛進達과 右武衛大將軍 青丘道行軍副總管 李海崖가 萊州에서 樓船·戰舸에 실은 1萬餘 人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高句麗로 진격하여[38] 七月(647. 8-9)에 高句麗의 石城과 積利城을 공격하였다.[39] 右武衛大將軍 青丘道行軍大總管 薛萬徹과 右衛將軍 副將 裴行大가 貞觀 22년 正月(648. 1-2)에 樓船과 戰艦에 3만 인을 싣고 萊州를 출발하여[40] 六月(648. 6-7)에 鴨淥水 연안의 泊灼城 일대를 공격하였다.[41] 四月(647. 4-5)에 烏胡鎭將 石神感(『資治通鑑』에서 古神感으로 표기)이 바다를 통해 步騎 5천을 거느리고 易山에서 高句麗軍을 공격하였다.[42] 이 네 차례의 수군을 이용한 공격에 많은 전함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又別知河南漕事. 仁師以漕路回遠, 恐所輸不時至, 以便宜發近海租賦餉軍. 坐運卒亡命不以聞, 除名."

36) 「强偉墓誌」, 413쪽, "十一年(??)副虞部員外郎唐遜造海舷一千艘. 其年勅差副宋州刺史王波利更造海船. 事異畢副兵部員外郎裴明禮運糧遼碣."

37) 『舊唐書』 卷69 「張亮傳」, 2515-2516쪽.

38)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三月條, 11404-11405쪽.

39)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七月條, 11405쪽.

40)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正月條, 11406쪽.

41)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六月條, 11406-11407쪽.

42)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四月條, 11406쪽.

3. 선박 건조 지역의 人力 징발

2장에서 검토한 唐太宗 말기 선박 건조 기사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 선박 건조에 동원된 인력과 해당 지역의 문제를 살펴본다.

먼저 貞觀 18년(644) 배의 건조를 맡은 洪州·饒州·江州의 호구를 살펴보자. 洪州의 인구가 15,456戶와 74,044口,[43] 饒州가 11,400戶와 59,817口,[44] 江州가 6,360戶와 25,599口[45]이었다.[46] 3州의 인구가 33,216戶와 159,460口였다. 이들 가운데 배의 건조에 동원된 사람수 계산에 참고가 되는 사례가 있다. 貞觀 22년(648)에 蜀人(劍南道 백성)의 代役이 허락되었는데 大船 1척을 만드는 庸絹이 2,236匹이 들었다.[47] 이 사례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무를 베고 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唐六典』에 성인남성(丁)이 20일 동안 徭役을 해야 하는데 徭役이 없으면 대신 庸을 매일 3尺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48] 이를 20일로 계산하면 徭役의 代役에 60尺(=6丈)의 絹을 부담해야

---

43) 『舊唐書』 卷40 「地理志」3 江南道·江南西道·洪州上都督府條, 1604쪽, "舊領縣四: 豫章 · 豐城 · 高安 · 建昌. 戶一萬五千四百五十六, 口七萬四千四十四."

44) 『舊唐書』 卷40 「地理志」3 江南道·江南西道·饒州條, 1604쪽, "舊領縣四, 戶一萬一千四百, 口五萬九千八百一十七."

45) 『舊唐書』 卷40 「地理志」3 江南道·江南西道·江州條, 1608-1609쪽, "舊領縣三, 戶六千三百六十, 口二萬五千五百九十九."

46)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78-85쪽,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府州戶口數及每縣平均戶口數和每戶平均口數.

47)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九月條, 6261-6262쪽, "蜀人苦造船之役, 或乞輸直雇潭州人造船; …… 大船一艘, 庸絹二千二百三十六匹."

48) 『唐六典』 卷凡3 「尙書戶部」 戶部郎中員外郎條, 76쪽, "丁歲役二旬, 無事則收其庸, 每日三尺(布加五分之一.)."

했다. 『唐六典』에서 羅·錦·綾·絹·紗·縠·絁·紬는 4丈을 1匹로 정하였다.[49] 따라서 60尺의 庸絹은 1.5匹에 해당한다. 따라서 大船 1척을 만드는데 쓴 2,236匹은 약 1,491인의 20일 노동(徭役)이다. 따라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위해 400척의 배를 만드는데 596,400인의 20일 노동, 500척을 만드는데 745,500인의 20일 노동이 각각 필요했다. 양자를 합하면 1,341,900인분의 20일 노동이다.

3州의 인구가 159,460口이고 남녀 성비가 1:1이었다면 배의 건조에 동원할 수 있는 남성은 절반인 78,730口이다. 따라서 洪州·饒州·江州 3州의 백성만으로 배를 건조할 수 없었다. 唐代에 요역 20일에 5일 추가로 요역에 동원되면 調, 30일 추가 동원되면 租調를 모두 면제하는 기준[50]을 적용하여 3州의 성인 남성에게 30일의 노동을 추가하면(모두 50일) 노동력은 40%로 줄어들므로 약 536,760口(1,341,900인×20/50)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 숫자도 3州의 인구 전체 또는 성인남성 수보다 많으므로 3州의 노동력만으로 400척 또는 900척을 건조할 수 없었다. 江南道 전체의 인구는 1,959,510口이므로 400척 또는 500척은 江南道 전체의 남성을 동원하면 唐太宗이 명령한 400척 또는 500척 또는 이를 합한 900척을 제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자를 합한 900척을 제조했다면 강남의 남성인 978,750口를 모두 동원해도 배를 건조할 수 없었다. 어떤 경우이건 江南道 전체의 백성들, 특히 성인남성(丁)에게 큰 부담이었다. 게다가 七月(644. 8-9)부터 동원했기 때문에 농작물의 추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

---

49) 『唐六典』 卷凡3 「尙書戶部」 金部郎中員外郎條 細注, 82쪽, "羅·錦·綾·絹·紗·縠·絁·紬之屬以四丈爲匹, 布則五丈爲端, 綿則六兩爲屯, 絲則五兩爲絇, 麻乃三斤爲綟."

50) 『唐六典』 卷3 「尙書戶部」 戶部郎中員外郎條, 76쪽, "有事而加役者, 旬有五日免其調, 三旬則租·調俱免."

다. 따라서 배 건조에 洪·饒·江 3州나 江南道뿐만 아니라 淮南道 등 주변 道의 백성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부담이었다.

太宗은 貞觀 21년 九月(647. 10-11) 江南 12州에서 入海大船과 艓船 350艘를 만들도록 명령하였다.[51] 12州는 宣州·潤州·常州·蘇州·湖州·杭州·越州·台州·婺州·括州·江州·洪州였다.[52] 이 12州의 인구와 350척을 만드는데 동원되는 人力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표 1〉 貞觀 21년 배 건조를 위해 징발한 江南 12州의 인구

州名	縣數	戶數	口數	州名	縣數	縣數	口數
宣州	8	22,537	95,753	越州	5	25,890	124,010
潤州	5	25,361	127,104	台州	2	6,583	35,383
常州	4	21,182	111,606	婺州	5	37,819	228,990
蘇州	4	11,859	54,471	括州(處州)	4	12,899	101,606
湖州	5	14,135	76,430	江州	3	6,360	25,599
杭州	5	30,571	153,720	洪州	4	15,456	74,044

* 출처 :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82-83쪽,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及每縣平均戶數和.每戶平均口數.

앞의 劍南道 사례에서 大船 1척 건조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재물로 환산하면 絹 2,236匹이며 약 1,491인의 20일 노동력

51)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九月條, 11405쪽, "九月, 遣宋州刺史王波利 · 中郎將丘孝忠發江南十二州, 造入海大船及艓船三百五十艘, 將征高麗."

52)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八月戊戌條胡註, 6249쪽, "十二州: 宣 · 潤 · 常 · 蘇 · 湖 · 杭 · 越 · 台 · 婺 · 括 · 江 · 洪也."

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가격과 노동력이 江南 12州에도 적용된다고 하면 江南 12州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 350척의 배는 20일 동안 521,850인의 노동력(徭役)에 해당한다. 〈표 1〉에서 열거한 江南 12州의 戶數는 230,652戶(江南道의 57.1%), 口數는 1,208,716口(江南道의 61.7%)이다. 521,850口는 강남 12州의 43.17%에 해당한다. 남녀 성별을 1:1로 간주하면 사실상 江南 12州의 남성 거의 전부를 동원해야 할당된 350척을 만들 수 있었다. 만약 唐代에 5일 추가 요역에 동원되면 調, 30일 추가 동원되면 租調를 모두 면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3州의 성인남성에게 30일의 노동을 추가하면 50일의 노동력은 絹 4.875필에 해당하므로 배 1척을 만드는데 약 459인의 50일 노동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350척은 약 160,534口의 50일 노동, 또는 160,534인의 租庸調 세액 전체에 해당한다. 160,534口는 江南 12州 인구의 13.3%에 해당한다. 성비를 1:1로 간주하면 남성의 26.6%에 해당한다. 唐代 租庸調가 丁 즉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므로 350척의 배를 만들기 위해 160,534인의 50일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고 그 대가로 江南 12州로부터 거둬들이는 재정수입의 13.3% 또는 26.6%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貞觀 22년(648) 선박 제조가 부과된 劍南道에 몇 척의 배가 할당되었는지 史書에 기록되지 않았다. 貞觀 13년의 호구 통계를 보면 劍南道는 1府(成都府) 52州 231縣로 구성되었으며 인구는 638,200戶와 2,856,579口였다.[53] 이는 貞觀 13년의 전체 戶口數의 각각 21%와 23.1%에 해당하며 劍南道는 당시 10道 가운데 戶數와 口數가 가장 많았다. 성비 및 丁과 老小의 비율이 1:1이라고 가정하면 劍南道의 丁은 713,170口로 추산되므로 丁

53)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및 , 83-84쪽,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及每縣平均戶數和.每戶平均口數.

을 모두 선박 제조에 동원한다고 가정하면 大船 1척을 만드는데 1,491인(2,236匹을 20일 요역 代價인 庸絹으로 환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20일의 무상 노동을 동원하여 약 479척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어서 唐太宗은 貞觀 22년 八月 丁丑日(648. 9. 21)에도 越州都督府와 婺州·洪州 등에 海船과 雙舫 1,100척을 만들라고 명령하였다.[54]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越州都督府는 越·婺·泉·建·台·括·明·福·溫·汀 10州를 거느렸다. 洪州는 洪州都督府였기 때문에 『資治通鑑』에 기록된 '洪州'가 洪州都督府에 속한 屬州라면 洪·饒·撫·吉·虔·袁·江·鄂 8州를 포함한다.[55] 즉 唐太宗이 八月 丁丑日에 海船과 雙舫 1,100척을 만들라고 명령한 지역은 越州都督府와 洪州都督府에 속한 18州였을 것이다.

〈표 2〉 貞觀 21년 배 건조를 위해 징발한 越州都督府와 洪州都督府의 인구

	州名	戶數	口數		州名	縣數	口數
越州都督府	越州	25,890	124,010	洪州都督府	洪州	15,456	74,044
	婺州	37,819	228,990		饒州		
	泉州				撫州	7,354	40,685
	建州	15,336	22,820		吉州	15,040	53,285
	台州	6,583	35,383		虔州	8,994	39,901

54)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八月丁丑條, 6261쪽, "丁丑, 勅越州都督府及婺·洪等州造海船及雙舫千一百艘."

55) 『舊唐書』 卷40 「地理志」3 十道郡國3·江南西道·洪州上都督府條, 1604-1605쪽, "隋豫章郡. 武德五年, 平林士弘, 置洪州總管府, 管洪·饒·撫·吉·虔·南平六州, 分豫章置鍾陵縣. 洪州領豫章·豐城·鍾陵三縣. 八年, 廢孫州·南昌州·米州, 以南昌·建昌·高安三縣來屬. 省鍾陵·南昌二縣入豫章. 貞觀二年, 加洪·饒·撫·吉·虔·袁·江·鄂等八州."

	括州				袁州	4,636	25,716
	明州				江州	6,360	25,599
	福州				鄂州	3,754	14,615
	溫州				총계	61,594	273,845
	汀州			越州都督府와 洪州都督府 호구 총계		147,222	685,048
	총계	85,628	411,203				

* 출처 :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82-83쪽,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及每縣平均戶數和.每戶平均口數.

〈표 2〉에서 越州都督府와 洪州都督府에 속하는 州의 인구를 정리하였다. 『舊唐書』「新唐書」에 貞觀 13년 越州都督府에 속하는 10州 가운데 泉·括·明·福·溫·汀 6州의 戶口가 누락되었다. 洪州都督府도 饒州 1州의 戶口數가 누락되었다. 越州都督府에 속하는 州(4州)의 戶口는 85,628戶와 411,203口, 洪州都督府는 61,594戶와 273,845口이다. 양자를 합하면 147,222戶 와 685,048口이다.

越州都督府의 6州와 洪州 등 7州, 또는 越州都督府와 洪州都督府에 속하는 18州가 1,100척의 배를 건조해야 했는데, 이는 20일 노동력 1,640,100인분에 해당하였다. 50일의 노동력은 絹 3.75필에 해당하므로 배 1,100척을 만드는데 약 504,534인의 50일 노동력, 또는 504,534인의 租庸調 세액 전체에 해당한다. 20일 노동력은 越州·洪州 2都督府의 인구를 초과하지만, 50일의 노동은 두 都督府의 인구로 충당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자는 越州·洪州 2都督府 전체의 호구이므로 최소 남성들을 동원한다고 하면 절반인 342,524口(남녀 성비를 1:1로 볼 경우)에 불과하므로 역시 50일분 노동도 두 都督府의 戶口만으로 부족하

다. 越州都督府에서 누락된 6州의 戶口를 추가한다면 1,100척의 배를 건조할 노동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越州·洪州 2都督府 이외의 다른 州에서도 노동력을 징발해야 할당된 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史書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기록도 없다.

4. 선박 건조 비용

唐太宗 시기 선박 건조 비용을 알 수 있는 사례가 『新唐書』와 『資治通鑑』에 있다. 후자의 기록을 검토해 보자.

> 強偉 等이 民을 징발하여 배를 만들 때, 役이 山獠에 미치자, 邛·眉·雅 3州의 獠가 반란을 일으켰다. 壬寅日(10. 16)에 茂州都督 張士貴와 右衛將軍 梁建方이 隴右·峽中의 兵 2萬餘人을 징발하여 獠를 공격하였다. 蜀人은 造船의 役을 고통스러워 하여 役 대신 비용을 지불한 후에 潭州 사람들을 고용하여 배를 만들게 해달라고 청하니 上이 이를 허락하였다. 州縣의 代役 물자 납부 독촉이 심하자 백성들은 田宅과 子女를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곡물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여 劍外 지역이 시끄럽고 어수선하였다. 上은 이 소식을 듣고 司農少卿 長孫知人에게 驛馬를 타고 빨리 가서 실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長孫知人은 상주하여 '蜀人은 무르고 약하며, 勞劇을 참지 못합니다. 大船 1척은 庸絹 2,236匹에 해당합니다. 山谷에서 이미 베어낸 나무를 아직 옮기지 못했는데 다시 船庸을 징수하니 두 작업이 합해져서

民이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마음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上이 이에 潭州船庸을 모두 官給에 따르도록 하였다."[56]

위의 인용문은 貞觀 22년 九月(648. 9-10)에 발생한 사건, 즉 劍南道의 邛·眉·雅 3州의 獠가 반란을 일으키고 경제가 나빠진 상황을 설명하였다. 문맥상 獠(山獠)의 반란은 役의 부과와 관련 있다고 이해된다. 邛·眉·雅 3州는 劍南道의 정치적 중심지인 成都(益州)의 서쪽과 남쪽에 있는 州이며 티벳고원의 東端에 위치하였다. 아마도 이 3州에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獠 또는 山獠가 벌목에 동원되었고 배를 만들기 위해 長江까지 나무를 옮겨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唐六典』에 嶺南 諸州의 백성들에게 稅米를 거두고 夷와 獠는 그 절반을 내라는 구절이 있다.[57] 劍南道에도 거주한 獠도 嶺南道의 獠와 같은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다. 이 구절에 嶺南 諸州와 夷·獠에게 租庸調와 다른 조세를 부과하였고 요역과 병역을 부과했다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규정대로라면 夷·獠에게 요역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는 秦漢時代부터 蠻에게 적용된 규칙이기도 하다. 『後漢書』「南蠻傳」에 따르면 漢代 武陵郡에 거주하는 蠻夷는 布 1匹 또는 2丈을 납부했다. 이를 賨布라고 불렀

56) 『資治通鑑』卷199「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九月條, 6261-6262쪽, "強偉等發民造船, 役及山獠, 雅·邛·眉三州獠反. 壬寅, 遣茂州都督張士貴·右衛將軍梁建方發隴右·峽中兵二萬餘人以擊之. 蜀人苦造船之役, 或乞輸直雇潭州人造船; 上許之. 州縣督迫嚴急, 民至賣田宅·鬻子女不能供, 穀價踊貴, 劍外騷然. 上聞之, 遣司農少卿長孫知人馳驛往視之. 知人奏稱: '蜀人脆弱, 不耐勞劇. 大船一艘, 庸絹二千二百三十六匹. 山谷已伐之木, 挽曳未畢, 復徵船庸, 二事併集, 民不能堪, 宜加存養.' 上乃敕潭州船庸皆從官給."

57) 『唐六典』卷凡3「尙書戶部」戶部郎中員外郎條, 76쪽, "凡嶺南諸州稅米者, 上戶一石二斗, 次戶八斗, 下戶六斗; 若夷·獠之戶, 皆從半輸."

다.[58] 또 巴郡에 거주하는 羅·朴·督·鄂·度·夕·龔 7姓은 租賦를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戶는 賨錢 40錢을 납부하였다. 이들을 板楯蠻夷라고 칭했다.[59] 『張家山漢簡』에 漢高祖 11년(B.C. 196) 발생한 夷道의 남자 毋憂의 재판기록(첫 번째 「奏讞書」 1-7簡)이 있다. 夷道尉는 蠻夷인 毋憂에게 都尉府에 주둔하여 수비하라고 명하였으나, 毋憂는 이를 거부하고 도망갔다. 毋憂는 蠻夷 大男子가 매해 납부하는 56錢의 賨錢이 徭賦를 대신하기 때문에 수비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道尉가 이미 파견했으므로 비록 이러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해도 毋憂는 곧 屯卒의 신분이므로 병사의 진지 이탈이라는 죄로 요참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夷道尉의 주장대로 판결되었다.[60] 이는 법률상 前漢 초에 巴蜀 지역의 이민족이 賨錢을 납부하는 대신 요역과 병역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張家山漢簡』이 秦律을 계승했기 때문에 秦代에도 이 규정이 있었을 것이다.[61] 『晉書』 「食貨志」에서도 西晉의 戶調式 규정에서 丁男의 戶가 絹과 絲을 납부한 반면 夷人은 賨布를 戶당 1匹 또는

---

58) 『後漢書』 卷86 「南蠻傳」, 2831쪽, "秦昭王使白起伐楚, 略取蠻夷, 始置黔中郡. 漢興, 改為武陵. 歲令大人輸布一匹, 小口二丈, 是謂賨布."

59) 『後漢書』 卷86 「南蠻傳」, 2842쪽, "至高祖為漢王, 發夷人還伐三秦. 秦地既定, 乃遣還巴中, 復其渠帥羅 · 朴 · 督 · 鄂 · 度 · 夕 · 龔七姓, 不輸租賦, 餘戶乃歲入賨錢, 口四十. 世號為板楯蠻夷."

60) 『張家山漢墓竹簡』 「奏讞書」 1-7簡, p.213쪽, "十一年八月甲申朔己丑 夷道㑹丞嘉敢㑹(讞)之 六月戊子發弩九詣男子毋憂 告爲都尉屯 已受致書 行未到 去亡. 毋憂曰: 變(蠻)夷大男子歲出五十六錢以當繇(徭)賦 不當爲屯 尉窯遣毋憂爲屯 行未到去亡 它如九. 窯曰: 南郡尉發屯有令 變(蠻)夷律不曰勿令爲屯 卽遣之 不智(知)亡故它如毋憂. 詰毋憂 律變(蠻)夷男子歲出賨錢 以當繇(徭)賦 非曰勿令爲屯也 及雖不當爲屯 窯已遣 毋憂卽屯卒 已去亡 何解? 毋憂曰 有君長 歲出賨錢 以當繇(徭)賦卽復也 存吏 毋解. 問 如辭. 鞫之: 毋憂變(蠻)已大男子 歲出賨錢 以當繇(徭)賦 窯遣爲屯 去亡 得 皆審. 疑毋憂罪 它縣論 敢㑹(讞)之 謁報. 署獄史曹發. 吏當: 毋憂當要(腰)斬 或曰不當論. 廷報: 當要(腰)斬."

61) 최진열, 「漢初 郡國制와 지방통치책-張家山漢簡<二年律令>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9, 2004.

1丈을 납부하였다.[62] 이 규정에 따르면 秦漢時代 長江 중하류 지역에 있었던 蠻夷로 불린 이민족은 중국의 編戶들이 부담하는 租稅나 요역과 다른 세금을 납부하며 漢族과 공존하였고 西晉시대에는 夷人, 즉 이민족 전체가 編戶와 다른 賨布를 납부하였다. 『魏書』「獠傳」에서 16국시대 巴蜀에 세워진 成(漢)의 獠人 가운데 夏人(중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은 租賦를 납부했지만 深山에 거주하는 자들은 編戶가 되지 않았다.[63] 즉 16국시대에 일부 獠가 중국인 編戶와 동일한 租稅를 납부하여 이전과 상황이 바뀌었다. 그후 北魏는 獠의 땅에 巴州를 세워 巴酋 嚴始欣을 子史에 임명하고 隆城鎭을 설치하여 獠 20萬 戶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北獠라고 불린 이들은 租布를 납부하였다.[64] 최소한 北魏時代 北獠는 賨布와 유사한 租布를 납부하여 漢人 編戶와 다른 조세체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西魏北周시대 巴蜀 지역의 獠 가운데 華民, 즉 중국인과 雜居하는 자는 賦役을 부담하였다.[65] 이는 16국시대와 유사하며, 漢族과 雜居하지 않은 獠는 漢族 編戶와 동일한 租稅와 요역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蠻夷와 獠의 조세와 요역 납부 규정을 종합하면, 『唐六典』의 夷·獠가 납부하는 세금도 秦漢時代부터 北朝時代까지 일부 이민족에게 적용된 별도의 조세를 계승했고 嶺南道뿐만 아니라 劍

62) 『晉書』 卷26 「食貨志」, 790쪽, "又制戶調之式: 丁男之戶, 歲輸絹三匹, 絲三斤, 女及次丁男為戶者半輸. 其諸邊郡或三分之二, 遠者三分之一. 夷人輸賨布, 戶一匹, 遠者或一丈."

63) 『魏書』 卷101 「獠傳」, 2249쪽, "建國中, 李勢在蜀, 諸獠始出巴西·渠川·廣漢·陽安·資中, 攻破郡縣, 為益州大患. 勢內外受敵, 所以亡也. 自桓溫破蜀之後, 力不能制, 又蜀人東流, 山險之地多空, 獠遂挾山傍谷. 與夏人參居者頗輸租賦, 在深山者仍不為編戶."

64) 『魏書』 卷101 「獠傳」, 2250쪽, "其後朝廷以梁益二州控攝險遠, 乃立巴州以統諸獠, 後以巴酋嚴始欣爲刺史. 又立隆城鎭, 所綰獠二十萬戶, 彼謂北獠, 歲輸租布, 又與外人交通貿易."

65) 『周書』 卷49 「異域上·獠傳」, 890쪽, "自江左及中州遞有巴·蜀, 多恃險不賓. 太祖平梁·益之後, 令所在撫慰. 其與華民雜居者, 亦頗從賦役."

南道의 獠도 租庸調와 다른 수취체계에 있었으며 요역과 군역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高句麗 공격에 다급한 唐 太宗이 법률까지 어겨가며 獠(山獠)를 무리하게 동원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다. 唐朝는 茂州都督 張士貴와 右衛將軍 梁建方을 보내 隴右·峽中의 兵 2萬餘 人을 동원하여 반란을 진압하였다. 비록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곡물 가격이 폭등하여 劍外, 즉 劍南道가 소란스러웠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곡물 가격 급등은 흉년에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이는 劍南道 사람들이 농번기에 선박 건조와 관련된 요역에 동원되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여 곡물 가격이 상승했음을 암시한다. 즉 唐太宗이 劍南道에 내린 선박 건조 명령은 劍南道의 흉년까지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또 長孫知人의 상주문에서 배 1척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임금이 庸絹 2,236匹이었음을 알 수 있다. 唐太宗은 劍南道 백성들이 요역 대신 지불하는 庸絹을 부담하기도 버거워하자 배를 만드는 노동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劍南道에 할당된 선박 수는 史書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정부에서 부담해야 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1척을 만드는데 필요한 庸絹 2,236匹은 목재를 가공하고 조립하는 작업에 드는 비용일 뿐,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비용은 제외했음을 알 수 있다. 張玄素는 隋代에 豫章郡(洪州)에서 벤 나무를 수도 大興城까지 1柱를 운반하는데 수십만 인의 노동력이 동원되었음을 지적하였다.[66] 이 간언이 唐太宗이 洛陽宮 乾元殿을 만드는 것을

---

66) 『舊唐書』 卷75 「張玄素傳」, 2640쪽, “臣又嘗見隋室造殿, 楹棟宏壯, 大木非隨近所有, 多從豫章採來. 二千人曳一柱, 其下施轂, 皆以生鐵為之, 若用木輪, 便即火出. 鐵轂既生, 行一二里即有破壞, 仍數百人別齎鐵轂以隨之, 終日不過進三二十里. 略計一柱, 已用數十萬功, 則餘費又過於此. 臣聞阿房成, 秦人散; 章華就, 楚眾離;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67] 과장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나무를 운반하는데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들었음을 분명하다. 즉 양자의 비용을 합하면 배 1척을 만드는 비용이 더욱 증가하였으므로 庸絹 2,236匹은 造船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또 선박 건조 기사에서 배의 종류를 표기하지 않았다. 唐初 해군의 전함은 樓船, 蒙衝(艨艟), 鬪艦, 走舸, 游艇, 海鶻 등 6개 유형이 있었다.[68] 貞觀 21년에 牛進達이 樓船[69]을 타고 바다로 高句麗를 공격하였다.[70] 이를 제외하면 唐太宗 시기 高句麗 침략 당시 배의 종류를 알 수 없다. 배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건조 비용이 달라지는데,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의 인용문에서 인용한 大船으로 건조했다고 가정하고 선박 건조 비용을 계산해 보자.

及乾陽畢功, 隋人解體. 且以陛下今時功力, 何如隋日? 役瘡痍之人, 襲亡隋之弊, 以此言之, 恐甚於煬帝. 深願陛下思之, 無為由余所笑, 則天下幸甚.”

67) 『舊唐書』「張玄素傳」에서 이 간언의 목적이 太宗이 洛陽宮 乾陽殿 공사를 위해 卒을 징발함과 동시에 巡幸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舊唐書』 卷75 「張玄素傳」, 2640쪽, “貞觀四年, 詔發卒修洛陽宮乾陽殿以備巡幸, 玄素上書諫曰: ……”).

68) 『太白陰經』(唐 李筌, 中國兵書集成(2),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532-534쪽; 王賽時, 「論唐代的造船業」, 『中國史研究』 1998-2, 1998, 75쪽; 席龍飛, 『中國造船史』, 湖北教育出版社, 2000, 126-127쪽; 熊義民, 「唐初海軍初探」, 『史學月刊』 2002-11, 2002, 19오른쪽; 熊義民, 「從平百濟之役看唐初海軍」,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3, 82-83쪽.

69) 樓船은 3층 樓가 있었으며 가장 큰 전함이고 많은 무기를 갖추었다. 唐代 보통 樓船은 水兵 200인을 태울 수 있었다(王賽時, 「論唐代的造船業」, 75쪽).

70)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條, 6245쪽, “三月, 以左武衛大將軍牛進達為青丘道行軍大總管, 右武候將軍李海岸之, 發兵萬餘人, 乘樓船自萊州汎海而入.”

〈표 3〉 唐太宗 시기 高句麗 침략을 위해 건조한 선박의 수와 제조 비용

연도	선박 수	건조비용	20일 요역에 동원된 인력(口)	50일 동원(租庸調 면제)에 해당하는 동원 인력(口)	건조비용÷貞觀 13년(639) 丁의 租庸調 총액
貞觀 18년(644)	400척[1]	894,400匹	596,400	238,560	8.1%
	500척[2]	1,118,000匹	745,500	298,200	10.2%
貞觀 21년(647)	350척[3]	782,600匹	521,850	208,740	7.1%
	1,000 척[4]	2,236,000匹	1,491,000	596,400	20.4%
貞觀 22년(648)	未詳	未詳		未詳	
	1,100척[5]	2,459,600匹	1,640,100	656,040	22.4%
합계	3,350	7,490,600匹	4,994,850	1,997,940	68.2%

* 출처 : 1)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十八年七月條, 11404쪽, "於是敕將作大匠閻立德·括州刺史趙元楷·宋州刺史王波利往洪·饒·江等州造船艦四百艘可以載軍糧泛海攻戰者, 且遣輕騎數千至遼東城以觀其勢.";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唐太宗貞觀十八年條, 6209-6210쪽, "上將征高麗, 秋七月辛卯, 敕將作大監閻立德等詣洪·饒·江三州, 造船四百艘以載軍糧." 2) 『新唐書』 卷100 「閻讓傳」, 3941쪽, "未幾, 復為大匠, 即洪州造浮海大航五百艘, 遂從征遼, 攝殿中監, 規築土山, 破安市城." 3)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九月條, 11405쪽, "九月, 遣宋州刺史王波利·中郎將丘孝忠發江南十二州, 造入海大船及艓船三百五十艘, 將征高麗." 4) 「强偉墓誌」, 『唐代墓誌彙編』 麟德026, 413쪽, "至[貞觀]十八年, 將作大匠閻立德江南造船, 召爲判佐. 十一年副虞部員外郎唐遜造海舷一千艘. 其年勅差副宋州刺史王波利更造海船." 5)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八月丁丑條, 6261쪽, "丁丑, 勅越州都督府及婺·洪等州造海船及雙舫千一百艘."

〈표 3〉은 『資治通鑑』 卷199 太宗貞觀二十二年九月條에 기록된 배 1척의 건조 비용 2,236匹이 唐太宗 시기 건조한 造船 가격의 표준이라고 가정하고 貞觀 18년(644), 21년(647), 22년(648) 여섯 차례에 걸친 선박 건조 비용을 계산한 표이다.

〈표 3〉에서 貞觀 22년(648) 劍南道에 할당된 배의 숫자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未詳'으로 표기하였다. 요역 면제

를 기준으로 한 唐代 丁 1인의 租庸調 부담액은 絹 3.75匹[71]이다. 貞觀 13년(639) 전체 인구는 12,351,681口인데, 租庸調 대신 輕稅의 稅米를 내는 嶺南道[72]의 인구 642,181口를 제외한 11,709,500口[73] 가운데 남녀 성비와 丁과 丁이 아닌 老小의 비율을 1:1이라고 가정하면[74] 성인 남성(丁)이 1/4에 해당하므로 약 2,927,375口이다. 즉 2,927,375인이 貞觀 13년(639) 租庸調를 납부하는 稅源이며 요역 면제 비용으로 계산한 租庸調 총액은 10,977,656匹이다.[75]

---

71) 요역에 불참하면 하루에 絹 3尺을 납부했으므로 요역 20일에 15일 추가 요역에 동원되면 調, 30일 추가 동원되면 租調를 모두 면제하므로(『唐六典』 卷凡3 「尙書戶部」, 76쪽, "有事而加役者, 旬有五日免其調, 三旬則租 · 調俱免(通正役並不得過五十日)."), 모두 50일의 庸直를 납부하면 租庸調의 합계액이 된다. 따라서 3尺×50일=150尺이 1년 납부 絹의 총액인데 1丈이 40尺이므로 租庸調 납부액은 絹 3.75匹(150尺÷40尺)에 해당한다.

72) 『唐六典』 卷凡3 「尙書戶部」 戶部郎中員外郎條, 76쪽, "凡嶺南諸州稅米者, 上戶一石二斗, 次戶八斗, 下戶六斗."

73)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74) 唐代 性別과 연령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적다. 三國時代 吳의 영토인 현재의 湖南省 長沙市에서 발견된 走馬樓吳簡의 호구를 분석한 于振波는 경제활동인구라고 볼 수 있는 성인을 15-59세로 보았는데, 이 나이의 남성은 전체 남성 인구의 49.07 또는 49.15%에 달했다(于振波, 「走馬樓戶籍性別與年齡結構分析」, 『走馬樓吳簡初探』, 臺北: 文津出版社, 2004, 123쪽, 表二 走馬樓戶籍簡性別與年齡結構統計(二)). 이 통계는 長沙郡의 戶籍에 등록된 2,520인 또는 2,556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 이 자료에서 15-59세의 남성은 638인 또는 648인인데(于振波, 「走馬樓戶籍簡性別與年齡構造補論」, 『走馬樓吳簡續探』, 臺北: 文津出版社, 2007, 54쪽, 表一 走馬樓戶籍簡在籍人口性別與年齡結構統計), 이는 전체 인구의 25.3% 또는 25.4%에 해당한다. 또 15-59세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89.73 또는 88.52로 남성 수가 적다. 이러한 연령과 성별 인구 추이가 唐代 貞觀 연간의 연령과 성별 인구 추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인 추세, 즉 성비와 丁과 丁이 아닌 인구의 비율이 1:1이라는 추세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75) 앞의 주에서 환산한 3.75匹(1丁의 租庸調 납부액) × 2,927,375口(貞觀 13년 인구의 1/4)=10,977,656.25匹이다. 唐代 규정에 嶺南道의 諸州는 租庸調와 다른 稅米를 납부했다(『唐六典』 卷凡3 「尙書戶部」 戶部郎中員外郎條, 76쪽). 본문에서는 嶺南道 백성의 세역도 租庸調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唐太宗이 高句麗 親征을 감행하기 전 해인 貞觀 18년(644) 400척의 배를 건조하는데 租庸調 238,560인분의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이는 貞觀 13년(639) 丁의 租庸調 총액의 8.1%에 해당한다. 같은 해 500척을 건조하는데 229,333.3인분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는 貞觀 13년(639) 등록된 丁의 租庸調 총액의 10.2%였다. 양자를 합하면 정관 18년(644) 900척의 선박 건조비용은 貞觀 13년 租庸調 총액의 18.3%에 해당한다.

唐太宗이 高句麗와 국지전을 벌였던 貞觀 21년(647)에 각각 350척과 1,000척의 배를 건조했는데 이는 각각 208,740인과 596,400인의 租庸調 납부액에 해당하며 貞觀 13년(639) 丁의 租庸調 총액의 7.1%와 20.4%에 해당한다. 소수의 병력으로 高句麗를 공격하여 高句麗를 피폐하게 하는 '기습 국지전' 전략이 『冊府元龜』[76]와 『資治通鑑』[77]에 기록되었는데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은 이 두 史書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습 국지전' 때문에 高句麗가 피폐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唐이 '기습 국지전'으로 파상공격을 했던 貞觀 21년(647)에 두 차례에 걸쳐 805,140인분의 租庸調 세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여 1,350척의 선박 또는 전함을 건조하였다. 이는 貞觀 13년(639) 추산 租庸調 총액의 27.5%에 해당한다. 즉 貞觀 21-22년

76)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三月條, 11405쪽, "天子扼腕含怒, 終欲取之, 中議以為: '高麗城雉依山, 攻之不可卒下, 往前鑾駕親伐, 廢其耕稼, 所陷之城, 並收其穀, 韓師旅炎旱相繼, 夷人以猥, 眾大半斷粒. 若得少兵, 番次蹂其邊場, 彼瘡痍之殘, 疲於奔命, 耕夫釋耒, 並皆入堡. 島夷之邑, 千里荒蕪, 古人云: 「金城湯池, 非粟不固」 若再三如此, 高麗必大窘迫, 自然逃散, 誰肯為莫離支嬰城? 鴨淥水以北, 可不戰而取.' 天子以為然, 故有是命."

77)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二月丁丑條, 6245쪽, "上將復伐高麗, 朝議以為: '高麗依山為城, 攻之不可猝拔. 前大駕親征, 國人不得耕種, 所克之城, 悉收其穀, 繼以旱災, 民太半乏食. 今若數遣偏師, 更迭擾其疆埸, 使彼疲於奔命, 釋耒入堡, 數年之間, 千里蕭條, 則人心自離, 鴨綠之北, 可不戰而取矣.' 上從之."

(647-648) 唐의 국지전은 高句麗뿐만 아니라 唐의 백성들에게 끼친 경제적 피해 또는 재정부담이 컸다.

唐太宗이 貞觀 22년(648) 高句麗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지시하였다. 劍南道에 부과된 배의 수는 史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越州都督府와 洪州·婺州 등지에서 건조한 선박 1,100척은 租庸調 세액의 656,040인분에 해당하며 貞觀 13년(639) 추산 租庸調 총액의 22.4%에 해당한다. 이는 唐太宗이 직접 高句麗 침략군을 지휘했던 貞觀 18년(644)의 租庸調 납부액보다 훨씬 많았다.

즉 唐太宗의 親征 때 건조한 900척보다 국지전 또는 長孫無忌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高句麗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던 貞觀 21-22년(647-648)에 각각 1,350척과 1,100척을 건조하였다. 이는 백성들에 끼친 부담이 컸고 貞觀 13년(639) 기준 租庸調 수입을 더 많이 투입해야 했다. 또 세 해에 건조한 3,350척에 든 造船 비용 총액은 貞觀 13년(639) 丁의 租庸調 총액의 68.2%에 해당한다. 이 수치에 劍南道의 선박 건조 비용, 벌목과 목재 운반 비용은 제외되었으며, 이를 포함하면 실재 선박 건조 비용은 천문학적 액수였다. 貞觀 22년(648) 劍南道에 부과한 선박 건조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음을 명시했지만, 다른 5개의 사례에서 선박 제도에 동원된 백성들의 노동력이 요역으로 계산했는지, 造船 기술자들에게 노동 임금을 지불했는지는 史書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다. 선박 건조를 백성들의 무상노동인 요역으로 충당했다면, 선박 건조에 동원된 백성들의 부담이 컸고 규정에 따라 그만큼 租庸調를 징수할 수 없었으며, 임금을 지불했다면 재정지출이 증가하였다.

5. 결론

唐은 貞觀 18년(644) 900척, 貞觀 21년(647) 1,350척, 貞觀 22년(648) 최소 1,100척의 漕運船 또는 戰艦을 건조하였다. 貞觀 22년(648) 劍南 지역에 할당한 선박의 수가 史書에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唐太宗은 高句麗 침공을 위해 최소 3,350척의 배를 만들었다. 唐太宗이 대규모로 선박을 제조한 이유는 병사와 군량의 운반 때문이었다.

大船 1척의 건조비용인 2,236匹을 바탕으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계산하면 貞觀 18년(644)에 洪州·饒州·江州의 인구만으로 400척의 배를 만들 수 없었다. 貞觀 21년 江南 12州에서 동원된 인력은 12州 인구의 13.3% 또는 성비를 1:1로 간주할 때 남성의 26.6%에 해당하였다. 같은 해 越州都督府와 婺州·洪州 등에 부과된 海船과 雙舫 1,100척을 이 지역의 성인남성만으로 제작할 수 없었다. 따라서 貞觀 18년(644)과 貞觀 21년(647) 洪州·饒州·江州와 越州都督府·婺州·洪州의 인구만으로 부과된 배를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주변 州縣에서 따로 人力을 차출해야 했을 것이다.

배를 만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貞觀 18년(644) 추산 租庸調 총액의 18.3%, 貞觀 21년(647) 27.5%, 貞觀 22년(648) 최소 22.4%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연도 재정 중 선박 건조 비용의 비율이다.

요컨대 3개 연도에 건조한 3,350척에 든 造船 노동비 총액은 貞觀 13년(639) 丁의 租庸調 총액의 68.2%에 해당한다. 이

는 劍南道의 선박 건조 비용, 벌목과 목재 운반 비용은 제외한 수치였다. 貞觀 22년(648) 劍南道에 부과한 선박 건조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음을 명시하였다. 나머지는 아마도 백성들의 무상 노동으로 배를 만들었을 것인데, 동원된 백성들의 부담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글 문헌

서영교, 「唐太宗의 고구려 침공과 水軍」, 『동양학』 90, 2023, 79-102
윤명철, 『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2003,
http://uci.or.kr//G901:A-0006048162@N2M
이민수,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2021, 129-169,
https://doi.org/10.35160/sjekh.2021.08.38.129
최진열, 「漢初 郡國制와 지방통치책-張家山漢簡〈二年律令〉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9, 2004,
https://doi.org/G704-000250.2004..89.006

2. 한문 문헌

『舊唐書』(劉昫 等修, 北京: 中華書局, 1975)
『新唐書』(歐陽修·宋祁 撰, 北京: 中華書局, 1975)
『資治通鑑』(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北京: 中華書局, 1956)
『唐六典』(李林甫 等撰, 陳仲夫 點校, 北境: 中華書局, 1992(2005重印))
『太白陰經』』(唐 李筌, 中國兵書集成(2),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册府元龜』(王欽若 等編纂, 周勛初 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張家山漢墓竹簡』(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文物出版社, 2001)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3. 중국어 문헌

姜浩, 「隋唐造船業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4.
龔昌奇·席龍飛, 「隋代五牙舰及其復原研究」, 『武漢理工大學學報』 2004-4, 2004

喬鳳岐,『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中國社會出版社, 2010
軍事科學院 主編,『中國軍事通史』 第九卷·第十卷, 軍事科學出版社, 1998
金秋鵬,『中國古代的造船與航海』, 中國青年出版社, 1985
南京博物院,「如皐發現的唐代木船」,『文物』 1974-5, 1974, 84-90
唐志拔,『中國舰船史』, 海軍出版社, 1989
頓賀·程雯慧,「中國古代船泊的造型特徵研究」,『武漢理工大學學報』 2004-3, 2004
梁方仲,『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房仲甫·李二和,『中國水運史』, 新華出版社, 2003
房仲甫·姚斕,『哥倫布之前的中國航海』, 海洋出版社, 2008
商丘市文物工作隊,「河南永城市侯嶺唐代木船」,『考古』 2001-3, 2001

席龍飛,『中國造船史』, 湖北教育出版社, 2000
孫光圻,『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2005
楊秀祖,「隋煬帝征高句麗的幾個問題」,『通化師院學報』 1996-1, 1996
王冠倬,「從文物資料看中國古代造船技術的發展」,『中國歷史文物』 1983
王冠倬,『中國古船圖譜』, 三聯書店, 2000
王賽時,「論唐代的造船業」,『中國史研究』 1998-2, 1998, 70-77
王崇煥,『中國古代交通』, 商務印書館, 1996
于賡哲,「貞觀十九年唐對高麗的戰爭及其影響」,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0
———,「隋·唐兩代伐高句麗比較研究」,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2003
于振波,「走馬樓戶籍性別與年齡結構分析」,『走馬樓吳簡初探』, 臺北: 文津出版社, 2004, 123
———,「走馬樓戶籍簡性別與年齡構造補論」,『走馬樓吳簡續探』, 臺北: 文津出版社, 2007, 54
熊義民,「唐代海軍初探」,『史學月刊』 2002-11, 2002, 18-23

———, 「從平百濟之役看唐初海軍」,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3
劉炬·姜維東, 『唐征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 2006
劉景華, 「鄭和以前中國造船技術的歷史考察」, 『長沙電力學院學報』
1994-1, 1994
劉希爲, 『隋唐交通』, 臺北: 新文豐出版印刷公司, 1992
林聲, 「中國古代的"車船"-中國古代造船史料彙考之一」, 『鄭州大學學報』
1997-1, 1997
張劍光, 「隋唐五代江南造船業發展」, 『江蘇技術師範學院學報』 24-1,
2009
張國亮, 「唐征高句麗之戰的戰略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張靜芬, 『中國古代的造船與航海』, 商務印書館, 1997
張澤咸, 『唐代工商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程曉, 「我國古代造船技術的興衰及其啓示」, 武漢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中國古代造船發展史編寫組, 「唐宋時期我國造船技術的發展」,
『大連理工大學學報』 1975-4, 1975
祝慈壽, 『中國古代工業史』, 學林出版社, 1988
馮普仁, 『吳地文化交通』, 南京大學出版社, 1997
夏自金, 「隋唐五代時期西南地區造船業研究」, 重慶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闞緒杭·龔昌奇·席龍飛, 「隋唐運河柳孜唐船及其拖舵的研究」,
『哈爾濱工業大學學報』 2001-4, 2001

(Abstract)

The Warship or Freighter Manufacturing in Goguryo-Tang War(644-648) and Fiscalities : The Analysis of ship building cost and mobilized subject

Choi JinYeoul

This thesis is the analysis of ship building cost and mobilized subjects in Gogurto-Tang war in 644-648 and fiscalities.

Tang built 900 ships in 644, 1,350 ships in 647, and at least 1,100 ships or warships in 648, respectively. The number of ships allocated to the Jiannan province, which is located southwest of Chang'an, the capital of the Tang Dynasty and present Sichuan province in 648 is unknown as it is not recorded in historical records, but Tang Taizong built at least 3,350 ships for the invasion of Goguryeo. Tang Taizong order to built ships on a large scale to transport soldiers and provisions.

The cost of building a ship accounted for 17.4% of the estimated total amount of financial revenue under Tang taxation system called zu yong diao in 644, 26.1% in 647, and at least 21.2% in 648, respectively. This is the percentage of shipbuilding costs in the annual budget for the year.

In short, the total cost of the 3,350 ships built in 3 years corresponds to 64.7% of the annual budget, calculated by statistical data based on population in 639. it was stated that the state borne the cost of building ships imposed on the Jiannan province in 648. But mobilized subjects for warship or freighter manufacturing in other region probably worked for free the burden of the mobilized people was heavy.

Keywords : Warship, Freighter, Ship Building Cost, Mobilized Subjects, Financial Burden, Goguryo-Tang War, Epitaph of Qiang Wei, Navy, Goguryo, Ta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35-75
https://doi.org/10.29212/mh.2023..127.3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임진왜란을 보는 '새로운' 창

-『經略復國要編』의 재조명과 사례 분석 -

박민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김영진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목 차

1. 머리말
2.『經略復國要編』의 편찬과 구성
3.『經略復國要編』을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
가. 엇갈린 '전략'과 '전술': 명군의 평양성 전투
나. 놓쳐버린 '골든 타임': 강화교섭과 출구 전략
4. 맺음말

초 록 『경략복국요편』은 임진왜란 초반 명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경략 송응창이 남긴 기록으로, 명 조정이 조선을 구원한 배경과 출병 과정, 명군의 세부적인 전략과 전술, 그리고 평양성 전투 등 각종 전투와 강화교섭의 진행 등을 중국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매력적인 사료이다. 16세기 말 동아시아 삼국이 참전한 국제전으로서 임진왜란의 다양한 문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경략복국요편』의 편찬과 전승 과정을 살펴보고, 권별로 주요 내용

을 정리하여 차후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소개한다. 또한 앞으로 『경략복국요편』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연구 사례를 실험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 학계의 임진왜란 연구가 '새로운' - 신선하고, 새삼스러우며, 꼭 필요한 - 발전을 꾀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경략복국요편(經略復國要編)』, 송응창(宋應昌), 임진왜란, 동아시아 국제전, 명군(明軍), 평양성 전투, 강화교섭

(원고투고일 : 2023. 3. 28, 심사수정일 : 2023. 5. 18, 게재확정일 : 2023. 6. 5.)

1. 머리말

"새로운"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다른 사전적 의미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신선함'[ex. 새로운 상품], 둘째,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새삼스러움'[ex. 볼수록 새로운 신록], 그리고 셋째,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없어서 아쉬운 '간절함'[ex. 단돈 만 원이 새로운 형편]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의미는 언뜻 비슷해 보여도 각기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이 "임진왜란을 보는 새로운 창"이라는 다소 도전적인 제목을 선택한 이유도, ① 지금까지 잘 활용되지 못했던 사료를, ②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새삼스럽게 재조명함으로써, ③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명나라까지 각자의 국력을 기울여 맞붙은 동아시아 국제전이었고, 삼국의 역사적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사건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한·중·일 삼국에 전해지는 다양한 관련 사료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다.[1] 한국에서는 2007년 발족한 한일문화기금의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제2기 사업에서 임진왜란 관련 사료의 본격적인 목록과 해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조선에서 만들어진 임진왜란 관련 기록을 관찬 사료, 친필 필사본, 야담·야사류, 문집류, 실기류 등으로 분류하여 상세한 해제를 내놓는가 하면,[2] 개별적인 사료 검토에서 벗어나 목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1) 陳尙勝·趙彦民·孫成旭·石少穎, "地區性歷史與國別性認識 -日本,韓國,中國有關壬辰戰爭史研究述評", 『海交史研究』, 2019-4.
2) 이상훈, "임진왜란관련 사료해제", 한일문화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2010.

구축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거나,[3] 일본 측 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과 해제가 한국어로 소개되기도 하였다.[4] 또한 일본에서 만들어진 임진왜란 관련 기록을 초기 문헌 및 다이묘별 문헌, 『太閤記』류, 『朝鮮征伐記』류, 『朝鮮軍記物』류 등 총 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기록에 대한 상세한 해제 및 소장처 정보를 제시한 연구도 국내 임진왜란 연구에 유용한 자양분이 되었다.[5]

한편 각국 사료의 개별적 정리와 검토를 바탕으로 이제는 삼국의 사료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시야 안에 넣는 거시적 관점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 및 외교와 관련해서 특정 국가의 사료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경우,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또 다른 편향과 오해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6] 그간 한국 학계의 임진왜란 연구 또한 조선과 일본 측 사료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국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명 측의 역할과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중국 측 자료 가운데 널리 활용된 것은 관찬 사료인 『明史』와 『明神宗實錄』, 谷應泰의 『明史紀事本末』, 談遷의 『國榷』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明史』 가운데 임진왜란 시기

---

3) 김일환, “임진왜란 편년사 집성 및 주제별 DB구축의 필요성”, 『이순신연구논총』 29, 2018.

4) 사에키 고지 · 스카와 히데노리 · 구와노 에이지 편, “중세 근세 일한관계 사료해제집”,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서울: 한일문화기금, 2010.

5) 최관 · 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해제 : 근세』, 서울: 문, 2010.

6) 이러한 맥락에서 기타지마 만지는 제1 · 2차 평양성 전투, 벽제관 전투 등을 한 · 중 · 일 삼국의 사료를 통해 재구성하고, 각국 사료의 서술 방식을 논하면서 교차 검증을 통해 철저한 사료 비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기타지마 만지, “임진왜란에 관한 일본 · 한국 · 중국의 사료와 그 특질(壬辰倭亂に關する日本 · 韓國 · 中國の史料とその特質)”, 한일문화기금 편, 『한일양국, 서로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서울: 경인문화사, 2017, pp.13-99.

에 해당하는 「神宗本紀」의 경우 萬曆 20년(1592)[7] 5월 "왜가 조선을 침범하여 왕경(한양)을 함락하였고, 조선 왕 昖(선조)이 의주로 도망하여 원조를 요청하였다."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주요 전투 및 명군 지휘부의 임면 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8] 또한 『명사』에는 「職官志」, 「兵志」, 「武備志」와 더불어, 列傳 중에서는 「朝鮮列傳」에서 전체 1/3가량의 분량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설명에 할애하고 있으며, 야전에서 활약했던 李成梁의 아들인 李如松, 李如伯의 열전 등도 수록하고 있다.[9] 『明神宗實錄』 또한 임진왜란 발발 직전 명 측이 파악한 일본의 동향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시기 명군의 전쟁 준비, 조·명 및 명·일간 교섭 상황과 명 조정 내부의 동향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10]

기사본말체 사서인 谷應泰의 『明史紀事本末』[11]은 「援朝鮮」 편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의 주요 사건을 서술했는데, 이는 『명사』 「조선열전」에 수록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서술의 저본이 되었다.[12] 그리고 편년체 사서인 談遷의 『國榷』은 일본의 조선 침공 소식을 시작으로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서술하되, 평양성 함락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評語를 남기기도 하였다.[13]

---

7) 이하 본고의 날짜 표기는 모두 음력이며 해당 연도의 정월 초하루가 속한 서력 연도를 괄호로 병기한다.

8) 『明史』(北京: 中華書局, 1980) 卷20, 本紀二十, 「神宗」, p.275.

9) 『明史』의 「朝鮮列傳」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중국사서 조선전 역주사업의 결과로 2004년 번역 출판되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10) 『明神宗實錄』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명·청실록 DB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1) 谷應泰 編, 『明史紀事本末』, 北京: 中華書局, 1985.

12) 황원구, "『明史紀事本末』 "援朝鮮" 辨證 -明史稿·明史 關係記事의 底本問題", 『東方學志』 48, 1985, pp.301-302.

13) 談遷 著, 張宗祥 校點, 『國榷』, 北京: 中華書局, 1988.

이상의 자료들은 명대 전체 시기를 포괄하는 사서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시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통사적 사료에 남겨진 史實 또한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특정 사건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현장성 높은 자료가 좀 더 매력적일 것이다. 梁啓超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그때[當時], 바로 거기[當地], 바로 그 문제를 담당[當局]'한 사람이 남긴 사료일수록 더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14] 이러한 측면에서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가장 가까운 시간과 공간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이 작성한 중국 측 자료 중 하나가 바로 宋應昌의 『經略復國要編』(이하 『경략』으로 약칭)이다.

『경략』은 임진왜란 초반 명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경략 송응창(1536-1606)이 남긴 기록으로, 만력 23년(1595, 선조 28) 전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목 그대로 "경략(송응창)이 조선을 회복시켜 준 일에 대한 중요한 문서를 엮은 책"이다.[15] 송응창이 경략으로 재임한 기간과 그 전후의 상주문·공문·명령서·편지 등을 엮은 것으로, 명 조정 각 部의 題本·奏本과 함께 조선과 주고받은 咨文까지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수록하였다.

---

14) 양계초 저, 유용태 역, 『중국역사연구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p.164-165.

15) 『경략』에 담긴 송응창의 표현을 그대로 따오자면, "1년 내내 힘을 다하여 조선이 이미 잃은 땅을 한 자 한 치까지 모두 옛 주인에게 돌려주고", "여러 대에 걸쳐 공순하였던 속국(조선)을 회복" 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명나라의 임진전쟁 2: 평양 수복』, 「#7-7 평양과 개성을 수복한 공적의 서훈을 아리는 상주(만력 21년 3월 4일)」, pp.354-379. 이하 『경략』에 수록된 문서를 인용할 때는 최근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번역 출판한 『명나라의 임진전쟁』 단행본(송응창 저, 구범진 등 역주, 『명나라의 임진전쟁: 송응창의 『경략복국요편』 역주』 1-5, 진주: 국립진주박물관, 2020-2021)을 기준으로 문서 번호와 제목, 일자와 페이지 수를 표기한다.

송응창은 杭州 仁和縣 출신으로 嘉靖 44년(1565)에 進士가 되어 관직에 진출하였다. 만력 20년(1592) 7월에 1차로 파병된 副總兵 祖承訓이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명 조정은 兵部侍郎 송응창을 經略軍門으로, 都督同知 李如松(1549-1598)을 提督軍務로 삼아 4만여 명의 명군을 조선으로 출병시켰다. 송응창은 조선에 파병된 명군의 총책임자로서 병력 · 무기 · 군량 · 급여를 지원하고 이동시키는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북경의 황제 및 실무자에게, 후방인 遼東과 山東 지역의 군관과 지방관에게, 최전선의 사령관 이여송 이하 모든 장령에게, 그리고 조선 국왕과 신료에게 하루에 많게는 10여 통의 공문서와 사적인 편지를 주고받으며 전쟁의 거의 모든 과정을 조율했다. 송응창은 평양과 한양을 수복하는 공을 세웠지만, 벽제관 전투 이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고 寧波를 통해 조공하도록 하는 封貢案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조정과 명 조정의 主戰派, 감찰을 담당한 科道官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탄핵당하여 본국으로 소환되었다. 이후 고향에 내려가 은거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전쟁 수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저술한 책이 『경략』이다. 말하자면 『경략』은 송응창이 임진왜란에 대해 남긴 공적인 기록임과 동시에 매우 사적인 기록으로서, '보고'와 '소명'을 위한 생생한 현장의 증거였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임진왜란 연구가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경략』 판본을 이용해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참전과 그 정치적 영향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했다.[16]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략』은 한국사 영역의 임진왜란 연구에서 명 측의

16)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입장을 살펴보기 위한 사료로 주목받기 시작했다.[17] 특히 최근 발간된 임진왜란의 통사는 종전 연구에서 강조된 조선 및 일본 사료와 더불어 『경략』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임진왜란 초반 명군의 참전 상황과 함께 '전쟁'보다 훨씬 치열했던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그려냈다.[18]

이렇게 새로운 임진왜란 연구 경향의 연장선에서 본고는 『경략』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경략』의 편찬과 전승 과정을 살펴보고, 권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차후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앞으로 『경략』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연구 사례를 실험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임진왜란 연구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기존의 자료와 관점에 어떻게 반영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새삼 거리를 두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경략』의 '새로운' 재조명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전으로서의 임진왜란 연구에 대한 학문적 영감과 외연이 더욱 풍부해지고 넓어지기를 희망한다.

---

17)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오호성, 『임진전쟁과 조·명·일의 군수시스템』, 서울: 경인문화사, 2017.
18) 김영진, 『임진왜란 : 2년 전쟁 12년 논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2. 『經略復國要編』의 편찬과 구성

『경략』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목 첫머리에 보이는 '경략'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략은 명 조정이 송응창에게 부여한 직책의 명칭으로서, 그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만력 20년(1592) 9월에 내린 만력제의 勅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 지금 특별히 그대에게 명하노니, 薊州 · 遼東 · 保定 · 山東 등지로 가서 沿海를 방어하고 왜를 막는 軍務를 경략하라. 그대는 마땅히 兵部에서 題本을 올려 윤허 받은 내용에 따라 要害處 방어, 墩臺 건설, 戰船 제조 감독, 火砲의 대량 확보, 士氣 고무, 왜정 정찰 등 싸우고 지키며 위무하고 토벌하는 일체의 사무를 모두 편의대로 처리하라. 兵馬와 錢糧을 알맞게 조치하고 使司 · 道員 · 將領에게 편의대로 임무를 맡겨 파견하라. 총독과 더불어 계획하거나 의논해야 할 일은 충분히 상의하여 행하되, 선입견을 고집하지 말고 國事에 이롭기를 기약하라. 總兵 · 巡撫 이하는 모두 너의 지휘를 받는다.[19]

송응창이 받은 경략의 임무는 일본군과 대적하는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했고, 그 모든 것을 편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순무 이하의 모든 문관과 총병관 이하의 모든 무관이 그의 지휘에 따라야 할 만큼 명군을 대표하는

19)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0-1 칙(만력 20년 9월 26일)」, p.52.

가장 중요한 직위였다. 이처럼 『경략』은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거의 모든 인원과 분야를 지휘하고 관장했던 경략 송응창과 관련된 문서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명 측의 핵심적인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만력 22년(1594) 송응창은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한 일부 신료들의 탄핵으로 인해 경략에서 물러나 은거에 들어갔다. 그 후 『명신종실록』에 송응창의 이름은 만력 24년(1596)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일본국왕 책봉이 무산된 뒤 그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서 일부 등장할 뿐이고, 이듬해 신임 경략 邢玠(1540-1612)가 군대 동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례를 원용한 정도이다. 『國榷』에서도 만력 27년(1599) 퇴임 관원들의 처우를 언급하면서 송응창에게 관인 신분을 유지하게 하라는 기록이 그와 관련한 마지막 흔적이다.[20]

만력 23년(1595)경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략』의 전승 또한 온전치 못했다. 만력 연간 王在晉(1567-1643)의 『海防纂要』에는 송응창이 작성한 圖 부분과 상주문 몇 편만 실려 있으며, 그 출처는 권수가 기록되지 않은 "平倭復國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후 黃虞稷(1629-1691)의 『千頃堂書目』에서도 송응창의 "朝鮮復國經略要編 6권"으로 책수를 권수로 잘못 수록했으며, 이를 따른 『明史』「藝文志」에서도 "經略復國"이라는 이름으로 송응창의 저작을 실었다.[21]

흥미로운 사실은 정유재란 시기였던 만력 26년(1598, 선조 31) 6월 23일 『선조실록』의 기사에 "송응창이 지은 『復高要編』"이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덕형은 이 『復高要編』을

20)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pp.36-37.
21)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pp.38-39.

살펴보고서, 송응창이 "왜적은 전라 · 황해 · 평안도 등을 경유한 뒤에야 중원 땅에 다다를 것이니 필경 이렇게 될 리는 만무하다."라고 기록한 부분을 지적하며, "천하를 그르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22] 이덕형이 인용한 문장은 송응창이 圖說 부분에서 "만약 전라 · 경상을 지키지 못하면 이는 조선을 잃는 것이다. 이미 조선을 잃었다면 왜적들이 육로로 요동을 침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염려하기에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23] 이덕형은 임진왜란 당시 명과의 외교교섭을 전담한 인물로서 명 측의 속 사정에 능통했고, 임진왜란 초기 명군의 강화교섭 및 철군의 부당함을 힘써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덕형이 『경략』에 내린 악평에는 당시 명군의 총책임자였던 송응창을 깎아내리려는 분명한 의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24]

한편 청조 乾隆 연간(1736-1796)에 『경략』은 제목에 있는 '復國'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禁書로 분류되었다. 물론 여기서 '復國'은 '조선을 돌려놓는다'라는 뜻이지만, 만주족 청조의 입장에서는 체제 전복의 '反淸復明'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軍機處奏准全燬書目』에 등재된 금서가 되었다.[25] 자연히 『경략』은 『四庫全書』에도 포함되지 못했으며,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侯繼國이 지은 『兩浙兵制』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일종의 비교 대상으로서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당시 『四庫全書總目提要』의 찬수자가 문제 삼은 것은 『兩浙兵制』의 「倭警始末」 부분에서 조선국왕 선조가 올린 상주문이

22) 『선조실록』 卷 101, 선조 31년 6월 23일.
23)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0-2 중국과 조선 연해 지도 서문(만력 22년)」, p.59.
24) 이철성, "李德馨의 임진전쟁 중 외교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7, 2007, pp.12-14.
25)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pp.39-40.

실려있는 반면, 『경략』에는 이 문서가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찬수자는 당시 遼東巡按御史 周維翰이 송응창을 고발한 문서 등이 『경략』에 실리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송응창이 명 조정에 倭情을 거짓으로 전달했다는 여러 증거들을 일부러 넣지 않고 은폐했다고 비판했다.[26]

현재 시점에서 『경략』에 실리지 않은 내용들은 조선 및 일본 측 자료들과의 교차 검증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송응창에게 불리한 문서들이 『경략』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차후 흥미로운 연구 소재를 제공해 줄 수 있다.[27] 다만 『四庫全書總目提要』의 찬수자 입장에서는 『兩浙兵制』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목적하에 『경략』이 누락한 정보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송응창과 『경략』 전반에 대해 "자신의 공적만을 늘어놓고 자신의 허물을 숨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시 『경략』이 금서로 분류되었다는 점 또한 당시 찬수자가 거리낌 없이 오명을 부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략』이 송응창 개인의 강화교섭 노선에 대한 변론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형성된 계기는 바로 이 『四庫全書總目提要』에 실린 평가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28]

---

26) 『四庫全書總目提要』 卷100(子部10, 兵家類存目), 『兩浙兵制』. 한편 여기서 언급된 조선국왕의 상주는 謝恩使 金睟가 가져간 것으로, 만력 21년(1593) 6월 이래로 일본군의 정세를 보고하면서, 일본군이 공순히 명의 조공과 책봉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폭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외교문서의 요약본은 이정일 편, 『국역 사대문궤 2』,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0, pp.247-259 참조.

27) 일례로 『경략』 및 조선·일본 측 사료를 토대로, 명·일본 간 강화교섭이 진행되던 시기 송응창이 단행한 정보 통제를 지적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김경태, "임진전쟁기 경주 안강 전투와 강화교섭 국면의 변동", 『한국사학보』 62, 2016.

28)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의 임진왜란 연구자인 孫衛國의 경우 『경략』을 주된 사료로 이용하기는 했지만, 『경략』의 문제점을 지적한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평가가 타당함을 주장하면서 『경략』이 송응창의 자기변호를 위한 목적에서 송응창 위주의 자료들로 구성된 점, 『경략』에는 누락된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략』이 가

비록 건륭 연간 금서로 분류되고 『四庫全書』에도 수록되지 못했지만, 『경략』은 徐乾學(1631-1694)의 『傳是樓書目』을 비롯한 여러 장서 목록에 보존되었다. 청조가 멸망하고 남경 국민정부가 들어선 시기인 1929년에 南京 國學圖書館(현 南京圖書館)의 관장이었던 柳詒徵(1880-1956)은 국학도서관 소장 자료 가운데 청말 장서가 丁丙과 丁申 형제의 장서 『八千卷樓』에 수록된 『경략』의 역사적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개탄하며 영인을 추진하였다.[29] 또한 당시 國立中央大學(현 南京大學) 교수였던 繆鳳林(1899-1959)이 『경략』에 대한 상세한 提要를 작성하고,[30] 黃汝亨이 지은 송응창의 行狀과 송응창의 부인 淑人 顧氏의 묘지명을 추가하여 國學圖書館 影印本이 간행되었다.[31]

『경략』의 1929년 국학도서관 영인본은 대만에서 1968년 華文書局이 재영인하여 『中華文史叢書』로 간행하였고, 1973년 간행된 『明淸史料彙編』과 1986년 간행된 『中國史學叢書三編』에도 수록되었다.[32] 한편 중국에서는 국학도서관 영인본을 재영인한 것이 1990년에 간행된 『壬辰之役史料匯輯』과 2004년 간행된 中國文獻珍本叢書의 『朝鮮史料彙編』에 수록되었으며, 2013년 간행된 『中國古代海島文獻地圖史料匯編』에는 『경략』의 圖 부분이 따로 수록되었다.[33] 2020년에는 浙江大學出版社에서 點校本이 출간된

지는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孫衛國, "萬曆援朝戰爭初期明經略宋應昌之東征及其對東征歷史的書寫", 『史學月刊』, 2016-2, pp.46-50.

29) 『명나라의 임진전쟁 4: 전후 처리』, pp.415-419.

30)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pp.23-47.

31) 『명나라의 임진전쟁 4: 전후 처리』, pp.356-358, 399-414.

32) 宋應昌 撰, 『經略復國要編』, 臺北: 華文書局, 1968; 沈雲龍 編, 『明淸史料彙編』 8輯, 臺北: 文海出版社, 1973; 宋應昌 撰, 『經略復國要編』,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6.

33)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出版 編, 『壬辰之役史料匯輯』 上册, 北京 : 新華書店, 1990; 姜亞沙 · 經莉 · 陳湛綺 編, 『朝鮮史料匯編』15-16册,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制中心, 2004; 王士騏 編, 『中國古代海島文獻地圖史料匯編』, 香港: 蝠池書院出版有限公司, 2013.

바 있다.[34)]

이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략』에 수록된 여러 문서의 작성일자 및 주요 내용을 권별로 요약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경략』은 만력 20년(1592) 8월부터 이듬해인 만력 21년(1593) 12월까지 송응창이 경략으로 재임하던 기간 작성하고 발송한 다양한 공적·사적 문서와 더불어, 후임 顧養謙(1537-1604)에게 인계하고 나서 유통된 문서들 가운데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는 문서와 지도 등 도합 584개 문서를 총 14권과 2권의 부록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표 1〉『경략』의 전체 구성과 권별 주요 내용

구분	일 자	문서 수	주요 내용
勅	만력 20년 9월 26일 (1592.10.30)	1	만력제의 송응창 임명 칙서
圖	만력 22년 (1594)	2	송응창이 작성한 沿海四鎭圖, 朝鮮圖 및 序文, 圖說
附	만력 20년 5월-9월 (1592.6~10)	16	명 조정에서 임진왜란 소식을 처음 접하고 대책을 논의한 상주문
卷1	만력 20년 8월-9월 (1592.9~11)	16	송응창이 경략 임명 이후 조선 출병 준비를 위해 병부 및 각 지역에 전달한 문서
卷2	만력 20년 10월 (1592.11~12)	55	
卷3	만력 20년 11월 (1592.11~1593.1)	46	송응창이 조선 출병 준비를 놓고 조정과 협의한 문서, 군량 수송과 관련해 작성한 문서, 모든 장령에게 내린 명령문
卷4	만력 20년 12월 (1593.1)	38	명군 본대의 진군과 관련해 작성한 문서, 평양성 탈환을 위한 전술 논의
卷5	만력 21년 정월 (1593.2)	89	평양성 전투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 평양성 전투의 승전보 전달, 차후의 전략 및 전비 태세 논의
卷6	만력 21년 2월 (1592.3)	54	명군의 한양 진격 과정에서의 군량·병력 증원 방안, 전공 포상과 처벌 논의

34) 宋應昌 撰, 鄭潔西 · 張穎 點校, 『經略復國要編』,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20.

卷7	만력 21년 3월 (1593.4)	32	공적 서훈을 명 조정에 전달, 평양 · 개성 · 벽제관 전투의 전투 경과보고, 일본과의 화의 관련 논의
卷8	만력 21년 4월-5월 (1593.5~6)	56	일본과의 강화교섭 관련 논의, 한양 수복 이후 일본군 추격 방안 및 명군의 퇴각 준비와 조선 방어선 구축 관련 논의
卷9	만력 21년 6월-7월 (1593.6~8)	34	일본군 추격 및 요충지 방어 전략, 일본과의 강화교섭 관련 논의
卷10	만력 21년 8월 (1593.8~9)	42	명군 본대 철수 및 조선 留守軍 배치와 조선 방어선 구축, 장병 포상 논의, 강화교섭 관련 논의
卷11	만력 21년 9월-10월 (1593.9~11)	40	유수군 정비 및 방어 체계 확립 관련 논의, 광해군 南下 요구
卷12	만력 21년 11월 ~ 윤11월 (1593.11~1594.1)	26	강화교섭 진행에 대한 송응창의 해명 및 전황 보고, 경주 안강에서의 일본군과 전투 상황 보고, 송응창의 파직 상주문
卷13	만력 21년 12월-3월 (1594.1~1594.5)	10	경략 파직 이후의 사후 처리 관련 문서, 경략 재직 중 출병의 성과 보고, 전비 · 포상 등 각종 비용의 결산 장부
卷14	만력 22년 4월 (1594.5)	3	경략 파직 이후 강화교섭안에 제기된 비판에 대한 변론
	-	2	송응창의 귀국을 만류하는 조선 耆老들의 軸文
後附	만력 22년 8월 ~23년 정월 (1594.10~1595.2)	19	조선 출병군의 서훈 논의 및 승전 선포 의례 관련 문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국왕 책봉 관련 논의
	-	3	송응창의 행장 및 묘지명, 발문

우선 勅은 송응창을 경략으로 임명한 만력제의 칙서인데, 앞서 살펴본 대로 송응창에게 연해를 방어하고 왜를 막기 위해 모든 사무를 맡기고, 일본군이 天朝의 처벌을 받고 조선이 上國의 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한 내용이다. 이는 곧 임진왜란 초반 송응창에게 부여한 책무를 설정함과 동시에, 명군의 참전 목적이 연해 지역의 방어와 일본군의 저지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음 圖는 송응창이 경략에서 물러난 뒤 만력 22년(1594)에 작성한 것으로, 만력제에게 상주한 중국 및 조선 연해 지도와 더불어, 지도의 서문 및 간략한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송응창은 지도의 서문과 설명을 통해 전라도와 경상도를 지

키지 못하면 조선을 잃는 것임을 주장하며 이 두 지역 방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일본군이 조선을 점령하여 육로를 통해 요동 방면으로 침범하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해로를 통해 명의 연해 지역으로 침범하는 것은 명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또한 송응창의 우선순위가 명의 연해 지역 방위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附에는 명 조정에서 임진왜란 소식을 처음 접하고 대책을 논의한 상주문 16건이 실려 있다. 이 중에는 일본의 목적이 명 내지로 침투한다는 데 있다는 인식하에 요동과 연해 지역의 국내 방어 강화를 역설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본군이 개성과 평양 일대를 점령하고 선조가 평양을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시점부터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나라 밖에서 일본군을 요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선조가 의주로 피신하여 요동으로 入朝를 청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병부는 조선으로의 파병을 결정하고 만력제의 재가를 얻어내었다. 이렇게 附에 실린 명군 파병 전야에 제기된 상주들은 여타 사료들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명군 파병 직전 명 조정의 임진왜란 관련 인식 및 의사결정 과정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하 卷1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각각의 문서에 제작된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시간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권1에서 권7까지는 매 권이 1개월 분량이고, 권8에서 권12까지는 권10을 제외하고 모두 2개월 분량이다. 권13과 권14는 송응창이 사직하고 신임 경략 고양겸과 교대하는 시점 전후의 상주문이 실려 있다. 비록 권별로 문서 수와 분량 등이 큰

편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각 권에 실린 문서들은 특정 시기 명군의 전투 관련 보고와 더불어 명군이 당면한 주요 사안을 기준으로 크게 다섯 가지 국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국면인 권1-3에서는 만력 20년(1592) 5월과 11월까지 전쟁 발발 초창기의 문서들이 실려 있다. 명 조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공 사실을 파악하고 조선과 일본의 정세 및 이에 대한 방책을 논의한 결과, 병부우시랑 송응창을 경략으로 임명하여 조선으로 東征軍을 파병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아울러 송응창이 각지에서 병사들을 동원하고, 원정에 필요한 각종 병기, 군량 및 각종 비용의 징발과 더불어, 이러한 물자들을 수송하는 방안까지 강구한 흔적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부분을 통해서 당시 명 조정이 조선에서 벌어진 전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전쟁 이전 방어 및 전비 태세 등은 어떠했고, 전쟁 직후 진행된 명군의 동원 규모와 절차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기록에서는 조선으로의 원정 준비 못지않게 북경 일대의 해안 방어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곧 일본군의 철저한 구축을 원했던 조선 측과, 자국 영토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선에서 전쟁을 매듭지으려 했던 명 측의 확실한 온도 차이를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국면인 권4-5에서는 만력 20년(1592) 12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이루어진 조선-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송응창이 화기를 활용한 제압사격 및 포위섬멸을 골자로 하는 전략·전술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각종 준비를 진행했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군량과 무기의 조

달 등 명군의 군정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차후 조선에서 일본군과의 교전을 논의한 각종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평양성 전투 승리 이후 세 번째 국면인 권6-7에서는 만력 21년(1593) 2월과 3월 사이 명군이 한양으로 진군하는 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대목에서는 명군이 행군 중에 악천후와 전염병으로 고초를 겪는 상황, 銀 경제가 발전한 명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은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아 물자의 동원이 어려운 상황 등을 서술하고 있다.[35] 흥미로운 점은 통상적으로 명군의 패배라고 알려진 벽제관 전투가 『경략』에서는 평양, 개성에 이은 세 번째 대첩으로 현창되고 있다는 것이다.[36]

네 번째 국면은 강화교섭 단계로 권8-11에는 만력 21년(1593) 4월 명·일 간의 강화교섭으로 일본군이 한양에서 철수한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명 조정 내 강화교섭 반대론자들의 반발로 송응창도 어쩔 수 없이 일본군 추격 노선으로 선회하기는 했지만, 당시 그의 주안점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된 명군의 퇴각과 留守軍을 중심으로 한 조·명 간 방어 전술 수립에 있었다는 증거가 다수 발견된다(후술). 만력 21년(1593) 7월경부터 일본 측이 강화를 진행하면서도 국지적인 군사도발을 일으키자, 송응창은 명군의 정예병인 南兵 부대를 경상도와 전라도의 요충지에 주둔시키며 대응하지

35) 임진왜란 시기 은을 중심으로 한 명 조정의 재정 문제와 명군의 물자 조달과 관련해서는 萬明, "萬曆援朝之戰時期明廷財政問題 -以白銀爲中心的初步考察", 『古代文明』 12-3, 2018을 참조.

36) 송응창은 벽제관 전투에 나선 이여송이 적은 수로 많은 수를 공격한 것, 피로한 병력으로 편안한 병력을 공격한 것 등 병법에서 꺼리는 것을 범하기는 했지만, 친히 장수들을 이끌고 용감히 혈전을 치른 끝에 왜의 두목을 사살하고 패퇴시킨 공적을 대대적으로 현창하였다(『명나라의 임진전쟁 2 :평양 수복』, 「#7-7 평양과 개성을 수복한 공적의 서훈을 아뢰는 상주(만력 21년 3월 4일)」, pp.354-379.).

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과의 강화교섭을 계속 진행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12-14에는 만력 21년(1593)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응창의 경략 임기 후반부의 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명 조정 내의 강화교섭 반대론자들의 비난이 격화되자, 원래 강화교섭안이 결코 자신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애써 해명하는 송응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송응창 자신이 명 조정에 거짓으로 제시한 일본군의 현황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누차 거짓된 보고를 일삼으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해당 부분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경략 경질이 결정된 이후 송응창이 그간 조선 원정에서 거둔 성과를 총괄하여 정리한 보고서의 디테일에 있다. 특히 송응창이 후임 고양겸과 인수인계를 마친 뒤 원정군이 그간 사용한 銀의 사용처와 數目을 상세히 기록한 결산 장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7] 그간 임진왜란에 투입된 명 측의 재정 부담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38]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연대기 기록이나 일부 관원의 상소에 언급된 단편적인 통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를 주요 근거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재정과 관련된 실제 수치는 '바로 그때[當時], 바로 거기[當地], 바로

37) 『명나라의 임진전쟁 4 : 전후 처리』「#13-8 지출 및 남은 마가은을 정리한 장부를 상부로 올린다는 상주(만력 22년 3월 6일)」, pp.138-157.

38) 2010년대 이후 발표된 전문적인 주요 연구논문만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의 군량 문제와 강화교섭 논의", 『역사와 담론』 70, 2014; 홍성구, "임진왜란과 명의 재정 -교과서 서술과 통설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 58, 2016; 萬明, "萬曆援朝之戰時期明廷財政問題 一以白銀爲中心的初步考察", 『古代文明』, 2018-3; 孫衛國, "萬曆朝鮮之役前期明軍糧餉供應問題探析", 『古代文明』, 2019-4; 陳尙勝, "壬辰禦倭戰爭初期糧草問題初探", 『社會科學輯刊』, 2012-4; Masato Hasegawa, "War, Supply Lines, and Society in the Sino-Korean Borderland of the Late Sixteenth Century," *Late Imperial China*, Vol.37, No.1, 2016.

그 문제를 담당[當局]'한 최고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지출 확정하여 보고한 통계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송응창이 남긴 세부적인 수치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39]

3. 『經略復國要編』을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

가. 엇갈린 '전략'과 '전술': 명군의 평양성 전투

만력 20년(1592) 12월 중순 명군 본대는 마침내 遼陽에 집결하여 압록강을 넘어 조선으로 진군했다. 명군 본대의 주된 목표는 우선 평양을 탈환한 뒤에 한양을 수복하는 것이었다.[40] 경략 송응창 또한 출진 준비가 한창이던 12월 초에 작성한 여러 문서에서 일본군의 주된 근거지를 평양과 한양으로 파악하고, 본대를 평양과 한양으로 출진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41] 이러한 대전략 아래 명군 본대는 전략적 교두보인 평양성 탈환을 위해 구체적인 전술 마련에 돌입했다.

---

39)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생략하지만, 해당 장부를 활용하여 임진왜란 초반 명군의 군비 지출 양상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 면밀한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추후 별고를 기약한다.

40)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0-5-13 병부의 상주(만력 20년 9월 25일)」, p.118.

41)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4-1 호부에 보내는 자문(만력 20년 12월 2일)」, pp.424-426.

만력 20년 12월 8일에 송응창이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명령에는 출병 초반 명군의 동원 상황 및 준비 태세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첨부된 단자에 기재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병부의 공문으로 동원한 병마의 수는 마병과 보병이 각각 절반으로, 이미 도착한 병력이 30,100명, 아직 도착하지 않은 병력이 17,900명이었고, 직할부대인 標下는 총 1,332명이 동원되었으며, 大將軍砲 · 滅虜砲 · 마름쇠 · 快鎗 · 三眼銃 · 筤筅 · 鑞鈀 · 탄환 · 활 · 화살 등 각종 화약무기와 병장기의 목록이 상세하다.[42]

송응창은 12월 17일 내각대학사 趙志皐와 張位에게 보고하는 서신을 통해, 평양성 탈환을 위한 전반적인 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송응창은 일단 沈惟敬이 제시한 강화 교섭책을 통해 평양을 얻는다면 전투력을 아껴서 한양을 탈환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劉黃裳과 袁黃, 그리고 이여송과 논의한 결과, 우선 심유경을 이여송에게 넘겨주어 동행하게 하고, 장차 평양에 근접하여 병력을 정비하고 기다리게 한 뒤에 심유경으로 하여금 일본군과 접선해 하루와 이틀 사이에 평양성에서 출성하게 하고 만약 일본군이 평양성을 나가지 않으면 즉시 군대를 이끌고 토벌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43]

다른 한편으로 송응창은 12월 19일 이여송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일본군의 군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조선의 관병이 일본군을 포위하고 있으니 속히 토벌할 것을 주장했으며, 심유경의 강화교섭 노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일깨웠

---

42)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4-10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명령(만력 20년 12월 8일)」, pp.444-452.

43)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4-26 내각대학사 조지고 · 장위에게 보고하는 서신(만력 20년 12월 17일)」, pp.488-489.

다.[44] 이어서 12월 23일 병부상서 石星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심유경의 강화를 통해 일본군의 진군을 늦춘 것은 명군 본대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때는 이로웠지만, 지금은 명군의 준비 태세가 완비되었고 일본군의 월동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봄여름이 오기 전에 일본군 토벌의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45] 또한 송응창은 12월 28일 이여송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병과도급사중 許弘綱이 심유경의 속임수를 비난했다는 점을 근거로, 심유경을 잘 대하면서도 그의 돌발 행동에 방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46]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송응창은 일단 심유경의 강화교섭 노선을 통한 일본군의 평양 철수를 꾀하는 계책을 실행은 하되, 해당 계책이 성공할 공산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본군을 토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만력 21년(1593) 정월 4일 평양성 전투가 임박한 시점에서, 송응창은 이여송과 찬획 유황상에게 보내는 격문을 통해 평양성 동측만 남겨두고 평양성을 포위하며 일본군이 동쪽으로 나와 대동강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타격한다는 전술 아래, 총 일곱 가지의 세부 작전 지침을 제시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① 각 문을 포위한 뒤 마름쇠를 여러 층 펼쳐서 적군의 요격을 방지하고 독화살과 화포를 통한 제압사격, ② 독화살 공격 이후 해독약을 지참한 병사를 보내서 성 내부의 정황을 파악한 뒤에 평양성 진입을 결정, ③ 차선책으로 마름쇠를 문밖 좌우에 깔고 중도의 달아날 길은 열어두고 화포로 성문을 부순 뒤

44)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4-28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편지(만력 20년 12월 19일)」, pp.491-492.
45)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4-31 병부상서 석성에게 보고하는 서신(만력 20년 12월 23일)」, pp.499-500.
46) 『명나라의 임진전쟁 1: 출정 전야』, 「#4-37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서신(만력 20년 12월 28일)」, p.510.

에 성 내에 별동대를 진입시켜 화공 개시, ④ 본대는 달아나는 일본군을 공격하거나 기회를 보아 성으로 돌입, ⑤ 성으로 돌입했을 때 일본군 장수는 생포할 것, ⑥ 백병전을 펼칠 때도 화기를 우선으로 하되 발포는 절도에 맞게 할 것, ⑦ 招降旗를 세워 조선 인민의 투항을 유도할 것 등이었다.[47]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사료에서는 이러한 송응창의 구체적 전략 수립이 잘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실제 전장에서 활약한 이여송의 용병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48] 『경략』에서 드러난 송응창의 평양성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경략』에 상세히 기록된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포진은 대체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명 측 사료들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투 양상을 비교해 보면 송응창의 사전 계획과 이여송의 실제 전공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은 본격적인 공세 이전부터 평양성 내의 일본군을 유인해서 피해를 줬고, 일본군은 야음을 틈타 명군 일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공세가 이뤄진 시점에서, 이여송은 직접 평양성 아래까지 육박해서 공격을 지휘하고 병사를 고무했다. 명군 진영에서는 평양성으로 포격을 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본격적인 병사들의 진군 이전에 일본군의 수비를 제압하는 역할이었고, 이러한 포격은 송응창이 염두에 둔 것처럼 攻城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여송이 주도한 명군의 평양성 공성 방식은 군대가 직접 성을 올라 공격하는 백병전

47) 『명나라의 임진전쟁 2: 평양 수복』, 「#5-8 제독 이여송, 찬획 유황상·원황에게 보내는 명령(만력 21년 정월 4일)」, pp.38-42.

48) 기타지마 만지, 2017, pp.18-23. 기타지마는 명 측 자료로서 『명사』와 『명신종실록』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明史紀事本末』 卷62, 「援朝鮮」과 『國榷』 卷76, 萬曆 21년 정월 갑술조의 내용과도 대동소이하다.

의 형태였다. 이러한 실제 전투 양상은 포격을 통한 일제사격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일본군을 동쪽 대동강 방면으로 퇴각시킨 뒤에 대동강을 건너는 틈을 노려 적을 격퇴한다는 전술을 강조했던 송응창의 의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아울러 송응창이 제시한 전략에서 일본군의 요격을 막는 수단으로 강조했던 마름쇠와 관련된 서술은 사료상 확인되는 평양성 전투의 양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명군, 심지어 이여송조차도 몸소 평양성 앞까지 육박한 점이나 일본군 또한 성을 나와 요격에 나선 점을 미루어 볼 때, 평양성 전투에서의 마름쇠는 송응창이 기대했던 것만큼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여송은 적군의 기동을 차단하는 마름쇠의 설치가 자신이 전개하려는 백병전을 위주로 하는 공성전에서는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판단하고 마름쇠의 설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송응창은 상황에 맞게 별동대를 보내서 적정을 파악해 군대를 대거 진입시키는 방안이나, 별동대를 잠입시켜 화공을 벌인 뒤에 본대를 진입시키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별동대의 활용은 모두 마름쇠의 설치와 독화살인 毒火飛箭 및 神火飛箭, 大將軍神砲를 위시한 화포의 화력전을 기본적으로 상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전장에서 이여송이 펼친 전술과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휘부에서 논의한 '紙上談兵'이 실제 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법도 없고, 실제 전장에서는 이치에 맞게 변화하는 '合變'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경략』에 보이는 송응창의 전략과 전술이 실제 전장에서 다르게 펼쳐진 것 또한 北虜와의 전쟁 경험이 풍부

한 야전 사령관이었던 이여송의 판단하에 변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알려진 평양성 전투의 양상이 원래의 계획과는 크게 달랐다는 점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조선 측 기록과 『明史』의 언급을 토대로 문관 송응창과 무관 이여송의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점, 두 사람의 불화가 평양성 전투 이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절강 출신 송응창이 기반을 둔 南兵과 요동 철령 출신 이여송이 이끄는 北兵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49]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경략』에는 평양성 전투 이후 송응창과 이여송이 군사의 운용을 놓고 벌였던 미묘한 신경전을 엿볼 수 있다. 평양성 전투 이후인 정월 14일에 참군 鄭文彬과 趙汝梅에게 보낸 편지에서 송응창은 자신이 구상했던 평양성 탈환을 위한 전술과 야전 사령관인 이여송이 주도한 평양성 전투의 실제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 仰城公(이여송)께서는 한번 북을 울려 평양을 함락하였으니, 이것이 세상을 덮을 만한 뛰어난 공임을 저는 기쁘게 알았습니다. 다만 존귀한 편지를 받아 보건대 유키나가와 겐소 등 여러 수령을 거의 사로잡을 뻔하였는데 다시 그물을 빠져나갔다고 하니 조금 유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듣건대 **㉠성을 공격할 때 사다리가 사방에서 모여들고 군사들이 용기를 떨쳐 먼저 올랐다고 하니, 이는 제가 생각하였던 공격하고 포위하는 방법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만 유키나가 등이 형세가 막히자 성루에 올라갔기에 사로잡을 수 없

49) 김경록,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2, pp.498-501; 김영진, 2021, pp.243-245; 한명기, 1999, pp.130-135; 孫衛國, 2016, pp.41-44.

> 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라면, ㉡화기를 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밤을 틈타 달아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설령 몰래 숨었다 하더라도 수만의 군중에서 어찌 알아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만약 내가 앞서 파견했던 정예병 두 부대를 대동문 좌우에 매복해 두거나 대동강 東岸에 매복해 두었다가 그 장수가 이르기를 이르러 호령을 내려 맞아 공격하고 또한 대군이 그를 뒤따랐더라면 그 장수는 앞뒤로 적을 맞이하게 되어 몸에 한 쌍의 날개가 생겨나도 결코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략…) 듣건대 ㉣성루를 포위하였을 때 대장군포도 도착한 것이 있었다고 하니 이것으로 공격하였다면 분명히 성루가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황이 없는 때에 이 한 수를 빠트렸으니, 비록 드높은 공훈에 누가 되지는 않겠지만, 실로 마땅히 뒷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50] (강조는 인용자)

우선 ㉠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명군 병력이 직접 평양성에 육박해 성벽을 오르는 것은 송응창이 생각한 최선의 전술이 아니었다. 다만 야전 사령관인 이여송이 직접 병사들을 독려하고 절강 병사들을 위시한 병사들이 성벽을 올라 명군의 깃발을 세우는 큰 전공을 세웠던 점과 송응창이 제기한 전략이 백병전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송응창은 명군이 백병전을 주공으로 하여 평양성을 함락시킨 것이 자신의 전술과 같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송응창은 ㉢을 통해 자신이 강조했던 전략, 즉 퇴각하는 일본군을 대동강 변에서 요격하여 섬멸한다는 계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을 대놓고 아쉬워했다. 비록 일부 사료에서 명군이 대동강 변으로 퇴각하는 일본군 3백여 명을 무찔렀다는 기록

50) 『명나라의 임진전쟁 2: 평양 수복』, 「#5-34 참군 정문빈 · 조여매에게 보내는 서신(만력 21년 정월 14일)」, pp.94-96.

이 존재하나,[51] 일본군 공격의 주안점을 대동강 변에서의 섬멸전으로 상정했던 송응창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 ㉣에서 송응창은 사전에 논의한 것만큼 평양성 공격에 화포의 사용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명군이 평양성으로 육박하며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본군이 평양성 내부의 누각으로 이동해 농성하는 상황에서 명군 진영에 화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서 적을 격멸하지 못하고 결국은 적을 도망치게 했다고 탓하였다. 달리 말하면 송응창은 명군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일본군 지휘부의 생포에 실패한 원인을 이여송이 지휘한 전장의 소극적인 화기 운용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이처럼 『경략』을 통해 종전 연구에서 『明史』 등의 사료들을 토대로 명군의 주요 공적으로 알려진 만력 21년(1593) 평양성 전투가 실제 송응창의 전략대로 온전히 전개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이 구상했던 전술과 실제 명군이 전개한 전술 사이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으며, 이를 놓고 후방에서 전체 국면을 지휘한 총지휘관인 송응창과 전방 야전의 총책임자인 이여송 간의 미묘한 신경전 또한 존재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51) 『燃藜室記述』 卷16, 「宣祖朝故事本末」; 『明史』 卷238, 「李成梁傳」, p.6194.

나. 놓쳐버린 '골든 타임': 강화교섭과 출구 전략

만력 21년(1593) 3월 용산에서 진행된 명·일본 간의 강화교섭과 관련하여 『선조수정실록』과 『연려실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심유경이 책봉사의 파견을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일본군의 한양 후퇴와 조선 왕자 및 신하들의 송환을 얻어냈다고 전한다.[52] 반면 『경략』에 수록된 4월 3일 이여송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일본군이 조선의 왕자와 신하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일본군을 공격 내지는 포위한다는 전술을 상정하고 있었다.[53] 그리고 송응창은 4월 15일 이여송 등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왕자와 신하들 및 인질이 될 왜장을 보낸 뒤에야 책봉 사신을 보낼 것을 주장하며, 일본군을 방어하면서 그들이 피폐해진 틈을 타 공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54]

용산에서의 강화교섭 타결 이후에도, 송응창은 일본 측의 강화교섭 조건 이행을 유심히 살폈다. 이는 명군이 한양에 들

---

52) 『선조수정실록』 卷27, 선조 26년 4월; 『연려실기술』 卷16, 「宣祖朝故事本末」. 조선 측 사료에서는 구체적으로 4월의 어느 시점에 강화교섭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경략』에서 만력 21년 4월 16일 송응창이 이여송에게 보낸 편지에 "심유경이 왜의 진영에 머무른 지 사흘째"라는 구절을 통해 심유경이 강화교섭을 위해 일본 측 진영으로 간 것이 4월 13일을 전후한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11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편지(만력 21년 4월 16일)」, pp.49-50). 아울러 4월 28일 이여송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심유경이 4월 말 시점에도 일본 측 진영에 계속 머물러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23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편지(만력 21년 4월 28일)」, p.77.).

53)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4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서신(만력 21년 4월 3일)」, pp.26-28.

54)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10 제독 이여송 등에게 보내는 서신(만력 21년 4월 15일)」, pp.47-48.

어온 시점인 4월 20일과 21일에 병을 이유로 한양에서 철수하지 않았던 일부의 일본군이 실제로 환자인지를 조사하게 한 것이나, 그들의 동향을 살피고 병이 나은 뒤에 돌려보낼 것을 당부하며 일본군의 완전한 한양 철수를 의도했던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55] 일본군이 한양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뻐하면서도 송응창은 전라도에 신칙하여 가토 기요마사를 가로막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제의하면서, 조선 왕자와 신하들 그리고 인질이 될 왜장을 확보해야만 완전한 공적이 될 수 있다며 강화협상 조건의 이행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56]

일단 강화 노선으로 선회한 이상, 송응창은 이에 반발하는 조선을 설득하는 한편 견제해야 했다.[57] 조선이 명과 일본 사이의 강화교섭을 방해하거나, 명군의 실책을 명 조정에 고발하여 자신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송응창 이하의 명군 지휘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명 조정 내의 분위기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진격도 후퇴도 명 조정에서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58]

한양을 수복한 직후 송응창은 곧바로 일본군의 추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송응창은 일본군이 후퇴 과정에서 사방으로 흩어질 것을 우려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바다를 차단하게 하고, 이여송 또한 기회를 틈타 공격 준비를 해둘 것을 지

---

55)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14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명령(만력 21년 4월 20일)」, pp.56-57; 「#8-16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서신(만력 21년 4월 21일)」, pp.60-61.

56)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15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서신(만력 21년 4월 21일)」, pp.58-59.

57)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5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만력 21년 4월 4일)」, pp.29-36.

58) 김경태, 2014, pp.99-100.

시했다. 다만 아직 심유경의 사자와 조선의 왕자 및 신하들이 일본군 진영에 있으니, 이들을 우선 빼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59] 또한 송응창은 가토 기요마사가 고집을 피우며 조선의 왕자와 신하들을 송환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여송으로 하여금 휘하 장수를 보내 가토 기요마사의 후미를 쫓게 하고, 경상도 등지의 조선군과 협공을 하는 방향도 제시하면서 더 강경한 대책을 강구했다.[60] 이어 조선 측에 자문을 보내서 명군이 일본군을 추격하겠다는 내용을 조선국왕에게 보고하게 하고,[61] 경상도와 전라도의 수륙 군병을 정돈해 일본군 추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62]

그리고 송응창은 5월 6일 내각대학사 조지고와 장위 그리고 석성에게 현시점까지 자신의 전략을 보고했다. 송응창은 먼저 일본군이 지키던 한양의 형세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교섭행위를 "虎離山之計", 즉 호랑이를 산으로부터 떼어놓는 계책으로 여겨 이를 聖旨로 결정해 줄 것을 청한 것이라 해명했다. 또한 아직 한양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공적을 서훈하는 상소를 올린 것은 군대를 격려하기 위한

59)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17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서신(만력 21년 4월 25일)」, pp.62-63.

60)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18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명령(만력 21년 4월 25일)」, pp.64-66.

61)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19 예조판서 윤근수에게 보내는 명령(만력 21년 4월 25일)」, pp.67-70.

62)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20 제독 이여송, 찬획 유황상에게 보내는 명령(만력 21년 4월 26일)」, pp.71-73;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21 유정, 전라도 · 경상도 · 충청도 등에 내리는 명령(만력 21년 4월 27일)」, pp.74-75.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송응창이 고안한 가토군의 추격 전술이 전쟁 초반 송응창이 여러 차례 내세웠던 '화포를 통한 포위 섬멸'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는 송응창이 조선에 보내는 자문에서 자신이 최근에 보낸 화약 무기를 수군에게 분배하여 모든 바다로부터 부산을 에워싸는 전술을 채용하도록 한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19 예조판서 윤근수에게 보내는 명령(만력 21년 4월 25일)」, pp.67-70.).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에 대해 최근 명 조정에서 여러 논의가 일어난 것을 두고 실로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즉, 송응창은 해당 보고를 통해 자신이 일본과의 강화보다는 일본군 추격에 주력하겠다고 명 조정에 선언한 셈이다. 서신 말미에 보이는 "부산에서 소식이 들어오는 날에 마땅히 급히 보고하겠다."라는 다짐 또한 일본군을 부산까지 추격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63]

송응창이 이렇게 급격한 태세 전환을 보인 원인은 같은 서신에서도 언급되지만, 명 본국의 동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송응창이 일본군과 교섭을 시작했다는 정황이 이미 명 조정에 전해졌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강화교섭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일본군을 섬멸하자는 의견과 철수론으로 나뉘었지만, 공통적으로 송응창과 이여송이 책봉과 조공을 허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공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응창은 점차 커지는 반대파의 의심과 비난에 대응해야 했다.[64]

설상가상으로 평양성 전투에서 이여송이 승전을 보고할 때 조선인의 시체를 일본인으로 속였다는 탄핵안이 제출되기까지 했다.[65] 이에 요동순안어사 周維翰이 진상 조사를 위해 조선으로 파견되었고,[66] 순안어사는 격전지였던 평양, 개성, 벽제의 주민들을 데려가 이여송의 접전 상황을 추궁하기도 하였다.[67] 이처럼 명 조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

63)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30 내각대학사 조지고·장위, 병부상서 석성에게 보내는 서신(만력 21년 5월 6일)」, pp.92-96.
64) 김경태, 2014, pp.133-134.
65)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3 제독 이여송에게 보내는 서신(만력 21년 4월 2일)」, pp.24-25.
66)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43 요동순안어사 주유한에게 보고하는 서신(만력 21년 5월 19일)」, p.123.

위해서라도 송응창은 조선에서 분투하는 명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면서 일정한 성과까지 거두어야 했고, 이전과는 다르게 확고한 추격 의지를 내보여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68]

한편 조선 측에서는 명군의 일본군 추격 동향과 관련해 『경략』과 상반된 기록을 남겨 주목된다.[69] 『선조실록』에 따르면, 일본군은 한양을 떠난 뒤 5월 초순 경 이미 상주를 위시한 영남 지방에 웅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증원군도 부산 등지로 속속 파견되고 있었다.[70] 결과적으로 만력 21년(1593) 4월 초반에 송응창이 조선군의 일본군 추격을 만류했던 조치가 일본군이 영남 지방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게다가 『선조실록』의 5월 2일 기사에서는 처음부터 명 측 장수들이 조선군의 일본군 추격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원수 이하의 장수들이 이미 병장기를 거두고 일부 부대를 해산시키는 바람에 5월 초 송응창이 지시한 추격 명령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비변사의 馳啓를 확인할 수 있다.[71] 이는

67) 『선조실록』 卷38, 선조 26년 5월 17일.

68) 송응창은 5월 19일 내각대학사들과 병부상서 석성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명군 군중에서 명군 병사들이 "강한 왜군을 상대하며 몇 달 되지 않아서 조선의 토지를 이미 수복했으나 밤낮으로 추위로 고생하며 염채조차도 하나 먹지 못하며 공로가 적지 않은데도 언관들은 도리어 승전보가 모두 거짓이라 말하고 있다."라고 억울해하는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다(『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46 내각대학사 왕석작 · 조지고 · 장위, 병부상서 석성에게 보고하는 서신(만력 21년 5월 19일)」, pp.131-136.).

69) 『선조수정실록』 卷27, 선조 26년 5월 1일; 류성룡 저, 김시덕 역해, 『징비록 : 한국의 고전에서 동아시아의 고전으로』, 파주: 아카넷, 2013, p.445.

70) 『선조실록』 卷38, 선조 26년 5월 12일, 5월 22일. 한편 『경략』 卷8에 수록된 문서들(#8-39, 40, 42, 43, 46)에서도 일본군이 상주에 머물며 옛 성들을 연결하고 鳥嶺의 험지에 주둔하며 방어선을 구축한 모습을 명 측 또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 『선조실록』 卷38, 선조 26년 5월 2일.

결국 송응창이 일본군 추격 방침을 급작스레 전환한 것이 초래한 '나비효과'였다. 하지만 송응창은 병부상서 석성에게 보낸 보고에서 되려 일본군의 후미를 쫓아 공격하고 싶었으나 조선의 병사 중에 쓸만한 게 없어 한스러울 따름이라며 일본군 추격의 책임을 조선군에게 미루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72]

요컨대 만력 21년(1593) 4~5월 전선의 교착 상황에서 경략 송응창은 강화교섭의 흐름과 조선 조정의 강경한 반대 여론, 그리고 명 조정의 비판과 의심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조선에 파병된 명군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했다. 이에 4월경에는 일본 측의 강화교섭 이행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강화교섭의 흐름을 고려해 조선군의 일본군 추격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다만 일본군이 강화교섭의 조건인 조선 왕자 등의 송환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과, 명 조정에서 송응창-이여송의 강화교섭 노선에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했던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송응창은 5월 초반에야 적극적인 일본군 추격 노선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송응창이 일본군 추격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던 사이 일본군에게 영남 일대의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내어주었으며, 일본군 추격을 갈망하던 조선 육군 일부를 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조·명 연합군의 일본군 추격은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게 되었다.

72) 명나라의 임진전쟁3 : 강화 논의』, 「#8-42 병부상서 석성에게 보고하는 서신(만력 21년 5월 17일)」, pp.121-122.

4. 맺음말

임진왜란 초반 전쟁의 거의 모든 분야를 관장한 경략 송응창이 남긴 『경략』은 당시 명 측의 핵심적인 정보를 수록한 중요한 기록이었으나, 이후 각종 악평과 오명이 부가되며 후세로의 전승이 순탄치 않았다. 임진왜란을 보는 '새로운' 창으로서 『경략』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 본고는 『경략』의 권별 내용을 총 다섯 가지 국면으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국면(권1-3)은 전쟁 발발 초창기, 두 번째 국면(권4-5)은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의 전후 과정, 세 번째 국면(권6-7)은 평양성 전투 이후 명군의 한양 진군, 네 번째 국면(권8-11)은 명·일본과의 강화교섭이 시작된 전황의 변화, 그리고 다섯 번째 국면(권12-14)은 송응창의 경략 임기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국면을 통해서 우리는 임진왜란 초반 경략 송응창이 직면해야 했던 긴박한 전황과 더불어 엇갈리고 비틀어진 계획과 실제, 군정과 군령, 그리고 명-일본-조선 사이에서 얽히고설킨 의심과 타협의 장면들을 엿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본고는 두 번째 국면과 네 번째 국면에 주목하여 『경략』을 통해 재조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만력 21년의 평양성 탈환 과정과 관련해 『경략』에서는 여타 사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명군 내부의 미묘한 상황을 간취해 낼 수 있었다. 평양성 전투와 관련해 『明史』 등에서는 야전 사령관인 이여송의 지휘 아래 명군의 백병전을 위주로 공성이 이루어진 '결과'만을 서술하였다. 반면 『경략』에 나와

있는 '과정'에 따르면, 당시 최고 지휘관 송응창은 화기를 통한 제압사격을 계획했고, 일본군이 퇴각하여 강을 건너는 틈을 노려 일망타진한다는 전술을 강조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명의 가장 빛나는 승리였던 평양성 전투에서조차 지휘부에서 의도한 전략과 실제 야전에서 행해진 전술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명·일본 간 강화교섭이 진행되던 시기와 관련해, 『경략』에서는 당시 일본군의 추격과 강화교섭을 동시에 주재했던 송응창의 복잡한 속내와 위태로운 줄타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송응창은 만력 21년 4월 초반까지는 강화교섭의 성사를 위해 조선군의 일본군 추격을 만류하는 데 진력하였다. 그러나 한양을 수복한 4월 말 이래 강화교섭이 난국에 봉착하고 명 조정의 강화교섭에 대한 반대 여론 및 파병군에 대한 의심이 더해지자, 돌연 명군과 조선군의 협공을 통한 적극적인 일본군 추격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5월 초반에야 완전히 적극적인 추격 노선으로 선회하였다. 송응창이 명군의 출구 전략을 놓고 저울질하던 1개월여의 시간 동안 일본군 추격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고, 일본군은 영남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결국 송응창의 애매한 태도와 左顧右眄으로 인해 조·명 연합군이 일본군을 추격하여 섬멸할 수 있는 적기, 즉 '골든 타임'은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다.

이상 살펴본 『경략』은 명 조정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원한 배경과 출병 과정, 명군의 세부적인 전략과 전술, 그리고 평양성 전투 등 각종 전투와 강화교섭의 진행 과정 등을 중국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사료이다. 명·일본 간의 강화교섭이 한창 진행되던 1595년을 전후한 시점에 송응창에 의해 간행된 『경략』은 기존 임진왜란 연구에서

널리 이용된 정사류와 실록류 사료들이 모두 전쟁이 끝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찬수된 사료들임을 고려하면, 원 사료로서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하겠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정사나 실록 사료에 수록되지 않은 임진왜란 당시의 공문서가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송응창이 명과 조선,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과 당시의 긴박한 정황을 모두 생생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삼국 역사서의 미비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물론 『경략』은 송응창 자신이 강화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변호하려 작성한 의도적인 산물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 것처럼, 사실의 은폐나 왜곡을 노린 축약이나 刪削 등이 곳곳에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명·청 시대의 실록을 위시한 관찬 사료 또한 찬수 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73] 송응창 개인의 의도가 가미되었다는 혐의만으로 사료 자체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본고가 시도한 사례 분석과 같이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가진 여러 자료가 동일한 사건을 다룰 때 나타나는 충돌과 모순에 주목한다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자료들과의 교차 검토와 상호 비판을 통해 『경략』에서 송응창이 드러내려 했던 것은 무엇이고, 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다른 자료들과 어떻게 어긋나고 연결되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은 분명 임진왜란을 보는 기존의 관점을 훨씬 풍

73) 명·청 시대 실록 자료의 '기록 조작'에 대해 본격적으로 규명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구범진, "병자호란 전야 외교 접촉의 실상과 청의 기만 작전, 그리고 청태종실록의 기록 조작", 『동양사학연구』 150, 2020; 구범진·정동훈,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사행 빈도 문제 -'3년 1행'과 『명태조실록』의 기록 조작", 『동양사학연구』 157, 2021; 정동훈, "3년 1공인가, 4년 1공인가 -고려-명 관계에서 歲貢 빈도와 『명태조실록』의 조작", 『한국사학보』 86, 2022.

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0-2021년에는 『명나라의 임진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총 5권 분량의 상세한 역주서가 국내에서 출간되었다.[74] 이 역주서는 충실한 번역은 물론, 꼼꼼한 주석과 상세한 인명록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특별한 독법이 요구되는 『경략』의 공문서와 서신 등을 읽어내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역주서(제1~4권)와 함께 교감·표점본(제5권)을 발간하여, 독자들이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21세기 들어 맞이한 새로운 연구 경향과 『경략』에 대한 역주서의 발간을 통해 한국 학계의 임진왜란 연구 또한 '새로운' - ① 신선하고, ② 새삼스러우며, ③ 꼭 필요한 -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을 보는 '새로운' 창으로서 『경략』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활용이 기대되는 이유다.

74) 송응창 저, 구범진 등 역주, 『명나라의 임진전쟁: 송응창의 『경략복국요편』 역주』 1-5, 국립진주박물관, 2020-2021.

〈참고문헌〉

1. 사료

『經略復國要編』
『國榷』
『明史』
『明史紀事本末』
『明神宗實錄』
『四庫全書總目提要』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燃藜室記述』

2. 저서

김경록,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2.
김영진, 『임진왜란 : 2년 전쟁 12년 논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류성룡 저, 김시덕 역해, 『징비록 : 한국의 고전에서 동아시아의 고전으로』, 파주: 아카넷, 2013.
송응창 저, 구범진 등 역주, 『명나라의 임진전쟁: 송응창의 『경략복국요편』 역주』1-5, 진주: 국립진주박물관, 2020-2021.
양계초 저, 유용태 역, 『중국역사연구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오호성, 『임진전쟁과 조·명·일의 군수시스템』, 서울: 경인문화사, 2017.
이정일 편, 『국역 사대문궤 2』,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0.
최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해제 : 근세』, 서울: 문, 2010.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한일문화기금 편, 『한일양국, 서로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서울: 경인문화사, 2017.
한일문화기금 · 동북아역사재단 편,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2010.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서울: 한일문화기금, 2010.

3. 논문

김경태, "임진전쟁기 경주 안강 전투와 강화교섭 국면의 변동", 『한국사학보』 62호(2016): 39-74,
UCI:http://uci.or.kr/G704-000690.2016..62.007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일환, "임진왜란 편년사 집성 및 주제별 DB구축의 필요성", 『이순신연구논총』 29호(2018)
이철성, "李德馨의 임진전쟁 중 외교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7호(2007)
홍성구, "임진왜란과 명의 재정 -교과서 서술과 통설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 58호(2016): 133-172,
UCI:http://uci.or.kr/G704-002017.2016..58.006
황원구, "『明史紀事本末』 "援朝鮮" 辨證 -明史稿 · 明史 關係記事의 底本問題", 『東方學志』 48호(1985)
Masato Hasegawa, "War, Supply Lines, and Society in the Sino-Korean Borderland of the Late Sixteenth Century," *Late Imperial China*, Vol.37, No.1, 2016.
萬明, "萬曆援朝之戰時期明廷財政問題 -以白銀爲中心的初步考察", 『古代文明』 12-3, 2018.

孫衛國, “萬曆朝鮮之役前期明軍糧餉供應問題探析”, 『古代文明』, 2019-4.
孫衛國, “萬曆援朝戰爭初期明經略宋應昌之東征及其對東征歷史的書寫”, 『史學月刊』, 2016-2.
陳尙勝, “壬辰禦倭戰爭初期糧草問題初探”, 『社會科學輯刊』, 2012-4.
陳尙勝 · 趙彦民 · 孫成旭 · 石少穎, “地區性歷史與國別性認識 -日本、韓國、中國有關壬辰戰爭史研究述評”, 『海交史研究』, 2019-4.

(Abstract)

A New Window to the Imjin War
: Revisiting the Jinglüefuguoyaobian with Case Studies

Park, Min-su
Kim, Young-jin

The Jinglüefuguoyaobian (經略復國要編, literally, Essentials on the Restoration of Joseon, Compiled by Song Yingchang) was written by Song Yingchang, the supreme commander (jinglüe) of the Ming army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Imjin War. The detailed accounts behind the decision to join the war, elaborate depictions of military strategies and tactics, and comprehensive records of the process behind the peace negotiations shown from the Chinese side all make this source a fascinating read. To shed new light on various aspects of the Imjin War as a 16th-century international event involving Korea, Japan, and China,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compil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Jinglüefuguoyaobian and provides overviews of each volume that can be used for future research. In addition, we present two case studies based on the Jinglüefuguoyaobian. Through this examination, we hope to lay the groundwork for a "new" – fresh, inspiring, and necessary – foundation for the academic research in the Korean academia for the Imjin War.

Keywords : Jinglüefuguoyaobian, Song Yingchang, Imjin War, International War in East Asia, Ming Army, Battle of Pyongyang Fortress, Peace Negotiation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77-141
https://doi.org/10.29212/mh.2023..127.7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이순신(李舜臣)의 행적과 전쟁에 나타난 군사사상(軍事思想) 고찰*

배일수 | 육군대학 전략학과 교수
정희태 |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조선의 안보환경과 이순신의 전쟁수행
4. 6분법에 의한 이순신의 군사사상 분석
5.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충무공 이순신의 행적과 전쟁을 통해 나타난 군사사상을 현대적 관점의 군사사상 이론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범위는 『난중일기』[1], 『징비록』[2], 『이순신의 바다』[3] 등의 서적과 각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에 나타난 전쟁 준비와 전쟁 수행과정에서 발휘하였던 군사전략과 전술, 국가관, 애민사상을 선행연구하였다.

이순신의 군사사상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김유석의 군사사상 이론으로 임진전쟁과 명량대첩, 노량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한 결과로 이순신의 군사사상은 첫째,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만전사상(萬全思想), 속승사상(速勝思想), 제승사상(制勝思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수행 신념은 이순신의 군사적 천재성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통합방위작전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총력전사상도 있었다. 둘째, 군사력 건설은 양적 확충 못지않게 질적 확충이 중요하고, 유형전력 못지않게 무형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신있게 준비하였다. 훈련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방법과 용병술을 이용하여 반복 훈련 후 실전에 투입하였다. 특히, 이순신은 창의적 군사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거북선과 같은 신무기를 전력화하였다. 셋째, 용병에 있어서는 이순신은 탁월한 리더십과 군사력 운용으로 전쟁을 종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명량대첩 간 국가전략 차원에서 일본군을 해상에서 궤멸시켜 해상 보급수송로 차단과 전략적 목표인 전라도 점령을 좌절시켰다. 전술적으로 학인진법을 형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어린진형에서 학익진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합분산의 조합을 가미한 팔진기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평시 국가안보 지원 차원에서 이순신은 피란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안전을 보장하는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다섯째,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이순신은 전사자가 발생 시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고, 미망인과 가족에게 구휼조치를 시행한 것은 국가의 보훈정책을 야전지휘관이 전투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이다.

---

* 본 연구는 2022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 이순신, 송찬섭 역,『난중일기』(파주: 서해문집, 2004).
2) 유성룡, 오세진 · 신재훈 · 박해정 역,『징비록』(서울: 홍익출판사, 2016).
3) 황현필,『이순신의 바다』(용인: 역바연, 2022).

여섯째,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운용 측면에서 이순신은 평시에 형성된 대군 신뢰를 바탕으로 전시에 민간어선과 민간인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평시 엄격한 군령 집행은 군사력을 최고의 전투준비태세로 '유지관리'하게 하였다.

범주별로 분석한 내용을 압축한 이순신의 핵심 사상은 '국가 총력전으로 군사혁신과 임무형 지휘를 통한 속전속결전'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순신 군사사상 고찰은 현대 군사사상 이론을 정립과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군사사상, 이순신, 전쟁, 군사혁신, 군사전략

(원고투고일 : 2023. 4. 2, 심사수정일 : 2023. 5. 17, 게재확정일 : 2023. 6. 5.)

1. 서론

2022년 7월 27일에 개봉된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은 한국 영화사상 최대 관객수 1,760여만 명을 기록한 영화 '명량(2014)' 이후 8년 만에 귀환한 이순신[4]에 관한 영화이다. 영화 못지않게 이순신에 관련한 연구소와 학술논문, 기념비, 우표, 조형물도 전국 곳곳에 즐비하다. 전쟁, 군사전략, 리더십, 경영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이순신과 관련된 많은 역사 유적들이 발굴되어 전사적지 및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임진전쟁 당시 이순신의 승전 모습과 전투 장면을 재현하여 테마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북한에서도 우표 발행과 더불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순신에 대한 열광은 단지 이순신이 극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순신은 세계 전사에서 명장 중의 명장으로 평가되는 탁월한 장군이다. 그 평가의 근거는 물론 임진전쟁[5][6] 때에 23전 23승, 13척 대 130여 척의 전투라는 해전사에서 불가사의한 승리의 기록이다. 이순신은 1592년부터 1597년간 일어났던 임진전쟁 기간 동안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3차례의 큰 해전과

---

4) 이하 존칭과 계급, 직책을 모두 생략하고 '이순신'으로 약칭함. 이순신의 출신배경 및 성장과정은 2011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 군사인물연구』, 조선편 Ⅰ, pp. 133~144를 참고하였다.

5) 임진전쟁은 일국사적 시각이 아닌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명칭이다. '왜란'이란 용어는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든 이 전쟁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든 국제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명칭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자료는 김문자 저,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서울: 경인문화사, 2021)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김강녕, "이순신의 수군전략과 전술," 『이순신연구논총』 제17호(2012), p. 211.

20여 차례의 소규모 해전으로 풍전등화 같은 조선의 운명을 건져냈다. 이순신의 해상에서 완전 승리의 공적은 이미 당대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선왕조 중흥의 제일공신자 즉, 원훈(元勳)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이순신의 조선 중흥의 원훈으로 빛나는 공적을 쌓을 수 있던 원동력은 이순신의 행적과 전쟁수행에서 나타난 군사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순신이 출생하여 생활했던 조선은 국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또한 조선의 국정운영과 군사력 건설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순신은 무과에 급제하기 위해 무경칠서 등을 공부하였고, 무과 급제 후 함경도에 봉직되어 여진족과의 전투를 경험하였다. 이순신은 상관의 모함으로 백의종군을 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서애 유성룡의 천거에 의해 육군이 아닌 수군의 장수로 발탁되어 전라좌수사로 봉직하게 된다. 이때가 임진전쟁 발생 직전의 상황이다. 수군 장수로서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이순신은 다른 수영(水營)과는 다른 모습으로 군영(軍營)을 정비해 나갔으며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바다에서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선승구전(先勝求戰)과 필승의 확고한 신념으로 전쟁에 임하여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우리 역사 속에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다. 임진전쟁 당시의 이순신의 전쟁준비와 전쟁수행과정은 역사에 등장하는 어느 장수와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군사적 혜안과 창의성이 있었다. 이순신은 임진전쟁 시 수군을 지휘함에 있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군의 지휘관으로서 건전한 판단과 추진에 장애가 되는 지휘계선의 간섭을 받는 등 열악한 지휘여건이었다. 이순신은 임진전쟁 발발 이후 6년여 동

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23전 23승이라는 절대적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의 군사사상과 전쟁에 대한 뚜렷한 전략을 견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순신에 관한 연구는 군사사상(軍事思想)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주로 해전의 승리 요인과 리더십, 이순신의 행적과 해전 과정, 군사력 건설과 운영을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는데 치중하였다. 조선시대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현대의 군사사상 이론으로 연구하는 것은 400여 년 전의 사상을 현대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다소 무리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한국적 군사사상과 군사전략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신호[7]는 이순신의 사상적 배경을 연구하였고, 최해진[8]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리더십 및 지휘통솔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김강녕[9]·임원빈[10]·제장명[11]·김병륜[12]은 이순신의 군사혁신과 무기체계, 전략사상과 군사전략 차원에서 수군의 전략·전술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박현규[13]는 임진전쟁의 문헌 사료와 유적 문물을 연구하면서 민간사회에 두루 사용하는 보편성을 근거로 '임진전쟁'이란 용어보다 '임진왜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나승균[14]은 『손자병법』 13편을 적

---

7) 조신호, "이순신학(學)의 정립과 그 사상적 배경,"『이순신연구논총』통권 제23호(2014).
8) 최해진,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리더십,"『인적자원관리연구』제14권 제2호(2007).
9) 김강녕, 앞의 글.
10) 임원빈a, "첨단 조선 수군과 이순신 제독의 혁신,"『이순신연구논총』제28호(2017).
11)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해전술과 귀선의 역할,"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창립기념 학술대회(2007).
12) 김병륜, "임진왜란기 조선 수군의 전술,"『이순신연구논총』제31호(2019).
13) 박현규, "한국에서의 임진왜란 연구 동향과 문물 사료,"『이순신연구논총』제34호(2021).

용하여 이순신의 병법과 손자병법을 비교하여 군사사상 세 가지(만전사상, 속승사상, 제승사상)를 제시하였다. 임원빈[15] · 김경수[16]는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애민정신과 나라사랑에 대해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고광섭[17]은 이순신의 선조 출전 명령을 거부하여 백의종군한 사실을 검증하여 사실과 다름을 제시하였다. 방기철[18]은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군령 집행을 연구하여 이순신의 수군 운영과 공인으로서 모습을 제시하였다. 그 외 이순신이 활약한 시기의 조선의 군사전략, 군사지리, 방어실태,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정구복[19] · 김종수[20] · 허태구[21] · 최창국[22]이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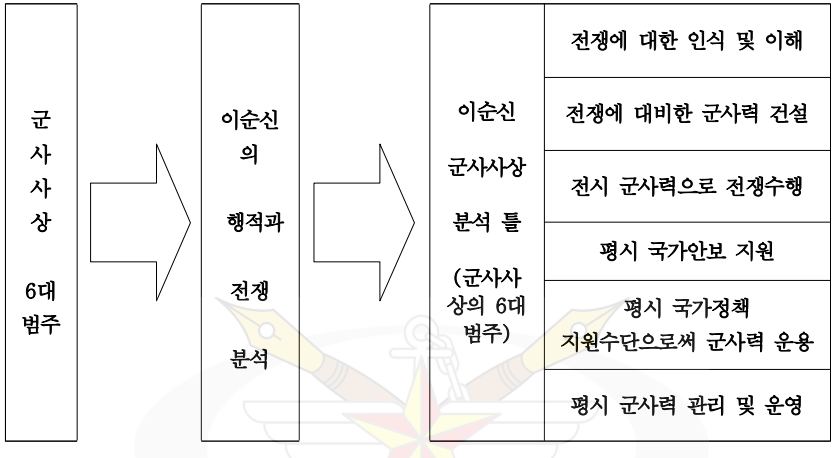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선행연구와 달리 현대적 군사사상 이론을 가지고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에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70만이라는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임진전쟁부터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던 이순신의 전투수행과 행적을 바탕으로 군사사상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틀은 임진전쟁에 나타난 이순신의 군사전략과 리더십, 전쟁관, 사상, 철학, 가치관, 문화, 출생과 성장을 망라하여 김유석의 『군사사상 총론』[23]에서 구분한 6대 범

---

14) 나승균, “군사사상 측면에서 이순신의 손자병법 적용 고찰,”『군사발전연구』조선대학교(2010)
15) 임원빈b, “이순신 애민의 사상적 기반과 의미,”『이순신연구논총』제36호(2022).
16) 김경수,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의 애민정신,”『이순신연구논총』제36호(2022).
17) 고광섭, “이순신의 선조 출전 명령 거부설에 대한 검증연구,”『KNST』Vol.5 No.1(2022).
18) 방기철, “이순신의 군령 운용 연구,”『한국사연구』192호(2021).
19) 정구복a,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권(2003).
20) 김종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 · 이치 전투,”『전북사학』제51호(2017).
21) 허태구, “임진왜란과 지도 · 지리지의 군사적 활용,”『사학연구』제113호(2014).
22) 최창국, “조선전기 북방 양계지역 제승방략의 실체와 현대적 함의,”『군사연구』제136집(2013).
23) 김유석, 『군사사상 총론』(서울: 황금알, 2022).

주를 프리즘에 투영하여 이순신의 군사사상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의 틀



연구의 틀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사상 6개 범주인 '①전쟁에 대한 인식 및 이해, ②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 ③전시 군사력으로 전쟁수행, ④평시 국가안보 지원, ⑤평시 국가정책 지원수단으로써 군사력 운용, ⑥평시 군사력 관리 및 운영'을 가지고 이순신의 행적과 전쟁을 분석하여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살펴보고, 이를 융합하여 이순신의 핵심 군사사상을 제시하였다. 임진전쟁은 많은 고서와 현대 군사사학자들에 의해 발굴 및 정리되고 있어서 임진년에서 정유년까지 7여 년간의 전쟁에 대해 여러 전투와의 관계, 용어 정립, 발발 배경, 전후 강화협상 등 많은 분석이 있지만, 본 연구는 역사를 발굴하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전·후에서 식별된 이순신의 전쟁의 본질과 전쟁의 이해,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운용, 민군관계 등을 분석하여 이순신의 군사사상

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으로 2장은 전쟁, 군사사상, 군사전략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3장은 전쟁이 발발한 당시 조선의 국방정책과 정세를 살펴보았다. 4장은 군사사상 6대 범주별로 이순신의 사상을 분석하여 이순신의 군사사상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5장에 결론을 맺었다.

2. 이론적 배경

가. 전쟁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전쟁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행하여 왔다. 전쟁의 정의 또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는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과 영역, 주체, 수단 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24]는 고대의 전쟁을 '무력을 동원한 싸움'이라고 정의하면서 무력으로 싸우는 것을 전쟁으로 이해했다. 싸움이 전쟁으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사회별로 다르고,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떤 사회에서는 전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제 법학자 그로티우스(Hugo Grotius)[25]는 '전쟁이란

24) 키케로(BC 106~43년) : 고대 로마의 철학자, 정치가, 『국가론』 등 저술.
25) 그로티우스(1583~1645) : 네덜란드의 법학자, 정치가, 국제법의 아버지, 『전쟁과 평화의 법』저술.

무력을 동원해 싸우는 행위자들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싸움 자체보다 싸움이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강조한다. 첫째, 행위자들의 법적 대등성을 가지고 국가와 개인의 싸움은 전쟁이 아니라고 하였다. 둘째, 실질적인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고 경제력이나 정신력을 동원한 싸움은 전쟁이 아니라고 하였다.

국제 정치학자들은 전쟁에 관한 구체적 정의를 제기하면서 폭력행위의 정치적 행위에 초점을 두었다. 불(Hedley Bull)[26]은 전쟁이란 정치적 행위자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조직화된 폭력으로 정의하면서 정치적 단위체, 물리적 폭력, 조직적 폭력, 상호적 폭력 등 4가지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 일부 국제 정치학자는 과학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전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사상자 수로 제시하였다. 싱어(David Singer)[27], 브리머(Stuaart Bremer), 스몰(Melvin Small)은 전쟁이란 민족적 실체 간에 수행되는 무력 투쟁으로 적어도 하나의 실체는 국가여야 하며, 1,000명의 군인 사망자가 발생해야 전쟁으로 인정하고 그 이하일 경우는 분쟁이라고 정의하였다.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는 매우 넓은 의미에서 전쟁은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실체들 간의 폭력적 접촉"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동물끼리의 싸움, 원시 부족간의 싸움, 그리고 현대 국가 간의 적대적 행동 등이 모두 전쟁에 해당한다. 너무 포괄적인 전쟁 정의로 보이지만, 외교관, 사회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군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전쟁의 정의를 아우

26) 불(1932~1985) : 호주 출신,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교수.
27) 싱어(1925~2009) : 미국 정치학 교수, 미시간 대학에서 전쟁관련 통계 및 전쟁의 원인 연구.

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28] 합동참모본부는 전쟁이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조직적 폭력행위이며 대규모의 지속적인 전투'로 정의하고 있다. 전쟁은 전역에서 일회성 전투로 끝나지 않으며, 전쟁수행은 상호 전투력이 맞부딪치는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29] 이후 현대 전쟁은 변증법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보이는 세 번의 분기점에서 세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근대국가의 시발점이 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제1세대 시작으로 제1차 세계대전(제2세대), 제2차 세계대전(제3세대)을 거쳐 지금은 새로운 세대인 제4세대 전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30] 『State Death』(국가소멸)의 저자인 타니샤(Tanisha M. Fazal)는 '1816년 근대 민족 국가 체제가 시작된 이래 2000년에 이를 때까지 존재했던 나라는 207개국이었는데 그중 66개국(32%)이 소멸하였다. 이 중 50개 국가(75%)는 폭력에 의해서였다'라고 하였다. 한 국가나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늘날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현존 및 장차 위협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쟁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28) Quincy Wright, *A Study of War*(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 5.

29) 베스트팔렌 조약은 1618년 시작된 30년 전쟁 이후 체결된 평화조약으로, 최초 이 전쟁은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종교전쟁의 성격을 벗어나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 간의 세력 쟁탈전으로 바뀌었다.

30) 권영상, "린드 4세대 전쟁론의 재조명,"『군사연구』제144집(2017), pp. 299~300.

더불어 국가가 전쟁에 대비해 군사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군사사상이 먼저 갖춰지어야 한다. 사상 연구는 '역사에 관류하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역사 인식의 문제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역사에도 대외침략 등 국가 위기에 맞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전략, 군사전략, 전술 등 많은 전쟁의 지혜를 만나게 된다. 비록 이론체계나 사상적 틀을 갖춘 서적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 행동과 선택에는 오랜 숙고와 신념의 소산인 군사사상이 내재하여 있다. 우리는 수많은 외침의 시련을 이겨내고 생존해 온 민족이다. 많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는 시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시대의 여건에 맞는 군사사상이 있었다.

나. 군사사상

군사사상이란 군사 활동이나 군사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나 관점을 말하는 군사(軍事, Military)와 사상(思想, Thought)의 합성어이다. 군사는 주로 군대 · 군비 · 전쟁 등 군무에 관한 일을 말하며, 사상은 사고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인 의식 내용을 말한다. 군사라는 용어에는 기능적 요소와 목적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능적 요소란 정치 · 외교 · 경제와 같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국가 고유의 무력적(武力的) 활동을 말하며, 군대의 관리와 운용을 통해서 그 소임을 다하게 된다. 목적적 요소란 여타의 국가 기능과 달리 무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최종적인 정치 목적을 달성하거나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되므로, 국가가 예상하는 전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요망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폭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1]

사상은 '경험에 기초한 현상에 대한 사유와 분석이란 사고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서 인간 생활을 이끌어가는 사고의 내용'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결국 사상이란 신체적 활동이나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 · 인간현상과는 구분되는 '정신적 활동 또는 그 결과'에 해당한다.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나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유리(遊離)된 추상적인 이론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이론과 실천을 이어주는 매개체 내지 결합으로서, 말하자면 '이론적 실천' 또는 '실천적 이론'의 성격을 지닌 인간 활동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성을 갖추지 않은 단순한 충동이나 우연적 · 조건반사적 주장이나 견해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립되고 특정한 전문이론의 의미 영역 속에서 당대의 개인적 · 사회적 인간 생활과는 동떨어진 채 고도의 정합성을 이룬 추상적인 학설이 있다면 그런 것 또한 사상의 중심주체가 될 수 없다. 즉, 사상은 체계화된 이론이 행동으로 나타났거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인 생각을 말한다.[32]

군사사상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육군본부는 군사사상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및 장차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어떠한 전쟁의지와 신념으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발발 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군사력을 운용하는 개념적 사고체계'로 말하고 있다.[33]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에서는 '한 나라의 군사적 실체나 군사 조직의 행동, 혹은 군사이론 · 전략 등 군사전문가에 의한 군사이론

31) 나승균, 앞의 글, pp. 53~54.
32) 이강언 등,『신편 군사학 개론』(서울: 양서각, 2007), pp. 67~68.
33) 육군본부, 『한국 군사사상』(대전: 육군인쇄창, 1992), p. 24.

이나 담론 등에 관류하는 무형적 가치체계'로 정의하고 있다.[34] 그런데 굳이 이러한 이론적 체계나 사상적 틀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모든 군사행동에는 나름대로의 군사사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사상'이라는 측면이 전쟁수행과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군사력 건설에 대한 이성적 근거와 군사력 운용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및 군사력 사용 방법에 대한 통일된 판단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35] 백기인(2016)은 군사사상을 '한 나라의 군대나 무장조직의 군사행동, 혹은 군사적 천재와 같은 탁월한 군인의 리더십, 혹은 군사이론가 및 전략가 등 군사전문가에 의한 군사이론이나 담론에 관류하는 무형적 가치체계'라고 정의하고, '국가의 권력체계가 관료제로 제도화된 정책결정 구조에서는 군사사상이 국가정책이나 전략으로 집단지성을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하였다.[36] 한편 박창희는 더 확장된 개념을 적용하여 군사사상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 군사전략, 군사제도, 군사동원, 민군관계, 동맹관계 등도 군사사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접근보다 광의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37] 김유석은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을 포함한 광의의 군사개념과 사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사사상을 '군사전문가나 여러 사람 또는 특정 조직이나 국가에 의해 전쟁과 전쟁 이외의 군사 문제 전반을 대상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와 분석을 통해 미래에 군사 분야에 대한 방향을 일정한 원리와 통일성을 갖고

34) 군사사상, 『군사사상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적 군사사상의 정립 방안 모색』(제5회 군사학술세미나,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9) 참조.
35) 진석용, "군사사상의 학문적 고찰," 『군사학 연구』통권 제7호(2009), p. 5.
36)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고대~조선)』(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 24.
37) 박창희a, 『한국의 군사사상』(서울: 플랫미디어, 2020), p. 43.

정립한 군사에 대한 사고작용의 내용이다'라고 정의한다.[38)]

군사사상의 범주는 그 정의로부터 찾아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김유석은 군사사상 정의를 바탕으로 군사사상 범주를 6가지로 구체화하고 세분하였다. 첫째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 둘째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平時養兵], 셋째 군사력을 운용하여 전쟁수행[戰時用兵], 넷째 평시 국가안보 지원, 다섯째, 평시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운용, 여섯째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군 운영으로 구분하였다.[39)] 이전 연구가의 군사사상 범주 구분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전쟁관, 전쟁수행 의지 및 신념'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군사력 운용'과 '군사력 건설'로 3분법을 사용하였다면 김유석은 6분법으로 광의의 군사사상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김유석의 군사사상의 정의와 범주를 적용하여 조선시대 임진년에서 정유년에 이르는 7여 년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고찰하였다.

다. 군사전략

전략이란 용어는 전쟁과 관계가 깊다. 'strategy'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군대는 군사령관을 의미하는 'strategus' 또는 'strategos'에 의해 통솔되었다. 사령관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방의 전력,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전투대형, 배치, 방진의 형태를 달리하는 지혜를 동원하는 목적으로 'strategia'라는 사령관실을 운영했다. 전략의 어원은 사령관의 지휘술 또는 용병술이 태동하는

38) 김유석, 앞의 책, pp. 64~65.
39) 김유석, 앞의 책, pp. 94~96.

장소를 의미하는 'strategia'에서 비롯되었다.[40]

전략은 원래 군사용어지만 그 개념이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으로 구분된다. 국가전략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과학기술 등 제국력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책이다. 국가전략은 대전략이나 총체전략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선호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쟁의 수행에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의 비중이 확대되고 군사적 수단과 분리할 수 없게 되어 전략은 종합적인 기획 차원의 노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투의 사용', 조미니의 '장군의 작전술', 몰트케의 '고려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군의 수중에 있는 수단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를 거쳐 전략의 개념은 협의의 군사적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41]

군사전략은 시대별 개념 변천을 거듭하면서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전략을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전투를 운용하는 술'로 정의하면서 전쟁수행 차원에서 군사령관의 용병술로 정의됐던 전략을 전략과 전술로 구분하여 처음으로 근대적 용어로 제시하였다. 리델 하트는 군사전략을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적 제 수단을 분배하고 적용하는 술'로 정의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국가목표 또는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으로 정의하고 있다.[42]

현대에 와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전략 개념

40) 박창희b,『군사전략론』(서울: 플래닛미디어, 2018), pp. 65~66.
41)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국방대학교, 2005), p. 23.
42)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군사에 관한 체계적인 사유체계인 군사사상이 국가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 용병술 체계상 최상위인 군사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사상이 가지는 위계에서 짐작할 수 있다.

〈표 2〉 군사전략 개념 확대

구분	과거	현재
목표	군사적 승리	국가(국방)목표 달성
수단	군사력	군사력+제국력 수단
범위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운용
시기	전시	전시+평시

3. 조선의 안보환경과 이순신의 전쟁수행

가. 조선의 안보환경

1) 조선의 국방정책과 정세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은 고려에 이어서 관료제를 바탕으로 통치하는 중앙집권 국가이다. 대외적으로 당시 강대국이었던 명나라에 대해 사대주의와 여진·일본 등과의 관계는 교린정책을 구사하였다. 정치사상적으로는 유교의 예치주의를 표방하며 '병기는 흉기다'라는 문치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군사

조직은 사병을 혁파하여 국가가 군사를 보유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단일 통수체제로 지휘하여 국민개병제의 동원체계와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43]

조선은 건국 이후 200년간 큰 전쟁이 없었으며, 국내적으로 정치의 부패와 당쟁으로 인하여 외부에 시선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친명 사대주의와 일본을 야만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서양 문물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나라와 여진족·일본에 대한 정세 파악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서인과 동인의 당파 싸움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하였고, 북방의 여진족에 대한 방어, 왜구의 노략질에 대한 방어 정도의 국방 태세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조선의 임진전쟁 직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여진족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해안 일대에서의 왜구들의 침략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으며, 군 장수들의 보직이 정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588년 일본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다. 교섭에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조선이 통신사 파견을 거절했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았다. 이후 쓰시마 도주의 노력으로 1591년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하였는데, 통신사의 정사는 황윤길, 부사는 김성일이었다. 이들이 귀국한 후 일본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도발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소극적인 대책만을 마련한 채 159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명나라와 일본은 문화와 경제적인 의존

43) 백기인, 앞의 책, p. 187.

도가 높은 가운데 민족 간의 갈등 또한 항상 존재하였다. 세 나라는 바다와 함께 공존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명나라는 조선에 비해 강대국의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있었으며,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임진전쟁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592년 임진전쟁이 발생한 후 이듬해부터 조·명 연합군과 일본군은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지면서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교섭에 치중하였다. 조선은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였지만, 명나라는 일본군을 조선에서 철수시키는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판단하고 일본과의 회담과 강화사(講和使)를 파견하는 등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명나라의 강화교섭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끝내 결렬되었고, 1597년 정유년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에 따라 전면 재침을 하였다.

1598년 노량해전을 끝으로 일본군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군하였으며, 명나라군도 1599년부터 철군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요청을 하였으며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한 후 1609년에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2) 일본의 정세

일본은 14세기 말엽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에 의해 남북조의 분열 현상을 종식하고 전국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봉건제도가 발전하여 지방분권화가 확산하다가 15세기 중엽 봉건영주 세력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막부가 몰락하고 백여 년에 걸쳐 군웅이 할거하는 전국시대(戰國時代)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전국시대를 마감시킨 사람이 바로 임진전쟁

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이다. 그는 1590년 일본 전국을 통일하였으나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통일이 되었다고는 하나 다이묘(大名)들을 일시적으로 규합해놓은 상태에 불과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묘들을 휘어잡을 업적이 필요하거나 다이묘들을 압도할 정도의 영향력이 필요했는데 조선을 정복하여 나름의 업적을 인정받고 조선을 새로운 자기 영지로 삼아 동일본 쪽의 다이묘들도 전부 제압할 의도가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러한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실천하였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조총과 사격술, 항해술이 발달하였으며, 인도와 필리핀, 대만 등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의 혁기적인 군사혁신은 조총의 등장이다. 조총은 1543년 일본 규슈 남쪽의 작은 섬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포르투갈 사람이 탄 중국 선박이 표류해 오면서 일본에 조총(鳥銃)이 전해진다. 일본은 조총이 확산하면서 일본 역사가 바뀐다. 조총은 칼·창·궁시 등의 무기에 비해 제작비가 많이 들어 경제력이 탄탄한 거대 영주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었다. 은광 개발과 대외무역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축적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소 영주들을 제압하고 패자(霸者)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3) 명의 정세

주원장이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한 이후 국력이 신장되다가 6대 왕인 영종이 1449년에 몽골족을 토벌하기 위해 50만 대군을 이끌고 친정을 하다가 패전하였다. 영종이 포로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정치적 내

분과 환관들의 정치개입으로 인하여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다. 이후 무종의 사치와 유흥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다가 무종의 뒤를 이은 세종의 개혁의지에 따라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세종의 정책이 보수 귀족세력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세종 시대의 또 하나의 큰 위협은 왜구들의 연안지역 침입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방 몽골족의 침입도 빈번하여 북로남왜(北虜南倭)의 상황에 처한 명나라는 쇠퇴를 거듭하였다. 임진전쟁 발발하던 당시 명은 1573년 신종이 즉위하여 과감한 개혁을 통해 정치와 경제, 국방 분야의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개혁의 명신이었던 장거정이 죽고 난 후 신종의 사치와 방탕, 조정의 퇴폐풍조로 인하여 혼란이 거듭되었다.

나. 이순신의 전쟁준비와 임진전쟁

1) 이순신의 전쟁준비

이순신은 임진전쟁이 발생하기 전인 1591년 4월 13일 전라좌도수군절도사(정3품; 이하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1년여간의 전쟁 준비를 통해 임진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부임 후 전라좌수영의 군기(軍器)를 점검했다. 1580년 고흥지역의 발포만호(錄浦萬戶)로 보직되어 2년여 동안 해안기지의 지휘관을 지내고 1589년 45세의 나이에 전라순찰사의 군관(軍官)과 조방장(助防將)을 지낸 경험이 있던 이순신은 첫 수군으로서의 근무를 위해서 군사들과 병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예하 장수들과 군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훈련체계를 정립한 이순신은 부하와 대

화를 자주하면서 부하의 장점을 파악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좌수사와 예하 장수, 병졸들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업에 종사하는 백성 중에서 남해안의 지형과 어선들이 다닐 수 있는 해도(海道) 전문가들을 찾아 이들의 조언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군사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조선 어선과 전투함인 판옥선의 특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적의 전투함 안택선의 특정과 약점 등을 분석하면서 싸우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이순신이 판단한 적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보면 일본군은 일본의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토대로 전투의지와 조직력이 강하며, 칼을 주무기로 하는 지상에서의 단병전(短兵戰)에 강하고, 조총을 사용하여 살상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였다. 전투함인 안택선(安宅船: 안타케부네, 이하 안택선)은 해상수송을 위해 건조되었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이동속도가 빠르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조선의 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지하고, 병참선이 약하여 후방이 차단될 경우 지속적인 전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과 일본 전투함인 안택선이 전나무 재질에 쇠못을 사용하여 충격에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순신은 일본군과의 근접전투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칼과 조총에 의해 공격을 할 경우 우리 군의 사기와 군기, 방어능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일본군이 지상으로 진격하고 해상로를 이용하여 서해를 거쳐 한강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의 조정과 한성은 순식간에 적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였다.

이순신은 먼저 일본군과의 전투는 육지가 아닌 해상에서 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 수군이 남해를 통과하여 서해와 한강으로의 진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 또한, 해상에서 전투를 하더라도 안택선과의 근접전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안택선이 해상에서 조선 수군의 판옥선과 근접하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상태에서 적을 격파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을 격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순신은 장수로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했다. 첫째, 국가를 위해 군이 할 일은 무엇인가? 둘째, 적은 누구이며 적의 강약점은 무엇인가? 셋째, 적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려면 할 일은 무엇인가? 넷째, 침략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다섯째,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고민하고 결단했다.

이순신은 판옥선을 정비하고 전선(戰船)을 추가로 건조하였으며, 군졸들을 확충하면서 주특기를 부여하여 훈련토록 하였다. 특히 전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노를 젓는 격군(格軍: 노군)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건장한 이들을 격군으로 선발하고 전선이 다양하고 일사불란한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전투 요원들은 포를 운용하는 포수(施手)와 활을 사용하는 습사수(習射手), 그리고 창을 사용하는 살수(殺手)로 구분하여 장수를 임명하고 훈련을 강화하였다. 당시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에 따라 지상전이 만연된 상황에서 해상전을 준비하는 전투력 증강은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대부분의 조정을 비롯한 무인들은 지상전을 강화해야 하

므로 이에 적극적인 동조를 하지 않았으며, 지원 또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적의 강한 조직력과 근접전투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던 이순신은 방답군관이던 나대용의 전선에 대한 혜안과 능력을 발견하고 거북선을 건조하게 하였다. 이 또한 예산과 전투력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북선을 건조하게 하였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술을 구상하였다. 임진전쟁이 발발하여 출전할 때까지 모든 준비가 되지 않아 첫 출전에서 거북선의 위력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사천해전에서부터 발휘된 거북선의 위력은 임진전쟁 이후 일본군이 대대로 이순신을 추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592년 4월 13일 대마도의 대포(大浦)를 떠나 부산포 앞바다에 도착한 일본군은 14일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한성을 향해 진격하였으며, 경상도지역의 해안을 담당하던 경상좌수영과 경상우수영은 제대로 전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전투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반면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군사력 건설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여 첫 전투였던 옥포해전에서부터 성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1592년부터 일본군이 철군을 한 1598년까지 이순신이 출전했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달성하게 되었다.

2) 임진전쟁

임진전쟁은 병자호란과 더불어 근세 조선사에서 큰 전쟁이었다. 1592년부터 7년 동안 일본군이 2차에 걸쳐서 침략하였다. 연인원 70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일본, 명나라 등이 참전한 국제적 전쟁으로 세계사적인 대전쟁이기도 하다.[44] 본 연구에서 임진왜란을 임진전쟁이란 명칭으로 기술한

이유이기도 하다.

〈표 3〉 이순신의 주요 전투 현황

해전일자		해전	해전명칭	전과
1592년	5.7~8	옥포해전 (1차)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26척, 5척, 13척
	5.29 ~6.7	당포해전 (2차)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15척, 21척, 28척, 8척
	7.8~10	한산도대첩 (3차)	견내량해전, 안골포해전	59척, 42척
	8.29~9.1	부산포해전 (4차)	장림포해전, 화준구미해전 다대포해전, 서평포해전 절영도해전, 부산포해전	6척, 5척 8척, 9척 2척, 128척
1593년	2.1	웅포해전	웅포해전	왜군 100명
1594년	3.4	당항포해전	당항포해전	31척
	9.29 ~10.24	장문포해전(장문포 1차, 장문포 2차)		2척
1597년	8.28 ~9.16	명량대첩	어란진전투, 벽파진전투, 명량해전	31척 침몰, 92척 난파
1598년	7.18	절이도전투	절이도전투	50척
	9.20 ~11.19	노량해전	장도해전, 유도해전, 관음포해전	200여 척 침몰, 150여 척 반파

* 출처 : 『난중일기』, 『징비록』, 『이순신의 바다』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1592년부터 1598년에 걸쳐서 벌어졌던 임진전쟁의 주요 해전

44) 정구복b, “임진왜란 연구를 위한 제언,”『이순신연구논총』통권 제5호(2005), p. 371.

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회 정도이다. 해전의 규모와 전과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해전을 분석하기 보다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고찰하기 위해 임진년의 주요해전과 한산도대첩, 정유년 명량해전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래 임진년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출동하게 된다. 제1차 출동(임진년, 5월 7일~5월 8일)에서는 모두 세 차례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이 때 조선 수군의 함선 규모는 전라좌수영 소속의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등 85척과 원균이 지휘하는 경상우수영 소속의 판옥선 4척, 협선 2척 등 6척을 합하여 총 91척이었다. 비록 원균이 지휘하는 경상우수영의 함선 세력이 보잘것없었지만 어쨌든 개전 이래 최초로 전라좌수영과 경상우수영의 통합 함대가 결성된 것이다. 조선 수군의 전라좌도와 경상우도의 통합 함대는 5월 7일 옥포(玉浦)에서 판옥선과 크기가 비슷한 대선 13척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함선 약 30여 척과 조우하였다. 해전 결과 조선 수군은 적의 대선 13척, 중선 6척, 소선 2척, 기타 지원선 5척 등 총 26척을 격파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합포(合浦)에서 5척(대선 4척, 소선 1척)을 발견하여 격파하고 이튿날인 5월 8일에 고성 땅 적진포(赤珍浦)에서 일본의 대·중선 13척을 모두 격파한다. 전과를 종합해 보면 총 48척을 만나 그 중 44척을 격파시킨 반면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제2차 출동(5월 29일~6월 7일)에서는 네 차례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처음 두 차례의 해전인 사천해전, 당포해전에서는 제1차 출동과 비슷한 함선 세력인 26척이었는데, 당포해전 이후 전라우수영의 함대가 합세 함으로써 함선 세력은 전투함인 거북선과 판옥선 기준 총 51척이었다. 제2차 출동의 첫 해전인 사천(泗川) 해전에서는 조우한 적 대선 15척을 모두 격파하였다. 두 번째

당포(唐浦)해전에서는 조우한 일본 수군의 대선 9척, 중·소선 12척 등 총 21척을, 세 번째 해전인 당항포(唐項浦)해전에서는 대선 11척, 중선 4척, 소선 13척 등 총 28척을, 네 번째 율포(栗浦)해전에서는 율포해전 이전 가덕 해상에서의 소선 1척을 포함하여 대선 5척과 중선 2척, 소선 1척 등 총 8척을 모두 격파하였다. 전투 결과를 종합하면 조선 수군은 제2차 출동에서 조우한 일본의 함선 총 72척을 단 한 척도 남김없이 모조리 격파하였다.

제1차, 제2차 출동의 해전 결과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지상전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다. 제1차 출동에서는 조우한 50여 척 가운데 44척을 격파, 분멸하였고, 제2차 출동에서는 조우한 72척을 모조리 격파, 분멸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2차 출동에서는 조우한 72척이 단 한 척도 살아남지 못한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다. 제1, 2차 출동을 종합해 보면 조선 수군은 일본함선 총 116척을 격파하였으며, 특이한 것은 이런 와중에서도 조선 수군의 함선은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순신의 장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확인된다. 하나는 함선의 척수 측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리더 이순신의 탁월한 병법 역량이요 또 하나는 일본 함선을 압도하는 조선 수군의 단위 함정 당 질적 전투력이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당시 조선의 주력 전투함이었던 판옥선, 거북선의 단위 함정당 질적 전투력이다. 일본의 함선 116척이 격파되는 상황에서 조선의 함선이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은 사실을 단순히 리더 이순신의 탁월한 병법 역량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방적 해전 결

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기의 차이와 전술적 구사 능력이다. 조선 수군은 일본 함선을 격파할 수 있는 천자 · 지자 · 현자 · 황자총통 등의 대형 화약무기를 가지고 이른바 총통(함포)포격전술을 구사하는 첨단 수군이었는데 반해 일본 수군은 활이나 조총 또는 칼 싸움에 의존하면서 등선백병전술(登船白兵戰術)을 사용하는 재래식 수군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선 수군은 일본 함선을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반해 일본은 조선 함선을 격파시킬 수 있는 무기가 없었던 것이다. 조우한 일본 수군의 함선은 거의 모조리 격파된 반면 조선 수군의 함선은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이후 이순신이 벌인 해전의 일반적인 전술적 특징이다. 제3차 출동 중에 있었던 견내량해전, 안골포해전에서도 적선은 100여 척이 격파 및 나포된 반면 조선의 함선은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았다. 임진년 제4차 출동 중에 있었던 여섯 번의 해전에서도 일본의 함선은 160여 척 이상이 격파 되었는데 반해 조선의 함선은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았다.

갑오년 당항포해전에서도 발견된 31척을 모조리 격파한 반면 조선 수군의 함선 피해는 역시 전무했다. 이렇게 볼 때 임진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출동 그리고 갑오년 당항포해전의 전투결과는 조선 수군의 질적 전투력과 이순신의 탁월한 지휘역량을 잘 보여준다. 특히 임진년 네 차례 출동에서 조선 수군은 총 370여 척의 일본 함선을 격파, 반파, 나포하였는데 반해 조선 수군의 함선 피해는 전무하였다. 6:4, 7:3, 8:2, 9:1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10:0의 완전한 승리였던 것이다. 세계해전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조선 조정에서 전쟁 준비는 전혀 안하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 당파 싸움만 일삼다가 당했다

는 부정적 역사관, 자학적 역사관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지상군은 준비가 턱 없이 미흡해서 20일이 채 못 되어 수도 한성이 점령되는 등의 치욕을 겪었지만 수군의 경우는 나름대로 착실한 전쟁 준비가 있었다는 역사 인식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열세인 조선 수군이 아니라 양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질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조선 수군이 있었기에 이순신의 전승무패의 완전한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위대한 리더 이순신 뿐만 아니라 첨단 수군으로 발전해 있던 자랑스런 조선 수군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하기 위해 임진전쟁의 핵심 전투였던 한산도대첩과 명량대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한산도대첩

1592년 7월 8일 이순신의 제3차 출동에서 대응한 전투이다. 한산도대첩은 일본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 연합 함대를 결성하여 조선 수군을 격멸하기 위해 출동한 73척과 조선수군 55척과의 전투였다. 당시 왜선들은 견내량에 있었고 이순신은 왜군과 전투하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했다. 지형과 암초 조류 등이 조선 수군에게 불리한 곳이었다. 이순신은 강한 적의 허점을 형성해야 했다. 적을 유인하여 아군의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고,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조성해야 했다. 일본 수군의 연합함대 사령관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견내량의 좁은 물길에서 이순신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 일본은 노도처럼 조선 수군을 추격하여 한산도 이르렀다. 이제 전투력을 집중하여 조선 전함을 격멸하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망가던 조선 수군이 넓은 바다에서 갑자기 대형을 변환했다. 지금까지는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을 추격해 왔는데, 계속 모여드는 일본 전함과 좌우로 날개를 펴는 조선 수군의 대치현상이 역전되었다.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을 향해 대포를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 수군은 뒤따라오던 14척을 제외하고 약 60척의 배가 포위망 안에 갖힌 꼴이 되었다. 먼저 거북선이 일본함대의 대형을 분산시키며 대장선을 향해 진격하고 나머지 전선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포를 집중적으로 쏘아댔다. 용인전투[45]에서 1,600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군 5~8만여 명을 와해시켰던 와키자카 야스하루 연합함대가 불과 몇시간 만에 이순신에게 궤멸된 것이다. 일본 수군이 원하는 단병접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며, 조선 수군의 피해 역시 경미하였다.

한산도대첩에서 대패한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명(征明)의 전략은 무산되었다. 일본은 곧 명나라까지 진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엉뚱하게 수군에 의해 진출이 저지되고 결국 육지에서도 패배하기 시작하니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한산도대첩은 2차례의 출동으로 다져진 전투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된 해전이었다. 한산도대첩은 이순신의 기동력에 대한 자신감, 기동과 화력의 배합작전, 기만작전과 심리전을 이용한 하이브리드전, 원하는 장소에서 결정적 전투, 사전 철두철미한 훈련과 인화단결을 도모한 리더십 등의 총화였다.

---

45) 1592년 음력 6월 5일에서 음력 6월 6일 사이에 용인과 수원 사이에 있는 광교산 자락 근처(현 광교신도시 부근)에서 벌어졌던 전투이다. 임진전쟁 육상 전투 중 조선이 가장 어이없이 실패한 전투로 꼽힌다. 이 전투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1,600여 명의 군사로 무려 30배 ~ 50배가 넘는 5만 ~ 8만여 명의 조선군을 와해시켰다.

나) 명량대첩

명량대첩은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로서 무기와 장비, 병력을 건설하고 훈련시켜 놓은 전투력을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를 하던 중 궤멸되고 난 후 치러진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의 전면전이었다. 1591년부터 1597년까지 이순신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던 조선 수군이 1597년 음력 6월 말부터 7월 16일 칠천량해전 있기까지 수개월 만에 일본 수군에 의해 궤멸당하고 만 것이다.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어 1597년 음력 9월 16일 명량대첩 당시 수군의 전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일본은 133척의 전선에 조직적인 병력이 투입되었고, 조선은 칠천량해전에서 궤멸되기 전 배설에 의해 이탈한 12척의 전선을 중심으로 불시에 모집된 병력이 주력이었다.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일본은 강력한 전투력으로 이순신에게 패배했던 해전을 설욕하기 위해 벼르고 있었던 터였고, 지형과 해로(海路)를 파악하고 훈련을 해왔다. 반면 이순신은 지형과 해로(海路)와 조류를 알았고 세(勢)를 형성할 줄 알았다. 비록 많은 수의 적이지만 동시에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고 조선 수군의 전선은 동시에 싸울 수 있도록 형성함으로써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명량대첩의 패배로 일본군의 병참선이 차단되면서 북상을 포기하고 남해안으로 퇴각하였다. 이후 일본은 남해안의 해상 병참수송로가 차단되어 전라도 곡창지역의 병참 확보와 더불어 계속 진격하려는 전략은 좌절되고 기나긴 임진전쟁의 막을 내려야 한다.

4. 6분법에 의한 이순신의 군사사상 분석

가.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전쟁의 본질이란 전쟁이 본디부터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모습이다. 본질의 속성은 보편적 속성과 고유 속성으로 구분되는데 보편적 속성은 다른 대상들과 공통으로 소유하는 속성이고, 고유 속성은 그 사물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필연적으로 이 사물 이외의 어떤 사물도 이 속성을 갖지 않는 것이다. 전쟁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는 전쟁의 본질과 전쟁의 정의이고, 둘째는 수행 신념의 측면이며, 셋째는 전쟁의 성격과 양상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이고, 넷째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이며, 다섯째는 전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로 전시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는가의 문제이다.[46] 이러한 관점에서 이순신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전쟁이 발발한 시기에 조선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하여 전시와 평시체계를 구분하여 진관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북방은 제승방략체계, 남서해안은 해군력으로 연안방위를 하였다. 북방 여진과 몽고에 대해서 북방 양계에 대해 제승방략 국방정책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위협이 있는 곳에 중앙집

46) 김유석, 앞의 책, pp. 96~97.

권적으로 전력을 집중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해상은 수군 전력을 양성하여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제승방략체계는 그간 조선은 진관체계의 국방정책을 수행했으나 을묘년(명종 10년, 1555)에 왜변이 일어난 이후에 김수문에 의해 분군법을 시행하여 제승방략체계로 변경하였다. 제승방략의 문제점을 논의했지만 결국은 논의만 된 상태였다.[47] 그 당시 조선의 외교정책은 명과는 사대, 여진과 일본 등과는 교린정책을 펼쳤다. 조선은 주변국과의 국제관계도 원활하지 못했고, 국정운영과 군사력 건설 및 운용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545년 한양에서 출생한 이순신은 32세 무과에 급제 후 42세에 함경도에 조산보의 만호와 이듬해 녹둔도 둔전관으로로 봉직되어 여진 오랑캐를 무찔렀으나 이일이 거짓으로 보고하여 백의종군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서애 유성룡의 천거에 의해 육군이 아닌 수군의 장수로 발탁되어 47세 나이로 전라좌수사로 봉직하게 된다. 임진전쟁은 전라좌수사로 봉직된 이듬해에 발발하였다.

첫째 이순신의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만전사상(萬全思想), 속승사상(速勝思想), 제승사상(制勝思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만전사상은 만전지계(萬全之計)사상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군사사상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知彼知己 百戰不殆), 나를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不知己 不知彼 百戰必敗)는 것이다. 만전사상은 완전한 계책으로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전쟁에 임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사상이다. 만전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보이전승(自保而全勝)'의 사상으로

47) 유성룡, 앞의 책, pp. 43~45.

서 평시에 국방의 충실을 기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에 있어서의 만전을 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는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는 망전필위(忘戰必危)의 사상으로서 이순신은 강한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을 배양하고, 아군의 취약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전쟁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다. 이순신이 임진전쟁의 첫 전투였던 옥포해전을 시작할 때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산과같이 고요하고 무겁게 하라'고 한 것은 바로 만전사상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속승사상은 전쟁을 수행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조금 미흡하더라도 빨리 종결해야 하는데, 이는 전쟁을 오래 끌어 국가에 이익이 된 예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투입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끊임없이 전쟁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순신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귀하나 오래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전쟁의 속성을 아는 장수만이 백성의 생명과 국가 안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상태에서 개전이 되면 최단 시간 내에 전투를 종결하여 완벽한 승리를 달성하고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순신은 전쟁에서 기교를 부리면서 멋있게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비록 멋있는 종결의 형세가 아니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순신이 해전을 치를 때 1~2시간 내에 종결했던 것은 멋있게 승리를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원하는 승리를 달성했기 때문이며,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셋째, 제승사상(制勝思想)은 제승지형(制勝之形) 구비전략 또는 제승전략(制勝戰略),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소의 피해와 희생을 통해 '이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지 않는' 불패전략(不敗戰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승이란 말은『손자병법』제6편 허실편에 나오는 말이다. 제승지형(制勝之形)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장수가 사용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략, 전술 등의 요소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말의 뜻은 승리를 위해 은밀하게 그 유리한 조건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48] 세(勢)를 형성하여 적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과 교전 결정권과 장소의 선택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승리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여 승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순신의 군사적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가 되고 난 후 한산도에 제승당(制勝堂)을 지어 거기에서 모든 작전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장수들과도 의논하였다. 제승당은 운주당(運籌堂)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는데, 운주당이란 이름은 한산도에서만이 아니라 이순신이 가는 곳마다 주둔하는 곳에 편의상의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한 것으로 결국 운주당과 제승당은 같이 불려진 것으로 믿어진다. 이순신은 제승사상에 기초하여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제공격전술, 함포포격전술, 화공전술, 진법전술, 기만작전과 심리전, 포위섬멸전 등 다양한 전술을 전투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구사하여 모든 해전에서 연전연승의 전무후무한 위업을 달성했다.

둘째로 전쟁에 대한 수행 신념은 이순신의 군사적 천재성

---

48) 노병천, "이순신 장군의 제승(제승)과 불패(불패) 전략,"『평화와 안보』제2권(2005), p. 51.

에서 엿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군사적 천재에 관한 내용은 손자병법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임진전쟁과 같은 결과도 이순신이 군사적 천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순신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식과 인격수양 및 무예를 연마함으로써 문무를 겸비한 장수이면서도 군사력 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임진전쟁 난중일기에 기록된 내용에도 군사력 및 전략전술 연구, 군사시설 및 병영 점검, 활쏘기, 거북선 건조 및 전투실험 등 이순신은 자신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지휘체계를 정립하는 데 매진하였음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타고난 천재적 군사적 자질은 바로 직관력과 혜안, 그리고 공간 감각이다. 이순신은 어떤 사물을 보면 즉각적으로 속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력과 혜안이 이순신이 냉정함과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왜군과의 전투를 연구하는 이순신은 수군의 전략을 '왜의 증원 및 병참선 차단'에 두고 해전에서 결정적 전투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정과 주요 장수들은 '왜군은 섬나라 사람들이므로 육전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육지에서 싸울 것을 주장했다. 만약 조선이 육지에서 싸울 수 있도록 육군만 건설하고 수군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임진전쟁의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순신은 수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수군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로 통행 첩[49]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

49) 해로 통행 첩 제도의 시행은 이순신의 통제영 수군 입장에는 백성과 왜군 세작을 구별하는 군사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고, 어민 등 피란민들의 처지에서는 수군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방법이다. 피란민은 배에 싣고 다니는 곡식 중의 일부를 통제영에 주면 되는 것이고, 수군이 지키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

구했다.[50]

이순신은 공간감각을 가지고 작전구상과 현장의 피아 상황을 고려하여 전투에 임했다. 제승당에서 장수들과 의논을 하는 것은 작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겠지만, 전투를 해야 할 지역의 기후와 날씨, 지형 조건, 피아 전략과 전력 및 전술의 차이 등 제 요소를 고려하여 논의한 다음 현지에 가서 재차 관찰한 뒤 전투에 임함으로써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전쟁 경험을 통해서 향상된 육안과 심안(心眼) 능력은 적과 아군의 상태와 지형에 맞는 공간 감각을 토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완승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순신의 전투수행 신념은 한산도대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순신은 국가전략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구사하였다. 임진전쟁 당시 전라도 지역의 지상전에서 결정적 전투를 하는 것보다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과 해상에서 결정적 전투를 하는 것이 국가전략 목표 달성에 최대 이점으로 판단하여 한산도에서 결정적 전투를 하였다. 이순신은 수륙양면으로 해상 보급로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확보하여 한양과 평양으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의 전략을 꿰뚫어 본 것이다. 이러한 결정적 전투를 하기 위해 이순신의 솔선수범 리더십, 지형의 이점 활용, 정보작전, 기만작전 및 심리작전, 포위섬멸작전, 유인격멸작전, 창의적인 학익진 전법 활용 등은 이순신의 전쟁에 대한 임전필승의 수행 신념에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쟁 성격과 수행 양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총력전 사상을

상생하는 제도이다.

50) 최학삼, “이순신의 수군재건과 특별조세 징수에 관한 연구,” 『JCCT』 Vol.4, No.2, 2018, pp. 10~11.

볼 수 있다. 당정논쟁과 문약한 군사 운용으로 관과 군의 전력이 미미했지만, 전국 각 지역 각 계층에서 의병이 일어나 관군과 합동으로 일본군과 전투하였다. 한산도대첩 간에 육지에서는 권율, 황진, 이정란, 이광을 위시하여 전주성을 의병과 관군이 지키어 전라도 지역으로 공격하는 일본의 수륙양면작전을 육지에서 방어할 수 있었다. 이순신과 전라도 합동군은 육군 및 수군 전력을 통합하여 합동작전을 구사하였다.

1592년 7월 8일 일본군이 지상과 해상으로 공격하여 전라도를 포위하여 점령하고 한양에서 평양으로 진출하는 일본군의 보급로를 원활히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에 이순신은 전라도 지역의 지상군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합동작전을 하였다. 해상에서의 패배는 전라도 함락과 동시에 일본군의 보급로를 열어준다는 판단으로 한산도에서 결정적 전투를 하기로 하였다. 이순신은 비록 여수에 본영을 둔 전라좌수사 사령관이었지만 경상우수사 지역인 거제지역까지 출병하여 전라우수사 이억기 사령관, 경상우수사 원균 사령관과 해상에서 합동작전으로 55척의 함선으로 일본군 야시모토 73척에 대응하여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는 육군 및 수군, 의병과 백성이 함께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순신의 총력전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순신은 전장의 지형과 정보 그리고 리더십을 잘 활용하여 전투현장에서 최상의 전투 승수효과를 발휘하도록 지형과 사람을 활용하였다. 지형과 정보를 이용한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의 자세로 견내량의 좁은 해로의 수심과 물살을 이용한 적을 기만하고 유인하여 넓은 지역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판옥선으로 수성을 쌓고 와타나베의 쇄기전법이 말려들도록 유인하였다. 학익진을 편성할 때도 함선의 장단점과 지휘관의 능력과 태세를 고려하여 편성하였고 경상우수사 원균의

리더십과 성격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일본 안택선을 가장 지근거리까지 유인하여 포위섬멸이 가능하도록 지휘의 통일과 대담성을 유지하였다. 일본군이 의기양양하게 학익진 전법에 말려들었을 때 함포와 판옥선의 기능을 잘 조합하고 화약의 양과 교란탄을 이용하고 판옥선의 급선회 능력을 이용하여 일본 해군 77척을 섬멸하고 와카자키는 도주하고 14척만 수습하여 패주하였다.

이후 이순신은 전과확대하여 부산진 등 일본 함선을 추가로 격침하여 더 이상 수군 전력이 발휘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상에서 전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하드웨어(판옥선과 거북선)와 소프트웨어(이순신 창의적 전법)의 조합이다. 판옥선의 기능과 거북선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창의적인 전법이 조합되어 한산도대첩에서 일본 수군 와타나베 야스하루의 쇄기전법이 먹히지 않도록 했다. 이런 전법의 변화를 일본군이 알아차릴 때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나.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

국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제반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획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요소 중에서 무엇보다 군사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한된 자원 범위 내에서 군사력을 건설하게 된다. 군사력 건설은 양적 확충과 질적 확충을 구분할 수 있다. 양적 확충은 소총의 경우를 예를 들면 M1 소총보다 성능이 뛰어난 K2 소총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직책에 따라 K3 기관총 또는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하는

것이다.[51] 또한, 군사력건설에 대해 유형·무형전력 측면에서 보면 유형전력은 전력구조의 현대화, 부대 수, 전투기, 항공모함 등과 같은 것을 갖추는 것이다. 무형전력은 정신력 및 체력, 단결력, 준비태세, 훈련수준 등과 같은 군사능력을 개발하고 건설하는 것이다.[52]

눈에 보이는 유형전력은 병력과 무기, 장비 등이다. 무형전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력으로 정신전력, 사기, 리더십 정도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당연히 포함되고 다른 중요한 무형전력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순신은 부족한 유형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무형전력을 높이기 위해 수군 병사들을 철저히 훈련시켰다. 서로 믿고 단합하게 했으며, 인상적인 연설을 통해 부대정신을 드높였다. 이순신의 첫 전투였던 옥포해전이 임박했을 때, 휘하 병사에게 "명령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태산같이 신중하게 행동하라(勿令妄動 靜重如山)"라고 지시하며 전장에서 지휘통일을 하였다. 명량해전 출전을 앞두고 이순신의 필생즉사(必生卽死) 필사즉생(必死卽生) 정신훈화는 부족한 유형전력을 보충하는데 충분한 연설이었다.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이순신은 양적 확충 못지않게 질적 확충이 역시 매우 중요하고, 유형전력 못지않게 무형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신있게 준비한 것이다.

부하 장병의 훈련에도 창의적인 방법과 용병술을 이용하여 반복 훈련을 한 다음에 실전에 투입하였다. 1594년 3월에 있었던 제2차 출정은 첨자진(尖字陣)과 학익진(鶴翼陣)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전승불복 즉, 같은 전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51) 김유석, 앞의 책, pp. 182~183.
52) 이필중, "한국의 군사력 건설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한국의 군사력건설과 전략』(서울: 국방대학교, 2002), p. 4.

않고 변형하여 학익진 전법을 응용하였다. 일본 안택선 쇄기식 공격 전술을 역이용하여 최대한 지근거리까지 유도하여 수성을 쌓아서 방어적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판옥선의 기동의 이점과 함포의 장점을 이용하여 판옥선을 순식간에 회전하여 함포를 이용하여 대량살상을 하였다. 살상지대를 이용하였고 교란탄과 환구탄을 병용하여 대량살상을 유도하였다. 군사혁신을 통한 상대적 우위 점령 및 군사혁신의 전투현장에서 유연성 있는 적용으로 상대적 전력우위 및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달성하였다.

임진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군의 전술능력을 향상시킨 병서는『기효신서(紀效新書)』였다.『기효신서』가 도입된 시기를 1593년 2월 무렵이라는 보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그러나『기효신서』의 완질 혹은 중요내용 일부가 도입된 것은 이보다 2~3년 앞섰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임진전쟁 발발 직전인 1592년 3월 5일 좌의정 유성룡이 보내준 병서『증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을 읽고 이순신은 “참으로 특이한 전술”이라고 탄복했으며, 그 내용이 해전과 육전 그리고 화전(火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기효신서』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하기 전에 “저도 방략(方略)에 따라 방비를 튼튼히 하고 적을 제압할 제반 사항을 각별히 조치했다.”라고 밝힌 점은 이순신이 체득하고 있던 고전병서(古典兵書)와 다른 전술내용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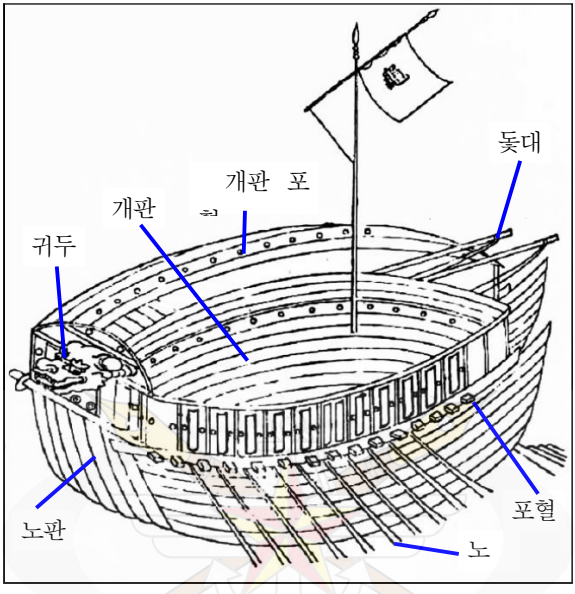
유성룡이 보낸 병서를 보고 탄복했고, 방략에 따라 적을 제압할 조처를 한 이순신의 전술은 바로의 기동항해와 전투진형(학익진)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기효신서』의 전술을 그대로 실전에 적용할 수 없었다. 그 첫째 이유는『기효신서』에서 다루는 무기와 조선 수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다

르기 때문이다. 즉 『기효신서』의 무기체계는 경화기인 조총, 불랑기(신비포, 호준포) 육합총, 백자총과 투척 무기인 탕관, 산화포, 이두표, 그리고 화살류의 화전 등이었다면 임진전쟁 당시 조선 수군의 무기는 중형화기인 천자, 지자, 현자, 황자포이며, 화살류로 장전과 신기전 그리고 편전이었다. 실전 무기가 다른 상태에서 『기효신서』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승전의 전술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순신이 해전에서 자주 사용했던 전술은 학익진이었지만 『기효신서』의 전투진형에는 학익진이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이 작성한 전투편성은 중위장, 좌부장, 중부장, 유군장(遊軍將), 우부장, 후부장, 좌척후장, 우척후장, 한후장, 참퇴장, 돌격장 등 장수의 전투임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기효신서』수조에는 위와 같은 직무편성이 없다. 이순신이 작성한 직무편성표는 세종 때부터 시행되었던 지상군의 전술인 『제승방략(制勝方略)』의 직무편성과 일치하고, 세종 때 발간된 『계축진설(癸丑陣設)』 『진도법(陣圖法)』의 행군 진(陣)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순신이 조선 고유의 전술과 새로 도입된 『기효신서』의 전술을 응용하여 실전의 전술로 활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순신 함대가 기동항해를 하다 적을 만나면 신속하게 전투 진형으로 전환하는 전술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유형전력에 있어서도 이순신은 창의적 군사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거북선과 같은 신무기를 전력화하였다. 이순신이 전력화한 거북선의 실마리는 고려의 과선(戈船)과 검선(劒船)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선이라는 이름은 뱃전에 짧은 창검을 빽빽하게 꽂은 데서 기인했다. 이런 모양의 배를 만든 까닭은 11세기 동북 지방에 침입해온 여진족 군사들이 한꺼번에 수십 명씩 고려의 배에 뛰어들어 근접 백병전을 벌였기 때문이

다. 뱃전에 창검을 빽빽하게 꽂은 이유는 근접 백병전을 선호하는 여진족 군사들이 뱃전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검선(劒船)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절요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려 우왕 3년(1377년) 만호(萬戶) 손광유(孫光裕)가 강화도 착량(窄梁)에서 왜구와 전투 중 부상을 당했는데, 검선을 타고 빠져나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세종실록에는 검선(劒船)에는 한 자 되는 창과 칼을 뱃전에 벌려 꽂아서, 적이 칼을 뽑아 들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고 적혀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려 때부터 조선 초까지 수군에서 과선과 검선을 운용하게 된 공통의 이유는 근접 백병전에 능한 여진족이나 왜구가 우리의 함선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대부터 동이(東夷)라고 불리면서 활쏘기에 능했던 우리 군사들이 근접전인 칼싸움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림 1〉 한산도(통제영) 거북선(귀선)



* 출처: 최권호, "임진왜란기 거북선 건조", 『국방일보』9면(검색일:2022.8.18.) 참고하여 재작성.

거북선(龜船, 귀선) 또한 마찬가지다. 거북선은 뱃전 위로 거북 등 모양의 개판(蓋板)을 덮어서 칼싸움에 능한 적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보면 과선이나 검선이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함선이다.

거북선이란 명칭은 조선조 태종실록에 처음 나온다. 태종 때 처음 등장했으나 실전 배치되지는 못했다. 1592년 이순신에 의해 비로소 실전에 쓰이도록 건조됐다. 임진전쟁 시기 운용된 거북선의 특징은 임진년 이순신의 장계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에 간략한 내용이 있고,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 1566~1619년)이 쓴 이순신 '행록(行錄)'에 약간 더 상세한 내용이 있다. 이분은 여러 차례 통제영에 가서 거북선

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장계 못지않게 신뢰성이 높은 자료다. 임진전쟁 간에 거북선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주는 것이 1795년 발행된 『이충무공전서』이다. 귀선도설에는 당시 통영에 있었던 통제영 귀선과 여수에 있었던 전라좌수영 귀선의 그림을 수록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록했다.[53] 이후 임진전쟁이 발발하는 임진년 4월 12일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그가 조정에 보낸 장계(狀啓)인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에 거북선이 본격 등장하기까지 그 어디에도 거북선에 관한 기록이나 활동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임진전쟁 기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의 창제품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54]

다. 전시에 군사력으로 전쟁수행

군사력을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쟁 발발 시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력을 활용하는 용병은 이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부터 전쟁수행 등을 위해 운용하되,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운용이다. 둘째, 국가목표 및 국가안보목표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셋째, 대관세찰의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군사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인간존중 정신이 반드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55] 이러한 측면에서 이순신이 전시에 군사력으로 전쟁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53) 최권호, “임진왜란기 거북선, 어떻게 만들어지나,”『국방일보』(2022년 8월 18일 9면).
54) 임원빈c, “임진왜란기 거북선, 왜 만들어야 하나?,”『국방일보(2022년 8월 16일 9면).
55) 김유석, 앞의 책, pp. 211~218.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이다. 전쟁의 억제는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면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여겨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막강한 억제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조선은 일본 통신사의 보고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순신은 전쟁연구와 교육훈련을 통해 전쟁에 대비하므로 억제를 달성할려고 군사력을 운용하였다. 임진전쟁전 이순신은 백의종군 후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었을 때 실제 전쟁 발발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모집하고 확보된 전함과 거북선을 정비하여 지속해서 전쟁준비를 하였다. 정유재란 시에도 용인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일본군은 수로를 확보하여 보급선이 확보되면 한양으로 진격하여 전쟁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순신의 명량해전 승리로 해상보급로가 막혀 결국 전쟁을 포기하여 철수하게 되었다. 이는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133척을 궤멸시킨 이순신의 리더십과 탁월한 군사력 운용으로 전쟁이 더 이상하지 못하도록 억제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목표 및 국가안보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정유재란 시 조선의 군사전략목표는 일본군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해군과 육군의 연합을 차단하고 전쟁지속능력을 차단하여 국토를 방위하는 전략이었다 전략개념은 남해안에서 일본군이 수륙양면으로 협동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적을 격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군사력 운용은 전라도 지역의 관군과 의병으로 전주성 함락을 방지하고 해상에서는 이순신이 함선 55척과 거북선 3척으로 해상에서 전투하는 것이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수륙양면으로 협동하는 일본군을 해상에서 결정적 전투를 하여 적의 보급로 차단과 전략적 목표인 전라도 점령을

무력화하는 군사전략이다. 이순신은 12척의 전선으로 일본 수군 133척에 대항하여 중과부적으로 후퇴하거나 해전에 패배하였다면 조선은 일본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이순신은 '필사즉생 필생즉사' 구국일념으로 명량대첩에서 승리하였다. 이순신의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군사적 혜안과 지혜를 발휘하는 군사전략가로서 모습이다.

이순신은 1592년 삼도수군통제사로 제수된 이후 수군의 재건을 위해 30일간 60km의 대장정을 하던 도중에 선조의 교지를 받았다. 선조는 '수군의 전력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해 전쟁에 임하라'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교지를 받은 다음 날 장계를 올렸다. 이순신은 '지금 신에게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今臣戰船 尙有十二)'라는 항명으로 여겨지는 장계를 올려 보냈다. 죽음을 각오한 이순신은 수군을 재건하여 일본 수군을 남해안 진출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일본군으로 남해안의 보급수송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56] 이순신의 군사전략적 판단은 남해안의 해상수송로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일본군이 한양 점령 이후 평양으로 진격하여 조선이 함락될 것으로 여겨 선조의 교지까지 거슬리며 수군을 재건한 것이다. 이는 이순신의 군사전략적 판단이 국가목표와 국가안보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이다.

셋째로 대관세찰이 시각을 견지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소나무 숲을 보지 못하고 전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전나무숲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순신이 해전에서 창의적인 진법 전술을 구사하였다. 병세(兵勢)에 있어서 진을 형성하는 것은 그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순신이 옥포, 당

56) 황현필, 앞의 책, pp. 294~303.

포, 한산도, 부산포 등 많은 전투에서 싸운 형태를 볼 때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그것을 병세면에서 볼 때 실로 다양한 모습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전장 상황에 따라 진형(陣形)에 변화를 창의적으로 적용하였다. 병진(兵陣) 형태로 볼 때 이순신이 즐겨 쓴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본 진법은 어린학익(魚鱗鶴翼)·학익진(鶴翼陣)·어린진(魚鱗陳)·팔진기문법(八陣奇文法) 등이다.

먼저 학익진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학익진법 또는 어린학인은 옥포해전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율포·당항포해전 등에서도 즐겨 사용하였다.[57] 다음으로 어린진(魚鱗陳)을 들 수 있다. 특히 옥포해전 때에는 학익진도 첫선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린진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어린진이란 대열로 진격할 때 큰 전선을 따르게 하며 대선과 소선이 모두 넓은 기폭을 올리게 하여 전선의 수가 많아 보이도록 하는 진법이다. 물론 이러한 진형만을 가지고 모든 전투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형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적용하였다. 예컨대 어린진형에서 학익진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합분산의 조합을 가미한 팔진기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어린진법으로 기선을 제압하여 적을 포위한 뒤 팔진기문법으로 적의 함대를 쳐부수는 것이다.

이순신은 단일적인 처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과 우세한 것 기능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전법으로 일본 수군을 한산도 앞바다에서 종말을 알리는 전쟁을 한 것이다. 그동안 사용하였던 전법과 무기로 뻔한 전법을 구사하기보다 기존의 전법과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형된 무기를 개발하고 모든 수단을 하나로 조합하여 지난번에 볼 수 없었던

57) 김강녕, 앞의 글, p. 236.

새로운 전법의 지휘로 전쟁에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군사적 천재만이 할 수 있고 이순신과 같은 명장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군사적 혜안이다. 미래 전쟁 주인공은 연주장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지휘자만의 특권이듯이 전장에서 모든 수단을 조합하여 맛있는 비빔밥을 누가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넷째로 군사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인간존중 정신이 반드시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신은 어려서부터 문과 무를 접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가에 대한 충성과 백성과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직책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를 실천하였다. 주로 변방에서 근무하면서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수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면서 인간존중의 정신을 항상 밑바탕에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은 일본군과 해전 종료 후 몇 척을 남겨두고 적들이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패잔병들이 내륙에서 백성을 약탈하고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애민사상이 해전 전술에까지 스며든 인간존중 정신이라 할 수 있다.[58]

58) 임원빈b, 앞의 글, pp. 30~35.

라. 평시 국가안보 지원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은 견해가 다양하지만, 국가안보란 국내·외의 각종 군사·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 군사, 문화 등 여러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나아가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안보개념은 안보행위 주체, 안보 영역, 안보유형이 확장되고 심화하여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비군사적 요소의 상대적 증대, 인간안보 위협 해소 등 비전쟁 군사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시 국가안보 지원' 역시 범위와 영역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 국가안보 지원은 어떻게 군사력을 지원할 것인가에 주안을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평시 국가안보 지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해재난, 감염병 확산, 환경오염, 식량안보 등 인간안보 등과 같은 포괄적 안보개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확대되었다.[59] 이순신의 평시 국가안보 지원분야 군사사상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순신은 해상에서 전쟁의 엄중한 상황에서 백성의 생계와 안전을 늘 배려하였다. 어민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바다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만 어로를 허용하였다. 어민이 경계선을 넘어 고기잡이한 경우에 군령을 적용했을 정도로 엄격했다. 군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위험지역에 고기잡이하다 일본군에게 사로잡히면 수군

59) 김유석, 앞의 책, pp. 237~238.

과 관련된 정보가 일본군에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민을 위해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만 어로를 허용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60] 임진전쟁 당시는 포괄적 안보개념이 없었지만, 어민을 위한 이순신의 배려는 지금의 포괄적 안보개념 사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일본군은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상륙 이후 파죽지세로 5월 3일 한양을 함락했다. 일본군의 침략 축선에 있던 수많은 영남의 백성들이 호남지역으로 피란길에 오르자 이순신은 아래와 같이 장계를 조정에 올린다. 여기에서 이순신은 백성들이 기아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했던 사상은 지금의 식량안보 차원 백성의 생명과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애민정신이 아닌가 한다.

> "영남의 피란민들이 본영 경내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자들이 200여 가구나 되는데, 각각 임시로 살 수 있도록 하여 겨울을 지내게 하였는데, 지금은 구호할 물자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사변이 평정된 뒤에는 제 고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서 굶어 죽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보낸 서장(書狀)에 의거하면 전일 도착한 비변사의 공문에, 〈이번에 여러 섬 중에서 피란하여 농사지을 만한 땅이 있으면 피란민을 들여보내어 살게 하되, 형편을 참작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신은 피란민들이 들어가 살 만한 곳을 생각해 보았는데, 돌산도 만한 곳이 없습니다."[61]

60) 방기철, 앞의 글, p. 113.
61) 임원빈b, 앞의 글, p. 52.

마. 평시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 군사력 운용

평시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 군사력 운용을 군사사상 분석 범주에 포함하는 이유는 평시부터 군은 전쟁 등 국가 위기관리를 위해 준비된 상태이므로 국가 내에서 다른 조직이나 기능보다 인적·물적 자원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한된 국가 예산 대비 대체 능력을 투입할 때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시 우선 군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쟁에 대비하는 임무 이외 평시에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로써 군사사상 차원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군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구현하는 것과 국가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는 것은 왜 중요한지 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의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대응 및 지원, 공익 지원, 국가기능 회복 지원 등과 같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군사사상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62] 이러한 차원에서 이순신의 평시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 군사력 운용에 관한 군사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임진전쟁 당시에 군이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이순신이 전쟁터에서 부하 장병이 전사한 경우에 시신을 배에 실어 고향으로 보내주고, 고향에 있는 처와 자식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한 구휼(救恤)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

62) 김유석, 앞의 책, pp. 255~256.

다. 또한 해전에서 전사한 부하 장수와 군졸들을 위해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했던 사례는 지금의 국가가 시행하는 보훈 정책을 전투현장에서 구현한 사례이다.[63]

바.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군 운영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군 운영은 큰 범위에서 보면 평시 양병의 한 분야이다. 하지만 김유석은 군사사상을 구분할 때 순수한 양병 분야는 두 번째 범주로 구분하면서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戰時 養兵)'로 분류하였다. 이는 군 조직편성에 따라 인원, 장비 및 물자를 활용하여 부대를 갖추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전쟁에 대비한 '순수 양병' 분야이다. 반면에 여섯 번째 범주는 두 번째 범주를 통해 양병한 군사력을 효율성·경제성을 고려하여 평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주안을 두는 것이다.[64] 이러한 관점에서 이순신의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군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학익진이 자주 등장하여 학익진은 이순신이 고안한 독창적인 전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학익진은 조선 문종이 편찬한 병서인 『동국병감(東國兵鑑)』에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군은 학익진을 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익진은 수군을 위한 진법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운용하는 기본 진법인 셈이다.[65] 이순신은 이러한 기본 진법을 익히 알고 전쟁을 준비하였으며 지상전뿐만 아니라 해전에서도 군사

63) 임원빈b, 앞의 글, pp. 17~19.
64) 김유석, 앞의 책, pp. 268~269.
65) 유성룡, 앞의 책, pp. 153~154.

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가 평시부터 준비하였다.

이순신은 민간요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어선과 민간인을 활용하여 군사작전을 하였다. 민간인을 세작(細作)으로 운용하여 일본군의 활동을 파악하고 첩보로 활용하였다. 또한, 부족한 함선을 극복하고 보급지원, 구조를 위해 민간어선을 동원하였다. 명량대첩 간에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13척의 전함과 함께 민간어선이 동원되어 전투하였다. 이순신은 해군력을 모집할 때도 탁월한 리더십과 민군 친화력으로 많은 국민을 모집하였다. 이순신의 국민에게서 신망은 선조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군사력은 유사시에 정규군 외 많은 민간인을 동원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민간인에 대한 두터운 신망은 유사시 군사작전의 승패와도 같은 것이다.

지금의 민군관계는 '민'과 '군'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영역에 충실하면서 상호 융합되고 협조 및 지원하여 이를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목표와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사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군이 민의 영역도 충분히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군이 국가안보목표나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 분야 외에도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기술 · 자연환경 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기술 · 자연환경 분야가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해 군이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은 400여 년 전에도 두터운 민군관계를 이용한 평시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의 기록이 남아있는 1,472일 중 134회 군령을 집행했다. 주로 전쟁을 준비하는 평시에 집행하였고 전시 상황을 감안해도 빈번한 것이라 할 수 있다.[66] 이순신은 전쟁준비 차원에서 전투준비를 점검하며, 군관들과 색리(色吏)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으면 곤장을 쳐서 전투준비태세에 소홀함을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이순신은 애민정신을 발휘하여 부하가 백성에게 해를 끼치면 곤장을 치면서까지 군기강을 확립하였다. 이순신의 군령집행은 주로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여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러더십이다. 이는 양병한 군사력을 평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주안을 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난중일기』에 이순신이 남도의 비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러한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개인을 위해 조직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현재의 군사력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진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장차 어떠한 전쟁양상이 나타날지 예측하면서 진법을 연구하고 이를 위하여 판옥선을 추가로 건조하고 거북선을 만들었으며, 편전과 큰 화살을 만드는 등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진력하였다. 또한 갖춰진 무기체계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였다. 이순신은 조정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하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수군의 재건을 독자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적극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적과 지형 및 기상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획득된 첩보를 토대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평시 이순신의 머릿속에는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How to fight?를 늘 생각

66) 방기철, 앞의 글, pp. 91~92.

하는 사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사. 이순신의 대표적인 군사사상

앞에서 분석한 범주별 내용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이며 대표할 만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범주별로 도출한 핵심 군사사상을 분석하여 이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내용을 도출한 다음 이를 다시 압축하여 핵심사상을 도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주별 핵심 사상을 토대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이순신의 사상을 도출하였다. 이순신의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상은 총력전, 만전, 속승, 제승, 무형전력, 군사혁신, 임무형 리더십, 애민사상, 보훈사상, 엄격한 군령 집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표 4〉 이순신의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군사사상 도출 결과

구 분	범주별 핵심 군사사상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상
범주 1 전쟁인식	• 만전사상, 속승사상, 제승사상 • 총력전 사상,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만전, 속승 제승, 총력전
범주 2 양병	• 유형전력보다 무형전력이 중요 • 창의적인 방법과 용병술, 군사혁신	무형전력, 군사혁신
범주 3 용병	• 탁월한 임무형 리더십과 군사력 운용 • 국가전략에 기여, 전술의 다양한 변용	임무형 리더십

범주 4 평시 안보지원	• 백성으로부터 신뢰 형성 • 애민정신	애민사상
범주 5 국가정책지원	• 전사자 집안 구휼조치, 보훈정책 지원	보훈사상
범주 6 군사력 관리 · 운영	• 민간어선과 민간인 군사적 활용 • 부하에 대한 엄격한 군령 집행	엄격한 군령 집행

도출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상을 다시 압축해 보면 만전, 속승, 제승, 군사혁신, 무형전력은 전장우위로 전쟁 승리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전쟁 종결 태세로 '총력전으로 강력한 전쟁여건 조성과 속전속결'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임무형 리더십, 애민사상, 보훈사상은 최고 사령관의 책임감과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사상을 견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상 중에서 최종 압축된 핵심사상은 '총력전, 속승, 제승, 군사혁신, 임무형 리더십, 애민'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압축된 핵심사상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군사사상은 '국가 총력전으로 군사혁신과 임무형 지휘를 통한 속전속결전'이라 말할 수 있다.

5. 결론

성웅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연구는 단편적으로 해전과 일대기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순신의 어린 시절, 무과 급제

이후 함경도 조산보 만호와 녹둔도 둔전관 공직 생활과 1차 백의종군, 임진전쟁 당시 백전백승, 2차 백의종군, 그리고 백척간두의 국가위기 속에서 삼도수군통제사 관직을 제수하는 등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순신은 선조의 수군 재건 불가의 교지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13척의 전함으로 130여 척이 넘는 일본 수군을 남해안에 수장시켰다. 이순신은 백의종군의 신분에서 국가를 위하는 조정 대신들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하여 조선 수군이 궤멸된 후에도 이를 다시 재건하여 대규모의 일본 수군을 일격에 격침하게 된 것이다. 무조건 임금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이익에 합하면 출전하고 이익에 합하지 않으면 출전하지 않았던 것은 개인에게 이롭지만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사상의 6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는 만전사상(萬全思想), 속승사상(速勝思想), 제승사상(制勝思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수행 신념은 이순신의 군사적 천재성에서 엿볼 수 있었다. 전쟁 성격과 수행 양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총력전 사상을 볼 수 있다.

둘째,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은 양적 확충보다 질적 확충이 중요하고, 유형전력보다 무형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신있게 준비하였다. 훈련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방법과 용병술을 이용하여 반복 훈련을 한 다음에 실전에 투입하였다. 특히, 이순신은 창의적 군사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거북

선과 같은 신무기를 전력화하였다.

셋째, 전시에 군사력으로 전쟁수행으로 이순신은 13척의 전함으로 일본군 130여 척의 전함을 수장시키는 탁월한 임무형 지휘와 군사력 운용으로 전쟁을 종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수륙양면으로 협동하는 일본군을 해상에서 결정적 전투를 하여 적의 해상 보급로와 전략적 목표인 전라도 점령을 좌절시켰다. 전술적 차원에서는 학익진법 등을 형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어린진형에서 학익진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합분산의 조합을 가미한 팔진기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평시 국가안보 지원 차원에서 이순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전장에서 발휘하여 피란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대민사상과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다.

다섯째,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 군사력 운용으로 이순신은 전사자가 발생 시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고, 미망인과 가족에게 구휼조치를 시행한 것은 국가의 보훈정책을 전투현장에서 구현한 사례이다.

여섯째,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운용으로 이순신은 평시에 형성된 대군 신뢰로 전시에 민간어선과 민간인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평시 군령 집행을 엄격하게 하여 군사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주안을 둔 것에서 볼 수 있다.

전략문화를 일반적으로 전쟁 및 전략에 관해 한 국가가 갖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명확히 구별되는 신념, 태도, 행동패턴으로 본다면[67] 이순신의 군사사상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

67) 박창희b, 앞의 책, pp. 391~393.

략문화 속에서 형성된 고유의 군사사상이라 할 수 있다.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목표로 '국방혁신 4.0'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68] 추진중점 중 하나인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 발전'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략문화 속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순신의 '국가 총력전으로 군사혁신과 임무형 지휘를 통한 속전속결전' 군사사상을 고려하여 발전되길 기대한다. 현대 군사사상 이론으로 분석한 조선시대 이순신의 군사사상 연구 결과는 4차 산업혁명과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방혁신을 도모하는 국가 및 군사차원에서 국가안보전략 수립과 군사전략 수립 활용에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68) 국방부 군구조개혁 추진관실, "AI기반과학기술강군육성목표… 미래안보환경에맞는 군사전략정립,"『국방일보』(2022년 9월 28일), https://pdf.dema.mil.kr/pdf/pdfData/2022/20220928/B202209280801.pdf(접속날짜: 2022. 10. 3.).

〈참고문헌〉

1. 저서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국방대학교, 2005
김유석, 『군사사상 총론』, 황금알, 2022
이순신 저,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박창희a, 『한국의 군사사상』, 플랫미디어, 2020
박창희b,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2018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고대~조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이강언 등, 『신편 군사학 개론』, 양서각, 2007
유성룡 저, 오세진 · 신재훈 · 박해정 역, 『징비록』, 홍익출판사, 2016
육군본부, 『한국 군사사상』, 육군인쇄창, 1992
합동참모본부, 『합동 ·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14
황현필, 『이순신의 바다』, 역바연, 2022

2. 논문

고광섭, “이순신의 선조 출전 명령 거부설에 대한 검증연구”, 『KNST』 5, 2022
http://doi.org/10.31818/JKNST.2022.03.5.1.1
김강녕, “이순신의 수군전략과 전술”, 『이순신연구논총』 17, 2012
http://www.uci.or.kr/?menuno=8#none
김경수,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의 애민정신”, 『이순신연구논총』 36, 2022
김병륜, “임진왜란기 조선 수군의 전술”, 『이순신연구논총』 31, 2019
김종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 · 이치전투”, 『전북사학』 51, 2017
http://doi.org/10.28975/jha.2017.10.51.335

권영상, “린드 4세대 전쟁론의 재조명”, 『군사연구』 144, 2017
http://doi.org/10.17934/jmhs..144.201712.295
나승균, “군사사상 측면에서 이순신의 손자병법 적용 고찰”, 『군사발전연구』, 2010
http://www.uci.or.kr/?menuno=8#none
노병천, “이순신 장군의 제승(제승)과 불패(불패) 전략”, 『평화와 안보』 2, 2005
박현규, “한국에서의 임진왜란 연구 동향과 문물 사료”, 『이순신연구논총』 34, 2021
방기철, “이순신의 군령 운용 연구”, 『한국사연구』 192, 2021
http://doi.org/10.31791/JKH.2021.03.192.91
이필중, “한국의 군사력 건설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한국의 군사력 건설과 전략』, 2002
임원빈a, “첨단 조선 수군과 이순신 제독의 혁신”, 『이순신연구논총』 28, 2017
임원빈b, “이순신 애민의 사상적 기반과 의미”, 『이순신연구논총』 36, 2022
임원빈c, “임진왜란기 거북선, 왜 만들어야 하나?”, 『국방일보』(2022년 8월 16일 9면)
정구복a,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 2003
정구복b, “임진왜란 연구를 위한 제언”, 『이순신연구논총』 5, 2005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해전술과 귀선의 역할,”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문, 2007
조신호, “이순신학(學)의 정립과 그 사상적 배경”, 『이순신연구논총』 23, 2014
http://www.uci.or.kr/?menuno=8#none
진석용, “군사사상의 학문적 고찰”, 『군사학연구』 7, 2009
http://www.uci.or.kr/?menuno=8#none

허태구, “임진왜란과 지도 · 지리지의 군사적 활용”, 『사학연구』 113, 2014
http://www.uci.or.kr/?menuno=8#none
최권호, “임진왜란기 거북선, 어떻게 만들어지나,” ,『국방일보』(2022년 8월 18일 9면)
최학삼, “이순신의 수군재건과 특별조세 징수에 관한 연구,” 『JCCT』 4, 2018
http://doi.org/10.17703/JCCT.2018.4.2.9
최해진,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리더십”, 『인적자원관리연구』 14-2, 2007
http://www.uci.or.kr/?menuno=8#none
최창국, “조선전기 북방 양계지역 제승방략의 실체와 현대적 함의”, 『군사연구』 136, 2013
http://doi.org/10.17934/jmhs..136.201312.161

(Abstract)

A Study on Yi Sun-Sin's Deeds and Military Thought in War

Bae, Ilsoo
Jeong, Heetae

This study examines the actions of Yi Sun-sin of Chungmugong and the military thought that emerged through war with a modern perspective on military thought theory. The scope of the study is a prior study of military strategies and tactics, national views, and philanthropy that were shown in books such as 『Nanjung Ilgi(亂中日記)』, 『Jingbirok(懲毖錄)』, 『The Sea of Admiral Yi Sun-sin』 and papers published in various academic journal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war and conducting war.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Yi Sun-sin's military thought was examined by Kim Yu-seok's military thought theory, focusing on the Imjin War, the great Myeongnyang sea war battle, and the Noryang sea war battl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ilitary thought of Admiral Yi Sun-sin can be examined in the first,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war in Well-prepared Posture (萬全思想), Short war (速勝思想), and Made-up Win (制勝思想). His belief in war can be seen in Yi Sun-sin's military genius. There was also the idea of an all-out war effort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hrough integrated defense operations. Second, recognizing that qualitative expansion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ative expansion and that Intangible fighting power is more important than tangible fighting power, the military power construction has been prepared with confidence. In training, creative methods and Military art were used to put into practice after repeated training. In particular, Admiral Yi Sun-sin had a creative

military innovation mind and used new weapons such as the turtle ship. Third, in terms of mercenaries, Yi Sun-sin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ending the war with his excellent leadership and military force operation. In terms of the national strategy between the Battle of Myeongnyang, the Japanese forces were destroyed at sea, blocking the maritime supply route and the strategic goal of occupying Jeolla-do. Tactically, the Hakinjinbeop (鶴翼陣法) was chang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situation to change the Uhlinhakik (魚鱗鶴翼) form, or based on this, the Paljingimunbeop (八陣奇文法) with a combination of unity and dispersion was used. Fourth, in terms of supporting national security in peacetime, Yi Sun-sin provided a place for refugees to live and could get the ideology of Ae-min (愛民) Patriotism that guarantees safety. Fifth, in terms of military force operation as a means of supporting national policy, Yi Sun-sin sent the body to his hometown in the event of a dead person and implemented relief measures for widows and their families. Sixth, in terms of effective and efficient military force management and operation during peacetime, Yi Sun-sin was able to use civilian fishing boats and civilians militarily in wartime based on the trust in the army formed during peacetime. did.

Yi Sun-sin's military thought, which compressed the core ideas analyzed by category, can be said to be 'a fast and decisive war through military innovation and mission-type command as a national total war'. This study of Yi Sun-sin's military thought will be a useful resource for establishing the theory of modern military thought and establishing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Keywords : Military Thought, Yi Sun-Sin, War,
Military Innovation, Military Strateg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143-178
https://doi.org/10.29212/mh.2023..127.1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군 제8사단의 제4차 전역 준비와 수리산-마산 전투

박희성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원

목 차

1. 서론
2. 북한군 제8사단의 재편성과 제3차 전역 투입
3. 북한군 제8사단의 제1차 서울방어전투
4. 결론

초 록 6·25전쟁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 중 북한군 연구는 필수이다. 하지만 사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공식간행물에서 북한군의 작전을 서술하였으나, 많은 공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세부적인 모습을 살피는 것은 연구의 기초가 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군 제8사단을 살폈다. 제8사단은 1950년 7월 증편한 뒤, 안동과 신녕 등 중요 전투에 참가한 중요 사단이었다. 그리고 후퇴 후에도 청천강 일대에서 지연전을 펼친 사단이었다.

제8사단은 초산에서 재편성을 하였다. 장비 및 화기는 부족했지만 병력은 충원을 거의 완료하였고, 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높였다. 재편성을 마친 제8사단은 이른바 '제2차 공격'을 위해 1950년 12월 남하를 위한 행군을 시작하였고, 1951년 1월 초에 한강 이남에 도착하였다. 행군 간에 평양, 해주, 연안 등지에서 전투를 수행했으며, 주민들에 대한 민사작전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51년 1월 말과 2월 초까지 수리산과 마산에서 중국인민지원군과 함께 UN군을 상대했다.

이러한 북한군 사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 연구는 당시 북한군이 수행한 전쟁수행방식을 하나씩 밝혀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더욱 내실화될 것이다.

주제어 : 6·25전쟁, 북한군, 조선인민군, 제8사단,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원고투고일 : 2023. 4. 9, 심사수정일 : 2023. 5. 18, 게재확정일 : 2023. 6. 5.)

1. 서론

6 · 25전쟁을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정치, 사회, 국제관계, 인물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수행의 주체인 북한군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나 육군 군사연구소 등의 여러 공간사에서 북한군의 작전이 다뤄졌으나, 사료확보의 한계로 인해 서술에서 많은 공백이 있었다. 북한군은 국군 및 UN군의 작전을 설명할 때 상대 적군으로 대략적으로 설명되거나,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이후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위주로만 기술되면서 북한군은 여러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1)]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군 부대는 제8보병사단이다. 북한군 제8사단은 6 · 25전쟁 개전 시 최초 투입된 사단은 아니었지만, 초기인 1950년 7월 초 증편된 이후 주요 축선에 투입된 중요 사단이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이 경북 북부의 핵심도시인 안동을 점령하는 데 함께하였고, 이후에는 의성 – 신녕 축선으로 진출하여 낙동강방어선의 핵심 지역인 영천을 위협하였다. 국군 및 UN군의 북진으로 인해 후퇴한 후에도

1) 물론 이러한 공백은 개인 연구자들이 채워나가고 있긴 하다. 육사 교수로 근무했던 군인 김광수와 장성진, 그리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인 김선호가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이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성과 포함 북한군 관련 연구성과 정리는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박희성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 · 25전쟁 초기 작전-전투일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군사』 110호(2020); 박희성, “북한군 제105땅크사단 65기보련 76mm대대의 참전준비와 전투일지,” 『한국군사학논총』 제11집 제1권(2022).

청천강 지연전 최일선에 배치되었고, 강계 및 초산에서 국군과 교전한 주요 부대였다. 북한군 제8사단에 대한 연구시기는 1950년 말 초산에서 재편성한 이후부터 제2차 공격[2]을 위해 제3차 전역[3] 투입 및 제4차 전역에서의 제1차 서울방어전투(수리산－마산)까지이다.[4]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당시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공간사에는 단편적인 서술만 되어 있는데 특히 수리산과 마산전투는 분량이 간소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일부 맞지 않게 서술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의 영국군 관련 공간사[5]에서는 수리산－마산 전투가 아예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직접 사료는 미군 노획문서인 RG242이다. 이는 북한군의 세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료로써 북한군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노획문서를 주된 사료로 활용했으며,

---

2)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제1차 공격이라고 칭했고, UN군과 국군에게 밀려 압록강·두만강까지 후퇴하였다가 1950년 말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진하는 시기를 제2차 공격으로 칭했다. 이 논문에서는 기준이 북한군이며, 재남진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용어를 일부 사용하였다.

3) 전역(戰役)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일정한 구역과 시간 내에 수행되는 일련의 전투들의 총합을 말한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참전한 이후, 제1차 전역(1950.10.25.－11.5.), 제2차 전역(1950.11.7.－12.24.), 제3차 전역(1950.12.31.－1951.1.8.), 제4차 전역(1951.1.25.－4.21.), 제5차 전역(1951.4.22.－ 6.10.)까지 총 5차례의 전역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51년 6월 11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는 '제2단계'라고 칭하고 있다. 출처 : 바이두 백과 (https://baike.baidu.com) 이 논문에서는 고유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전역'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내용에 맞게 '공세'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4) 북한군은 서울방어전투를 2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차 방어전투는 한강 이남인 수리산－마산에서 수행한 전투이며, 제2차 방어전투는 서울－고양을 중심으로 한 한강선방어전투이다. 이후 북한군 제8사단은 임진강방어전투까지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 다루지 못한 서울방어전투(서울－고양)와 임진강방어전투는 후속 연구로 진행 중이다.

5) 국가보훈처, 『영국의 6·25전쟁 참전사』, 2016.

많은 양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다만 제8사단의 모든 소속 부대의 문서와 해당 시기 전체 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해 왔던 북한군의 세부 모습을 살피는 것은 북한군을 다루는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며, 나중에 하나의 완성된 연구를 위한 중요한 퍼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북한군 제8사단의 재편성과 제3차 전역 투입

가. 부대 재편성 배경과 결과

북한군 제8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그리고 사단직속 부대로 구성되었다. 제8사단은 1950년 7월 초 강릉에서 제1경비여단을 기간으로 하여 증편된 사단으로 7월 10일 최초 작전에 투입되었다. 문경 – 예천 방면에 투입되었고 제12사단과 함께 안동을 점령하였다.[6] 8월 공세 시에는 안동 – 의성 – 영천 축선에 최초 투입되었지만, 의성에서 피해 입은 뒤 의흥 – 신녕 선으로 변경하여 8월 말에는 조림산 – 화산 선까지 진출하였다. 9월 초 신녕 점령 후에는 영천으로 돌파구를 확대하기 위해 화산 일대를 공격하였으나, 신녕에서 좌절되었다.[7] UN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이 시작되자, 9월 21일경 재편성의 기회를 갖고자 최대 격전지인 조림산에서 물러나 의성 – 청송 방면으로 패주하였고, 이후 전면적인 후퇴를 실시하면서 그 주력은 안동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4권, 2008, p.225.; p.324; p.362.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5권, 2008, p.81.; pp.347-348.

– 영주 – 단양 방향으로 철수하였다.[8)]

이후 북한군은 10월 중순부터 청천강에 이르자 지연전을 구사했고, 1950년 10월 하순, 제1군단 소속으로 방어에 배치된 6개 사단 중 가장 전방에 배치되었다.[9)] 1950년 10월부터 제8사단은 자강도 초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예하부대 중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부대는 81연대 제2대대로, 1950년 11월 25일에 초산군 초산면 모단리에 위치하고 있었다.[10)] 이곳에서 사단은 부대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표 1〉 북한군 제8사단 주요 부대

북한군 제8사단 포병도 조직적인 후퇴명령에 따라 1950년 10월 하순 초산에 부대가 집결하였고, 그 이후 부대정비 및 재편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휘관 및 포병대원들이 부족하여 11월 초순까지도 병력 충원만 진행되는 등 계획적으로 진행되지는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6권, 2009, p,263.; p.307.
9) 바자노프 ·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pp. 100~101.
10) "중기중대 세포 제1차 회의(1950. 11. 25.)",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1951, RG 242, SA 2011, BOX 8, Item # 10. 이 논문에서 나오는 지명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다. 확인가능한 것만 당시 지명 또는 현재 지명을 부가 설명하였다.

못하였다. 그러던 중 자강도 위원에서 조직되고 있던 제8사단 포병부대들을 즉시 집결시켰고, 초산과 위원 양 부대의 인원과 장비로 제8사단 포병의 기본적인 구성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해이해진 군기와 미흡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신속한 과업인 전투훈련을 개시하였고, 11월 중순에는 상부 전투훈련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전투환경에 부합되는 훈련을 시작하는 비교적 조직된 부대가 되었다. 각급 지휘관들의 시범학습과 실습학습을 준비하는 지휘관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들에게 군사적 전술 위주의 학습을 먼저 실시하였고, 부대전투훈련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술병종훈련을 위해서는 유무선 통신, 정찰대원들에게 학습모임을 만들어 학습시킨 결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약 20일이라는 단기전투정치훈련이었지만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12월 2일 실시한 포실탄 사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11]

이렇게 재편성을 하는 동안 전황은 바뀌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하던 UN군 및 국군은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의 기습 이후 다시 남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했고, 12월 중순에는 38선 북방까지, 12월 말에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선까지 철수하였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간에 흥남에서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전선에서는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국인민지원군 제13병단이 12월 하순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고, 동부전선에서는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전투력을 상실한 중국인민

11) "초산에서 포병들의 구성상태와 훈련정형",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지원군 제9병단 대신에 북한군 제3군단, 제5군단, 그리고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12)]

나. 사단의 제3차 전역 참전과 서울 진출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怀)는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면서 부대들을 남쪽으로 전진시켰다. 그러나 미군이 계속 남으로 철수하고 38선 이남까지 후퇴하자, 이미 최초 집결위치에 도착해 있던 부대들에 조정계획을 하달하였다. 휴식을 취한 뒤 계속 38선을 향해 전진하며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미 1950년 12월 23일, 서부전선의 부대들은 전 전선에서 38선에 근접하여 황해도 금천, 구화리[13)], 연천, 철원, 화천 지구에 집결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제8사단, 제17사단, 제19사단, 제47사단)도 38도선을 넘어 연안반도[14)]와 옹진반도를 점령하였다.[15)] 이어서 북한군 제1군단은 임진강을 도하 후 문산과 파주방향으로 진출하였다.[16)]

펑더화이는 1951년 1월 3일, 북한군 제1군단에게 서울 서남, 김포, 인천 지구에 도착하여 방어를 담당하며, 특히 김포(비행장)를 점령하라고 지시하였다. 1월 4일 오후, 중국인민지원군 제39군 116사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서울을 점령하였고, 이어 여러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이 각각 서울에 진입하였다.[17)] 이후 펑더화이는 1951년 1월 5일 18시, 북한군

---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8권, 2011, pp.9-10.
13) 황해북도 장풍군 구화리
14) 황해남도 연안군 남부
1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p.202-203.
1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278.

제1군단에게 서울 수비를 위한 1개 사단을 제외하고 주력은 김포를 탈취 점령하고, 또 기회를 보아 인천을 공격 점령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1군단은 한강을 도하한 후 1월 8일까지 차례로 김포와 인천항을 점령하였다.[18]

펑더화이는 1951년 1월 8일을 기해 중동부 전선으로 침투 중이던 일부 북한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군에 추격정지 명령을 내리고, 휴식과 정비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부대 배치는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제38군 제112사단이 한강 남안 교두보 진지를 장악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제42군 제125사단이 남한강 동쪽에 위치하며, 북한군 제1군단의 2개 사단이 한강 이남에 위치하여 유엔군의 공격에 대비하라고 하였다.[19]

북한군 제8사단도 자강도 초산 일대에서의 재편성을 마치고 제2차 공격을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의 후속부대로 남쪽으로 진출하였다. 초산군에 있던 81연대 2대대(대대본부, 4중대, 5중대, 6중대, 중기중대, 82mm 박격포 중대, 공급소대, 반총소대, 위생소대)의 경우 초산을 출발한 뒤, 1950년 12월 11일 평양 후방을 지났다.[20] 부대는 12월 30일경에는 황해도 해주 전투를[21], 이후 황해도 연안 남산 고지[22] 등에서 전투를 치렀으며, 이후에는 큰 전투 없이 서울까지 이동하였다. 그리고 1951년 1월 21일-28일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 웃방아다리[23]에 진출하였다.[24] 북

1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283-284.
1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288-289.
1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293-294.
20) "중기중대 세포 제3차 회의(1950. 12. 11.)",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21) "중기중대 세포 제4차 회의(1950. 12. 30.)",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22)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시가지 중앙에 있던 산
23) 현 강남구 역삼동

한군 제8사단 사령부는 1951년 1월 22일 기준 상도동[25]까지 진출하여 위치하였다.[26]

다. 제8포병연대와 포병구분대의 행군

북한군 제8사단 포병부대들도 1950년 12월 3일 제2차 공격을 위한 전투행군을 개시하였다.[27] 당시 제8사단 포병 계선의 주요 부대와 간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의 부대와 주요 간부

부 대		주요 간부
사단 본부	지휘부	사단장 김봉문[28], 참모장 리항래
	포병참모부	포병부사단장 리도빈, 포병참모장 김용문
	수리소 및 창고	
	지휘중대	
사단직속 45mm 대대		부대장 김병두
사단직속 고사포대대		부대장 최원석
포병연대		부대장 전영현, 포병참모장 백남훈, 작전참모 리윤택, 정찰참모 김순태

24) “중기중대 세포 제5차 회의(1951. 1. 25.)”,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25) 현 동작구 상도동
26)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를 철두철미 집행할 데 대한 군단장 명령 이첩에 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1951. 1. 22., RG 242, no.202814.
27) “초산에서 포병들의 구성상태와 훈련정형”,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28) 제8사단장 김봉문 소장은 형산강 전투 시 대좌 계급으로 제5사단 11연대장이었다.

81연대 포병구분대	부대장 백학림[29] 포병부 부연대장 신윤각[30] 포병참모장 김윤찬[31], 포병공급장 박경선[32], 45mm 중대장 리기원[33], 76mm 중대장 김기호[34], 120mm 중대장 김기원[35]
82연대 포병구분대	포병참모장 서창수
83연대 포병구분대	포병부 부연대장 장종걸, 포병참모장 오종철

* 출처 : 노획문서 내용들을 직접 정리하여 작성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의 최초 행군 출발 시 정확한 전투대원의 수를 나타내는 사료는 없지만, 행군 중이던 1951년 1월 3일 작성된 통계표를 통해 보면 정원은 3,032명이었는데 251명이 부족한 현재원 2,781명으로 정원대비 90.5%를 유지하고 있었다.[36] 이 정도 충원율이라면 병력구성면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재편성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950년 12월 행군 간 손실이 소수였기 때문에 이 충원율은 거

29) 백학림 : 9급, 군번(66851), 1918년생, 소졸, 동북항일연군, 입대(1934 / 1946. 7. 23.) 군관임명(1946. 7. 23.). “백학림”, 『간부명단』, 81련대 참모부, 1951. 2. 10.,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2594; “백학림”,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81보련, 1951. 2.,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2594.

30) 신윤각 : 7급, 군번(86431), 1927년생, 중졸, 입대(1947. 9. 27.) 군관임명(1949. 7. 15.). “신육각”, 『간부명단』 ; “신육각”,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1) 김윤찬 : 6급, 군번(66425), 1926년생, 소졸, 입대(1946. 10. 7.) 군관임명(1950. 3. 1.). “김윤찬”, 『간부명단』; “김윤찬”,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2) 박경선 : 6급, 군번(66427), 1926년생, 중졸, 입대(1948. 2. 10.), 군관임명(1948. 5. 5.). “박경선”, 『간부명단』; “박경선”,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3) 리기원 : 4급, 군번(66428), 1928년생, 소졸, 입대(1947. 10. 14.), 군관임명(1950. 8. 5.). “리기원”, 『간부명단』; “리기원”,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4) 김기호 : 6급, 군번(66435), 1922년생, 소졸, 입대(1946. 10. 24.), 군관임명(1950. 6. 23.). “김기호”, 『간부명단』; “김기호”,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5) 김기원 : 6급, 군번(66434), 1925년생, 입대(1947. 2. 15.). “김기원”, 『간부명단』; “김기원”,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6) “포병전투성원 통계표”, 제8사단 포병참모장 김용문,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의 유지되었다. 다음 표는 행군 과정인 1951년 1월 3일 자 부대별 병력을 정리한 통계 현황이다.

〈표 3〉 포병전투대원 통계표

직급별	구분	포병참모부	수리소창고	지휘중대	45mm대대	고사포대대	포병연대	1연대	2연대	3연대	계
군관	정수	10	3	5	36	47	130	40	40	40	351
	현수	10	3	5	32	22	120	40	41	41	314
	부족				4	25	10		+1	+1	37
하사관	정수	2	6	31	93	146	276	147	147	147	995
	현수	2	7	16	93	78	250	149	145	141	881
	부족		+1	15		68	26	+2	2	6	114
전사	정수		4	43	123	268	520	246	246	246	1,696
	현수		2	48	117	77	479	295	288	293	1,596
	부족		2	+5	6	191	41	+46	+42	+47	400
계	정수	12	13	79	252	461	926	433	433	433	3,042
	현수	12	12	69	242	177	849	481	474	475	2,791
	부족		1	10	10	284	77	+48	+41	+42	251

* 출처 : “포병전투성원 통계표”, 제8사단 포병참모장 김용문,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무기 및 장비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표는 행군 중이던 1950년 1월 3일 기준 무기의 통계 현황이다. 인

원 대비 현저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4〉 무기 및 기재 통계

구 분	정 수	현 수	부족수
12.7mm 고사기관총	36	18	18
14.5mm 반총	108	96	12
76mm 사단포	12	5	7
82mm 박격포	81	5	76
120mm 박격포	18	1	17
122mm 곡사포	12	6	6

* 출처 : "무기 기재 통계(행군 중)",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1950년 12월 3일 19:00 초산을 출발한 제8사단 포병부대들은 12월 4일 남면 남하창, 12월 5일 영가덕, 12월 6일 운산[37], 12월 8일 평화리[38], 12월 12일 서포[39], 12월 13일 자지동, 12월 18일 웃가장, 12월 19일 사리[40], 12월 20일 송탄동[41], 12월 25일 부저동, 12월 26일 홍동, 12월 27일 기복동, 12월 29일 조제궁[42], 1951년 1월 1일 효천동[43], 1월 4일 금릉리[44], 1월 5일 부석골[45], 1월 7일 싸리마을[46], 1월 8일 장춘당[47], 1월

37) 평안북도 운산군 운산면
38) 평안북도 영변군 팔원면 평화리, 현 영변군 팔원면 송화리
39) 평양시 서포(西浦)
40)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동, 현 사리원시 원주동
41) 황해남도 재령군 은룡면 창전리
42) 황해남도 청단군 인근 추정
43) 경기도 개풍군 개풍면 인근 추정
44)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금릉리, 현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45)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부석동. 현 분수리
46)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인근 추정
47) 서울시 중구 소재

9일 상성후[48], 1월 12일 03:00에 박제궁[49]에 도착 완료하였다. 총 행군일수는 27일이고 총거리는 558km였으며, 일일 평균 행군거리는 23km였다.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의 행군은 야간행군으로만 이루어졌고, 저녁에 각 출발지점을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에 도착지점에 도착하였다.[50] 임진강은 1월 5일과 6일 경에 도하했고, 한강은 1월 8일부터 1월 12일 경까지 도하했다.[51]

행군을 시작하는 부대들은 군사적 · 정치적인 다짐 속에서 행군을 개시하였다. 각 부대 및 구분대, 중대, 소대, 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식의 회의를 통하여 행군 계획과 자기 결의를 표시하였다. 그중에서 포병연대 5중대 1포와 45mm 대대 지휘소대 정찰분대가 가장 우수했으며, 구분대별로 우수한 부대는 45mm 대대였다. 행군 시에는 지휘관과 문화담당자들이 전사들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피곤을 풀어주면서 비교적 원활한 행군이 되게 하였다. 또한 모든 대원들에게 무기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83연대 포병구분대가 가장 우수하였는데 행군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숙영지에 도착하면 무기부터 점검하고 손질한 결과 무기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였다. 행군 중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치교육도 병행하였다. 주민들의 규율을 강화하며 행정기관을 조직하여 주며 각종 담화 및 회의를 할 수 있게 지원했으며, 탈곡과 청소 등도 도와주었다.[52] 이를 통해 보면, 재편성된 부대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전투의지와 무기관리 정신 등은 높았

48)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상성후, 현 서초구 방배동
49) 현 관악구 봉천동
50) "초산 출발 후 서울까지 행군 총결",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p.1.
51) "사고발생에 대한 종합통계",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52) "초산 출발 후 서울까지 행군 총결",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p.2.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선으로의 단순 이동을 위한 행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민사작전도 병행실시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래 북한지역이었지만 몇 달 동안 국군 및 UN군이 관할하던 지역이었기에 북한군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필수였다.

하지만 행군간 결점도 많았다. 전투의지가 높았고 지휘관들의 솔선수범과 무기관리 정신이 높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편성된지 얼마 안된 부대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술 및 행동에서는 미흡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먼저 행군 도중에 대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다. 특히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형연구와 행군서열 조직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행군을 장시간 하였음에도 지휘관이 행군을 규정대로 조직할 줄 몰랐고, 전사들도 자기 임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구분대에서는 행군경로 숙지 및 반항공 대책이 미약하였다. 그 예로 포병연대 2대대 군사부대대장이 책임진 자동차 1대, 122mm 곡사포 1문은 상부에서 지시한 경로로 이동하지 않고 박천군 동남면 맹중리로 오다가 기총사격 및 폭격을 당하여 군관 2명 하사 1명 전사 7명이 희생되고, 군관 1명 하사 3명 전사 3명이 부상하기도 하였다. 일부 지휘관은 부대를 인솔 및 동원시키질 못하였으며, 심지어 부대에서 이탈하는 큰 잘못도 저질렀다. 82연대 부연대장은 평양계선에서 3일간이나 부대에서 이탈하여 복귀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도착 이후에도 아무런 보고조차 없었다. 도하에 대한 주도면밀한 정찰과 계획 점검이 없었으며, 특히 포병연대 2중대장은 자동차를 임진강에 빠뜨려 손실하기까지 하였다. 행군 중에 행군명령을 시행할 줄 모르는 상황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참모업무가 미흡하였기 때문이었다. 실례로 신악계선에 도착할 때 포병연대 2, 3대대는 날이 밝았다는 이유로 지정 지점보다 2km를 떨어진

곳에서 숙영하였다. 결론적으로 처음 실시한 장기 행군이므로 각급 지휘관 및 참모부에서는 행군조직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지휘관의 행군인원 장악이 부족하여 행군 중 낙오자와 심지어는 실종자까지 발생하는 등 행군질서가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지휘군관까지 부대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53] 행군 간 인명손실도 있었는데 군관 6명 포함 총 33명이었다.[54] 부대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병력손실 통계

구분	계 급	45mm 대대	고사포 대대	포병 연대	1연대	2연대	3연대	계
사망	군관			2				2
	하사관					1		1
	전사			2				2
	계			4		1		5
부상	군관	1	1	2				4
	하사관	1		4	3	2		10
	전사	3		5	3	3		14
	계	5	1	11	6	5		28
계	군관	1	1	4				6
	하사관	1		4	3	3		11
	전사	3		7	3	3		16
	계	5	1	15	6	6		33

* 출처 : "손실통계(행군과정)",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1950년 12월 3일 행군출발 후 1951년 1월 14일까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55]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경계 근무 중

53) "초산 출발 후 서울까지 행군 총결",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pp.2-3.
54) "손실통계(행군과정)",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55) "사고발생에 대한 종합통계",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항공기에 의한 전사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주의나 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 또한 부대 재편성으로 인한 미흡함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행군간 사고현황

부 대	일시	장 소	손실	사유 및 조치
포병연대 1대대	1950년 12월 31일 12:30	문곡동	자동차 1, 122mm 곡사포탄 40발 연소	포병부사단장이 포병연대 1대대 상급부관에게 17:00까지 사격실시를 명령 ⇒ 상급부관은 포탄과 자동차 은폐에 대하여 2중대 정치부중대장과 화력소대장에게 지시 ⇒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공기에 발견되어 습격당함.
포병 연대부	1950년 12월 28일 05:00	금천[56] 남방	희생(군관 1), 중상(군관 2, 전사 1)	포병연대장이 개성 전방을 지형정찰하고, 행군 2개 대대의 숙영지인 고덕동에 갔다 복귀 중 ⇒ 금천방향 약 3~4km 지점에서 피난민 우차와 충돌하여 소형지프가 전복. 희생 군관은 인근 매장, 중상 군관은 사단 군의소 입원, 중상 전사는 연대 군의소 치료
1연대 포구분대 120mm 중대	1951년 1월 1일 19:30	개풍군 개풍면 지내리 부근	중상(하사 2, 전사 1), 경상(하사관 1, 전사 2)	어두워진 상황에서 포진지로 진입하던 중, 둘로 갈라지고 좁고 작은 길에서 전복됨. 부상자는 개풍군 대성면 분주소 서원과 지내리 서기장에게 위탁하여 치료하게 함.
포병연대 1대대 1중대	1951년 1월 5일	착만리	희생(전사 1)	전사 김훈춘은 은폐시킨 포에서 보초 중 ⇒ 내습 비행기의 기총사격에 어깨를 관통. 시신은 군의소에 후송하여 처리.

56) 황해북도 금천군 금천면

포병연대 1대대 1중대	1951년 1월 5일	임진강 계선에서	희생(군관 1)	임진강 도하장으로 차량 소등한 채 포를 끌고 진입 ⇒ 차량 전복되어 문이 파괴되고, 소대장 김방호가 희생. 시신은 즉시 후송하여 매장함.
고사포 대대	1951년 1월 5일 20:30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상곡리 음골	중상(정치부 선전원 군관 1)	자기 권총 오발사고로 손에 중상 입음. 자체 군의대대에서 치료.
45mm 대대	1951년 1월 7일 1:00	고양군 신도면 연사림	중상(군관 1, 하사 1, 전사 1), 경상(전사 2)	숙영 후 후위병으로 나오던 중 길을 헷갈림 ⇒ 중대장이 주의 주었으나 5소대장은 잘못된 길로 나가다 지뢰를 밟음. 사단 군의소에 후송하여 치료하게 함.
2연대 포구분대 45mm 중대	1951년 1월 6일 11:30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	희생(하사관 1), 중상(하사관 1, 전사 1) 경상(하사 1, 전사 2)	행군 목적지로 오던 중 지뢰 폭발. 희생자는 매장, 부상자들은 1군단 야전병원에 입원.
포병연대 1대대	1951년 1월 6일	임진강	희생(전사 1), 122m 포탄 50발, 76mm 포탄 51발, 고사총탄 6상자, 고사총 1, 포대경 1, 교환기 1, 전지함 2, 지도함 2, 백미 6	전날 20:00 포병연대장이 대대장 및 정치부대대장에게 짐을 내리고 도하하라고 지시 ⇒ 대대장은 상부 보고를 이유로, 정치부대대장은 포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임진강 후방에 있었음 ⇒ 빙상도하는 2중대장 강완현이 책임지고 건너다 침몰.
포병연대	1951년 1월 8일 야간	두만리[57] 계선	중상 8, 중카 1대	두만리를 지나던 중 지뢰 폭발. 군의소에 후송하여 치료하게 함.

57) 경기도 광탄면 두만리, 현 신산리

포병연대	1951년 1월 12일	한강	견인차 1대 파손	군단 공병이 가설한 도하 교량을 건너다가 다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아 좌측 바퀴가 물에 빠짐 ⇒ 1월 14일 공습으로 엔진 파괴.

* 출처 : "사고발생에 대한 종합통계",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행군 간 노획 또는 보급으로 추가된 장비 및 무기는 보총 37정과 탄알 24,320발, 기병총 2정과 탄알 755발, 자동총 1정과 탄알 74,880발, M1 총 1정, 38식 보총 1정, 76mm 사단포 2문, 122mm 곡사포 3문, 고사총탄 170발, 신호탄 6발, 수류탄 2발, 전화기 1개, 권선기 30개, 쌍안경 4개, 조준경 3개였다.[58] 최초부터 무기 및 장비가 부족했던 제8사단 포병부대들에게 이것들은 귀중한 전투자산이 되었다.

3. 북한군 제8사단의 제1차 서울방어전투

가. 전투준비 : 군사규율 강화 및 단기전투정치훈련

김일성은 1950년 12월 29일 군대 내 군사규율 강화대책에 관한 명령인 최고사령관 0229호 명령을 하달하였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은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군사규율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였주었다고 하며, 육해군 전체 병력에 대하여 1951년 1월 25일까지 규율규정을 복구시키

58) "초산 출발 후 서울까지 행군 총결",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p.3.

고 그 인식정도를 다시 고치라고 하였다.[59] 이에 따라 북한군 제1군단 군단장 리권무는 1951년 1월 14일에 “조선인민군 군사규율과 전투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표” 24개 항목을 비준하였으며,[60] 1월 16일에는 제1군단 군단장 명령으로 군단 특별계획을 하달하였다.[61]

북한군 제8사단도 1950년 1월 16일에 사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하달하며, 각 부대 및 구분대에서는 이 계획에 근거하여 자체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명령하였다.[62] 또한 1월 22일에는 최고사령관 명령 0229호와 그를 집행하기 위한 사단 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절충하여 부대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두철미하게 실천하라고 재강조하였다.[63]

김일성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군 제8사단 참모부는 1951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검열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명령을 1월 23일에 하달하였다. 1월 27일과 28일은 2연대와 3연대를, 1월 29일과 30일은 1연대와 포병연대, 2월 1일에는 사단직속 구분대를 검열하여 장단점을 지적하고, 2월 2일에 사단 관하 중대장 이상급 간부를 소집하는 총결을 하기로 했다. 검열 총책임자는 사단 참모장이며, 제1조 책임자는 사단참모장 제2조 책임자는 사단정치부장

59) 『명령 제0229호, 각 부대 및 련합부대에 있어서의 군사규률상태와 그의 강화대책에 관하여』, 최고사령관 김일성, 1950. 12. 29., RG 242, no.202815.

60) 『조선인민군 군사규률과 전투력강화를 위한 사업계획표』, 제1군단 정치부장 김경석, 1951. 1. 14.,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1)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 이첩에 관하여』, 제1군단 군단장 리권무, 1951. 1. 16.,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2) 『명령, 최고사령관의 0229호명령 실천에 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참모장 리항래, 1951. 1. 16.,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3)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를 철두철미 집행할 데 대한 군단장 명령 이첩에 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1951. 1. 22.,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으로 임명하였다.[64] 검열계획은 전투준비상태, 부대규율, 내무생활, 참모부사업(대열, 통신, 공병, 기무, 기요, 모병, 후방, 위생, 정치문화 등), 반항공대책(사냥군조), 무기취급과 보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준비되었다.[65]

비슷한 시기, 행군을 마치고 전투준비를 하던 북한군 제8사단은 "단기전투훈련 강령"을 하달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기간은 1951년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24일간을 학습일로 정하며, 각 부대 및 구분대의 일일 학습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자동차 및 기계화 구분대 운전수들은 매일 2시간씩 정비시간으로 할당하게 하였다. 전사 및 하사들의 정치학습시간은 화요일, 금요일에 2시간씩 하게 하였다. 단기전투훈련의 교육방식은 간단한 설명과 행동 시범을 보인 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동작으로 실시하게 하였다. 훈련과목은 정치훈련, 전술훈련, 사격훈련, 제식훈련, 체육훈련, 규율규정, 내무규정, 공병훈련, 군사지형학, 특별훈련, 위생훈련, 지휘관 예비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구분대에 맞게 배정하게 하였다.[66]

나. 공산군의 제4차 전역 준비와 북한군 제8사단의 전선 투입

1951년 1월 27일, 북한군 제1군단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중연합사령부는 전황분석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이 1월 24일 부산으로부터 안동에 도착하였으며, 국군부대들은 부여, 조치원, 안동, 문경 일대에 신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

---

64) 『명령 No.3』,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참모장 리항래, 1951. 1. 23.,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5) 『검열계획표』, 제8사단 참모부, 1951. 1. 23.,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6) 『단기전투정치훈련강령, 1951.1.24.~1951.2.18』, 제8보사 참모부, 1951. 1., RG 242, SA 2012, Item # 160.

며, 삼척에 있던 수도사단은 물자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UN 해군을 증가시키고 상륙을 도모하는 등 새로운 공격을 기도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각 부대는 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에 대해 즉시 보고할 것이며, 경각심을 제고하여 언제든지 전투에 동원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 강조되었다.[67]

북한군의 전황 평가에 따르면, 1951년 1월 25일부터 UN군이 전투력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 정면에는 미 제25사단,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 터키여단이 공격 제1단계에는 서울을 점령하고, 제2단계에는 38선까지 진출할 기도로 공격하였다.[68] UN군은 특히 수원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조중연합군 사령부는 한강 남안 방어를 매우 중시하였다. UN군의 공격이 시작된 후 여러 차례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제38군 제112사단에 지시하여 한강 남안 진지를 확보하고 차후 공세에서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였다.[69] 하지만 1951년 1월 말과 2월 초까지 약 10일간 주야간전투에서 UN군 포병의 절대적인 우세, 전차와 공군 화력의 격렬한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한강 남안의 진지를 확보 유지하고, UN군의 주요 부대를 계속 견제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주력이 동부전선에 집결하여 반격을 할 수 있도록 조중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의 방어정면을 축소하고 종심방어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2월 4일 13시 반, 북한군 제1군단을

67) 『적정 통보에 관하여』, 제1군단 참모부, 1951. 1. 27., RG 242, ATIS Document, no.202812.

68)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1951. 2. 25., 제415군부대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p.1.

6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350.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이 방어하고 있던 남태령, 과천, 군포장 일선 서쪽의 14km의 정면방어 임무를 원래대로 교대하도록 하고, 2월 5일 저녁에 교대를 완료하였다.[70] 이에 따라 북한군 제8사단이 수리산, 마산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에서 북한군 제8사단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국내 공간사에 따르면 수리산-마산 전투에는 미 제25사단 35연대와 터키여단이 투입되었고,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중국인민지원군 제150사단과 공방전을 벌였다. 수리산은 중요한 감제고지로 UN군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산과 관악산을 우선 점령하여야만 했다. 이에 따라 미 제25사단은 1951년 1월 31일 아침, 서쪽으로부터 터키여단이 소사 방면으로, 미 제25사단 35연대(전차 1개 중대 포함)가 주공으로 수리산을, 우측에는 국군 15연대가 모락산 방향으로 병진하여 수리산을 탈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이틀간 공격준비를 완료한 후 1월 31일 07시 30분을 기해 5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 후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당일 제1선 진지인 대야동 250고지와 용호동 210고지를 탈취하였으나, 제2선인 253고지는 좌절되었다. 다음날인 2월 1일, 미 35연대는 터키여단과 수리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다. 미 35연대는 삼성의 무명고지와 227고지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253고지를 점령하였고, 터키여단은 205고지와 75고지에서 전개하여 수리산 서쪽 기슭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2월 2일, 미 35연대는 일제 공격에 나서 수리산을 점령하였고, 터키여단도 수리산 서쪽의 440고지와 431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의 야간 역습이 있었고,

7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352-353.

수리산 정상의 미 35연대 E중대는 다음 날 오전까지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고서 수리산을 끝까지 사수하였지만, 터키여단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미 제25사단에서는 사단 예비인 27연대 3대대를 투입하여 터키여단과 더불어 재공격을 실시하여 2월 6일 마침내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71]

사료로 확인되는 사항에 따르면, 북한군 제8사단 81연대 본부는 1951년 2월 2일 숫돌리[72]에 위치하고 있었다.[73] 그리고 서울방어전투에서 81연대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치열한 전투로 인해 많은 인명 손실을 보았다. 2월 5일에는 6중대장 장재운과 6중대 소대장 김정학 이상 2명이 전사했고, 3중대 소대장 리돈하, 3중대 소대장 전형필, 3중대 중기소대장 김경식, 4중대 소대장 유영남, 6중대 소대장 김창일, 6중대 중기소대장 조창진, 2대대 중기중대 소대장 홍상익, 9중대 소대장 남경섭 이상 8명이 부상했다. 2월 6일에는 3중대장 리민선과 1대대 45mm 소대장 강진근 이상 2명이 전사했고, 1대대 중기중대장 박괄용, 8중대장 김해문, 2중대 소대장 유기섭, 1대대 중기중대 소대장 오응규, 8중대 소대장 은양진, 9중대 소대장 현진영 이상 6명이 부상했다. 2월 7일에는 7중대 소대장 김기덕이 전사했고, 연대 직속 120mm 포 1소대장 김재한이 부상했다.[74] 대대급에서 이 정도의 중대장 및 소대장의 손실은 매우 큰 피해였다. 아마도 다른 북한군 제8사단 예하 부대들의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의 제2선 방어지대가 돌파되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8권, pp.240-244.
72) 부천군 소사면 천왕동 인근, 숫돌고개
73) 『명령』, 제81보련 련대장 백학림, 참모장 우양기, 1951. 2. 2., RG 242, SA 2012, no.75; 『통보』, 제81보련 참모장 우양기, 1951. 2. 2., RG 242, ATIS Document, no.202813.
74) 『편제직무』, 81보련, 1951. 2.,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2594.

고, 한강 남안의 방어폭도 축소된 상황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 주력과 북한군 제1군단 주력은 한강 남쪽 거점 상에 UN군 저지 및 지체를 위한 일부 병력만을 남긴 채, 1951년 2월 5일 저녁부터 강북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월 7일 저녁부터 북한군 제1군단은 4개 대대,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은 1개 연대와 1개 대대 병력만을 남겨 한강 남안 교두보 진지를 통제하게 하고 나머지 주력은 한강 북안으로 철수하여 방어를 시작하였다.[75] 북한군 제8사단도 이때 함께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였고, 2월 9일 자 81연대 2대대 중기중대는 서대문구 세검정 홍지동에 위치하고 있었다.[76] 그리고 한강 남쪽에 남아 있던 부대들은 1951년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약 11일 동안 방어지역에서 완강하게 싸우다가 2월 16일에서 18일 사이, 계획에 따라 전부 한강 북안으로 철수하였다.[77] 하지만 북한군과 25일간의 격렬한 진지전으로 UN군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20km만 진출한 채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 상태가 되었다.[78]

다. 제8포병연대 및 포병구분대들의 화력지원과 '전투총결'

북한군 제8사단 포병부대 및 구분대들은 제1군단 포병사령관 명령에 따라 1951년 1월 28일 18:00부터 전투임무를 접수하였다. 8포병연대 1대대와 2대대는 122mm 곡사포 6문과 76mm 사단포 5문, 견인기재로 자동차 5대와 소형전차 7대로서 박제궁 계선을 출발하여, 1월 30일 06:00 부천군 소사면 천왕

7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353-354.
76) "중기중대 세포 제7차 회의(1951. 2. 9.)",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연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7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354.
78)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1.

리[79] 계선에 집결완료하였다. 81연대 포구분대 120mm 박격포 1문은 자동차 1대로 운용하였고, 76mm 고사포대대에서는 고사총 5문으로 제4차 전역에 참전하게 되었다.[80]

제4차 전역 준비 간 제8사단 포병연대 및 포병구분대의 화력조직과 배치는 다음과 같다.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은 가용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UN군의 공격에 대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제8사단 포병연대 및 포병구분대의 화력조직과 배치

일자	구분대 및 화기	배치	사격지시
1월 31일	1대대 2중대 122mm 곡사포 4문	43.900 09.000	안산계선에 사격방향
	2대대 6중대 122mm 곡사포 2문	44.0000 09.200	안산계선에 사격방향
	1대대 1중대 76mm 사단포 2문	46.500 14.600	수원가는 대도로 방향 사격
	1대대 1중대 76mm 사단포 1문	42.000 11.000	안산계선 사격
	1대대 1중대 76mm 사단포 2문	49.500 14.600	Oㅁ 35.00에 직사
2월 6일	1대대 1중대 76mm 사단포 1문 2대대 5중대 76mm 사단포 1문	48.500 08.300	Oㅁ 35.00 방축둑 계선에 직사
	1대대 2중대와 2대대 6중대 122mm 곡사포 총 6문	51.200 09.400	은폐지대를 사격
2월 7일	81연대 포구분대 120mm 박격포 1문	로제리	영등포 방향을 사격
2월 8일	1대대 2중대와 3중대 122mm 곡사포 총 5문	62.800 18.200	영등포 계선을 사격
2월 12일	1대대 2중대와 3중대 122mm 곡사포 총 7문	62.800 18.200	영등포 방향을 사격

* 출처 :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제415군부대 포병 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pp.2~3.

그리고 1951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서울방어전투에

79) 현 구로구 천왕동
80)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1.

서 화력장비는 1대대 2중대 122mm 곡사포 4문과 3중대 122mm 곡사포 3문을 동원하였다.[81] 하지만 위와 같이 조직배치를 하였으나, 반항공대책이 일부 미흡하여 2월 6일에는 항공기 습격으로 포수 1명이 경상하고, 기총사격에 의해 포신이 관통되었으며, 포 1문은 사격을 할 수 없게 되었다.[82]

직사포진지는 UN군의 전차 및 보병들이 침입할 수 있는 위험지점에 배치하였으며, 전차가 500 ~ 600m 근처에 침입하면 사격하게 하였다. 특히 8포병연대 1대대 1중대 1포 포장 및 포대원 6명은 영등포 침입을 목표로 전차 60대와 자동차 80여 대로 공격을 시도한 UN군 기계화부대를 근거리까지 유인하여 선두 전차 2대를 파괴함과 동시에 다수의 전차에게 포탄을 명중시켜 급히 후퇴하게 만들었다.[83]

포병지휘관들은 보병지휘관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적정을 잘 이해하고, 공격을 개시하기 전 제때에 공격사격과 위력 있는 화력으로써 보병들을 엄호했다. 또한 8포병연대 정찰참모는 정찰조를 조직하여 중국인민지원군과의 상호엄폐를 갖추고 지원군 정찰조와 함께 직접 종심에 침투하여 세밀한 정찰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리산 전투에 있어서 좌측 인접부대인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의 밀접한 인접점을 확보하였으며, 반돌격하는 적에 대하여 긴밀한 신호 조직으로 적의 공격을 좌절시켰다.[84]

또한 각급 포병지휘관들은 상급참모부와도 밀접한 연계를 가

81)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3.
82)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3.
83)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p.4-5.
84)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5.

짐으로 제때 요구되는 포 화력을 운용할 수 있었다. 여러 형식으로 수집되는 정찰자료를 상급참모부에 반영시킴으로써 작전상 정확한 결심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은 숫자의 포로써 대다수의 적 공격과 기계화부대의 진공을 좌절진압시켰다. 상급참모부와 각급 지휘원들 간에 연락은 무전 또는 전화로 원만히 실시되었으며, 직접인 연락병을 운용함으로써 상호연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85]

제4차 전역의 전투에서 많이 이용된 무전응용에 있어서 상급참모부에서 하달된 암호일람표를 철저히 사용하여 비밀지휘를 유지하였으며, 유선통신에 있어서 직명암호와 전화대호를 사용하여 비밀지휘를 유지하였다. 탄약과 관련해서는 견인기재가 부족한 조건하에 제때 탄약을 운반하지 못하여 비무장한 구분대의 전투원들을 동원하여 탄약을 운반함으로써 76mm 사단포와 12.7mm, 14.5mm, 45mm 탄약을 보급하였다. 122mm 곡사포탄은 상급 병기부로부터 공급량이 적어서 제때 공급하지 못하여 곡사포 화력을 감소시켰다. 또한 탄약보관에 있어서 탄약엄폐호를 파고 보관하였으며, 시간적으로 엄폐호를 굴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산보관시킴으로써 탄약의 손실이 없었다.[86]

하지만 일부 지휘관들은 원만한 포사격 제원이 못되어 포탄을 많이 낭비한 사실이 있었다. 45mm 반총중대 2소대장은 전장을 이탈하면서 무기와 탄알을 버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상부 명령에 따라 한강을 도하하던 81연대 포병부연대장은 상황이 급하다고 하여 포를 묻으라고 명령한 사실과 자동차와 전차를 충돌시켜 사용불가능케 하고 포탄 40발을 버리고 온 사실도 있었다.[87]

---

85)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6.
86)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p.6~7.
87)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p.8~9.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이 1951년 1월 29일-2월 7일까지 수리산-마산 전투에서 얻은 성과는 전차 파괴 5대, 전차 고장 9대, 경폭격기 추락 1대, 보병 살상 110명이었다.[88] 전투개시 이전 전투대원은 총원 2,948명에 현원 2,570명이었는데 378명(군관 정원 34명, 현원 313, 부족 31 / 하사관 정원 963, 현원 276, 부족 87 / 전사 정원 1,641, 현원 1,381, 부족 260)이 부족하였다.[89]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손실통계

정별	구분	포병 참모부	수리소 창고	지휘중대	45mm 대대	고사포 대대	포병연대	1연대	2연대	3연대	계
사망	군관						3	1		2	6
	하사관				6	1	6	2	8	8	31
	전사				2		3	1	10	11	27
	계				8	1	12	4	18	21	64
부상	군관						1	1	2	5	9
	하사관				1		2	1	13	12	29
	전사				1		5	5	10	26	47
	계				2		8	7	25	43	85
실종	군관							9			9
	하사관				2	1		54			57
	전사				1	1	2	76		6	86
	계				3	2	2	139		6	152
도주	군관										
	하사관										
	전사						1	1			2
	계						1	1			2
입원 환자	군관					2	2				4
	하사관				2	1				4	7
	전사			2	5	1	17	1		10	36
	계			2	7	4	19	1		14	47
계	군관					2	6	11	2	7	28
	하사관				11	3	8	57	21	24	124
	전사			2	9	2	28	84	20	53	198
	계			2	20	7	42	152	43	84	350

* 출처 : "손실통계",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1951. 2 .25. 제415군부대 포병 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p.12.

88)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p.10.
89)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p.11.

이 중 수훈자는 국기훈장 3급이 12명(군관 11명, 하사관 1명), 전사명예훈장 1급이 18명(군관 3명, 하사관 10명, 전사 5명), 전사명예훈장 2급은 61명(군관 4명, 하사관 24명, 전사 33명), 군공메달이 283명(군관 55명, 하사관 130명, 전사 98명)이었다.[90]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에 손실은 총 350명이었다.

〈표 9〉 손실통계

정별	구분	포병 참모부	수리소 창고	지휘 중대	45mm 대대	고사 포대대	포병 연대	1연대	2연대	3연대	계
사망	군관						3	1			
	하사관				6	1	6	2			
	전사				2		3	1			
	계				8	1	12	4			
부상	군관						1	1			
	하사관				1		2	1			
	전사				1		5	5			
	계				2		8	7			
실종	군관							9			
	하사관				2	1		54			
	전사				1	1	2	76			
	계				3	2	2	139			
도주	군관										
	하사관										
	전사						1	1			
	계						1	1			
입원환자	군관					2	2				
	하사관				2	1					
	전사			2	5	1	17	1			
	계			2	7	4	19	1			
계	군관					2	6	11			
	하사관				11	3	8	57			
	전사			2	9	23	28	84			
	계			2	20	7	42	252			

* 출처 : "손실통계",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1951. 2 .25. 제415군부대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p.12.

90)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p.15.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북한군 제8사단의 초산에서의 재편성과 이른바 '제2차 공격'을 위한 남으로 이동, 그리고 수리산과 마산에서 수행하였던 서울방어전투에 대해 살펴보았다. 1950년 10월부터 병력보충 등 재편성을 시작한 북한군 제8사단은 장비 및 화기는 현저하게 부족하였지만 병력은 거의 충원하였으며, 단기 집중교육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1950년 12월 초 상부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민지원군을 후속하며 남으로 이동하였고, 약 27일에 걸친 이동 간에 평양, 해주, 연안을 거치면서 여러 전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사작전도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을 거쳐 한강 이남을 방어하는 사단으로 선정되어 중국인민지원군과 함께 수리산-마산전투를 수행하였다. 노획문서라는 가치 있는 당시 사료를 통해 정확한 수치들도 다양하게 정리하였으며, 북한군이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갔는지를 실감나게 파악하였다. 더불어 행군과 전투를 끝내고 난 뒤 총결을 통하여 분석한 장단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공간사만 봐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북한군 제8사단이 모습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수리산 전투 관련 공간사 기록에는 중국인민지원군만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연구자들이 북한군의 세부 모습을 계속 살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군 제8사단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공간사의 공백을 채워 나가는 데 있어 기반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는 당시 북한군이 수행한 전쟁수행방식을 하나씩 밝히는 것은 물론 6·25전쟁에 대한 연구를 더욱 내실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북한군 제8사단 행군로

〈참고문헌〉

1. 사료

『간부명단』, 제81련대 참모부, 1951. 2. 10., NARA, RG 242, ATIS Document, No.202594.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제81련대 참모부, 1951. 2., NARA, RG 242, ATIS Document, No.202594.

『편제직무』, 제81련대 참모부, 1951. 2.,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2594.

『적정 통보에 관하여』, 제1군단 참모부, 1951. 1. 27., RG 242, ATIS Document, no.202812.

『통보』, 제81보련 참모장 우양기, 1951. 2. 2., RG 242, ATIS Document, no.202813.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를 철두철미 집행할 데 대한 군단장 명령 이첩에 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1951. 1. 22.,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명령, 최고사령관의 0229호명령 실천에 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참모장 리항래, 1951. 1. 16.,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 이첩에 관하여』, 제1군단 군단장 리권무, 1951. 1. 16.,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조선인민군 군사규률과 전투력강화를 위한 사업계획표』, 제1군단 정치부장 김경석, 1951. 1. 14.,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명령 No.3』,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참모장 리항래, 1951. 1. 23.,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검열계획표』, 제8사단 참모부, 1951. 1. 23.,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명령 제0229호, 각 부대 및 련합부대에 있어서의 군사규률상태와 그의 강화대책에 관하여』, 최고사령관 김일성, 1950. 12. 29., RG 242, ATIS Document, no.202815.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1951, RG 242, SA 2011, BOX 8, Item # 10.
『명령』, 제81보련 련대장 백학림, 참모장 우양기, 1951. 2. 2., RG 242, SA 2012, no.75.
『전투총결』, 제8사단 포병참모부, 1951,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제415군부대 포병참모부, 1951. 2. 25.,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2. 저서 및 논문

국가보훈처, 『영국의 6 · 25전쟁 참전사』,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제4권, 2008
_____, 『6 · 25전쟁사』 제5권, 2008
_____, 『6 · 25전쟁사』 제6권, 2009
_____, 『6 · 25전쟁사』 제8권, 2011
바자노프 ·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박희성,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 · 25전쟁 초기 작전-전투일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군사』 110, 2020
http://doi.org/10.29212/mh.2020..116..1
_____, “북한군 제105땅크사단 65기보련 76mm대대의 참전준비와 전투일지,” 『한국군사학논총』 11-1, 2022
http://doi.org/10.34166/rokms.2022.11.1.21

(Abstract)

Preparation for the 4th Campaign of the 8th Division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Battle of Surisan-Masan

Park, Hui-seong

Among the various methods of studying the Korean War, the study of the North Korean Army is essential. However, research is also difficult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obtaining data. In the meantime, official publications have described the North Korean army's operations, but there were many deficiencies. Therefore,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North Korean army is the basis of research and is also the direction to move forward.

In this paper, the 8th Division of the North Korean Army was identified. The 8th Division was expanded in July 1950, and after that, it was a major division that participated in major battles such as Andong and Sinnyeong. And even after the retreat, delaying battles were held in the Cheongcheongang area.

The 8th Division was reorganized in Chosan. Although there was a lack of equipment and firearms, the number of troops was almost completed, and short-term education and training increased combat power. After the reorganization, the 8th Division began marching southward in December 1950 for the second attack, and arrived south of the Han River in early January 1951. During the march, they ought in Pyongyang,

Haeju, and Yeonan, and civil actions were also conducted against the residents. And in late January and early February 1951, they fought UN forces together with Chinese forces in Mt. Surisan and Mt. Masan.

Such detailed basic research on units below the divisional level of the North Korean Army will help to uncover the way the North Korean Army conducted war one by one at the time, and research on the Korean War will become more substantial.

Keywords : The Korean War, The 8th Infantry Division, North Korean Army, Korean People's Army, Defense Battle of Seoul, Mt. Surisan, Mt. Masa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179-229
https://doi.org/10.29212/mh.2023..127.17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 연구(1964-1972)

김상범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목 차

1. 서론
2. 북한 성명외교의 정의
3. 베트남전쟁기 북한 성명외교의 전개
4. 베트남전쟁기 북한 성명외교의 분석 및 평가
5. 결론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전쟁기 북한이 외교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성명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이것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적 목표 및 전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외교 관련 정부 차원의 성명은 크게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성명은 최고 수위의 성명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발표된 반면, 외무성 및 외

무성 대변인 성명은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전술적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1964-1972년 동안 북한의 정부 차원의 성명은 총 113개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64년 1회, 1965년 9회, 1966년 14회, 1967년 14회, 1968년 12회, 1969년 14회, 1970년 13회, 1971년 12회, 1972년 24회가 각각 발표되었다. 성명들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베트남 침략행위 비난, 북한의 대베트남 무상 지원,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캄보디아-라오스 간 반제연합전선 형성 및 강화, 파리평화협상에서 북베트남 정부의 입장 지지 등이었다. 북한의 성명은 단순한 레토릭을 넘어 현실이 되는 특징이 있었다.

북한의 성명외교는 자주라는 상징과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전략이 포함된 개념이었다. 북한은 성명외교를 통해 자주를 전제로 반미를 통한 위기 공유 및 공동 대응, 지도자의 정통성 강화 및 내부의 생산과 동원의 정당성 확보, 한국전쟁 회상 전략을 통한 사회주의권의 단결과 세계혁명에서 민족해방투쟁이 가지는 역량을 인정받으려 하였다.

주제어 : 베트남전쟁, 북한, 성명외교,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원고투고일 : 2023. 4. 12, 심사수정일 : 2023. 5. 14, 게재확정일 : 2023. 6. 5.)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전쟁(the Vietnam War)기 북한이 외교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성명(statement)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이것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은 항일무장투쟁과 한국전쟁(the Korean War)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중소분쟁(the Sino-Soviet dispute)의 시기에 자주라는 외교적 기조와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기반해 제3세계 및 비동맹운동 국가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경제·군사·외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외교의 목표였던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학계에서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이룩한 시기로 1960-1970년대를 지목하고 있다.[1)]

그렇다면 북한이 자국의 이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주로 활용했던 외교적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외교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성명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 성명들이 가지는 상징과 전략에 주목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그들이 목표로 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밝힐 것이다.

북한에서 외교 관련 정부 차원의 성명은 크게 정부 성명(Statement of Government), 외무성 성명(Statement of Ministry

---

1) B. K. Gills, *Korea verse Korea-A Case of Contested Legitim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백성호, "북한 외교의 형성과 전개,"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of Foreign Affairs), 외무성 대변인 성명(Statement by Foreign Ministry Spokesman)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성명들은 전략과 전술적 차원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대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긴급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인식, 평가 및 대응 등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정부 차원 성명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적 목표 및 전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북한의 정치·외교·안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성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 이것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는 신정화의 연구[2)]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 외교에 대한 불신과 외교에서 구사하는 수사(rhetoric)에 대한 진정한 의도 해석의 어려움 및 정책적 피로감이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북한 외교와 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성명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북한 외교에서 정부 차원의 성명이 가지는 학문적,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4년 8월부터 1972년 10월까지이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과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은 양국 간 전투가 개전, 확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68년 파리평화협상(Paris Peace Negotiation), 1972년 10월까지 협상, 재확진의 과정을 거치며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양국은 위기의 지속과 확산에 대한 인

2) 신정화, “북한 ‘정부성명’의 대외정책적 함의-1990년대 이후 대미·일 정부성명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1: 정책, 정치』 (서울: 통일부, 2002).

식을 공유하며 북한의 대베트남[3]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쟁기는 북한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가장 많은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던 시기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성명외교는 정치·외교적 상징과 북한의 전략을 명확히 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성명외교를 연구하기 위해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는 연구방법으로, 특정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상황과 연구조건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 내용 분석은 텍스트, 메시지의 내용과 본질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분석해 관련 대상, 내용, 전달방법, 효과성을 도출하는 방법이다.[5]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베트남전쟁기에 발행된 로동신문이다. 북한은 외교적 측면에서 로동신문에 대해 대외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이며,[6] 자신들의 목표와 이익의 관철, 이를 위한 전략 이행을 위한 전투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7] 이러한 의미에서 로동신문은 첫째, 당과 국가의 노선, 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보내는 신호이며, 이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가장

---

3) 본 연구에서 베트남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SV: 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of South Vietnam)과 베트남민주공화국(DRV: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겠다. 이 글에서 베트남의 북한식 표기인 월남은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언어정책에 따라 웰남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해 로동신문 원문을 인용해 북한식 표기를 따르기로 하겠다.

4) D. Tranfield, D. Denyer, P. Smart, “Towards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Evidence-Informed Management Knowledge by Means of Systemic Review,”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 14(2003), pp. 207-222.

5) Marilyn Domas White and Emily E. Marsh, “Content Analysis: A Flexible Methodology,” *Library Trends*, Vol. 55, No. 1 (Summer 2006), p. 22.

6) “축하문-<<로동신문>> 기자, 편집 일 군들에게,” 『로동신문』 (1965년 11월 2일).

7) “출판물은 당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당보는 우리 사업과 생활의 훌륭한 교과서,” 『로동신문』 (1965년 11월 1일).

빨리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둘째,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언어로 비판하거나 열정적인 언어로 호응하는 등 대외정책의 기조와 방향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셋째, 로동신문은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외교 문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로동신문이 중국의 인민일보와 더불어 세계의 어느 신문보다 더 외교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8] 상술한 자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를 연구하기 위해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총 113개[9]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의미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북한의 성명외교에 대해 정의하고 베트남전쟁 이전 성명외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베트남전쟁기를 전쟁의 양상에 따라 개전, 확전기 및 협상, 재확전기로 구분하여 성명외교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4장에서는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를 분석, 평가하겠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함께 성명외교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

8) Allen S. Whiting and Robert F. Dernberger, *China's Failure: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Mao Era* (New York: McGrawHill, 1977), p. 40.

9) 연도별 정부 차원의 성명 발표 형식, 회수, 내용은 <표 1>-<표 5>를 참고.

2. 북한 성명외교의 정의

가. 성명외교의 정의

북한에서는 성명을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 태도 및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10]”, 더 나아가 “자기 나라의 중요한 정치, 법률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와의 관계 문제 또는 중요한 국제적 사건에 대한 견해와 입장 표명하는 국가적인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11] 다시 말해,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에서 국가 차원의 의견이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성명은 특정한 국내외적 상황과 그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를 다룬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 차원의 성명들은 한 국가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국 정부나 해당국 대사관에서 발표하는 성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평가, 대응을 포함하고, 이를 관련 당사국들과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성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

10)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p. 252-253.

1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737.

정부 차원의 성명은 국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므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전제로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상징'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12] 상징은 외교적 언어에서 매우 중요하며, 성명 그 자체가 고도로 압축된 상징성을 가진다. 정부 차원의 성명은 외교적 언어를 통해 특정 국가, 특정 상황 하에서 외교적 의례와 레토릭이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외교적 소통의 과정이다. 정부 차원의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징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행동, 즉 전략과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13] 그러므로 성명을 이해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상징적 의미 파악과 실제 행동 예측이다.

특히 유사한 같은 역사·제도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의 정부 차원의 성명은 그들을 하나의 단위로 행동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외교적 상징은 관련 국가에 대한 이익의 일체화, 공통성, 정체성 및 감정의 역사를 내포하며, 상징과 그 가치 보존을 위한 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14] 상징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며,[15] 정의(justice)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도 한다.[16] 그러므로 성명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자들은 상황

12) A. N. Whitehead, "Uses of Symbolism," *Daedalus*, Vol. 87, No. 3 (Summer 1958), pp. 111-112.
13) Harald Wydra, "The Power of Symbols-Communism and Beyond,"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25, No. 1 (September 2012), pp. 63-66.
14) Ibid, p. 113.
15) Sheldon Stryker, "The Vitalization of Symbolic Interactionis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0, No. 1 (March 1987), p. 91.
16) Georges Fauriol, Eva Loser(eds), *Cuba: The International Dimension* (New

인식,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성명의 정치는 특정 국가, 특정 상황 하의 정치적 안정성과 상대적인 안도감을 제공하며 내부 동원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 성명외교를 '성명을 활용해 한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 방식의 한 형태'로 정의하기로 한다.

북한은 체제 유지·발전과 관련한 국제적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국의 대내외 정세 인식을 정리, 평가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정부 차원의 성명을 이용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성명은 당시 대내외의 상황, 발표 시점, 내용은 북한의 정세 인식, 평가, 대응 등 국가적 전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정부 차원의 성명이라고 하더라도 각 성명이 가지는 상징과 전략이 가지는 외교적 무게감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동일한 현안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성명이라도 정부 성명은 전략적 차원에서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정부 성명을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다소 전술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정부 성명이 타 기관의 성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표 수가 적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17]

북한의 성명들은 국가 전략 및 외교적 목표, 대내외 정세 인식 및 평가, 국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명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내외 인식 및 외교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 차원 성명에 대한 분석은 필수이며, 성명들의 형식, 발표의 횟수와 관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0), pp. 215-217.

17) 신정화, 앞의 글, p. 181.

련 주제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이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18]

나. 성명외교의 역사적 전개(1948-1963)

북한의 성명외교는 한국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한국전쟁에 파견, ▲미군의 이북 지역 폭격에 대한 항의, ▲미국의 세균전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 형성, ▲정전 협정 체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성명들은 수상 김일성, 외무상 박헌영, 남일 등 정부 차원 성명의 성격을 지닌 개인 명의의 성명이었다는 특징이 있었다.[19]

로동신문상 현재와 같이 개인 명의가 아닌 정부, 외무성,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 정부 차원 성명의 형태를 띤 최초의 성명은 1955년 8월 11일 이승만 정권이 38선 이남의 중립국 감독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철거 요구를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발표한 외무성 성명이었다.[20] 북한 최초의 정부 성명은 1956년 5월 31일 조선인민군 병력 축소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남조선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다면 선제 무력 불사용과 동년 8월 31일까지 자신

---

18) 위의 글, p. 182.

19) “유엔총회의장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헌영 외무상 항의 성명,” 『로동신문』(1950년 9월 29일); “미국비행기의 개성중립지구 폭격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남일장군의 성명,” 『로동신문』(1951년 8월 31일); “세균전의 제 사실을 현지 조사할데 관한 유·엔총회의 토의에 관련하여 박헌영 외무상 성명 발표,” 『로동신문』(1952년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원수의 성명,” 『로동신문』(195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일 외무상 성명 발표-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 회의 총회에 관하여,” 『로동신문』(1954년 7월 7일).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로동신문』(1955년 8월 12일).

들의 무력 중에서 8만 명을 감축하고, 군사비를 평화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충당하겠다고 선언하였다.[21] 이것은 전쟁이 재발되지 않는 한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 더 나아가 체제 안정화를 위해 인민군이라는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평화를 상징화한 한 국가 전략 공표의 의미가 있었다.[22]

최초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1957년 11월 30일에 유엔총회 제12차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정을 자신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로 상정해서 논의한 것에 대한 항의 목적에서 발표되었다.[23] 정부 차원 성명의 주요 내용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한 비판,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 ▲정전협정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 등 주로 전쟁 후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시기까지 북한에서는 수상 성명, 정부 성명, 외무상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 총 5개의 외교 관련 정부의 공식 성명체가 존재했다. 이와는 별개로 사회주의 국가의 당 외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성명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성명이 발표된 적도 있었다.[24]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Khrushchev)가 평화공존론(the theory of peaceful coexistence)과 전쟁가피론(the theory of avoidable war)을 주장한 이후 북한은 자주 노선을

---

21) "조선인민군 병력 축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 『로동신문』(1956년 6월 1일). '정부 성명'이 아니라 '정부의 성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로동신문상 정부의 성명이라는 표기는 이것이 유일해 보인다.

22) "공화국 정부 성명에 의한 인민군 병력 축소 사업 시작," 『로동신문』(1956년 6월 25일).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유엔총회 제12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로동신문』(1957년 12월 1일).

24) "독일공산당 비법화와 관련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성명," 『로동신문』(1956년 9월 9일). 이것은 로동신문상에서 당 차원의 유일한 성명으로 보인다.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경험하고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북한에게 흐루시초프의 주장은 체제를 위협하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사고였다.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자주를 기치로 한 북한의 성명 외교는 이전과는 발표 횟수와 해당 이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북한은 중소분쟁의 과정에서 자신들과 유사한 역사제도적 배경, 즉 식민지 경험, 혁명, 분단, 전쟁 등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민족해방투쟁(national liberation struggle)에 지지, 성원하는 것을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정부 차원의 성명을 활용하여 국가 이익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 미국의 피그만 침공(Bay of Pigs Invasion) 당시 사회주의 국가 최초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맹렬히 규탄한 바 있었다.[25] 이러한 성명외교의 패턴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the Cuban Missile Crisis) 때 더욱 강화되었다.[26]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비록 정부 차원의 성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성명도 발표하였으나, 이 시기부터 현재와 같은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이 세 가지 형식과 틀만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61년 9월 제4차 당 대회를 통해 이전 내부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 세력을 중심으로 당과 국가를 재편하였다. 또한 자주를 강조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들과 우호적 관계 발전을 대외정책의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더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27] 이러한 의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1961년 4월 20일).
26) Sangbum Kim, "North Korea's Aid to Cuba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Pacific Focus*, Vol. 37, No. 3 (December 2022), pp. 436-472.
2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61년 9월

미에서 북한은 당 대 당, 국가 대 국가 관계 외교를 위한 외교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인 명의가 아닌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성명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의 전개

베트남의 식민지와 혁명의 역사는 조선(이후 북한)의 역사와 매우 유사했다. 외세의 통상교섭 요구와 선교사 박해 문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 지배의 경험,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대변되는 혁명, 디엔비엔 푸(Battle of Dien Bien Phu)와 한국전쟁으로 설명되는 전쟁,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으로 인한 분단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과 베트남은 '이해의 일치'에 기반을 두고 '완전한 공존(integral coexistence)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대베트남 성명외교에 매우 중요한 역사·제도적 배경이 되었다.[28]

1958년 1월 김일성의 하노이(Hanoi) 방문시 발표되었던 정부 간 공동성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베트남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 차원의 첫 성명도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이 시기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955년 미국은 자국에서 망명 중이던 응오 딘 디엠(Ngô Đình Diệm)을 사이공 정부의 대통령으로

11일),"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07-308.

28) Harish C. Mehta, *People's Diplomacy of Vietnam: Soft Power in the Resistance War, 1965-1972*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9), p. 109. 베트남은 100년 가까운 프랑스 식민 지배하에 있다가 태평양 전쟁 개시로 인해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

옹립한 후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공산세력 및 반정부세력들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61년 4월 18일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를 활용하려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였다.[29] 이것은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호찌민(Ho Chi Minh)이 남북 베트남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을 두려한 결과였다.

1954년 제네바 협정(Geneva Conventions)을 통해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인 분단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북베트남은 1960년 12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결성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북 베트남 간 대립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전후해 북베트남도 유엔 차원에서 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북한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지지, 성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30]

북한과 북베트남은 자신들과 같이 '사회주의 내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미제로부터 경제,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체제를 위협당하고 있으며, 평화공존론과 중소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동맹의 실패로 인해 가장 큰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31]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트남전쟁이었다.

---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발표: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와 전쟁 준비 책동을 규탄하여," 『로동신문』 (1961년 4월 19일).

30) "조선 통일문제는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월남 민주공화국 정부 우리 나라 정부의 비망록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로동신문』 (1960년 11월 28일).

31)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 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81-382.

베트남 참전군인 출신이면서 전 미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John Forbes Kerry)는 1971년 4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베트남전쟁에서의 경험을 700년 전에 있었던 칭기스칸(Genghis Khan)의 정벌에 비교했다. 베트남전쟁은 소위 '싹쓸이 전쟁'[32]이었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베트남에게 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민족해방투쟁은 자주라는 목표와 연대라는 수단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을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존 전략이었다. 북한은 정부 차원의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을 더욱 명확히 해가기 시작했다.

가. 개전, 확전기(1964-1967)

통킹만 사건은 북베트남과 미국이 전면전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제국주의로 시작된 베트남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미국을 상대로 다시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했다. 북한은 베트남전쟁을 북한의 전쟁으로, 베트남의 전쟁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인식하며 '인도차이나의 북한'인 '북베트남'을 성명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였다.

통킹만 사건 직후인 8월 6일 북한은 정부 차원의 최고 성명인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북베트남 침략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양국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반대하고 싸우는 '한 가정의 형제'임을 강조하며, 모든 힘을 다해 베트남을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였다.[33] 특히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남한의 베트남전 파병과 사회주의 약소국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중 폭격이었다.

---

32) 박태균, 『베트남전쟁-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서울: 한겨레출판, 2015), p. 174.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1964년 8월 7일).

북한은 남한 정부가 1965년 1월 8일 2천여 명 병력의 남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자 즉시 반발하며 1월 9일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이며, 베트남 인민뿐만 아니라 남북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 범죄'이자 '민족적 모독행위'로 규정하며 베트남의 투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34]

1965년 2월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하였으며, 3월에는 대규모 지상군을 사이공(Saigon)에 상륙시켰다. 미국은 군사고문단 파견이라는 간접적 지원의 역할에서 전면전을 통해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로 나서게 되었다.[35] 미국은 1965년 2월 7일과 8일 양일 동안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공중 폭격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2월 8일 북베트남 정부가 공중 폭격을 맹비난한 북베트남 정부 성명에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들과 전투적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임을 천명하였다.[36] 또한 북한은 1965년 3월 22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남베트남을 해방하고 북베트남과의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에 호응하여 3월 26일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월남 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다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공표"하며,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때나 지원군을 남부 월남에 파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37]

---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1965년 1월 10일).
35) 히가이 다이사쿠, 서각수 옮김, 『적과의 대화-1997년 하노이, 미국과 베트남의 3박 4일』 (서울: 원더박스, 2018), p. 126.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1965년 2월 10일).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조선 인민은 형제적 월남 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다할 것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군을 파견하는

또한 7월 초 남베트남에 1개 사단을 증파하기로 결정한 박정희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끝내 남조선 괴뢰군을 대량적으로 남부 웰남에 파견한다면 그것이 사단이던 군단이건 증파되는 그 병력 수에 해당하게 남부 월남 해방군과 인민무장대원들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들을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에 제공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38] 이것은 북한이 남한의 베트남전 파병으로 인해 베트남전을 자신의 대리전쟁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남한 사회의 군사화와 반공의 강화 현상에도 우려했음을 보여준다.[39]

북한은 1966년 12월 초 약 열흘 동안 지속된 미국의 하노이에 대한 폭격에 대해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을 반대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하였다.[40] 북한이 미국의 하노이 폭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의 수도는 해당국 혁명의 심장이며, 수도를 공중 폭격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전면전을 통해 무력으로 압살하려 한다는 김일성의 신념체계 때문이었다.[41]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평양 폭격에 대한 트라우마(trauma)로 인해 혁명의 상징인 수도 하노이가 미군에 폭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로동신문』 (1965년 3월 27일).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미제와 박정희 도당이 증파하는 남조선 괴뢰군의 병력수에 해당하게 남부 웰남해방군과 인민무장대원들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들을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에 제공할 것이다,” 『로동신문』 (1965년 7월 9일).

39) 도미엔,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p. 137.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하노이에 대한 폭격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도전 미제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로동신문』 (1966년 12월 16일).

41) “사설-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로동신문』 (1966년 12월 16일).

당하는 것을 주권 유린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서 설정된 북위 17도선 비무장지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맹비난하는 1967년 5월 21일 북베트남 정부 성명 및 22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전쟁정책과 군사력 전개 양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형태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42] 이것은 북한이 베트남전쟁을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인식하였으며, 베트남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한다면 미국의 국력을 급속히 쇠퇴시켜 한반도에서 자신들 위주의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전쟁을 미제의 각 뜨기 전략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신생 독립국가들의 자주와 해방을 위한 민족해방투쟁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 (1964-1967)에 발표된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분석 대상인 113개의 성명 중 정부 성명 12회(총 29회/41.4%), 외무성 성명 20회(총 46회/43.5), 외무성 대변인 성명 6회(38회/15.8%), 총 38회(총 113개/33.6%)가 발표되었다.[43] 연도별로 보면 1964년 1회(정부 성명 1회), 1965년 9회(정부 성명 6회, 외무성 성명 2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1회), 1966년 14회(정부 성명 1회, 외무성 성명 9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4회), 1967년 14회(정부 성명 4회, 외무성 성명 9회, 외무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미제가 웰남에서 <<전면전쟁>>의 길에 들어선다면 조선인민은 그에 상응한 지원형태를 취할 것이다," 『로동신문』(1967년 5월 26일).

43) 세부적인 발표 연도, 회수, 연도는 <표 1>, <표 2>, <표 5>를 참고.

성 대변인 성명 1회)가 각각 발표되었다.

북한은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에 정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정세 인식 및 평가, 대응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베트남 침략, 남한의 베트남군 파병 시도, 친북베트남 정부인 캄보디아(Cambodia)의 시하누크 정부(Norodom Sihanouk)에 대한 무력 공격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북베트남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과 강화를 천명하였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 주로 당 기관지의 사설, 논설 등을 활용하며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것은 중국, 소련과 확연히 다른 상징과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소와는 달리 북베트남 정부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최고 수위인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을 때 그들과의 자주를 존중하고 연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같은 수위인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 성명에서 북한은 북베트남이 '당당한 사회주의 자주적인 주권국'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동일한 역사·제도적 배경을 가진 북베트남의 입장에서 베트남전쟁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었다.

북한 정부 성명의 대상에는 베트남전쟁기를 통틀어 베트남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주요 무기 공급처이며, 호찌민 루트(Ho Chi Minh Trail)가 연결되어 베트남의 후방의 역할을 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Laos)에 대한 지지까지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인도차이나 전체를 하나의 전장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북한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44] 이것은 1920년 호찌민을 중

44) Ang Cheng Guan, "The Vietnam War, 1962-64: The Vietnamese Communist Perspectiv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5, No. 4 (October 2000), p. 613.

심으로 한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설립된 이후 이들 국가들 내 반군을 조직해 친미 국가들과 전쟁을 벌려왔던 투쟁사에 기인한 것이었다. 북한이 정부 성명에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지지까지 포함한 것은 북한과 북베트남 간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북한이 발표한 정부 성명 리스트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 발표한 정부 성명 리스트(1964-1967)

차수	발표일 45)	주요 내용
1	1964. 08.06	미국의 북베트남 침략 행위 비난
2	1965. 01.09	남한의 베트남 파병 비난
3	1965. 02.09	미국의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공중 폭격을 비난
4	1965. 03.05	북베트남 주에 대한 공격 폭격 비난
5	1965. 03.26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지지하여 경제적, 군사적 지원 결정 통보
6	1965. 07.08	남한이 베트남에 파병한 군대 규모에 비례해 북한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무기와 장비들을 지원할 것을 천명
7	1965. 08.07	북베트남에 모든 형태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천명
8	1966. 12.15	미국의 베트남 하노이의 공중 폭격에 대한 비난
9	1967. 01.07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무력 침공을 비난
10	1967. 05.25	미국의 베트남전 확대 시도에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북한의 의지 표명
11	1967. 09.07	미국의 캄보디아 무력 침공 시도 비난
12	1967. 12.29	캄보디아의 반미투쟁 지원 천명

*출처: 로동신문 1964년 8월 6일-1967년 12월 31일 참고해 저자 작성.

외무성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도 베트남 정부 차원의 성명의 수위에 맞춰 발표되었다.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주로 다뤄진 사안도 ▲북베트남(캄보디아, 라오스 포함)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비난과 규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북베트남에서의 전쟁 행위 중단 및 미군 철수, ▲박정희 정부의 파병 및 추가 파병 시도 비난 등이었다. 이 시기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횟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 발표한 북한 정부, 외무성, 외무성 대변인 성명횟수

연도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총수
1964	1	0	0	1
1965	6	2	1	9
1966	1	9	4	14
1967	4	9	1	15

*출처: 로동신문 1964년 8월 6일-1967년 12월 31일 참고해 저자 작성.

외무성 성명은 정부 성명 보다 '급'과 '수위' 면에서 낮았으나 대변인 성명보다는 높았다. 외무성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주로 전략적 차원에서 발표되는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의미가 강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급'과 '내용' 면에서 정부 성명 차원에서 다루기 부차적인 외교적 사안들을 주로 다루었다. 또한 정부 성명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이지만 사안의 지속과 장기화로 인해 지지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45) 정부 성명 실제 발표일과 로동신문상 공개 날짜와는 일반적으로 1-3일 간 차이가 있다. 발표 당일 로동신문상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성명을 발표 당일 로동신문에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성명이 베트남전쟁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천명하였을 때, 외무성 성명은 북베트남, 남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외교적 비난과 규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당시 남북 베트남 인민들의 전쟁 수행 노력을 소개하고 자신들 또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46]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집중하였다.[47]

정부 성명과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 성명이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의 정세 인식 및 신념에 바탕으로 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다른 성명들보다 '이행' 즉 실행, 집행의 의미가 더 컸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정부 성명은 북한 인민들에게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베트남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역으로 정부 성명은 북베트남에게도 자주와 민족해방투쟁을 위해 내부 동원을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전쟁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북한, 쿠바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병 파병을 포함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 의사를 국내적 차원에서 자원병을 모집하기 위한 합리성의 기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남부 월남에서의 침략 전쟁을 인도지나 전역에 확대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로동신문』(1965년 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남부 웰남 해방군과 인민들을 지원하는데 조선 인민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로동신문』(1965년 11월 25일).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남부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더욱 야수적 방법으로 감행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규탄," 『로동신문』(1965년 10월 7일).

제로 활용하였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박정희 정부의 추가 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남한 국민들 선동, ▲유엔에서의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논의에 대한 비판, ▲미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 ▲김일성의 전쟁 지원 정책 및 민족해방투쟁 노선에 대한 지지 등을 통해 대내외 사안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성명외교는 북한과 북베트남,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모두의 자주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외교적 행위였다.

북한이 발표한 정부 차원의 성명 발표의 회수는 베트남전쟁의 전개 양상과 북한의 대응 수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의 하나인 정부 성명은 1965년과 1972년 각각 6차례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 시작과 파리평화협상의 결렬로 인한 재확전 때문이었다. 1966년에는 정부 성명의 횟수가 1회로 그치고 외무성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전년 대비 각각 9회와 4회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첫째, 1965년 12월-1966년 1월까지 존슨 대통령의 공습 중지 및 1966년 여름부터 12월까지 폴란드의 중재로 미국과 북베트남 간 최초의 협상이었던 '마리골드 협상(Marigold)'의 진행으로 인해 베트남전쟁은 소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정부 성명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48] 여기에 한반도에서는 1966년부터 한국전쟁과 같은 전운이 감돌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 간 군사충돌도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주목하며 정부 성명

48) 히가이 다이사쿠, 서각수 옮김, 앞의 책, pp. 159-164. 이 협상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James G. Hershberg, *Marigold: The Lost Chance for Peace in Vietnam* (Stanford/Washington D.C.: The Stanford University Press/Woodrow Wilson Center, 2012)을 참고.

발표 수를 급격히 줄이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49] 당시 남북 간 군사충돌의 급증은 북한이 남한 및 주한미군의 베트남전쟁으로의 추가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0]

둘째, 북한은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술적 차원에서 ▲남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 ▲베트남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남북 베트남 인민에 대한 도덕적 지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위 중단 요구, ▲박정희 정부의 추가 파병 반대 등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1967년에는 다시 정부 성명이 전년 대비 4회, 외무성 성명은 전년과 동일한 수가 발표된 것은 마리골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미국의 북베트남 군사적 공격이 재개되어 전쟁이 더욱 격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북한은 성명외교를 통해 선언한 바와 같이 베트남을 총력전 형태로 지원하였다. 정치적으로는 1964년 11월 김일성은 비밀리에 하노이를 방문해 호찌민 등 베트남 지도부와 회동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51] 또한 북한은 1965년 5월 응우옌 반 해우((Nguyen Van Hau)를 단장으로 하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해 대베트남 경제·군사적 지원을 결정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52] 놀라운 사실은 이 회의가 응우옌 반 해우는 김일성의

---

49) 당시 남북간 군사충돌에 대해서는 김용현 엮음, 『남북한 군사충돌로 본 분단 70년사』(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pp. 331-332를 참고.

50)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17_August_1967,"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0: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7_07-09』(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p. 228.

51)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아세아연구』, 제46권 4호 (2003), p. 234.

52)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 회의 개막-제1일 회의에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

옆 자리에, 나머지 대표단은 주석단에 초대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었다. 베트남을 지원하는 것을 주제로 한 회의에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석케 하는 형태를 위한 이러한 외교적 배려는 북한의 외교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는 그들을 남베트남 인민의 유일한 대표와 사실상 국가로 예우했음을 의미했다.

외교적으로는 1966년 1월 북한은 쿠바, 베트남과 주축이 된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인민단결회의(OSPAAAL)를 하바나(Havana)에서 개최하였다. 3대륙 국가들의 유엔이라고 불리웠던 이 회의는 이 지역의 민족해방투쟁을 기존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동등한 수준의 혁명 역량'으로 명문화하였다.[53] 이 회의에서 북한과 베트남은 쿠바와 함께 중소로 하여금 베트남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당시 약소국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세계혁명에서 가지는 혁명적 가치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베트남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베트남과의 연대성 주간'을 설정해 각국 당과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54]

경제 · 군사적으로 북베트남과 북한은 1966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반 티엔 둥(Van Tien Dung) 참모총장과 최광 총참

하였으며 웰남 민주공화국 인민회의와 남부 웰남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각각 채택," 『로동신문』 (1965년 5월 21일).

53) Castro, "Discurso pronunciado en el acto clausura de la Primera Conferencia de Solidaridad de los Pueblos de Asia, África y América Latina (Tricontinental), en el Teatro Chaplin, La Habana, el 15 de enero de 1966. (Español)," http://www.cuba.cu/gobierno/discursos/1966/esp/f150166e.html (검색일: 2019. 7. 20).

54)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것은 3대륙 인민들의 선차적인 과업이다-3대륙회의에서 채택된 총선언," 『로동신문』 (1966년 1월 20일).

모장 간 합의[55]에 의해서 1966년 9월 30일 파병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56] 1966년 11월 공군 1차 부대, 12월 2차 부대, 1967년 초 3차 부대를 파견하였다.[57] 또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경제 · 기술 원조 및 무상원조(군사 포함)를 체결하였으며, 해마다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58]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제공된 무상지원액은 24.3백만 루블이었으며, 이 금액은 북한이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에 제공한 총 무상지원액 40.7백만 루블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였다.[59]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북한의 소설 '운명'에서는 통킹만 사건 이후 1966년 6월 당시까지 북베트남에 제공한 무기와 탄약, 군수물자를 합쳐 북한 돈으로 대략 1억 7천 500만 원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60]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베트남전쟁에서 국력을 총동원해 베트남을 보위하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성명외교에 기초한 다방면에서의 지원에 대해 베트남은 "양국 인민들 간의 굳은 단결의 표시"라며 "가장 뜨겁고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61] 이렇게 북한은 베트남전쟁 개전,

---

55) 본 연구에서 북한과 북베트남 간 '합의'라고 명기한 이유는 북베트남과 북한의 자료 모두 상대국이 먼저 참전을 제안해왔다고 주장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보다 수용과 참전의 결정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고유한 '자주의 영역'이었다는 것이다.

56)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November 2011), p. 3.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north-korean-pilots-the-skies-over-vietnam (검색일: 2014. 3. 5).

57)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 94. 북한 공군의 베트남 참전 결정과정과 재구성에 대해서는 이신재의 연구를 참고.

58) 위의 책, p. 221.

59) Vietnam National Archive Ⅲ, Govermental Office Fond, Document No. 9235, Index No. 3. 여기서는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권 (이화사학연구소, 2014), p. 100에서 재인용.

60) 정기종,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p. 272.

확전기에 베트남에 대한 총력전 형태의 지원을 통해 성명외교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나. 협상 및 재확전기(1968-1972)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과 미국은 파리평화협상의 진행 및 전쟁 재확전을 거듭해 갔다. 1968년 1월 구정 대공세(Tet Offensive)는 사이공 내 미국 대사관이 점령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베트남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반대했던 프랑스 드골(Charles de Gaulle)의 중재를 받아들여 1968년 5월부터 베트남과 파리평화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동년 11월 1일을 기해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과정에서 미국은 1969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를 군사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은 재확전 되었다. 베트남은 미국의 폭격 중지와 파리평화협상 과정에서 전후 복구를 위해 체제 역량을 총동원하였다.

베트남전쟁 협상, 재확전기(1968-1972)에 발표된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분석 대상인 113개의 성명 중 정부 성명 17회(총 29회/58.6%), 외무성 성명 26회(총 46회/56.5), 외무성 대변인 성명 32회(38회/84.2%), 총 75개(총 113개/66.3%)의 성명이 발표되었다.[62] 연도별로 보면 1968년 12회(정부 성명 4회, 외무성 성명 7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1회), 1969년 14회(정부 성

---

61) "우리 나라 각계 인민이 월남 인민의 반미 구국투쟁을 지지 성원하며 지원군에 참가하여 월남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결의를 표시한 데 대하여 우리 나라 주재 월남 민주공화국 대사관에서 사의를 표시,"『로동신문』(1965년 4월 23일).

62) 세부적인 발표 연도, 횟수, 연도는 <표 3>, <표 4>, <표 5>를 참고. "," 『』(년 월 일).

명 1회, 외무성 성명 8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5회), 1970년 13회(정부 성명 4회, 외무성 성명 5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4회), 1971년 12회(정부 성명 2회, 외무성 성명 3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7회), 1972년 24회(정부 성명 6회, 외무성 성명 3회, 외무성 대변인 성명 15회)가 각각 발표되었다.

〈표 3〉 베트남전쟁 협상, 재확전기 발표한 정부 성명 리스트(1968-1972)

차수	발표 시기	주요 내용
1	1968.02.28	남베트남 주요도시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비난,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원 강화
2	1968.07.10	캄보디아의 대미 항전 지지
3	1968.11.03	11월 2일부 북베트남 정부성명과 3일 호찌민의 호소문 지지
4	1968.11.05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표명한 베트남 문제 해결의 입장을 지지
5	1969.06.11	남베트남의 임시혁명정부 수립을 축하
6	1970.04.29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간 3각 정상회담과 그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
7	1970.05.05	캄보디아 반미투쟁을 적극 지지
8	1970.10.11	미국과 캄보디아 롤 놀 수상이 공화국을 선포한 것에 대한 비난
9	1970.12.13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민들과 함께 인도지나 반도에서 미제를 격퇴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힌 북베트남 정부를 지지
10	1971.01.22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전쟁 확대 움직임 비난

11	1971.02.15	라오스의 반미투쟁을 지지
12	1972.02.05	닉슨의 8개 항목 제안을 반대한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입장 지지
13	1972.04.18	미국의 하노이 및 하이퐁 지대 폭격 강화 비난
14	1972.05.11	미국의 베트남전 확대 움직임 비난
15	1972.09.16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성명을 지지
16	1972.10.29	캄보디아 민족통일전선과 민족연합정부만을 인정하며, 노로돔 시하누크를 지지
17	1972.10.29	베트남 전 종식을 위한 북베트남 정부의 평화적 협상을 지지

* 출처: 로동신문 1968년 1월 1일-1972년 12월 31일 참고해 저자 작성.

이 시기의 정부 성명의 주요 내용은 ▲파리평화협상에 대한 북베트남 입장에 대한 지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수립에 대한 지지, ▲재확전 반대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캄보디아-라오스 3각 반미연합전선 움직임에 대한 지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반미투쟁 지지, ▲미국의 베트남전쟁 재확전에 대한 비난과 베트남에 대한 지원 강조 등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 북한 성명외교의 기조도 이전 '전쟁 수행을 위한 지원'에서 이후 '전후 베트남 건설을 위한 지원과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의 형성'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남베트남민족민주평화역량동맹은 1969년 6월 6일부터 8일까지 남베트남 내 해방지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수립을 선포하였다.[63] 북한은

63) "남부웰남인민들이 남부웰남공화국 림시혁명정부를 수립, 정부의 자문리사회를 설치-해방지역에서 광범한 각계각층 대표들의 참가하에 남부웰남국민대표자회 진행, 대회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남부웰남해방전선 원우수위원장이 정치보고," 『로동신문』 (1969년 6월 12일).

세계 최초로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남베트남 인민들의 진정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였으며,[64] 6월 11일 정부 성명을 통해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와 외교관계를 맺을 것임을 선언하였다.[65] 북한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는 6월 12일 평양에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기존 주북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대표를 주북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대사로 지위를 전환시켰다.[66] 이것은 베트남전쟁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북한이 이 시기 정부 성명을 통해 목표한 것은 민족해방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의 형성 및 강화였다. 북한의 남한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도 각각 사이공 정부(Saigon Government)-론놀(Lon Nol Government) 정부-비엔티엔 정부(Vientian Government)로 이어지는 친미정권들이 수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확전이 되자 북한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인도지나 3개국 공동 지원을 선언하였다. 1970년 4월 24일과 25일 동안 캄보디아 시하누크 국왕의 제안에 의해 열린 인도차이나 3개국 정상회담(캄보디아, 라오스,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에서는 재확전에 대한 공동 무력 대응을 핵심으로 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북한은 동년 4월 29일 정부 성명을 통해 이 공동선언에 대해 "인도지나 인민들의 반미공동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킴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4월 25일 부 공동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였

64) "김일성수상께서 남부웰남공화국 림시혁명정부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969년 6월 13일).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남부웰남공화국 림시혁명정부의 수립을 가장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1969년 6월 13일).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부웰남공화국 림시혁명정부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 『로동신문』 (1969년 6월 13일).

다.[67] 미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무력으로 침공하며 베트남전쟁의 재확전을 강화해 나갈 때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캄보디아-라오스 3각 정상회담과 연대 강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 발표된 정부 성명 총 17개의 성명 중에서 8개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캄보디아-라오스 간 반미연합전선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아시아가 가장 치열한 반제 전선이며, 아시아반제혁명 투쟁은 한국전쟁에서 자신들의 투쟁과 승리의 결과라는 김일성의 사고때문이었다.[68] 김일성은 시하누크 정부-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북베트남 정부-수파누봉 정부-중국 정부-북한으로 이어지는 소위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을 형성해 남베트남-대만-남한-일본으로 이어지는 소위 '친미아시아연합전선'에 대응하며 한반도 안보 문제의 대응기제로 활용하길 원했다. 이것은 북한이 이 연합전선에 대해 자신들의 '전략적 노력의 결과'이자 '매우 중요한 혁명의 전취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69]

---

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조선인민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 것이다," 『로동신문』(1970년 4월 29일).

68) "아세아는 가장 치렬한 반제전선이며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이다," 『로동신문』(1971년 5월 10일); "아세아반제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전략적 방침," 『로동신문』(1972년 6월 26일).

69) "조선, 캄보쟈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은 공동전선을 펴고 미제에 집단적으로 타격을 가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캄보쟈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다-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용건 위원장의 연설," 『로동신문』(1970년 6월 19일);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은 새로운 기초우에서 강화되고 있다-연회에서 한 김일성수상의 연설," 『로동신문』(1970년 6월 28일).

이 시기 외무성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도 상술한 맥락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성명들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확대 책동 경고, 반대, ▲미국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침공에 대한 비난, 반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미군 철수, ▲북베트남 및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였다. 또한 이들 성명들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캄보디아, 라오스 외무성과 외무성 대변인 차원의 성명 및 통일전선에 대한 지지,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인 앙코르 와트에 대한 미국의 파괴 행위 등 해당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지나 미국의 파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등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이 시기 정부 성명뿐만 아니라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1968년에 총 8개에서 1969년 13개, 1970년 9개, 1971년 10개, 1972년 18개로 베트남전쟁 개전, 확전기에 비해 횟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적인 변화는 베트남전쟁의 양상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관련이 있었다. 이 시기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사이공과 미국 정부는 파리 평화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결렬 후 미국은 북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북한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해 외무성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맹렬히 비난하였다.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이에 대응한 북한의 외무성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1969년 정부 성명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에 대한 지지를 내용으로 1회만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파리평화협상의 전개 및 그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다. 북한은 겉으로는 파리평화협상의 개시를 베트남의 승리라고 선전했으나, 베트남과 미국 간 파리평화협상을 베트남전쟁의 활용이라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하였다.[70] 그 이유는 베트남의 대미평화협상이 기존 베트남의 인식, 즉 평화협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입장과 분명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71]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 관련 시기에 베트남 평화협상에 대한 지지가 전체 정부 성명 중 1건, 그것도 사실상 북베트남에 유리하게 협상이 종료될 조짐이 보였을 때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상술하였듯이 정부 성명은 1965년에 이어 1972년에도 여섯 차례 발표되었다. 동시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도 전년 대비 100%이상 급증하였다. 그 배경에는 파리평화협상의 지지 부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의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군사적 침공, 이에 대응한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을 형성,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있었다. 북한은 이들 국가들에게 제국주의와의 협상이 가지는 기만성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아시아에서 민족해방투쟁을 더욱 강화해 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

70) Balázs Szalontai, "In the Shadow of Vietnam: A New Look at North Korea's Militant Strategy, 1962-197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4, No. 4 (Fall 2012), p. 152.

71) "미제가 침략전쟁을 계속하는 한 웰남 인민은 끝까지 단호하게 항전을 진행할 것이다-웰남 외교부 대변인이 미제의 기만적 <<평화노력>>을 규탄하여 성명," 『로동신문』 (1966년 1월 6일).

〈표 4〉 베트남전쟁의 협상 및 재확전기 발표한 정부, 외무성, 외무성 대변인 성명 수

연도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총수
1968	4	7	1	12
1969	1	8	5	14
1970	4	5	4	13
1971	2	3	7	12
1972	6	3	15	24

* 출처: 로동신문 1968년 1월 1일-1972년 12월 31일 참고해 저자 작성.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베트남전쟁과 반제아시아연합전선과 관련해 특정 사건의 추이와 중요도에 따라 하루에도 2-3회씩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72년 10월 29일 베트남전쟁과 반제아시아연합전선과 관련해 하루에 2번의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사한 주제로 1968년 12월 11일에는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1971년 1월 22일에는 정부 성명과 외무성 성명을 동시에 발표하였으며, 1971년 12월 25일에는 외무성 성명(2회)와 민족보위상 성명(1회) 총 3회를 발표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북한 외교사에서도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아 있다.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의 경험은 국가 안보와 전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그들이 국가 이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성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경험과 자산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5〉 베트남전쟁기 발표한 북한 정부, 외무성, 외무성 대변인 성명 횟수 및 비율

년도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총수/비율
1964	1	0	0	1/0.88
1965	6	2	1	9/7.96
1966	1	9	4	14/12.38
1967	4	9	1	14/12.38
1968	4	7	1	12/10.61
1969	1	8	5	14/12.38
1970	4	5	4	13/11.5
1971	2	3	7	12/10.61
1972	6	3	15	24/21.23
총합/비율	29/25.66	46/40.7	38/33.62	113

* 출처: 〈표 1〉, 〈표 2〉, 〈표 3〉, 〈표 4〉를 종합해 저자 작성.

북한은 반제아시아연합전선의 구축을 위해 캄보디아의 시하누크 왕국민족연합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론 놀-시리크 마타크(Sirik Matak)의 쿠데타에 반대하였다. 북한은 정부 차원의 성명에서도 반제아시아연합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주캄보디아 북한대사 김은환과 대사관 전체 직원들을 평양으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72] 더 나아가 북한은 1972년 3월 캄보디아에 군사적 원

72) "캄보쟈에 가 있던 우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성과적으로 철수하여 조국으로 돌아온다," 『로동신문』, 1970년 5월 27일; "캄보쟈에 가 있던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미제와 그 주구 프놈 뻰 반동당국의 교활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로동신문』(1970년 5월 29일).

조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73] 또한 베트남전쟁에서 베트남의 승리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승리라는 명분으로 베트남에게 민족해방투쟁에 기초한 강력한 대미항전을 펼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66년 1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회의 이후 매년 3월 12일이 포함된 주를 베트남 지지 주간으로 설정하고 기념하여 왔으나 1972년부터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 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제연합형성 강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74]

이 시기 북한은 베트남의 파리평화협상 및 전후 복구 건설 전략에 기반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제 · 군사적 지원을 이어나갔다. 북한은 베트남과 1968년-1971년까지 경제 · 군사 무상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북한 군 주둔 연장 및 새로운 정규군의 신규 · 추가 파병, 북한에서 베트콩 군사지도자들의 교육, 군사전문가 파견 등이 진행되었다.[75]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북한이 베트남에 제공한 무상 지원 금액은 총 16.4백만 루블이었으며, 이것은 북한이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에 제공한 총 무상지원액 40.7백만 루블의 약 40%를 차지하였다.[76] 이 숫자는 1965년 개전 초기 한 해에만 12백만 루블을 지원했던 것과는 사뭇 차이가

---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에 군사원조를 준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사이의 협정이 조인되였다," 『로동신문』(1972년 3월 17일). 세부적인 협정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74) "우리 나라에서 <<웰남인민, 캄보쟈인민, 라오스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이 설정되였다," 『로동신문』(1972년 3월 13일).

75) 이신재, 앞의 책, p. 181 및 로동신문 1968년 8월 12일-1971년 12월 31일을 참고.

76) Vietnam National Archive Ⅲ, Governmental Office Fond, Document No. 9235, Index No. 3. 여기서는 도미엔, 앞의 글에서 재인용.

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파리평화협상으로 대표되는 항미통일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관점 변화라고 판단했다.[77] 이후 베트남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남한 내 혁명세력의 기반을 흔드는 해로운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었다.[78]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북한과 베트남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양국은 인민들의 유대 및 국가간 연대 강화를 위해 반미투쟁 주간 등 1년에 총 14가지의 사회·문화 행사를 진행하였다.[79] 이 행사들은 인적·물적·정신적 자원이 동원된 북한 연내 최다, 최대 규모의 연대성 행사였고, 문화외교의 총력전이었다. 이 행사는 4월과 11월을 제외한 10개월이 행사 기간이었으며, 이 행사들을 위해 베트남의 인사들이 정기, 비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1966년 가을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에서만 300명의 북베트남 및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80] 1968년 상반기에만 2,500명이 넘는 베트남의 유학생, 실습생들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원산농업대학[81] 등 북한 전역에서 교육을 받고

---

77) 도미엔, 위의 글.

78) 위의 글, p. 101.

79) 세부적인 행사 목록 및 시기는 김상범, "1960년대 북한의 대베트남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 연대 강화 행사와 유학생·실습생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13권 제1호 (2021), pp. 174-178.

80) Rinn-Sup Shinn, John B. Folan, John w. Hederson, Marilyn G. Hopkins, Edward C. Knobloch, Robert L. Younglof,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American University, 1969), p. 155.

81) "조선인민은 반미공동투쟁에서 웰남 인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원산농업대학에서 웰남 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지지 성원하는 교직원 학생집회가 있었다," 『로동신문』 (1968년 2월 24일).

있었다.[82] 이것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베트남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나포와 1969년 4월 EC-121기 격추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쿠바와 더불어 유일하게 양 사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83] 이러한 양국간의 군사, 도덕적 지지는 자주노선에 대한 대내외적 과시와 자주가 체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음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4. 베트남전쟁기 북한 성명외교의 분석 및 평가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는 자주라는 외교적 상징과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외교적 전략, 이에 기반한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외교적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북한은 체제 수립 이후 특정 시기, 특정 국가를 상대로 가장 많은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베트남전쟁

82) "주북 헝가리 부대사(공사) 켈로이 팬들로(Károly Fendler)가 외교부 부부장 에르데이(Erdélyi)에게 보내는 정보 보고, '베트남과 루마니아의 관점에서 본 북중 무역관계와 북조선 상황', 1968년 1월 3일," MOL, XIX-J-1-j Korea, 1968, 57. doboz, 1, 00345/1968. 여기서는 박종철·박성용·정은이, "헝가리의 북한 관련 기밀해제문건에 관한 연구," 『지역과 세계』, 제37권 제1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pp. 82-83에서 재인용.

83) "조선에 대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자!-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미제간첩선을 나포한 조선인민의 자위적 조치를 지지하며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 발표," 『로동신문』 (1968년 1월 30일); "미제의 온갖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형제적 조선인민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웰남 인민은 확고히 지지할 것이다-미제의 간첩비행을 규탄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정부성명을 지지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성명 발표," 『로동신문』 (1969년 4월 28일).

을 자주라는 프리즘으로 세계질서를 바라본 결과였다. 자신들과 유사한 역사·제도적 배경을 공유하고 중소분쟁이라는 적대적인 외부 환경에 놓여져 있던 북한과 북베트남은 체제 생존과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민족해방투쟁이라는 '혁명적 언어'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갔다.

베트남전쟁기 북한 성명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베트남전쟁을 한반도의 제2전선으로 인식해 단순한 관망자, 지원자가 아닌 적극적인 개입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에 의해 시작된 베트남전쟁에 대해 전쟁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즉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촉발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이해했다. 동시에 남한 정부의 베트남전 파병은 분단상황에서 실전 전투 경험의 누적, 한·미·일의 군사동맹화 움직임 강화, 남한의 군사화 및 반공정신 강화로 남한 내 혁명 세력들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베트남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북한은 남한 정부의 베트남 파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것은 상술하였듯이 남한 정부의 파병 수위에 맞춰 베트남을 지원하겠다고 정부 성명을 통해 선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은 베트남전쟁에 공군 조종사들과 훈련 교관들을 파병하였는데 이는 당시 남한 정부 내 베트남전쟁에 공군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는 점이다.[84]

84) 도미엔, 앞의 책, pp. 154-155.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의 또 다른 특징은 성명의 실행력이 강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베트남전쟁기 정부 차원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베트남전쟁 초기 북베트남에 모든 형태의 지원 강화, 한미의 베트남전 파병 규모와 확대 시도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물론 북한이 베트남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이지만 자주와 민족해방투쟁을 통한 양국 간 연대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북한의 신뢰적 조치였다.

상술하였듯이 북한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매년 경제·기술 원조 및 군사적 무상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총 40.7백만 루블 상당을 지원했다. 또한 북한은 통킹만 사건 이후 1966년 6월까지 북한 돈으로 대략 1억 7천 5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1965년 6월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2원씩을 공제하고 그 중 1원을 남베트남 지원금으로 축적해 나간 결과로 보인다.[85] 이러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성명은 북한의 외교에서 중요한 전략과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은 강력한 실행력이 포함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를 통한 베트남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지원은 미국과 중소로부터 북한 스스로를 보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타국의 혁명에 직접 개입,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위 '완전히 자주적인 독립국

85) 통일연구원, 『독일지역 북한기밀문서집』(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p. 152. 1964년 12월 당시 사무직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45원이었으며, 군 장교가 120-150원, 광산업 및 철강공장 노동자가 90-100원이었다. 1964년 물가를 기준으로 1원은 쌀 20kg(배급) 혹은 밀가루 2kg(배급)과 사과 1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공제된 2원 중 1원은 남베트남 지원금, 50전은 남조선의 혁명운동 지원금, 50전은 모내기를 위해 농촌으로 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축적되어 갔다.

가' 및 자신들을 강국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 국가의 '역할(role)'은 행위와 타국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관성을 전제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86]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은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통해 국제질서를 바라본 결과였으며,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역할은 '차지'하거나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국력의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위한 행위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87] 종합적으로 한 국가의 역할은 역할 당사자의 신념, 정세 인식과 평가, 역할 대상자에 대한 역할 당사자의 행동 의지 등이 중요하다.

K. J. Holsti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 중 '혁명과 해방의 요새 · 보루'라는 역할 인식을 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적 차원에서 타국의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혁명투쟁 세력들의 리더들을 교육, 해외 혁명세력들에게 군대를 보내거나 물자를 제공, 해외 정치 기구 등을 조직, 운용 그리고 대규모 이데올로기 선전선동 프로그램 활용 등 '세계혁명을 위한 강력한 기지', 즉 '세계혁명의 리더'를 의미했다.[88] 이것은 중국과 소련의 고유 영역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베트남전쟁기 소련과 중국이 수행한 위와 같은 국가 역할을 자처하고 이를 적

---

86) Ralph Linton, *The Study of Man* (New York: Appleton-Century, 1936), p. 114.

87) Ralph H. Turner, "Role-Taking, Role Standpoint, and Reference Group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1, No. 4 (January 1956), pp. 316-317.

88) K. J. Holsti,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4, No. 3 (September 1970), p. 261, 292.

극적으로 실행해 나갔다.[89] 다시 말해, 북한은 이 시기부터 자신들을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반해 더 강력한 자주와 이를 위한 전세계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다.[90]

북한은 베트남전쟁기 성명외교를 통해 냉전기 국제질서 하에서 자주노선과 민족해방투쟁 지원을 통해 그 실효성을 증명해 나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성명외교는 북한의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주'와 '연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었다. 북한의 성명외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험적-객관적 신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외교에서 그들의 신념을 어떻게 강화·발전시켜 나갔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해 포인트이다.

5. 결론

북한의 성명외교는 자주라는 상징과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전략이 포함된 개념이었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 베트남과의 유사한 역사·제도적 배경, 미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베트남전쟁이 가지는 반제혁명의 잠재력과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베트남 지원은 남북 베트남 인민들에게 베트남전쟁이 정의의 전쟁으로 인식시키고 전쟁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89) Ibid, p. 296.

90) "사설-공화국 창건 20주년을 우리 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으로 맞이하자!," 『로동신문』 (1968년 8월 17일).

북한은 성명외교를 통해 반미의식을 공유하고, 지도자의 정통성 강화와 동원의 정당성을 확보,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을 통해 상호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의 공동의 목적은 체제 생존, 자유와 독립이었다. 물론 당시 북한과 북베트남 모두 중국과 소련의 경제·군사적 원조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주라는 상징과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전략을 공유한 양국 간 연대는 사회주의의 승리가 경제·군사적 지원이라는 객관적 요소보다는 정치·도덕적·정신적 지원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달려 있다는 양국 국가지도자들의 신념, 실용성, 의지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성명외교를 통한 대베트남 지원은 미국의 전쟁 정책이 국제평화에 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것은 서방세계와 비공산권 국가들에게 '한국전쟁' 회상 전략이었으며, 미국과 서방 선진국에 막대한 정치, 경제,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을 하나로 묶고 사회주의 전체의 단결을 통해 더 강력한 정치, 경제 · 군사적 지원을 베트남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기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보다 민족해방투쟁을 통한 세계혁명이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더 현실적이며, 이 두 혁명 역량은 상호 존중과 인정 하에 세계혁명을 위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도 있었다.

또한 베트남이 북한 등 타 국가들의 지원병 파병 의사를 포함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자신들의 전쟁 수행 정책의 정당성과 이에 기반해 국내에서 자원병을 모집하기 위한 우호적인 대내 환경을 조성해 준 의미도 있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지원병 파병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 선언과 베트남의 지속적인 감사 표현은 단순히 외교적 의례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자주에 기반해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약소국 간의 위기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내부의 정치 투쟁과 생산과 동원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북한의 성명외교는 북한의 국가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행과 우리의 대응을 연구하는데 학문적,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상술하였듯이 북한의 성명에는 상징과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발표하는 성명이 가지는 상징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들의 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성명은 레토릭을 넘어 현실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는 북한이 발표한 외교적 성명에 대해 외교적 수사로 치부하고 학문적, 정책적으로 피로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성명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신념에 더해 대내외 정세 인식, 평가가 더해져 새로운 신념체계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정부 성명에 대한 분석,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대남 관련 정부 성명에 대한 분석 등 성명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와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상술하였듯이 성명외교는 상징과 전략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외교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그것은 우리의 대응전략과 연결되어있다. 현재의 미중 전략적 경쟁, 동북아 및 한반도 내 군비 경쟁, 북한의 소위 3중고 상황(코로나19, 자연재해, 경제제재)에서 북한의

성명은 북한과 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왜 북한의 성명외교가 중요한 지를 말해준다.

〈참고문헌〉

1. 사료

『로동신문』

2. 국문

김용현 엮음, 『남북한 군사충돌로 본 분단 70년사』, 도서출판 선인, 201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61년 9월 11일),”『김일성 저작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김일성 저작집 20』,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도미엔,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UCI: G901:A-0010797508

_____,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 48, 2014

DOI : 10.37091/ewhist.2014..48.004

박종철·박성용·정은이, “헝가리의 북한 관련 기밀해제문건에 관한 연구,”『지역과 세계』 37, 2013

DOI : 10.33071/ssricb.37.1.201304.65

박태균, 『베트남전쟁-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출판, 2015

UCI: G901:A-0006568080

백성호, “북한 외교의 형성과 전개,”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도서출판 선인, 2006

UCI: G901:A-0006127840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UCI: G901:A-000808224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2006
신정화, "북한 '정부성명'의 대외정책적 함의-1990년대 이후 대미·일 정부성명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1: 정책, 정치, 통일부, 2002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9
UCI: G901:A-0008443854
정기종,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 문학예술출판사, 2012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아세아연구』 46, 2003
UCI: G704-000745.2003.46.4.009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17_August _1967,"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0: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7_07-09』, 한국학술정보, 2017
UCI: G901:A-0008048238
히가이 다이사쿠, 서각수 옮김, 『적과의 대화-1997년 하노이, 미국과 베트남의 3박 4일』, 원더박스, 2018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2. 영문

Ang Cheng Guan, "The Vietnam War, 1962-64: The Vietnamese Communist Perspectiv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5, No. 4 (October 2000).
https://doi.org/10.1177/00220094000350

Fauriol, Georges, Eva Loser(eds), Cuba: The International Dimension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0).

Gills, B. K, Korea verse Korea-A Case of Contested Legitima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Holsti, K. J.,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4, No. 3 (September 1970).

Kim, Sangbum, "North Korea's Aid to Cuba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Pacific Focus, Vol. 37, No. 3 (December 2022).

doi: 10.1111/pafo.12216

Leighton, Soviet Propaganda As A Foreign Policy Tool (Lanham: Freedom House).

Linton, Ralph, The Study of Man (New York: Appleton-Century, 1936).

Mehta, Harish C, People's Diplomacy of Vietnam: Soft Power in the Resistance War, 1965-1972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9).

Shinn, Rinn-Sup , John B. Folan, John w. Hederson, Marilyn G. Hopkins, Edward C. Knobloch, Robert L. Younglof,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Washington D. C.,: The American University, 1969).

Szalontai, Balázs, "In the Shadow of Vietnam: A New Look at North Korea's Militant Strategy, 1962-197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4, No. 4 (Fall 2012).

https://doi.org/10.1162/JCWS_a_00278

Stryker, Sheldon, "The Vitalization of Symbolic Interactionis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0, No. 1 (March 1987).

https://doi.org/10.2307/2786893

Tranfield D., D. Denyer, P. Smart, "Towards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Evidence-Informed Management Knowledge by Means of Systemic Review,"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 14(2003).
https://doi.org/10.1111/1467-8551.00375
Turner, Ralph H., "Role-Taking, Role Standpoint, and Referen ce Group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1, No. 4 (January 1956).
Whiting, Allen S. and Robert F. Dernberger, China's Failure: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Mao Era (New York: McGrawHill, 1977).
Whitehead, A. N, "Uses of Symbolism," Daedalus, Vol. 87, No. 3 (Summer 1958).
White, Marilyn Domas and Emily E. Marsh, "Content Analysis: A Flexible Methodology," Library Trends, Vol. 55, No. 1 (Summer 2006).
10.1353/lib.2006.0053
Wydra, Harald, "The Power of Symbols-Communism and Beyond,"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25, No. 1 (September 2012).
DOl 10.1007/s 10767-011 -9116-x
Castro, "Discurso pronunciado en el acto clausura de la Primera Conferencia de Solidaridad de los Pueblos de Asia, Áfri ca y América Latina (Tricontinental), en el Teatro Chapl in, La Habana, el 15 de enero de 1966. (Español)," htt p://www.cuba.cu/gobierno/discursos/1966/esp/f150166e. html (검색일: 2019. 7. 20).
Pribbenow Merle,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 m," (November 2011).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 ation/north-korean-pilots-the-skies-over-vietnam(검색일: 2014. 3. 5).

(Abstract)

A Study on the Statement Diplomacy of North Korea(1964-1972)

Kim, Samg-Bum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look at how North Korea employed government-level declarations for diplomacy during the Vietnam War, as well as the key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ose statements. Foreign affairs-related government-level statements in North Korea can be broadly classified as government statements, foreign ministry statements, and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statements. The government statement was issued as a top-level strategic statement, whilst the Foreign Ministry and its spokesman issued a tactical statement in support of the government position.

There were 113 North Korean government-level comments issued between 1964 and 1972. In particular, once in 1964, nine times in 1965, fourteen times in 1966, fourteen times in 1967, twelve times in 1968, fourteen times in 1969, thirteen times in 1970, twelve times in 1971, and twenty-four times in 1972. The statements focused on the US invasion of Vietnam, North Korea's free aid to Vietnam, the formation and strengthening of an anti-Japanese coalition between Vietnam, Cambodia, and Laos, and support for the Vietnamese government's position in the Paris peace talks.

The concept of North Korea's statement diplomacy incorporated the emblem of independence as well as the strategy of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North Korea sought to share and respond to the crisis through anti-Americanism, to strengthen leaders' legitimacy, to secure internal production and mobilization, to unite socialist rights through a strategy to recall the Korean War, and to recognize the capabilities of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in the global revolution through statement diplomacy.

Keywords : The Vietnam War, North Korea, Statement Diplomacy, Statement of Government, Statement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by Foreign Ministry Spokesma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231-273
https://doi.org/10.29212/mh.2023..127.2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제3제국에 대한 군부 내 저항*

이병철 |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부교수

목 차

1. 서론
2. 국방군과 나치즘
3. 군부 저항의 시작
4. 1944년 7월 20일 저항
5. 맺음말

초 록 독일 군대는 1933년 히틀러의 정권 장악을 환영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대폭 약화된 독일의 병력이 나치의 재무장정책에 의해 되살아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군대를 나치즘의 대외정책적 팽창의 도구로 삼고자 했다. 1차대전의 패전국 독일 군대가 국방군으로의 개편을 통해 다시 한 번 유럽의 전쟁을 주도할 위험한 실체로 변모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소수의 반대자들이 군대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군부의 반대는 처음에는 제3제국 안에서 재편되는 조직 간 세력투쟁의 양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히틀러의 전쟁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전개되었다.

2차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군대 안에 정권을 전복함으로써 무모한 전쟁으로부터 독일을 구할 수 있다는 반대자들의 저항운동이 조직화되고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 대대적인 첫 시도로서 군부 안에서의 1938년 '9월 음모'는 히틀러가 전쟁을 기피한 듯이 보였던 기만적 뮌헨협정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2차대전이 인종주의적 절멸전으로 수행됨에 따라 군부 내 반대자들은 도덕적으로 재무장되어 범죄적 정권의 타도와 제3제국과 '다른 독일'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1944년 7월 20일 저항을 시도한다. 이 거사가 히틀러의 암살 미수로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렀지만 전후 독일의 새로운 출발에 정신적 기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방군이 연방군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7월 20일'의 정신은 군사(軍史)적인 연속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 제3제국, 국방군, 나치즘, 저항, 1944년 7월 20일, 슈타우펜베르크, 발퀴레 작전

(원고투고일 : 2023. 4. 1, 심사수정일 : 2023. 5. 18, 게재확정일 : 2023. 6. 5.)

1. 서론

1944년 7월 20일, 히틀러를 암살하고 나치 정권을 전복하려는 저항이 실패로 돌아간 뒤 7월 20일에서 21일로 이어지는 밤에 핵심 주동 인물 5명에 대한 처형이 즉각 집행되었다. 이들 모두 현역 군인이었고, 계급은 대장, 중장, 2명의 대령, 중위였다. 군부의 주도에 의한 거사가 좌초되었고 그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폭발 사건 약 12시간 뒤 7월 21일 01시 직전에 아직 현장에 머물러 있던 히틀러가 '총통사령부'(Wolfsschanze)에서 직접 자신의 생존사실을 확인시키고 '암살 미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육성 방송이 전국에 중계되었다.

그는 "공명심에 빠진, 양심 없는, 동시에 바보 같고 불한당 같은 장교들의 아주 작은 도당이 나를 제거하고 동시에 나와 함께 실제적으로 독일 국방군지도부를 이끄는 참모진을 절멸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했다.[1] 히틀러가 이 쿠데타의 공모자들을 규정한 "아주 작은 도당"이라는 개념은 곧바로 나치당의 기관지(Völkischer Beobachter)

---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히틀러는 총통사령부에 긴급 배치된 동프로이센의 쾨니히스베르크 지방방송(Reichssender Königsberg) 중계차에서 방송연설을 했고 "암살의 충격으로 전율하는 히틀러의 공세적 목소리"가 독일의 모든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다. 이 육성 녹음과 전문이 '100(0) Schlüsseldokumente zur deutschen Geschichte im 20. Jahrhundert' 에 게시되어있다. https://www.1000dokumente.de/index.html?c=dokument_de&dokument=0083_ahr&object=pdf&st=&l=de, pp. 1-2, 6 (검색일: 2023년 4월 1일).

에 의해서도 “아주 작은 일파의 범죄 분자들”로 반복 활용되었다.[2] 나치의 선전은 그들이 수적으로 매우 제한된 장교로만 구성된 일당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강조했고, 그것은 통제된 공중 안에서 효력이 있었다. 1944년 7월 20일 저항이 군부 내 배타적인 극소수의 일당에 의한 음모였다는 나치의 각인은 이 사건에 대한 전후시기 독일 공중의 기억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치가 주조한 인상과는 다른 실상이 7월 20일의 거사를 즉각 다루었던 당시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다. 1934년에 ‘정치적 범죄행위’를 다루기 위해 설치되어 국가전복과 반역 등의 판결을 전담했던 ‘민족법정’(Volksgerichtshof)의 7월 20일 저항에 대한 첫 공개재판에서 정권이 선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인물이 여기에 참여했고 이들이 전통적인 프로이센-독일 군부 및 다른 직무에서도 엘리트 출신이라는 것이 표출되면서 언론 보도는 이내 중지되었다.[3] 공모자들은 다수의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계층의 민간인들과 —특히 저항단체였던 크라이자우 서클(Kreisauer Kreis)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게슈타포 내에 즉각 구성된 ‘1944년 7월 20일 특별위원회’에 의해 체포된 인원이 600여 명에 이르렀고 대부분이 처형 및 다른 방식의 죽음으로 희생되었다.[4] 그 가운데 최고위 장교로서 3명

---

2) »Völkischer Beobachter« 1944년 7월 22일자. Winfried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Berlin/Boston, 2019), p. 9에서 재인용.

3) Johannes Tuchel, “Die Verfahren vor dem »Volksgerichtshof«,” M. Becker, C. Studt, eds., *Der Umgang des Dritten Reiches mit den Feinden des Regimes* (Berlin, 2010), p. 141.

4) Johannes Tuchel, Julia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 eine Einführung,”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o. 330 (Feb. 2016), p. 61.

의 원수, 19명의 장군, 26명의 대령이 포함된다.[5] 결코 "아주 작은 도당"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이 논문은 1944년 7월 20일의 저항을 '군사'(軍史)적인[6] 관점에서 살핀다. 무엇보다 그 구성원에서 군인들의 역할이 주도적이었고 공모의 시점이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며 군대 안에서 그 이전까지 소급하는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대사적 고찰은 이 저항사건의 이해에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7월 20일 저항운동의 형성과정은 군대가 제3제국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나치즘에 대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군사'의 의미를 개괄하고, 제3제국 시기의 군대인 '국방군'(Wehrmacht)이 구축되는 과정을 나치즘과의 관계에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나치즘과 특별한 관계를 누렸던 국방군 내에 정권에 대한 이견이 형성되어 저항을 공모하게 되는 경위를 추적한다. 마지막 4장은 1944년 7월 20일의 거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집중한다.

2. 국방군과 나치즘

제3제국에 대한 군부 내 반대의 역사를 독일 군대사의 일부로 이해하려 한다면 '군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역사학계에서 고전적 의미로서 '군사'(Militärgeschichte)는

5) "Personen des 20. Juli 1944," Wikipedia, https://de.wikipedia.org/wiki/Personen_des_20._Juli_1944 (검색일: 2023년 4월 1일).

6) 군사(軍史)라는 단어가 군사(軍士), 또는 군사적(軍事的)이라는 개념과 혼동되기 쉬어 강조용 부호를 붙여 '군사'로, 때에 따라서는 군대사라는 단어로 표기함.

오늘날 '전쟁사'(Kriegsgeschichte)라는 개념에 해당된다. 즉 전쟁 중에 시행된 군사적(軍事的)인 작전의 역사, 그리고 작전이 수립되는 사고 과정이 고찰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군사적 기밀의 한계 아래 군대 자체에 의해 추진되어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학문적-역사적 논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7]

군대사 서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계기는 1955년 연방군(Bundeswehr)의 창설에서 마련되었다. 전후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패전 독일의 재무장이 서방측의 이해에 절실히 필요했고, 그에 따라 창설된 연방군은 독일의 군대를 넘어서 유럽과 서방의 군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해야 했다. 1957년 '군사' 연구부가 세워지면서 군대사가 일반 역사학의 방법론과 기준에서 수행되기 시작했다. 독일 대학의 역사학은 '군사'적 주제에 관계하는 것을 더 오랫동안 머뭇거려왔는데 그것은 연합국에 약탈되었던 2차대전기 국방군 문서의 주요 자료가 1960년대 말에야 독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8]

그 이후에 '군사'의 방법론과 목표에 대한 토론이 본격화되어, 2000년에 여전히 『'군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군대사 서술의 핵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2013년에 『이것이 '군사'다!』라는 제목의 책이 맞서 출판되는 등 그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제는 근대적으로 "확장된 '군사'"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9] '군사'는 군사적 과정들

---

7)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p. 3.

8) Astrid M. Eckert, *Kampf um die Akten. Die Westalliierten und die Rückgabe von deutschem Archivgut nach dem Zweiten Weltkrieg* (Stuttgart 2004) 참조.

9) Thomas Kühne, Benjamin Ziemann, eds., *Was ist Militärgeschichte?* (Paderborn, 2000);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ed., *Das ist Militärgeschichte! Probleme - Projekte - Perspektiven* (Paderborn, 2013) 참조.

을 그것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연구다. 2차대전 중에 야기된 독일 군부의 저항이 이러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군사'의 일부로 이해하고 서술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다. 이에 반해 전쟁사로서 고전적 군대사의 관점에서는 군부 저항의 행동이 어떠한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7월 20일의 전복 시도가 군사적 작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0] 7월 20일 저항이 '군사'적 관점에서 연구되는 것은 군대사 개념의 정립과 이 거사에 대한 전후 독일 사회의 인식 변화가 맞물리는 최근의 일이다.

제3제국의 '군사'적 고찰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군대가 나치 권력기구의 일부로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그 체제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다. 군대는 마지막 순간까지 히틀러가 주장하는 권력의 중추였다. 동시에 그 체제 전체를 전복하기 위해 일어났던 유일한 저항 행동의 담당자 역할을 한 것도 군대였다. 정치가, 공무원, 외교관과 함께 오래 전부터 암살 및 국가전복을 계획한 공모자들이 군대 안에 형성되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히틀러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나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독일인, 그리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경애하는 총통'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군부의 중심에서 국가전복을 위한 그렇게 광범위한 공모와 조직이 형성될 수 있었는가? 제국 수도를 장악하는 그렇게 포괄적인 군부의 기도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정권의 눈을 피해 들키지 않고 계획되고 준비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것이 곧 7월 20일의 군부 저항에 대한 '군사'적 설명이 될 것이다.

---

10)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p. 3.

나치 정권에 대한 반대는 정권 장악과 동시에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 일어났다. 나치 지배의 지속과 책략이 반대파의 행동을 초래했고, 역으로 반대파의 행동이 나치의 반작용을 야기했다.[11] 전쟁 중의 저항도 똑같이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발전했다. 저항이 전쟁사건에 영향을 받았고 반대로 저항은 전쟁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저항의 공모자들은 그들이 군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대 기구의 일부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군대에 일어난 변화들이 저항적 행동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 중 군인들의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 안에서의 사건들과 공모자들이 군부에서 사회화하는 과정의 맥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7월 20일의 공모자들 가운데 연장자들은 황제 통치의 제국(Kaiserreich) 시기에 육군에서 복무했다. 이 거사에서 국가수반으로 내정되었던 전임 육군참모장[12] 베크(Ludwig Beck) 대장[13]은 1898년, 즉 19세기에 장교로 임관되었다. 거사의 실제적인 책임을 맡았던 세 인물, 올브리히트(Friedrich Olbricht) 중장은 1907년에, 트레스코프(Henning von Tresckow) 준장은 1917년에, 슈타우펜베르크(Claus Schenk Graf von Stauffenberg) 대령은 1926년에 군복무를 시작했다. 이들 모두 국가방위군(Reichswehr)의 군인이었다.[14]

---

11) Martin Broszat, “Zur Sozialgeschichte des deutschen Widerstands,”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4 (1986), p. 296.

12) 육군최고사령부(OKH)의 최고지휘관은 육군최고사령관(Oberbefehlshaber des Heeres)이며 육군참모장(Chefs des Generalstabes des Heeres)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13)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군인들은 특정 시기에 관련되지 않을 경우 최종 계급으로 표기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시점의 계급으로 표기된다.

14) Winfried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J. Hillmann, P. Lieb, eds., *20. Juli 1944. Neue Forschungen zum Widerstand gegen Hitler* (2019), pp. 27-28.

프로이센-독일의 군국주의에서 군대는 '국가 안의 국가'(Staat im Staate)였고, 심지어는 '국가 위의 국가'(ein Staat über dem Staat)로까지 인식되었다.[15] 국가에 대해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한 군대의 특별지위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국가방위군에서도 계속되었다. 1918년 11월 혁명 동안 좌익급진 세력에 대해 육군총사령관 그뢰너(Wilhelm Groener)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에베르트(Friedrich Ebert)와 공동의 행동을 합의한 '에베르트-그뢰너 조약' (Ebert-Groener-Pakt)으로 군대는 광범한 내적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가방위군은 바이마르 공화국 동안에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인 사안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국가방위군의 일부가 가담한 1920년의 카프 폭동(Kapp-Putsch)에서 군부는 진압을 거부했고, 1923년 뮌헨에서의 쿠데타 시도(Hitlerputsch) 때에는 육군의 수장이 대통령이 위임한 진압 권한을 반환했다. 전자는 노동자들의 파업시위에 의해, 후자는 소요 수뇌부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와해되었다. 1932년 가을에는 나치스와 공산주의 및 민주주의 세력 간의 무력적 충돌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 의해 사주된 전통적-군주제적, 또는 군부독재적 개혁을 위한 복고적 쿠데타를 감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다. 일급비밀의 '오트 훈련'(Planspiel Ott) 심의에서 다수의 국가방위군 사령관들이 주민들에 의해 거부되었던 군부 쿠데타—카프 폭동—의 선례를 들어 이에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국가방위군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최소한으로 축소된 10만 육군으로서는 나치스와의 대립 및 사민당과 공산당 주도아래 벌어질 총파업에 맞설 능력이 없었다. 제국의 내적 혼란에 병행해서 외적 위협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었

15) Volker R. Berghahn, ed., *Militarismus* (Köln, 1975), p. 91.

다.[16]

베르사유 체제에 의한 군대의 축소는 다른 한편 국가방위군의 소수 정예화를 가능하게 했다. 육군의 수장으로서 젝트(Hans von Seeckt)는 '대중군대'(Massenheer)가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로 이루어진, 고도로 기계화된 '지휘관군대'(Führerheer)로서 국가방위군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독자적인 군대로서 여전히 '국가 안의 국가'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격리된 자칭 비정치적인 국가방위군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방위군은 정치권으로부터 가려져 그 안에서 개방적인 담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하나의 보호된 소통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군대의 특수성은 나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도 게슈타포에 의해 발각되지 않은 채 국가모반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 1944년 7월 20일의 국가모반에 참여한 장교들은 수사관들에 의해 나치 세계관에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비정치적인 군인들의 대변자로 지칭되었다. 히틀러에게 보고한 게슈타포의 수사결과 문서(칼텐브루너 보고서, Kaltenbrunner-Berichten)는 "군인들의 이러한 '비정치적 태도'의 결과로 장교단의 특정 일부가 나치 제국과 총통에 내적인 의무감을 느끼지 못 한다"고 분석했다.[17]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군제의 재편은 베르사유 조약 파기의 일환으로 감행되었다. 1935년 3월 15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방위군에서 유래한 나치 독일의 군대는 '국방군'으로 개칭되었다.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된 국방군은 2차대전 동안 히틀러의 정복정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작동했다. 앞으로의 전쟁을 내다보면서 나치 국가

16)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p. 28.
17) 같은 논문, p. 29.

는 이미 1933년부터 엄청난 군비확장정책을 추진했다. 육군의 상비군이 6년 내에 7배 이상 증가했고, 해군의 상비군은 5배가 증가했다. 1935년에 공군이 창설되었고, 일반징집으로서 병역의무가 재도입되었다. 이렇게 하여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방군은 4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18]

1933년 이후 나치즘과 국방군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동맹'(Bündnis 또는 Entente)으로 구축되었다. 이것은 나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구조 획일화의 핵심 부분이었고 군 수뇌부에게는 인상적인 세력증강의 기회를 의미했다. 10만 육군의 병력을 급속히 증가시킨 군비확장은 특히 장교단에게 대대적인 승진의 기회를 제공했다.[19] 독일의 지리적 위치는 군사적으로 언제나 육군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것은 국방군의 구성에 직접 반영되었다. 1939년 9월, 국방군은 거의 9/10에 해당하는 370만의 병력을 육군에 배치했다. 신설 공군은 1/10이 채 안 되는 40만, 해군은 1/90 정도의 5만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전체 병력은 전쟁이 경과하면서 2배로 상승하여 1943년에 9백만에 이르렀고, 육군은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두고 최대의 국방군 병력을 차지했다.[20]

히틀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곧 차례대로 군대조직에 대한 통제를 장악했다. 제국대통령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가 1934년 8월 2일에 사망하자 즉시 그는 군인들

---

18) Thomas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https://www.bpb.de/themen/nationalsozialismus-zweiter-weltkrieg/der-zweite-weltkrieg/199406/die-wehrmacht-struktur-entwicklung-einsatz/p. 3 (검색일: 2023년 4월 1일).

19) Gerd R.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Motive und Entwicklung der Militäropposition gegen Hitl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54 Jg., Bd. 27 (Jun. 2004), p. 16.

20)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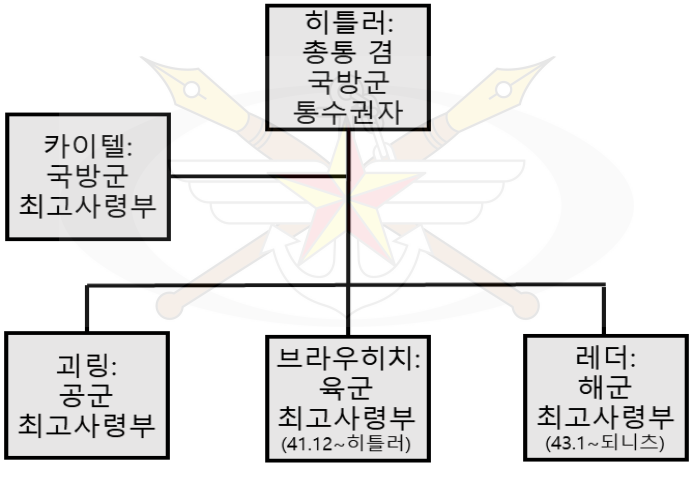
로 하여금 '국방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에게 맹세를 하게 했다. '총통에 대한 맹세'(Führereid)로서 국방군 군인의 선서문구는 이러했다. "나는 독일 제국과 국민의 총통, 국방군 통수권자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용감한 군인으로서 언제든지 이 맹세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것이라는 이 신성한 서약을 신 앞에 맹세한다."[21] 이 총통맹세는 1944년 7월 20일 전복의 공모자들을 '서약을 위반한 자'로 낙인찍고 '서약을 지킨 자'와 구분 짓는 도구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종전 후 독일이 연방공화국으로 재건하고 연방군으로 군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군대의 쟁점으로 남아있게 된다.

히틀러의 군사적 통제는 군 지휘부와의 마찰을 불러일으키지만 결국 그가 군대를 직접 장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방부가 1935년 전쟁부로 변경되었다가 1938년에 폐지되고 국방군최고사령부(Oberkommando der Wehrmacht, OKW)가 설립된다. 이 과정은 히틀러에 이견을 제기하는 자를 제거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로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군부의 장악은 국방군 내 3군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육군을 장악하는 것을 전제했다. 히틀러는 음모를 통해 육군최고사령부(Oberkommando des Heeres, OKH)의 수장을 약한 후임자로 대체했고, 전쟁 중에 국방군최고사령부의 조력으로 군사전략적인 계획과 군사작전의 수행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 최고지휘관으로서 히틀러의 중요성은 1941년 말에 모스크바 전투의 패배를 빌미로 그가 육군의 직접적인 통수권도 인수함으로써 더욱 커졌다.

---

21) 군인으로서 "충실"할 대상의 차이가 비교된다. 1919년 8월 14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방위군 맹세는 "공화국헌법에 충실"할 것과 "국가와 그 합법적 기구들"을 지키며 "국가수반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1933년 12월 2일의 국가방위군 맹세는 "민족과 조국에 충실"할 것을 맹세한다.

히틀러는 군사적 지휘관으로서 과도한 장악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결국 국방군최고사령부는 이러한 결함을 상쇄하지 못한 채 상급 지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육군, 해군, 공군의 최고사령관들이 히틀러를 통해 명령을 받았고 그에게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방군최고사령부를 따돌릴 수 있었다. 최고 수준에서의 군사적 계획과 지휘는 괴링(Hermann Göring)이 이끄는 공군최고사령부의 특별지위를 통해 더욱 어려워졌다.[22] (참조: 국방군 구조 도표)[23]



국방군 구조(지휘체계)

엄청난 결함이 내재된 군 수뇌부 구성은 사실상 히틀러가 원

22) Martin Broszat, *Der Staat Hitlers*, 김학이 역, 『히틀러 국가』(문학과지성사, 2015²), pp. 409-410.

23) Die Führung der Wehrmacht. Militärische Spitzengliederung im Krieg, https://www.bpb.de/medien/205482/05_wehrmacht.pdf (검색일: 2023년 4월 1일).

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모든 중요한 문제에서 결정적인 권위자로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는 국방군 가운데서 경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지배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히틀러 지배체제의 특징으로서 '다두 지배구조'(Polykratie)[24]아래 각 군과 수장들의 대립적인 이해는 부차적으로 공동의 전쟁수행을 방해했다. 지휘조직의 분열로 인해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은 지상전의 수행이었다. 육군최고사령부 내의 관할 참모부는 이미 1938년에 국방군최고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정책자문의 최상급 주무기구로서의 우월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경쟁은 1940년부터 국방군최고사령부와 육군최고사령부 사이에 교전지역의 수가 분할되고 증가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1941년 여름부터 육군최고사령부의 참모부는 중심 교전지역이었던 동부전선만을 관할한다. 이 기구는 직속상관인 히틀러의 휘하에서 1942년부터 더욱더 순수 집행기구로 격하되었다.[25]

지휘부에서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첫 해의 출정에서 독일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연마한 고도의 훈련수준과 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독일 군대에서 전통적이었던 '위탁의

---

24) Rüdiger Hachtmann, "Polykratie - Ein Schlüssel zur Analyse der NS Herrschaftsstruktur?," *Zentrums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Potsdam* (Jun. 2018), pp. 4-5; 히틀러의 '다두 지배구조' 개념은 브로샤트의 『히틀러 국가』(1969)에 의해 널리 알려졌지만 나치의 위협아래 1933년에 영국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한 노이만이 이미 제3제국 시기 동안의 특징을 이 개념("병존하는 다수의 독립적 기구들")으로 나치 체제를 분석했다. Alfons Söllner, Michael Wildt, ed., *Franz Neumann, Behemoth. Struktur und Praxis des Nationalsozialismus 1933-1944* (Hamburg, 2018), p. 71 참조. 노이만의 책, 영어(*Behemoth: The Structure and Practice of National Socialism 1933-1944*) 초판은 1942/44에, 독일어(*Behemoth. Struktur und Praxis des Nationalsozialismus 1933-1944*) 초역은 1977년에 출간됨. Broszat, *Der Staat Hitlers*, pp. 407-410 참조.

25)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p. 5.

지휘' 문화가 지상전을 특별히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했다. '위탁전략'(Auftragstaktik)이란 목표를 제시하지만 방법의 선택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는 군사적 지휘기술이다.[26] 그러나 전쟁기간이 장기화되자 이 요소들의 유효성은 감소되었다. 잘 훈련받지 못했고 별로 쓸모 있지 않았던, 더욱이 불충분한 수로 투입된 보충군이 고갈된 고참들을 대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완강한 사수명령으로 독일군의 전투지휘는 그 유동성을 상실했고 많은 손실이 뒤따랐다.[27]

3. 군부 저항의 시작

군대가 나치의 권력 장악을 대부분 환영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민족혁명'의 승리로 보였다. 국가방위군 장교들의 의식은 이미 1933년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던 1918년의 소실점에 고착되어 있었다. 패전의 악몽은 '재무장'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야 극복될 것이었다. 나치 정권은 이들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만족시켜주었다.[28] 군대는 히틀러의 군비정책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보았고 그의 공격적 대외정책에 수년 동안 기꺼운 동반자였다. 지휘관들은 일찍이 나

26) Christian Bühlmann, Peter Braun, "Auftragstaktik in Vergangenheit, Gegenwart und Zukunft," *Military Power Revue der Schweizer Armee,* Nr. 1 (2010), pp. 54-55.

27)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p. 6.

28) Holger Löttel, "Der militärische Widerstand gegen Hitler im Lichte neuerer Kontroversen," Tagungsberichte (Bonn, 2008.2.22 - 2008.2.24) p. 2, http://hsozkult.geschichte.hu-berlin.de/index.asp?id=2042&view=pdf&pn=tagungsberichte&type=tagungsberichte (검색일: 2023년 4월 1일).

치 이념을 병사들에게 개방했다. 국방부장관은 1934년 초에 인종주의적 '아리안 조항'(Arier-Paragraph)을 직업군인에게도 적용했다. 1935년의 병역법은 모든 '비아리안족'을 현역 군복무에서 배제했다.[29] 전쟁 중에 나치즘은 국방군에서 더욱 강력한 기반을 확보했다. 1940년까지 계속된 눈부신 승리는 국민과 정권과 군대 사이의 일치를 가져다주었다. 군대는 "갈색 홍수"를 견뎌내게 해 줄 "회색 바위"(grauer Fels in brauner Flut)가 아니었다.[30]

나치즘에 대한 이러한 군대의 입장은 1944년 7월 20일 저항의 공모자들에게도 해당되었다. 거사의 계획과 준비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슈타우펜베르크도 처음에는 나치 정권의 뚜렷한 반대자가 아니었다. 그도 나치즘의 몇 가지 기본 이념과 총통이나 민족공동체 사상에 찬동했다.[31] 공모자들이 처음부터 저항투쟁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전후의 역사학 연구 및 저항에 대한 기억문화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종전 직후 독일 사회에서도 꽤 오랫동안 모반자요 배신자로 인식되었던 이들은 나치 과거사 극복의 더딘 과정과 함께 서서히 긍정적인 인상을 획득하기 시작했고 제3제국과 '다른' 연방공화국의 본보기와 영웅으로서 각인되어 갔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로 보다 비판적인 역사연구들에 의해 7월 20일 저항의 상대화와 '탈신화화'가 대두된다. 공모자들이 처음에 나치를 환영했다는 점과, 전복 이후의 대안으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권위주의적 국가 및 패권정치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2] 이

29)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p. 7.
30) Jürgen Förster, "Die Wehrmacht im NS-Staat, Ein »grauer Fels in brauner Flut«?," Manuel Becker, ed., *Der militärische Widerstand gegen Hitler im Lichte neuer Kontroversen* (Berlin, 2010), pp. 263-276 참조.
31)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59.
32) 7월 20일 저항의 비판적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 두 연구자에 의해 주도되었다.

들은 그들 시대의 자녀요 포로였다.

베르사유 조약의 수정을 주장해왔던 히틀러는 베르사유체제의 '용병'으로서 국가방위군을 거부하고 나치의 가두시위 부대였던 돌격대(SA)를 새로운 '국민군'의 핵심으로 만들려는 생각이었다. 그가 국가방위군의 젊은 장교들에 대해 재고하게 된 것은 1930년 이후 보수적인 집단 및 중공업 세력과 더욱 가까워지면서부터였다.[33] 국가방위군에서 개편된 국방군의 핵심을 이루는 육군 지도부는 나치 국가의 구조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돌격대와 무장친위대(SS)의 야망을 제압하려 했다. 여기서 비롯되는 마찰은 도덕적, 사회적 정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세력정책적인 권력 경쟁의 양상이라고 할 것이다. 군대 내에서의 첫 이견과 반대는 아직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없었다.

나치 기구들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첫 범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거리를 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Hermann Graml, "Die außenpolitischen Vorstellungen des deutschen Widerstandes," W. Schmitthenner, H. Buchheim, eds., *Der deutsche Widerstand gegen Hitler. Vier historisch-kritische Studien* (Köln, 1966), pp. 15-72; Hans Mommsen, "Gesellschaftsbild und Verfassungspläne," *Der deutsche Widerstand gegen Hitler. Vier historisch-kritische Studien*, pp. 73-168. Graml과 Mommsen의 두 논문은 같은 논문집에 실렸다. 전후 독일사회에서 1944년 7월 20일 저항에 대한 인식 및 연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Haus der Geschichte Baden-Württemberg, ed., *Verräter? Vorbilder? Verbrecher? Kontroverse Deutungen des 20. Juli 1944 seit 1945* (Berlin, 2016); 이병철, "제3제국과 '다른 독일': 나치 저항의 기억문화 —1944년 7월 20일 전복 기도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Vol. 49 (Fed. 2022), pp. 51-92;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병철, "전후 독일에서 나치 저항의 인식 변화: 레머 재판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Vol. 52 (Fed. 2023), pp. 105-146 참조.

33)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p. 29.

반향은 아주 미약했다. 1938년 초의 '블롬베르크-프리치-사건'(Blomberg-Fritsch-Affäre)에서 나타난 여러 고위 장교들의 비판적 자세는 기존의 국방군 및 육군 지도부에 대한 나치의 음모를 거부한 것이었다. 히틀러는 공격적이며 갈등을 야기하는 대외정책, 곧 자신이 요구하던 전쟁준비에 반대하는 전쟁부장관 블롬베르크(Werner von Blomberg) 원수와 육군최고사령관 프리치(Werner von Fritsch) 대장을 해임하고 국방군최고사령부를 신설하여 자신에게 충성하는 카이텔(Wilhelm Keitel)을 임명한다.[34] 이 시기에 나치의 정책, 즉 독재자의 범죄적인 목표를 인식하고 그것과 단절하고자 한 소수의 장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1937년 11월 5일 히틀러는 국방군의 중요 대표자들—전쟁부장관, 육·해·공군최고사령관—과 외무부장관을 불러 국방경제의 문제를 논의했다. 여기서 중점은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전쟁계획이었다. 뒤이은 '블롬베르크-프리치-사건'은 이에 대해 반대했던 전쟁부장관과 육군최고사령관을 해임한 히틀러의 이른바 숙군 작업이었다. 이 회의 내용이 동석했던 히틀러의 국방군 부관 호스바흐(Friedrich Hoßbach) 대령에 의해 회의록 형식을 취한 비공식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육군참모부의 수장인 베크 대장에게도 알려졌다. 베크는 '호스바흐 문서'(Hoßbach-Niederschrift)[35]에 큰 충격을 받고 서

34) Broszat, *Der Staat Hitlers*, pp. 407-410.

35) 4시간이 넘는 이 회의에서 히틀러는 독일의 '공간부족'에 대처하는 것을 독일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독일의 자립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독일 국민경제가 대외교역에 의존되는 상황에서 독일 영토의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볼셰비즘에 대항하고 마찬가지로 '철천지원수'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도 무장하고 대항하는 전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이 자리에서 제시되었다. "Niederschrift über die Besprechung in der Reichskanzlei am 5. 11. 1937 von 16.15-20.30 ['Hoßbach-Protokoll'], 10. November 1937", https://www.1000dokumente.de/pdf/dok_0008_hos_de.pdf (검색일: 2023년

방과의 전쟁을 감행하려는 히틀러의 무책임함에 경악했다. 이후에 작성된 문서에서 베크는 전쟁과 평화의 여부가 히틀러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을 비판하고 논의 과정에 군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36]

더 나아가서 베크는 이에 대한 장군들의 공동 대처로서 히틀러가 계속 전쟁을 밀고나갈 경우 장군 전원이 사퇴할 것을 제안했다. 1938년 8월 4일의 회의에서 12명의 군단장 모두가 이 시점에 여러 나라를 상대하는 확전이 파국을 야기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모임이 히틀러에게 알려지면서 베크는 해임된다.[37] 베크의 목표는 '독일의 종말'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치 정권의 범죄적 질주를 제어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3제국에 대한 이견의 결집을 육군의 범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베크의 접촉 범위는 이미 나치 정권에 대항하는 저항모임을 이끌고 있는 전임 라이프치히 시장 괴르델러(Carl Friedrich Goerdeler), 경제부장관 샤흐트(Hjalmar Schacht), 군 해외정보부(Abwehr)장 카나리스(Wilhelm Canaris) 해군 대장, 역시 해외정보부의 오스터(Hans Oster) 중령에 이르렀다.[38] 군대를 중심으로 한

4월 1일). 7쪽 분량의 타자본으로 기록된 '호스바흐 문서'는 2차대전의 전사(前史)를 알려주는 중심 사료로서 종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침략전쟁을 준비했다는 증거로 검사 측에 활용되었다.

36) Joachim Fest, *Staatsstreich. Der lange Weg zum 20. Juli* (Berlin, 1994). p. 62.

37) *같은 책*, pp. 86-87. 체코슬로바키아의 침공이 불가피하게 서방세력과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견에 반대한 두 명 가운데 한 명(라이헤나우, Walter von Reichenau)이 히틀러에게 이 모임에 대해 보고했고, 히틀러는 '블롬베르크-프리치-사건' 당시 한 장관에게 베크가 "뭔가를 감행할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이 우려하는 유일한 장교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Kurt Sendtner, "Die deutsche Militäropposition im ersten Kriegsjahr," Europäische Publikation e. V. ed., *Vollmacht des Gewissens*. Band 1 (Berlin, 1960), p. 441 참조.

38)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6.

저항운동의 조직화가 시작된 것이다.

1938년 9월에 주데텐란트(Sudetenland)를 에워싼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자 베크의 후임자 할더(Franz Halder) 대장은 4월에 임명된 외무부 차관 바이체커(Ernst Freiherr von Weizsäcker), 베를린 관구의 지휘관 비츨레벤(Erwin von Witzleben) 대장, 군사참모부의 병참부장 슈튈프나겔(Carl-Heinrich von Stülpnagel) 대장, 또한 해군 대장 카나리스와 오스터 중령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 전쟁'을 막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한다. 할더는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그를 독일 대외정책의 파탄자로 폭로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기를 원했다.[39]

그리하여 1938년 여름과 9월에 여러 계층의 모임들과 개인들, 특히 해외정보부에 소속된 인물들이 히틀러에 대한 쿠데타로서 '9월 음모'(Septemberverschwörung)를 계획한다. 계획의 수립에 오스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베크와 할더가 접촉한 인물들이 이에 참여했다. 공모자들은 1938년에 주데텐 위기 동안에 고조되고 있는 전쟁의 위협을 히틀러의 제거로써 저지하려는 데 일치했다. 그러나 히틀러를 체포할지 암살할지에 대해서는 미결의 상태로 보류되었다. 쿠데타 계획에 따르면 주데텐 위기가 정점에 이르는 1938년 9월 28일에 기습부대가 총통관저에 침입하여 히틀러를 체포하고 이후에 법정에 세우기 위해 안전장소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 잠정적 결정은 9월 20일에 열린 핵심 공모자들의 마지막 회의에서 히틀러의 생존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므로 총통관저에서 접전을 연출하여 총살할 것으로 변경된다.[40]

---

39) 같은 논문, p. 17.
40) Fest, *Staatsstreich. Der lange Weg zum 20. Juli*, p. 94.

그러나 '9월 음모'의 공모자들은 영국 정부와의 접촉에서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 내각에 독일에서 저항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 런던은 불확실한 독일의 저항세력과 손을 잡는 대신 주데텐 지역을 제3제국에 양도함으로써 히틀러에 의해 선동된 전쟁위협을 제지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확신했다.[41] 그리고 1938년 9월 28일에 히틀러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수반들과 주데텐 문제의 평화적인 협정에 동의한다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체임벌린은 9월 29일에 히틀러와 정치적인 조율에 합의한다. 뮌헨협정이 체결되었고, 히틀러가 졸지에 평화의 수호자로 대두되었다. 히틀러의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그의 해임과 제거를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랐던 공모자들은 히틀러 정권을 전복할 구실이 더 이상 없음을 알게 된다. "체임벌린이 히틀러를 구했다"고 비통함에 젖어 그들은 서방의 유화정책을 비평할 뿐이었다.[42]

공모자들 사이에 저항의 동기와 정치적 목표는 편차가 있었다. 할더에게 쿠데타는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오스터는 이미 히틀러의 전쟁정책이 나치 체제를 전복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해외정보부에는 나치 국가의 범죄적 특성에 격분하여 쿠데타 발발 시 히틀러를 즉각 살해하려는 장교들이 있었다. 그러나 뮌헨 협정으로 히틀러가 논란의 여지없는 대외정책적 성공을 거두자 군부의 저항은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국민의 다수를 히틀러에 대항하도록 동원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히틀러가 여세를 몰아 1938년 11월 9/10일

41)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7.
42) Ian Kershaw, *Hitler. 1936-1945*, 이희재 역, 『히틀러 II - 몰락 1936~1945』(교양인, 2010), p. 180.

에 일으킨 대대적인 유대인 박해도, 1939년 3월 15일 뮌헨 협정을 위반하고 감행한 체코의 군사적 점령도 새로운 쿠데타를 시도하기에 심리적으로 유리한 기점으로 보이지 않았다.[43]

공모자들은 9월 충격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다. 소수의 핵심 인물들만이 계속 결속되었지만 그러한 기도를 반복할 조직적인 힘을 갖추지는 못했다. 암살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전복 구상으로서 1944년 7월 20일 저항을 위한 계획에 이르게 되는 것은 1943년 가을에 비로소 슈타우펜베르크에 의해서였다. 슈타우펜베르크 자신은 '9월 음모'에 관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저항운동에 합류하게 되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시작은 1938년 9월의 공모자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슈타우펜베르크는 1943년 9월부터 국방군 최고사령부의 올브리히트 중장 휘하에 있게 되었고 이 두 장교는 1944년 7월 20일 저항의 핵심인물로서 그 밤에 최초로 처형된 5인에 속한다. 오스터와 친구였던 올브리히트는 1938년에 베크 대장 중심의 저항운동에 연결된다.[44] 그리하여 베크와 오스터와 올브리히트와 슈타우펜베르크라는 핵심인물을 통해 1938년 9월과 1944년 7월 20일의 두 저항은 연속성을 갖는다. '9월 음모'의 공모자 23명 가운데 18명이 '7월 20일'에 참여했다. 그 23명 가운데 11명이 군인이었다. 두 저항은 특히 군부 저항으로서 연속성을 가졌다.

1944년 9월에야 게슈타포는 7월 20일 암살의 수사 중에 해외정보부의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서류들을 통해 1938년 9월의 전복계획과 공모자들에 대해 알아차리게 된다. 1944년 10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히틀러는 이에 대한 절대적인 비

43)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7.
44)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p. 21-22, 56-63.

밀유지를 명령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금했다. 전선에서 군사적 위기를 겪으며 히틀러 암살미수가 터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차적으로 전쟁 전의 음모까지 알게 될 경우 더 불안한 시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45]

국방군과 나치즘 사이에는 처음부터 '엘리트 동맹'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군대 안에 히틀러에 대한 반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치의 기구들과 국방군, 그리고 국방군 안에서 육군의 위치 등 조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세력경쟁의 양상으로 시작된 미세한 반대의 기류는 점차 체제의 범죄들에 직면하고 특히 히틀러가 군대를 제치고 꾀하는 무모한 전쟁계획과 부딪치면서 점차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정의에 입각한 저항으로 심화되어 갔다. 무엇보다 군부의 저항은 전쟁 전에 조직화되고 구체적인 쿠데타의 계획에까지 이르렀다.

4. 1944년 7월 20일 저항

1939년 여름에 히틀러에 의해 폴란드에 대한 전쟁 위험이 고조되었지만 이것을 저항의 기회로 이용하기에는 1938년의 경험들에 비춰볼 때 무리한 것이 분명했다. 단지 심각한 군사적 패배를 통해 히틀러의 특권이 상실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하여 군부 내 반대자들에게 전쟁발발은 더 이상 전복의 시도를 위한 직접적인 계기로 보이지 않았다. 파국적 종말을 야기할 전쟁을 막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했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45) Susanne Meinl, *Nationalsozialisten gegen Hitler. Die nationalrevolutionäre Opposition um Friedrich Wilhelm Heinz* (Berlin, 2000), p. 326 참조.

그것은 오히려 그 기도의 정당성을 흔들 것이었다.

전쟁 발발 후에 장교들의 반대의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제 승리를 위해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애국적인 의무로 보였다. 그러나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 후에 프랑스에 대한 신속한 공격을 계획하고 어떤 군사적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부에서는 아직 전쟁을 방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군사적인 근거로서 더 확실했으므로 프랑스와 중립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대한 공격은 군부 반대파에게 그것의 거부와 더불어 전복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46]

1939년 10월 중반부터 해외정보부와 육군최고사령부 사이의 연락책을 맡았던 그로스크루트(Helmuth Groscurth) 중령과, 육군참모장 할더와 외무부 차관 바이체커 사이의 연락원 에츠도르프(Hasso von Etzdorf) 공사관 참사관을 포함하여 할더 중심으로 결집된 저항모임이 형성된다. 이들의 계획은 히틀러가 서부 공세를 위한 공격명령을 내리자마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부의 부대지휘관들에게서 협력을 얻어야 했다. 1939년 10월 19일의 쿠데타 계획의 실행을 위해 기획된 '위협적인 재앙에 대한' 각서는 통례적인 "군부 지도부의 주장이나 논증이나 항의 또는 사직의 선언만으로는 (· · ·) 교정도 양보도 야기하지" 못할 것이므로 히틀러를 "적시에" 전복할 것을 촉구했다.[47] 할더는 1938년의

46)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8.

47) 1939년 10월의 쿠데타 계획은 전후에 공개된 그로스쿠르트의 일기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1943년 4월에 소련의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했다. Helmut Krausnick, Harold C. Deutsch, eds., *Helmuth Groscurth. Tagebücher eines Abwehroffiziers 1938-1940: Mit weiteren Dokumenten zur Militäropposition gegen Hitler* (Stuttgart, 1970), p. 219.

계획을 복원하고 보완하게 했다.

히틀러가 여러 번 일정을 연기한 후 11월 12일에 서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자 할더는 11월 5일을 독재자를 공격으로부터 단념하게 하려는 마지막 시도의 적시로 보았다. 작전수행의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이전에 쿠데타를 개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히틀러가 육군최고사령관 브라우히치(Walther von Brauchitsch) 원수를 불러 육군최고사령부에 만연한 '패배주의적 사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붓고 그것을 근절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할더는 이 계획이 누설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즉시 모든 문서를 파기하고 저항계획을 중지하게 했다.[48]

서부 전선의 공격개시일은 1940년 초까지 여러 번 번복되었다. 그 이후로 할더는 쿠데타 구상으로부터 멀어졌다. 1939년 11월의 저항 계획에서 개진되었던, 다수의 장교들이 계속해서 히틀러를 견고히 지지하고 있다는 추정은 경솔하게 무시될 수 없었다. 이후에 여러 사령관들은 1939/40년에 히틀러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났을 경우 그들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설명했다.[49]

군부 안에서 히틀러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의 전쟁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전쟁은 근본적으로 반인륜적이며 또한 현실적인 국제정세에서 무모한 전쟁발발의 경우 '독일의 종말'을 야기할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파 안에서 폴란드 침공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단치히 및 그 회랑과 폴란드 문제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경계설정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그것의 해결은 정당

48) *같은 책*, p. 224.
49)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9.

한 것으로 보였다. 할더와 같은 장군들도 동부의 국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히틀러에 의해 1940년 여름 소련에 대한 침공계획이 군 수뇌부에 알려지고 일 년 뒤 전쟁이 개시되는 과정에서 군부는 승리의 쾌감에 젖어있었다. 소련에 대한 '반볼셰비즘 투쟁'은 많은 장교에게 "틀림없는" 적과의 전쟁으로 받아들여졌다.[50]

그러나 점령지역에서 자행되는 범죄 사실들이 인식되면서 여러 장교들 가운데 나치 정권에 대한 반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 1939년 11월부터 점령 폴란드에서 자행된 무장친위대와 보안국(SD)-특공대의 범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육군 행정부의 은폐아래 일어나는 체계적인 범죄와 대량학살이었다. 폴란드에 주둔한 몇몇 부대지휘관들이 보안경찰의 잔학한 행동과 수 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과 폴란드인의 학살을 비난하고 범죄적 폭력행위의 중지를 요구했다.[51]

이에 대한 1940년 2월 7일 육군최고사령부의 답변은 그것이 "필요하고 총통에 의해 규정된, 폴란드 국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엄격한 조처로 이룰 수밖에 없는 민족정책적 과제의 해결"이라는 것이었다. 전임 대장 베크의 부탁으로 전임 장교단의 최고위직이었던 마켄젠(Eberhard von Mackensen) 원수가 보낸 서한이 그러한 불법행위들을 통한 군대의 품위와 명예의 '오점'을 지적하였지만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 오스터 대령과 그로스크루트 중령

---

50) 같은 논문, pp. 18, 20. 히틀러는 지금까지 불가침조약의 당사자였던 소련을 기습한다는 결정을 1940년 7월 31일 그의 별장 베르크호프(Berghof)에서 그 자리에 함께한 카이텔, 요들, 브라우히치, 레더, 할더에게 알렸고, 전쟁은 1941년 6월 22일 개시되었다. Antony Beevor, Der Zweite Weltkrieg (München, 2014), p. 156 참조.

51) Gerd R. Ueberschär, *Das Dilemma der deutschen Militäropposition* (Berlin, 1988), pp. 39-40.

주위의 공모자들은 다른 장교들에게 무장친위대의 범죄를 공개하여 혐오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도덕적 양심에 근거한 저항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촉구할 기회를 획득한다.[52]

1939/40년에 나치 정권에 대한 쿠데타의 시도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들이 있었다. 공모자들 안에서조차 제3제국의 대외적, 세력정책적 노정에 대한 판단에서 편차가 있었다. 반면에 나치의 선전부는 폴란드가 해외의 독일동포들에게 가했다는 잔학행위를 '백서'로 출판하여 독일 주민과 국방군 내에서 폴란드에 대한 증오와 거부를 북돋고 있었다.[53] 히틀러의 잘못된 전쟁정책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이에 대한 단호하고 결연한 반대를 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소련 침공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인종주의적 절멸전으로 수행되었다. 중부 및 동부전선에서의 범죄적 만행은 군부 내 반대파가 1944년 7월 20일의 저항운동으로 재결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육군최고사령부 안에서 제기된 항의는 처음에는 개별적이고 구두적인 수준이었다. 이 항의의 틀 안에서 중부집단군(Heeresgruppe Mitte) 참모부의 참모장교 트레스코프 중령은 계획된 범죄적 전쟁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입장을 발전시켰다. 그는 전쟁 전의 반대자들과 같이 히틀러의 대외정책을 극단적으로 위험한 모험주의로 인식했고 1938년 '9월 음모'의 공모자인 비츨레벤과도 접촉했으며 결정적으로 1938년 11월 유대인 박해 이후에 단호한 정권반대자가 되었다.[54] 그는 소련 침공이 독일의 군사적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파악했고 특히 그 이후의 살해행동에 직면하고 정권의 잔인한 범죄에 국방군이 연루된 것에 대항하는 새로운 저항운동을 중부

52)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9.
53) 같은 논문, p. 20.
54)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62.

집단군 안에 형성한다. 도덕적인 공동책임과 군사정책적인 판단으로 파국을 피하기를 원했던 트레스코프를 중심으로 1941년 가을부터 새로운 쿠데타 계획이 시작되었다. 점령 지역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 행동은 나치 지도부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범위의 장교단에게 알려졌고 이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었다.[55] 트레스코프가 국방군 차원의 저항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은 베를린의 중심인물들과 연결되면서부터였다. 베크와 오스터와 느슨하게 접촉하고 있던 그는 1942년 초 모스크바 전투의 패배 이후 이들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1943년 1월에 베를린에서 괴르델러와 올브리히트를 만나 전복에 대해 논의하기에 이른다.[56]

오스터와 베크와 연결되어 있던 올브리히트 중장이 육군최고사령부 본부(Allgemeines Heeresamt, AHA)의 수장으로 임명된 뒤에 1940년 5월부터 국방군최고사령부와 육군최고사령부, 그리고 중부집단군 사령부의 히틀러 반대자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이 구축된다. 올브리히트의 부서는 국방군의 요직으로서 실제 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 내외의 여러 저항운동의 결합을 착수할 수 있는 위치였다. 철저한 비밀유지 속에 그는 군대 밖의 대표자들을 포괄하고 군의 중요 지위에 있는 개별적인 반대자들을 히틀러에 대한 저항의 결정적인 단계로 끌어들였다.[57] 1943년 2월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는 쿠데타를 위한 기회로 이용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1943년 1월 전쟁 종결을 위한 카사블랑카 협약에서 독

55) Ueberschär, *Das Dilemma der deutschen Militäropposition*, p. 44.
56) Peter Hoffmann, "Oberst i. G. Henning von Tresckow und die Staatsstreichpläne im Jahr 1943,"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55 Jg., Heft 2 (Apr. 2007), pp. 333-334.
57)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63.

일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연합국의 전쟁정책에 직면하여 쿠데타가 너무 늦은 것으로 보였고, 다른 한편 나치 지도부가 스탈린그라드의 충격효과를 선전에 이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도 인식해야 했다. 그리하여 스탈린그라드 패배 이후에 베를린과 파리와 동부전선 중부집단군 참모부에서의 저항 중심들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군부 저항의 최우선 목표로 되었다.[58]

1944년 7월 20일의 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슈타우펜베르크는 1943년 가을에 베를린으로 전출되면서 핵심 인물들과 접촉하게 된다. 올브리히트가 수장으로 있는 육군최고사령부 본부의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그 자신도 '7월 20일' 공모자의 중심부에 속하게 된다.[59] 이 직책은 총통사령부의 작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요직이었다. 그는 국방군만이 게슈타포와 보안국이 침투할 수 없는 유일한 조직으로서 필요한 권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슈타우펜베르크가 나치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였다. 그는 1941년부터 육군최고사령부의 편제과(Organisationsabteilung)에서 복무할 때에 이미 점령 동부지역에서 벌어지는 나치 범죄를 혐오했다. 그리고 1942년 4월과 8월에 대량학살, 유대인학살, 소련 전쟁포로에 대한 범죄에 대해 광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히틀러가 제거되어야만 이 범죄들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다른 장교들도 저항에 동참하도록 정권의 범죄적 성격에 주목하게 하는 데 몰두했다.[60]

1943년 가을에 슈타우펜베르크 중령[61]과 트레스코프 대령

58)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22.
59)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59.
60)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22.

이 공모자들과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히틀러에 대한 공격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이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었다. 명령과 복종의 원칙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히틀러의 암살과 국가의 전복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명령한다고 복종이 시행될 것인가? 전쟁 5년째로 접어드는 시기에 예비역 장교와 히틀러청소년단(Hitlerjugend, HJ)-세대 출신의 소위가 90%를 차지하는 독일 육군은 명령을 내려도 살아있는 히틀러에 대항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핵심 공모자들에게 확실했다. 그리하여 전복은 히틀러를 제거한 뒤 그 사실이 유지되느냐에 달려있었다. 히틀러가 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무장친위대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군대는 그들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모자들은 여기서 제3제국의 '다두 지배구조'에 구축된 경쟁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62]

결국 1944년 7월 20일에 시행될 거사는 일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계획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가를 전복하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군대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던 계획이었다. '발퀴레 작전'(Unternehmen Walküre)은 원래 나치 정권에 대항해 일어날 수 있는 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국방군의 계획이었다. 그것이 공모자들에 의해 전복계획으로 기능 전환될 것이었다. 이 계획은 2차대전 초에 시민들이나 전쟁포로들이나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봉기를 일으킬 경우 발생하게 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구상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보충군

61) 슈타우펜베르크는 1943년 1월 1일에 중령으로, 1944년 7월 1일에 대령으로 진급했다. Eberhard Zeller, *Oberst Claus Graf Stauffenberg. Ein Lebensbild* (Schöningh, 1994), pp. 298-301 참조.

62)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pp. 30-31.

(Ersatzheer)[63]의 병력이 베를린과 다른 대도시의 전략상 중요한 지점들을 점령하고 봉기를 진압한다. 암호의 해제는 아돌프 히틀러 자신과 보충군최고사령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그리하여 그 수행은 두 핵심인물에 달려 있었다. 이 계획은 1941년 12월 동부전선의 겨울 위기 동안에 입안되었고, 신속히 전선에 배치할 보충군과 교육부대 및 항시 휴가 중인 30만 병력이 동원될 것이었다. 한마디로 모든 활용 가능한 부대가 강화된 전투부대로 편성되어 무장하고 몇 시간 내에 공격준비를 갖추는 것이다.[64]

트레스코프와 슈타우펜베르크는 원래의 발퀴레 계획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인식했다. 히틀러만 사라지면 보충군최고사령관이 전권을 합법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발퀴레 작전을 계획된 히틀러 암살에 눈에 띄지 않게 적용하고자 했다. 문제는 히틀러를 보위하는 세력인데 히틀러가 사망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빌미로 이들—무장친위대, 보안국, 게슈타포, 나치당의 중심인물과 소속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준동할 것이므로 체포로써 이를 저지한다는 구상이었다. 개조된 계획에 따르면 각 군단에 발효된 발퀴레 명령이 나치당 기구와 무장친위대 기관들을 차단하는 근거로서 작동될 것이다. 무장친위대 가운데 무장 세력이 당에 의해 해체되고 국방군에게 복속된다. 그뿐 아니라 이 비상사태 하에서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간 관청들의 집행권이 각 지역 소속의 국방군 사령관에게 인수된다.[65]

---

63) 보충군(보충육군, Ersatzheer)은 예비군(Reservearmee)과는 달리 독일 국내 영토 전역을 여러 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각 군관구의 보충군이 신병의 징병과 훈련, 전선 부대로의 병력 보충, 신무기 실험 등을 담당했다.

64) https://de.wikipedia.org/wiki/Unternehmen_Walk%C3%BCre (검색일: 2023년 4월 1일).

65) 같은 글.

1944년 7월 20일의 저항 계획에 의하면 전복의 성공 후 새로이 구성되는 정부에서 베크 대장이 대통령 직을, 라이프치히 전 임시장 괴르델러가 수상 직을 맡는다. 그리고 비츨레벤 원수가 국방군최고사령관이 되어 군대를 지휘한다. 그에 의해서 발효될 명령은 이러할 것이었다.

> 상황:
> "I.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사망했다."
> 적의 상황:
> "전선에 문외한인 당 지도부의 비양심적 당파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악전고투하고 있는 전선의 배후를 습격함으로써 사리적인 목적을 위해 권력을 탈취하려고 했다.
> 임무:
> "II. 위험이 극에 달한 순간에 제국정부는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사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동시에 본인에게 국방군에 대한 최고지휘권과 함께 집행권을 위임했다."
> 수행:
> "III. 이를 위해 나는 명령한다: 나는 행정권과 [· · ·] 동시에 후방 전쟁 영역에서의 최고지휘권을 보충군 사령권자에게 임명한다. [· · ·] 전체 무장친위대는 즉각적으로 군대에 통합된다. [· · ·] 국방군최고사령관, 원수 비츨레벤"[66]

이 구상은 대단히 견고한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프로이센의

66)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p. 31.

계엄령과 1938년 '오트 훈련'의 전통 위에 있었다.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은 히틀러의 사망이 정말로 확실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히틀러의 유고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을 당 지도부가 권력 찬탈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을 국방군이 제압한다는 각색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그 첫째 되는 전제인 히틀러의 죽음이 발생해야 했다. 그러나 거사는 미수에 그쳤다. 1944년 7월 20일 오후 12시 30분, 동프로이센에 위치한 총통사령부의 막사에서 작전회의가 열렸고, 육군최고사령부의 본부 참모장 슈타우펜베르크 대령도 24명의 참석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히틀러 가까이에 폭약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놓아두고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한다는 구실로 12시 37분에 막사를 떠났다. 12시 42분 경 폭발이 일어나자 슈타우펜베르크는 히틀러의 죽음을 확신하고 급히 베를린으로 향했다. 작전대로 총통사령부의 통신차단조처가 시행되었지만 무장친위대 자체의 교신은 통제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원래의 계획에 따라 히틀러 유고시 발퀴레 작전의 유일한 명령권자가 되는 보충군최고사령관 프롬 대장은 암살 실패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명령의 서명을 거부하자 공모자들에 의해 구금되고, 그의 동의 없이 발퀴레 작전이 발령되었다. 오후 5시 42분부터 히틀러 암살미수에 대한 라디오 보도가 반복되었다. 오후 10시 30분 경 풀려난 프롬이 공모자들을 체포하게 하고 즉결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했다. 자정 직전에 베크 대장이, 7월 21일 오전 0시 15분에서 0시 30분 사이에 올브리히트 중장, 슈타우펜베르크 대령, 메르츠 대령, 해프텐 중위가 공모자들의 지휘본부로 사용하던 국방군최고사령부 청사가 있는 벤들러블록에서 총살되었다. 오전 1시 직전에 히틀러가 라디오에서 육성으로 자신의 생존을 확인시키고 암살미수를 발표했

다.[67]

보충군최고사령관 프롬 대장 자신이 공모자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의 생존 사실이 확실해지자 체포 가능한 핵심 공모자 5명을 독자적인 판결로 즉각 처형했다. 이 결정은 히틀러를 격노케 했지만, 이로써 게슈타포를 통해 고문 하에 치러질 심문으로부터 이들을 구해낸 셈이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다. 프롬은 9월 14일에 해임되었고, 민간인으로서 '민족법정'에서 '7월 20일' 관련 재판을 받았지만 그의 공모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68] 트레스코프 준장은 7월 21일에 중부전선 복무지에서 자결했고 오스터 준장, 비츨레벤 원수, 괴르델러 등 공모자 대다수가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 사이에 목숨을 잃었다.

1944년 7월 20일 발퀴레 작전을 통해 히틀러를 전복하고자 한 군부 내 반대의 동기는 다양했고 전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았다. 공모에 참여한 자들의 세계관적 확신은 광범한 사상과 개념을 포함했다. 공모자들 가운데는 1933년에 이미 나치 독재에 대해 신랄하게 반대를 표명한 자도 있었다. 많은 장교들에게 군사전문적인 문제는 대단히 중요했다. 히틀러는 작전

---

67) Thomas Vogel,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Bun 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5), pp. 14-19. 포겔은 1944년 7월 20일 거사의 실행과 좌초의 과정을 1944년 7월 20일 오전 7시부터 21일 오전 1시경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https://www.bpb.de/themen/nationalsozialismus-zweiter-weltkrieg/ der-zweite- weltkrieg/199412/widerstand-gegen-den-nationalsozialismus (검색일: 2023년 4월 1일); Heinrich Walle, "Der 20. Juli 1944. Eine Chronik der Ereignisse von Attentat und Umsturzversuch,"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ed., *Aufstand des Gewissens. Der militärische Widerstand gegen Hitler und das NS-Regime 1933-1945* (Hamburg, 2000[5]), pp. 575-598 참조.

68) https://de.wikipedia.org/wiki/Friedrich_Fromm (검색일: 2023년 4월 1일).

상 잘못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슈타우펜베르크의 부관이었던 클라우징(Friedrich Karl Klausing) 대위는 1944년 8월의 심문에서 "정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던 장교들은 파면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독일 국방군 지도부에서의 변화를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69] 다수의 저항투사들이 나치의 폭력행위에 경악해서, 특히 유대인의 대량 총살을 목격한 뒤에 그러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치적, 군사전문적, 윤리적·도덕적 동기들이 복합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도덕성은 '군사'적으로나 독일사의 관점에서 장기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정치적 독재의 반대나 군사적으로 잘못된 전쟁의 반대 모두 나치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전후의 재건에서 제3제국과 '다른 독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저항이 갖는 의미도 도덕성에 있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1944년 7월 20일 직전에 자신이 감행하는 저항의 동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 뭔가 행해져야 할 때다. 물론 무엇인가를 감행하는 자는 그가 독일 역사에 배신자로 몰릴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행동을 단념한다면 그는 그의 양심의 배신자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무의미한 인간희생을 저지하지 않으면 나는 전몰자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것이다."[70] 전해지는 트레스코프의 말도 도덕적 양심의 차원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10명의 의인

69)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57.
70) 슈타우펜베르크는 이 말을 1944년 7월 20일 직전에 밤베르크의 연대 동료인 페촐트(Bernd von Pezold)의 부인에게 남겼다. Joachim Kramarz, *Claus Graf Stauffenberg. 15. November 1907 – 20. Juli 1944. Das Leben eines Offiziers* (Frankfurt a.M., 1965), pp. 132, 201 참조.

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듯이 나는 독일도 우리로 인하여 절멸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한다.” 1944년 7월 20일 전복의 성공 시에 발표될 ‘정부성명서’는 23면의 분량에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첫 과제는 법의 완전한 존엄성의 회복이다.”로 시작하며, “2. 우리는 공적인, 사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 · ·) 가장 비인간적이며 무자비한, 너무도 수치스럽고 전혀 복구될 수 없는 형태로 벌어진 유대인 박해는 즉시 중단된다.”로 이어진다.[71] 도덕적 동기는 1944년 7월 20일 저항의 핵심에 속했다.

5. 맺음말

1944년 7월 20일의 히틀러 암살 및 나치 정권의 전복 시도는 제3제국 시기 동안 그 규모와 의미와 파장력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공모자들의 구성과 역할에서 군인들이 주도한 군부의 저항, 정확히 말하면 군부 안에서의 저항이었다. 히틀러와 나치의 선전은 이 사건을 극소수의 일당에 의한 음모였다고 축소시키려 했지만 오랫동안 요직의 군인들 다수와 민간인 저항운동이 함께 준비해온 거사였다.

군대 안에 저항의 뿌리가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히틀러의 ‘다두 지배구조’ 안에서 군대와 나치 기구 사이에,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국방군과 육군 사이에 전개된

71) 베크와 괴르델러의 ‘정부성명서’ 초안은 분실되었고 게슈타포 내 ‘1944년 7월 20일 암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문서가 ‘독일저항기념관’(Gedenkstätte Deutscher Widerstand)에 의해 공개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https://www.gdw-berlin.de/fileadmin/bilder/publikationen/begleitmaterialien/Faksimiles_PDFs_deutsch/FS_10.1_DE_2.Aufl-RZ-web.pdf (검색일: 2023년 4월 1일).

세력경쟁의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세했던 반대의 흐름은 전쟁의 계획과 수행이 군사적인 무모함과 오류에 의해 준비되고 집행됨에 따라 정권의 전복까지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저항으로 발전한다. 군사전문적인 차원의 반대가 독일의 미래를 위한, 즉 제3제국과 '다른 독일'을 세우기 위한 역사적인 의미로 승화되는 것은 나치의 체계적인 범죄에 직면하면서 대두되는 도덕적인 저항에 의해서였다. 히틀러의 절멸전에 의해 전선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일차적인 목격자는 군인이었고 이들이 그에 대한 저항의 기수가 된다.

국가적인 차원의 범죄를 저지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군부 안에서의 저항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시대에 역사적 의미로서 작용했다. 그것은 당대의 사건으로서 그치지 않았다. 독일의 새 출발에 전적으로 필요한 재건의 기반과 정체성 함양을 위한 본보기로서 '7월 20일'의 정신은 전후 독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논쟁되고 재발견되고 있다. 그것은 특히 국방군에서 연방군으로 개혁되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냉전기 서유럽방위공동체의 맥락에서 창설된 서독 연방군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인정받아야 했고 제3제국의 독재에 맞선 군부 저항과의 관련성으로써 그것을 입증해야 했다. 매년 7월 20일, 당시의 공모자들이 처형되었던 현장인 벤들러블록에서 연방군의 신병들이 충성서약을 하는 것은 오늘날 상징적인 관례로 자리잡았다.[72] 1944년 7월 20일 저항은 독일 현대사에서 역사적

72) 전후의 서독 사회에서 국방군 출신 및 연방군의 새 구성원 안에서 7월 20일 저항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959년에야 연방군 총사령관이 저항투사들의 "양심의 봉기"의 전통 위에 연방군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달했고, 1999년 새천년 전환기에 국방부장관은 연방군의 본

연속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7월 20일'의 이러한 특성에 의해 이 저항의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발전해왔다. 우선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첫 단계에 이어 최근에는 그것이 전후 독일사회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연구되고 있다.[73] 연방군의 설립은 단번에 국방군의 과거에서 벗어나는 급전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다. 전후 독일 군대에서의 이 과정을 '7월 20일'에 대한 기억문화로서 살피는 작업은 이 논문 다음의 과제가 될 것이다.

질적인 전통으로서 '히틀러에 대한 군부의 저항'을 강조했다.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pp. 16, 314, 317.

73) 군부의 저항과 전후 연방군 창설의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Habbo Knoch, "'Gewissenlose Führung' und 'anständige Landser': Die Wehrmacht im Wandel bundesrepublikanischer Erinnerungspolitik, Haus der Geschichte Baden-Württemberg, *Verräter? Vorbilder? Verbrecher?*, pp. 43-71; Alaric Searle, "Die unheilbare Wunde: Der 20. Juli 1944 im kollektiven Gedächtnis der Wehrmachtsgeneralität 1949-1969," *같은 책*, pp. 97-128;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pp. 303-332 참조.

〈참고문헌〉

1. 국문

이병철, “제3제국과 ‘다른 독일’: 나치 저항의 기억문화 —1944년 7월 20일 전복 기도를 중심으로—,”『독일연구』 Vol. 49 (2022):51-92. http://dx.doi.org/10.17995/kjgs.2022.2.49.51

_____, “전후 독일에서 나치 저항의 인식 변화: 레머 재판을 중심으로,”『독일연구』 Vol. 52 (2023):105-146. http://dx.doi.org/10.17995/kjgs.2023.2.52.105

Broszat, Martin, 김학이 역, 『히틀러 국가』, 문학과지성사, 2015.

Kershaw, Ian, 이희재 역, 『히틀러 2 - 몰락 1936~1945』, 교양인, 2010.

2. 독문

Berghahn, Volker R. ed., *Militarismus, Köln*: Kiepenheuer & Witsch, 1975.

Broszat, Martin, “Zur Sozialgeschichte des deutschen Widerstands,”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4 ,1986.

Bühlmann, C., Braun, P., “Auftragstaktik in Vergangenheit, Gegenwart und Zukunft,” *Military Power Revue der Sc hweizer Armee*, Nr. 1, 2010.

Fest, Joachim, *Staatsstreich. Der lange Weg zum 20. Juli*, Berlin: Siedler, 1994.

Förster, Jürgen, “Die Wehrmacht im NS-Staat, Ein »grauer Fels in brauner Flut«?,” Becker, Manuel, ed., *Der mili tärische Widerstand gegen Hitler im Lichte neuer Kont roversen*, Berlin: LIT, 2010.

Gerd R.,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Motive und Entwicklung der Militäropposition gegen Hitl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54 Jg., Bd. 27, 2004.

Hachtmann, Rüdiger, "Polykratie - Ein Schlüssel zur Analyse der NS Herrschaftsstruktur?," *Zentrums für Zeithistori sche Forschung Potsdam*, 2018.

Haus der Geschichte Baden-Württemberg, ed., *Verräter? Vorbi lder? Verbrecher? Kontroverse Deutungen des 20. Jul i 1944 seit 1945*, Berlin: Frank & Timme, 2016.

Heinemann, Winfried,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Hillmann, J., Lieb, P., eds., *20. Juli 1944. Neue Forschungen zum Widerstand gegen Hitler*, 2019.

Heinemann, Winfried,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 hichte des 20. Juli 1944*, Berlin/Boston: De Gruyter Ol denbourg, 2019.

Hoffmann, Peter, "Oberst i. G. Henning von Tresckow und die Staatsstreichpläne im Jahr 1943,"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55 Jg., Heft 2, 2007.

Krausnick, H., Deutsch, H. C., eds., *Helmuth Groscurth. Tage bücher eines Abwehroffiziers 1938-1940: Mit weiteren Dokumenten zur Militäropposition gegen Hitler*, Stuttg art: Dt. Verl.-Anst., 1970.

Söllner, A., Wildt, M., ed., *Franz Neumann, Behemoth. Struk tur und Praxis des Nationalsozialismus 1933-1944*, Hamburg: Europäische Verlagsanstalt, 2018.

Tuchel, J., Albert, J.,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 us - eine Einführung,"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o. 330, 2016.

Tuchel, Johannes, “Die Verfahren vor dem »Volksgerichtshof«,” Becker, M., Studt, C. eds., *Der Umgang des Dritten Reiches mit den Feinden des Regimes, Berlin*, Lit, 2010.

Ueberschär, Gerd R., *Das Dilemma der deutschen Militäropposition*, Berlin: Gedenkstätte Dt. Widerstand, 1988.

Vogel, Thomas,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5.https://www.bpb.de/themen/nationalsozialismus-zweiter-weltkrieg/der-zweite-weltkrieg/199406/die-wehrmacht-struktur-entwicklung-einsatz/. (검색일: 2023년 4월 1일).

_____,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5.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geschichte/der-zweite-weltkrieg/199412/widerstand-gegen-den-nationalsozialismus. (검색일: 2023년 4월 1일).

(Abstract)

Resistance within the Military Authorities against the Third Reich

Lee, Byong-Chol

The German military welcomed Hitler gaining control over the regime in 1933. This is because Germany's military, which was crippled due to the Treaty of Versailles, gained the opportunity to become revived by the Nazi's rearmament policy. But Hitler wanted to use the military as a tool for expanding based on its foreign policy. The German military that lost in World War I was transforming into a dangerous threat through the reorganization in the Wehrmacht that could once again push Europe into war. And in response, a small group opposing this began to form within the military. Military opposition first began as a struggle to gain power between the organizations reshuffled within the Third Reich, but it soon developed into a movement that opposed the war policies of Hitler. Even prior to the start of World War II, resistance movements were being organized and reinforced among the opposition who believed they could save Germany from a reckless war by overturning the regime within the military.

As the first major attempt, the 'September Conspiracy' of 1938 within the military authority could not be executed due to the deceptive Munich Agreement that appeared as if Hitler wanted to avoid war. But as the Second World War became a racist war of annihilation, those who had oppositions in the military ranks became morally rearmed and attempted a resistance on July 20, 1944 with the goal of overthrowing the criminal regime and to erect the 'other Germany' different from that of the Third Reich. This plot had a tragic as the assassination of Hitler failed, but it served as the mental basis for Germany's new start following the war,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continues even to this day. In particular, the spirit of 'July 20'

is continuing in terms of military history during the course of the Wehrmacht transforming into the Bundeswehr.

Keywords : The Third Reich, Wehrmacht, Nazism, Resistance, July 20, 1944, Stauffenberg, Operation Valkyri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 275-289
https://doi.org/10.29212/mh.2022..122.2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으로 본 러일전쟁

- 그물(김문자 지음·김흥수 옮김),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러일 개전의 정설을 뒤엎다』-

김흥수*

본고는 『러일전쟁과 대한제국–러일 개전의 정설을 뒤엎다』(김문자 지음 · 김흥수 옮김, 그물, 2022)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러일전쟁이 진해만과 마산 전신국의 점령에서 시작되었으며, 러일전쟁을 종결한 '쓰시마 해전'이 무선과 유선을 조합하여 대한해협의 전략적 봉쇄망을 구축한 일본 해군의 하이테크 작전에 의한 승리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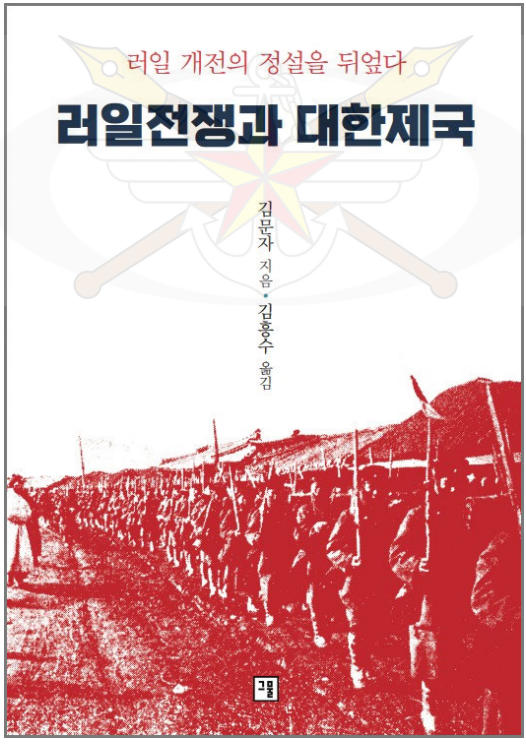
1. 전신선과 왕비 살해

이 책은 재일 역사학자 김문자의 『日露戰爭と大韓帝國』(高文研, 2014)을 번역한 것이다. 근래에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에서 인터넷으로 공개한 『극비 메이지37 · 8년 해전사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나 『러일전쟁 참가자 사담회 기록(日露戰役參加者史談會記錄)』, 러일전쟁 당시 군함의 전시일지, 그리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된 당시 군령부 참모였던 다카라베 타케시(財部彪)의 일기 등을 종횡으로 구사하여 기존의 정설을 재검토한 역작이다. 서장과 종장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러일전쟁과 대한제국』 표지



· 서장: 러일 개전 전사, 전신 지배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 침략
· 제1장 대한제국의 중립선언과 한일의정서: 중립선언을 유린한 일본의 외교와 군사
· 제2장 일본이 도발한 러일 개전: 러시아의 회답서를 억류하다
· 제3장 바꿔치기한 러일 개전의 첫 포화: 해군대신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의 전보 개찬과 그 행방
· 제4장 뤼순함대 '행방불명' 전보의 정체: 해군대신 야마모토 곤베에의 개전 유도 책략
· 제5장 육해군의 대립과 합의: 서울 점령 육군부대의 극비 수송 작전
· 제6장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 한국 연안에서 국제법규를 중시할 필요가 없다(야마모토 곤베에)
· 제7장 감춰진 한국침략전쟁: 러일전쟁은 진해만의 점령에서 시작되었다
· 제8장 '쓰시마 해전'과 독도: 대한해협의 전략봉쇄와 X점
· 종장 만국평화회의로의 길: 대한제국의 황제와 외교관들

대부분의 러일전쟁 서적이 외면한 대한제국의 움직임을 제1장과 종장에서 서술하여 책 제목을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이라 하였다. 제1장에서는 전쟁 전인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이 즈푸(芝罘, 옌타이)의 전신국을 통해 세계에 발신한 '전시중립선언'을 세밀히 고찰하였다. 고종이 비밀리에 파견한 이건춘(李建春)의 요청으로 중립선언을 발표한 발신자가 대한제국 명예영사이기도 한 즈푸 주재 프랑스 부영사 게랭(Guerin)임을 새롭게 밝혔다. 아울러 그 선언을 즈푸에서 발신한 것은 이미 한국의 전신선에 일본의 지배가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장에서

는 전쟁 후 고종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 등 국권 회복 투쟁을 서술하였는데, 주프랑스 공사 민영찬의 활동을 새롭게 발굴하여 재평가한 점이 돋보인다. 필자는 이 책의 역자로서 일종의 책임감으로 이 책을 소개하려 한다. 지면 관계로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워 저자가 주목한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 위주로 언급하려 한다.

저자는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의 제자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서로의 원고를 제일 먼저 보여주는 학문적 동지의 관계로 발전했다. 나카츠카는 일본의 조선 침략사 연구의 선구자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로부터 두 가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2] 첫째, 일본의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문제 연구가 불가결하고 일본의 조선 침략 문제를 빼고는 일본의 근대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나라를 통치하는 전권을 천황이 쥐고 있는 전제 지배 아래서는 역사의 진실은 은폐되었다는 것이다. 편찬된 역사서나 사료집, 정치가나 군인의 전기 등에는 각종 개찬(改竄), 개서(改書), 그리고 삭제(은폐)가 가해졌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1차 사료를 찾아서 연구하라는 가르침이었다 한다. 야마베의 학문적 은혜를 입은 나카츠카는 일본 참모본부가 편찬한 청일전쟁사 초안을 발굴하여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실상을 밝힌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역사의 위조를 바로잡는다: 전사에서 사라진 일본군의 '조선 왕궁 점령'』에서 청일전쟁이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3] 나카

2) 中塚明, 『日本の朝鮮侵略史研究の先駆者: 歴史家山辺健太郎と現代』(高文研, 2015, 17-18쪽.

3) 中塚明, 『歴史の偽造をただす: 戦史から消された日本軍の「朝鮮王宮占領」』(高文研, 1997). 이 책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박맹수 번역, 푸른역사, 2002)로 국

츠카는 이 책에서 새롭게 발굴한 「일로전사편찬강령(日露戰史編纂綱領)」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사에서 기술해서는 안 되는 15개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그중에 하나가 “국제법 위반 또는 외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사는 기술해서는 안 된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의 곳곳에서 공간(公刊)된 전사의 진실 은폐와 심지어 사실의 날조를 폭로하고 있다.

일찍이 저자는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高文研, 2009)[4]이라는 획기적 저작에서 역사상 고금 미증유의 흉악 사건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을 전신선과 관련하여 논증한 바가 있다. 일본 정부와 대본영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삼국간섭이 일어난 후에도 청일전쟁 기간에 가설한 조선의 전신선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군의 주둔을 요청했으나, 러시아에 의지하려 한 왕비가 이를 반대하여 참살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와 대본영의 뜻에 따라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전권 공사가 경성수비대라는 일본 군대를 동원해 왕비를 제거한 것인데, 이 음모를 감추기 위해 일본인 사관이 훈련한 훈련대가 대원군을 옹립한 쿠데타로 위장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은 아관파천 이후 러일 양국이 한반도에서 세력의 균점을 위해 체결한 「로바노프-야마가타 협정」(1896년 6월)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서울 이북 전신선의 점유를 포기하고 이 지역의 러시아 전신 가설권을 인정하였지만, 부산-서울 간 일본이 가설한 전신선을 계속 점유할 권리를 러시아로부터 승인받았다. 동시에 일본이 전신선 수비를 위해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헌병을 파견하는 것, 거류민 보호를 명목으

내에 소개되었다.

4) 한국어 번역본은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태학사, 2011).

로 서울에 2중대, 부산과 원산에 각각 1중대를 두는 것도 러시아가 인정하고, 러시아도 동시에 병력을 두는 권리를 일본이 인정했다.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설정한 일본 정부와 군부는 해외에 군대를 보내 근대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의 전달 수단인 전신선의 확보를 이처럼 중요시했다.

이 책은 전작(前作)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제2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에 주목하여 러일전쟁 1개월 전부터 본거지인 사세보(佐世保)에서 한국 남해안까지 극비리에 해전 전선을 부설한 것, 일본의 최초 무력 행사는 연합함대의 사세보 출항에 앞서, 제3함대에 의해 실행된 진해만과 마산 전신국의 점령이었다는 것, '쓰시마 해전'은 무선과 유선을 조합하여 대한해협의 전략적 봉쇄망을 구축한 일본 해군의 하이테크 작전의 승리였다는 것 등을 새롭게 규명하여 러일전쟁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일본이 도발한 러일 개전

종래 일본인에게 러일전쟁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싸워서 이긴 '영광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러일 개전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으킨 '조국 방위전쟁' 내지 '자위전쟁'으로 인식되었다.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은 '전후 70년 담화'에서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은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라고 공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논증했듯이 러일전쟁의 진실은 이것과는 정반대다. 러일전쟁은 전시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을 지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전쟁을 회피하려 한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도발한 침략전쟁이었다.

1904년 1월 12일 러시아의 양보가 통지되기 전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쓰라 타로(桂太郎)·야마모토 곤베에·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등 일본의 수뇌부는 개전에 합의했다. 개전 1개월 전부터 일본 해군은 대한제국의 영토인 진해만을 연합함대의 근거지로 설정하고 극비리에 해저전선을 부설했다. 그리고 개전 준비가 정돈되기까지 시간 벌기를 위해 러시아에 한국에서의 중립지대 설정과 한국의 군사·전략적 사용 금지의 철회를 요구하는 '최종 수정의견'을 보낸다. 이때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일본 수뇌부의 공통 인식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와 육·해군은 러일 교섭 단절을 전제로 개전 준비를 진행했다. 그런데 1월 29일 오후 6시 외무성에 도달한 주러공사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愼一郎)의 전보에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회답서를 2월 2일에 뤼순의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예상 밖의 사태에 일본의 최고 수뇌부(이토, 야마가타, 가쓰라, 야마모토, 고무라)는 1월 30일에 러시아의 양보가 통지되기 전에 개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저자는 이 회의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도양단'의 결정을 주도했다고 강조한다.

이토는 러일 교섭에서 러일의 대립점인 한국에서의 중립지대 설정과 한국의 군사 전략적 사용의 금지라는 두 가지를 러시아가 철회하여 일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도 일본은 수년간 안심을 얻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러시아와 전쟁은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토는 지금 "소강을 얻어 만족하느냐", 혹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의 정략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나가느냐", '일도양단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토의 의지가 후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의 정략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나가는" 것, 즉 대러 개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러일 개전을 피하려 한 '대러 협조론자', 나아가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얘기되어왔다. 이토가 진정한 '평화주의자'였다면 이때 전쟁을 저지할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토는, 가령 러시아가 일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도 지금, 아직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전쟁해야 한다고 솔선해서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2월 3일 일본의 지도자들은 내각·원로회의를 열고 대러 개전을 결정했다. 그 후 가쓰라 수상과 고무라 외상이 궁중에 참내(參內)하여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천황에게 러시아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날 4일에 어전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청했다. 이 어전회의에서 신속히 개전한다는 재가를 얻을 필요가 있어 해군대신 야마모토는 전보를 바꿔치기하고 심지어 전보의 내용을 개찬하면서까지 개전으로 몰고 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 전말은 이러하다. 고무라 외무대신은 2월 3일 오후 6시 15분에 즈푸 주재 미즈노 코키치(水野幸吉) 영사가 같은 날 오후 4시 26분에 발신한 전보를 수취한다. 거기에 "뤼순함대가 출항했지만 행선지는 불명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야마모토는 다음날 2월 4일의 어전회의에서 미즈노 영사의 전보를 모리 요시타로(森義太郎) 중좌로부터의 중대한 정보로 바꿔치기해서 보고하고, 행방불명된 러시아함대가 쓰시마나 혹은 사세보를 습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함대가 출현하면 격파하라고 명령할 허가를 천황에게 구했다. 천황은 이를 허가했다. 이것이 군사행동 개

시의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뤼순의 대안인 즈푸에서 첩보활동에 종사한 해군 군령부 참모 모리 중좌가 뤼순함대 '행방불명'이라고 절대로 보고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리는 뤼순함대가 대거 출항한 이유, 즉 산둥반도 동쪽 해상에서 뤼순함대가 연습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러일 개전의 시점을 1904년 2월 8일 일본 연합함대의 인천항 및 뤼순항 기습작전으로 보지만, 최초의 전투행위는 연합함대와 별도로 편성된 제3함대가 자행한 2월 6일의 진해만 점령과 마산 전신국의 점거, 그리고 부산 근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나포한 것이었다.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러일전쟁이 '조선전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日露戰爭: 起源と開戰 (上), (下)』(2009, 2010, 岩波書店; 이웅현,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1, 2』로 2019년 한길사에서 번역)에서 처음으로 지적되었는데, 이 책에서 더욱 상세하고 충실하게 논증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1904년 2월 6일 연합함대의 사세보 출항에 앞서 결행된 제3함대의 한국 진해만 점령과 마산 전신국 점거(오후 4시 30분), 한국 영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나포한 사실이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최초의 무력 행사이다. 이 제3함대의 작전 전체를 지휘한 해군대신 야마모토는 연합함대의 발진을 숨기고, 뤼순 및 인천항 기습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또 진해만을 점령한 함대와 통신선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대한제국의 전신국을 점거하고 부산 근해에서 러시아 상선을 기선을 나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일전쟁 서전을 주도한 야마모토 해군대신은 "한국 연안에서는 다른 열강과 관계를 일으키지 않는 한 국제공법상의 예규를 중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훈령했다. 러일전쟁이 국제법을 위

반하여 한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것을 야마모토 해군대신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국외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인 진해만 점령과 마산 전신국 점거는 일본 해군의 공식 전사인 군령부 편찬의 『메이지 37·38년 해전사(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전4권, 1909년)에서는 완전히 은폐되었다.

또한 이 공간 전사에서는 2월 8일의 인천 해전에 대해 러시아의 소형 포함 코리예츠는 "우리 정대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끝내 포화를 일으켰다. 때는 바로 오후 4시 40분으로 이것을 메이지 37·38년 러일전쟁 개시의 첫 포화라 한다"라고 하여 러시아 측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같은 사건을 『극비 메이지 37·38년 해전사』에서는 "8일 오후 5시 운송 선대를 이끌고 인천에 입항할 때 팔미도 부근에서 '코리예츠'가 출항해서 오는 것을 만났다. 운송선을 공격하려는 태도라고 인정하여 수뢰정에서 두 발의 수뢰를 발사했어도 명중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일본 수뢰정이 먼저 공격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러함에도 공간 전사에서는 러시아 측이 먼저 발포한 것으로 개찬하여 인천 및 뤼순항 기습공격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봉쇄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전의 정당화를 꾀하려 하였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3.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과 독도

여타의 러일전쟁 관련 서적과 비교해서 이 책의 두드러진 점은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한 통신 전략을 부각한 데 있다.

개전 시기의 통신 전략이야말로 대러시아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육군의 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해군 군령부는 1904년 1월 초에 전 7항목으로 된 '대러 작전 제1계획'을 수립하여 목포항 바깥에 있는 팔구포를 일본 함대의 집결지로, 진해만을 일본 함대의 근거지로 삼았다. 개전 전에 일본 해군의 본거지인 사세보에서 이 지역 간의 통신선을 확보하기 위해 해저전선을 부설했다. 이렇게 일본 측의 통신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러시아로 통하는 통신선을 절단했다. 그리고 러시아 이외의 외국공관과 일본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전보를 제하고,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발송되는 전보의 발송을 2월 5일 정오부터 72시간 정지시켰다. 일본 해군의 발동을 감추고 뤼순·인천 기습과 육군부대의 한국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저자는 '개전 기습'을 성공시키기 위해 개전 전에 일본의 통신선을 부설하고, 러시아 통신선을 절단한 것은, 모두 위법이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독도의 불법적 일본 영토편입을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일본 해군은 울릉도와 독도가 러일 두 함대의 결전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울릉도에 망루 설치와 해저전선 부설을 서두르고 리양코섬(독도)을 다케시마로 개칭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일본 해군은 서해에서 기선을 제압했으나, 동해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에 시달리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함대는 갑자기 나타나서 일본 육군부대를 싣고 랴오둥반도로 향하는 수송선을 격침하고 일본에 군수물자를 싣고 오는 외국 기선을 습격하여 나포하였다. 심지어 남하하여 3일 동안

이나 쓰시마해협의 오키노시마(沖ノ島) 근해에 머무르고 있었음에도 제2함대가 그 포착에 실패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해군은 동해안의 죽변과 울릉도에 망루를 가설하고, 그 사이를 해저전선으로 연결하였다.

일본의 군함은 러일전쟁 전부터 당시의 최신식 무선 통신기를 탑재했으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무선통신은 방수(傍受)될 우려가 있고 방해전파에 의해 통신 불능인 경우도 있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해군은 각지에 망루를 설치하고 망루 간을 유선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망루에 무선전신기를 설치했다. 망루는 눈과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얻은 정보를 바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함선에 탑재된 무전기에 의한 통신을 중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죽변만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전신선을 수색하여 끌어올리고 울릉도와 사세보를 해저전선으로 연결했다. 나가사키에 지사를 둔 덴마크 대북전신회사가 부설한 나가사키-블라디보스토크 간의 해저전선(2회선)을 인양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외에 일본 해군은 남해안 및 동해안에 약 20개의 망루를 건설하고 일본의 규슈, 산인(山陰, 혼슈 서부) 연안 및 도서에 설치된 망루와 연계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한해협을 순항하는 초계함의 무선통신이 망루를 거쳐 바로 제2함대 사령부(쓰시마의 다케시키)와 연합함대 사령부(진해만의 송진)에 전해지고, 또 사령부에서 발신하는 명령이 바로 전 함정에 전해지는 체제의 통신망을 갖춘 것이다. 대한해협을 초계하는 함정이 얼마나 빨리 러시아함대를 발견하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또 정확히 사령부에 전달하는가. 또한 사령부의 명령을 어떻게 전 함정에 통지하는가. 이것이 해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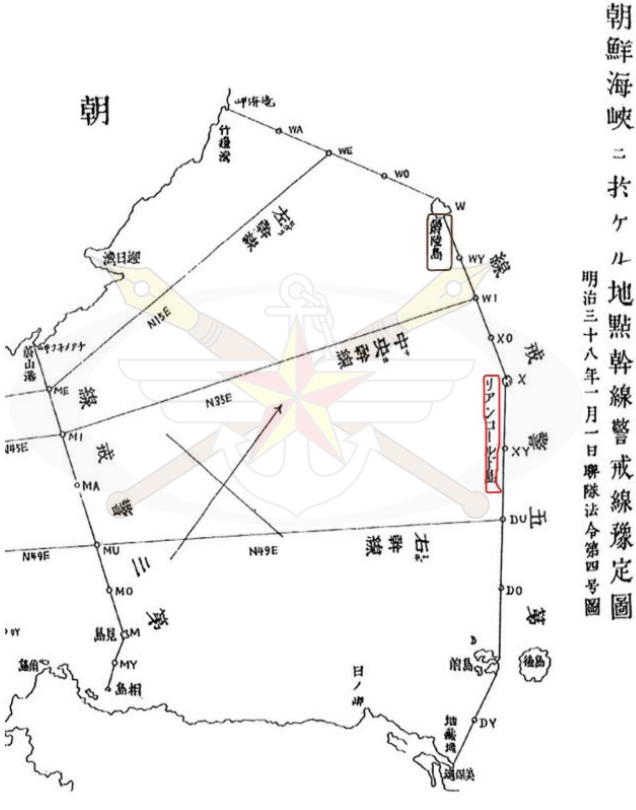
승패를 좌우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신망은 블라디보스토크함대와 뤼순함대의 합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또 언젠가는 출현할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발트함대)를 맞받아치기 위해서도 구축해야만 하는 인프라였다.

이러한 해군의 전략 속에서, 중요한 통신 및 감시거점으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울릉도와 독도였다. 울릉도와 죽변만의 망루 사이를 해저전선으로 연결하고, 게다가 대북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세보에 연결하는 공사는 블라디보스토크함대의 습격을 경계하는 속에서 시행되었다. 죽변만에서 울릉도로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오키나와마루(沖繩丸)의 호위함으로 울릉도로 향한 '니타카(新高)'가 남긴 일지에는 울릉도에서 수집한 리양코섬의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1904년 6월 17일에 러시아 군함 3척이 리양코섬(독도) 부근에 나타나 일시 표박한 후 북서쪽으로 갔다는 정보는 제2함대사령부 및 대본영이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 독도가 블라디보스토크함대의 집결지점인 것을 일본 해군이 처음으로 알았던 것이다.

1904년 말부터 1905년 초까지 야마모토 곤베에 해군대신, 이토 스케유키(伊東祐亨) 군령부장,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郎) 연합함대사령장관, 가미무라 히코노조(上村彦之丞) 제2함대사령장관은 도쿄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협의하여, 1905년 1월 1일자로 「대한해협에서의 지점 · 간선 · 경계선 예정도」(그림 2 참조)를 제정하고 1월 10일부터 실시했다. 그림의 X점이 리앙코루도섬(독도)으로 러시아함대 포착 망의 중심 지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대한해협을 통과할 러시아함대를 재빨리 포착해서 결전을 건다. 뿔뿔이 흩어진 러시아함대는 아마 독도를 목표로 북상할 것이다. 연합함대는 그 전에 울릉도에

집결하여 독도 해역에서 최후의 결전을 건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결과적으로 거의 그대로 되었다.

〈그림 2〉 대한해협에서의 지점 · 간선 · 경계선 예정도



이처럼 독도는 일본 해군의 군사 전략상 필요에서 일본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지도 중앙에 X점이라는 부호를 붙인 ‘리앙코루드섬’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것은 그 후 보름 정도 지난

1월 28일의 내각회의에서였다. 나카이 요사부로가 1904년 9월 29일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과 10년간 대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각의에서 대여 문제는 제외되었다. 이런 점들을 들어 저자는 해군의 통신 전략상 필요에서 그 요충지인 독도를 비밀리에 탈취하였다고 논증하였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 291-304
https://doi.org/10.29212/mh.2023..127.2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참관기] 학 · 덕 · 업 일치의 장

- 2023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군사연구세미나 : 군사사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

이제혁*

1. 수직적 협력: 史學-콘텐츠 업계의 지난 관계

근대사학은 대학에서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은 이후, 상아탑 중심으로 빠르게 파고들었다. 사학자는 사료를 해석하는 권위를 부여받았고 연구에 집중하였다. 학계의 열띤 연구는 역사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였고, 역사에 기반한 창작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마치 낙수효과처럼 학계의 연구성과는 유무형의 창작물을 만드는 콘텐츠[1] 업계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다만 '고증'이라는 단어가 위시하듯이, 업계가 역사를 해석 ·

* 전쟁기념관 학예부 학예연구사

1) '콘텐츠'의 정의 및 인문학과의 연결에 관해서는 인문콘텐츠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문콘텐츠」 참조.

활용하는 데에는 언제나 제약이 따랐다. 영화 · 만화 · 굿즈 등의 제작자가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는 학계에 자문과 검증을 요청하면서 생산 프로세스 전후로 학계를 의지하게 되었다.

바꿔 말해, 업계는 학계연구를 기반으로 창작하고, 학계에 결과물을 검증받는 식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사학적 전문성은 갖추지 않았으면서 관심의 정도는 광적인, 소위 '덕후'의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많은 사료가 한글로 번역되어 일반에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고,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전공자의 역사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심화하였다.

물론 전공 여부를 불문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사료 해석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창작자는 사료를 정전처럼 준수하지 않으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경직되어 갔다.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역사를 활용한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은 창작물이 아니라 재현물(represent)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학문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작품을 생산했던 콘텐츠 업계의 분위기가, 연구논문을 쓰는 엄정함을 부적절하게 적용받아 위축된 것이다.

콘텐츠 업계는 창작물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학계에 의지하였다. 전공자에게 자문을 얻거나 적극적인 일부는 연구논문을 독파하기도 하였다. 역사학이 급격히 대중에게 개방되는 과도기적 현상의 부작용 속에, 학계와 콘텐츠 업계는 학계를 상위로 하는 수직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2. 콘텐츠 업계의 학문적 역량 제고

사학과 콘텐츠 업계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사학계와 업계 상호 간의 유기적 발전을 선구적으로 이끄는 육군사관학교 이상훈 교수는, 각각을 '연구 분야'와 '콘텐츠 분야'를 동치로 두고 두 분야 모두를 역사학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으로 본다. 동시에 그는 업계의 연구 역량 성장을 이끌어, 작화가의 사학 전공과 학위 취득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만화를 잘 그리고 역사를 좋아했던 작가가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완성된 생산체계'를 갖춘 인재가 되는 사례는 그의 노력이 유효함을 방증한다. 학계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학계이자 업계가 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기완성적 프로세스를 갖춘 콘텐츠 분야 종사자는 학문적 전문성에서 이미 '덕후'를 상회하기 때문에, 대중적 수준의 비판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덕후' 나름의 엄정한 기준을 만족한 콘텐츠는 과거보다 더욱 열렬한 팬덤을 확보하였다. 내용상으로도 만족스러운데 고증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물론 작화가가 학업까지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학 전공자와 작화가 및 스토리 작가가 팀을 꾸려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한다. 사학 전공자는 전공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작화가와 스토리 작가는 흥미로운 콘텐츠 소재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 과거 콘텐츠 분야를 일방적으로 돕는 입장이었던 연구 분야는 콘텐츠 업계의 동학(同學)으로서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연구와 생산의 영감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특히 고대사 학계는 일부 분야에서 연구의 '일단락'을 선고할 정도로 1차 사료를 활용한 문헌연구 소재가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콘텐츠 업계의 신선한 새바람이 반가운 상황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한 업계가 학계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3. 산학협력의 선구적 모범: 2023 군사연구세미나

지난 4월 15일 육군박물관에서 개최된 「2023 육군사관학교 · 화랑대연구소 군사연구세미나: 군사사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는 이상적인 산학협력 사례를 모범적으로 시사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0명의 발표자가 10개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아래 표와 같았다.

〈표 1〉 2023 군사연구세미나 주제 및 발표자

연구 분야		콘텐츠 분야	
주제	발표자	주제	발표자
고대 군복	정덕기(서울대)	웹툰 〈카라반〉	박소망(웹툰 작가)
		웹툰 〈칼부림〉	고일권(웹툰 작가)
거북선 전시	박준형(해사박물관)	사극 콘텐츠	송효준 (인천서구문화원)
		전쟁 소설 〈북해에서〉	우다영(소설가)
육군박물관 특별전 소개	곽현우(육군박물관)	근현대 군사사	우영제(작가)
		3D 군사사	이정수(리전 대표)
		콘텐츠 굿즈	이용호(문화랑 대표)

〈사진 1〉 세미나 리셉션 데스크 풍경

〈사진 2〉 발표자 및 토론자 단체사진

연구 분야는 대학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연구직에 몸담고 있는 박사와 학예사가 발표하였다. 정덕기 박사는 신라 무관이 착용한 관복과 꾸밈을 연구 발표하였다. 현전하는 사료가 적은 탓에 구명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중국 수 · 당 사료를 활용한 비교사적 검토를 통해 복원을 시도하였다. 복식 연구는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요구된다. 만화나 영화와 같이 시각작품에는 당장 인물이 착용한 복식을 그려내야 하는데, 고증에 맞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가령 얼마 전 환두대도의 올바른 착용법이 지적된 이후로 사극 등 관련 콘텐츠에서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박준형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은 해군사관학교가 보유한 거북선의 복원제작 및 활용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거북선에 관한 사료는 제한적이므로 복원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상념과 달리, 여러 차수에 걸친 복원과정에 얽힌 다양한 비화를 들을 수 있었다. 거북선은 최근의 사례인 영화 '한산'처럼 그 운용법과 작동이 섬세하기 그려지는 만큼 복원과 시연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용역업체를 선정 및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한정된 예

산으로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곽현우 육군박물관 학예사는 육군박물관의 현황과 2022/2023 특별전을 소개하였다. 국내에는 전쟁군사사를 다루는 박물관이 희소한 탓에 관련 전시나 상품의 유통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육군박물관은 전쟁기념관이 설립되기 이전, 군사유물의 보존과 전시에 독보적인 위상을 점했고 현재에도 훌륭한 컬렉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육군박물관은 전시실을 과감히 개편하여 현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공간 구조를 실현하였다. 전시기법도 최신화하여 유수의 박물관에 뒤지지 않는 시각효과를 연출하였다. 곽현우 학예사는 올해 '해외파병의 역사'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을 밝히며,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현대 국제전에서 대한민국이 활약한 양상을 그릴 것이라고 전했다. 육군박물관만이 가지는 고유한 장점이 발휘되어 양질의 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콘텐츠 분야는 역사를 활용한 만화, 소설, 굿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계 종사자가 발표하였다. 발표자들은 시각매체 활용 역량과 내용을 흥미롭게 전달하는 표현력을 갖춘 만큼, 청중의 집중적 관심을 쉽게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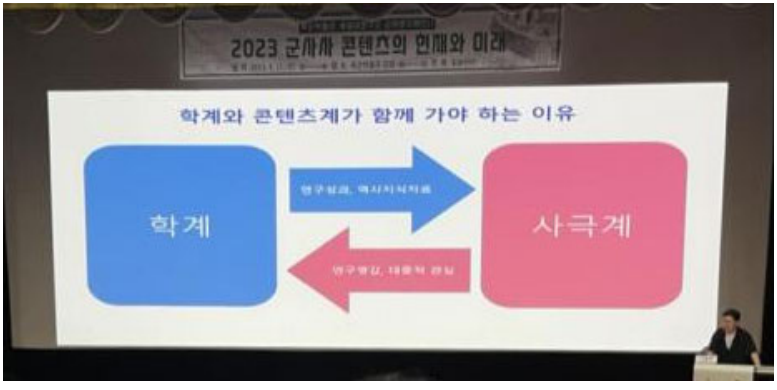
〈사진 3〉 박소망 작가 발표 중 '눈길을 사로잡는 썸네일 사례'

박소망 작가는 이민수(서강대 박사과정)와 팀을 구성하여 웹툰 〈카라반〉을 제작한다. 이민수는 고구려사 전공자로서 〈카라반〉 제작을 위한 소재를 제공하고 엄밀한 사료 해석에 기반한 고증 역할을 담당하고, 박소망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작화하는 것이다. 〈카라반〉은 일반 대중이 재미로 소비하기에는 물론 연구자가 학문적 관점에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웹툰인 만큼,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박소망 작가는 이러한 성공과 노력을 교훈 삼아, 향후 더욱 뛰어난 작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박소망 작가의 발표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eye catching)'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독자의 흥미를 제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최근 연구 분야의 화두이기도 한 만큼 참석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고일권 작가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웹툰 〈칼부림〉을 제작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만화를 즐겨 읽던 소비자였는데, 국내 사극 만화의 고증이 미흡하다는 점에 불만을 느끼고 이를 스스로 타개하고자 2010년 업계에 직접 뛰어들었다고 한다.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체 고증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작화에 이미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만화는 연재 초기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칼부림〉은 현재 대형 포털사이트에 주요 웹툰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진 4〉 고일권 작가 발표 중 '학계와 콘텐츠계의 협력'



고일권 작가는 청나라와 조선을 넘나드는 공간적 배경을 다룬다. 이에 그는 양질의 작품 생산을 위해서는 학계의 연구 성과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였다. 스스로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작품이 가지는 방대한 소재를 모두 고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시대 호란을 그리기 위해서는 조선 무관 복식, 도검, 검법, 기마술, 궁술은 물론 청나라 및 만주의 풍경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가 그린 한 회차의 웹툰에는 웬만한 연구자가 단행본 논문을 내기 위해 읽는 것보다 과히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독서량과, 많은 연구자의 자문이 함께 녹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우영제 작가는 엘프(elf) 캐릭터를 활용하여 한국 고유 신화를 흥미롭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이미 온라인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사료를 다루는 역량은 물론 작품성 또한 굉장하여,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 작가가 그린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콘텐츠는 정교한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아, 현재 대형서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요 도서가 되었다. 우 작가의 남다른 성실함이 타고난 역량과 함께

발휘되어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진 5〉 우영제 작가 발표 중 향후 발간될 작품 소개

우다영 작가는 전쟁소설 〈북해에서〉를 집필하였다. 참석자 대부분이 전근대를 전공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달리, 우다영 작가는 현대 전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북해에서〉는 현대전의 참혹함과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면서도 전쟁기에도 일말의 인간성을 비추는 인물을 액자식 구성으로 그려내었다. 현대전쟁사 연구 분야가 문학작품으로 재탄생한 결과였다.

송효준 인천서구문화원 연구원은 사극 제작 업계의 특성과 어려움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극은 '웬만하면 흥행에 실패하기 어려운' 분야로, 일정 이상의 시청률을 쉽게 확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역사를 쉽게 접하고 다루는 환경이 조성된 이후로 고증 부담 탓에, 업계가 전반적으로 사극 제작을 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사극에서 부정확한 고증은 방송중단 사유로 지적될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송효준 연구원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사극과 같은 콘텐츠는 어디까지나 1차 목적이 흥미와 흥행에 있는 만큼 학술연구와는 다른 기준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일부 시청자들이 새로운 사극이 방영되자마자 고증 성패만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작품을 존폐기로에 놓는 풍조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풍조가 사극 제작 업체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업계 전반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분야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재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일견 당연한 발표에, 현장의 많은 업계 종사자가 숨통을 틔워주는 말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연구 분야와 콘텐츠 분야를 성숙하게 구분하고 분야에 적합한 기대를 해야 한다고 시사하였다.

이정수 리전 대표는 역사를 소재로 한 3D 모델링을 소개하였다. 3D 모델링은 게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듯이, 콘텐츠 제작자가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공간·인물·사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다. 생산자는 3D로 구현된 가상 배경과 캐릭터로 역사적 장면을 재현해낼 수 있는데, 컴퓨터만으로도 장면을 풍부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은 실물 소품을 요구하는 사극 분야보다 높은 활용도와 자유도를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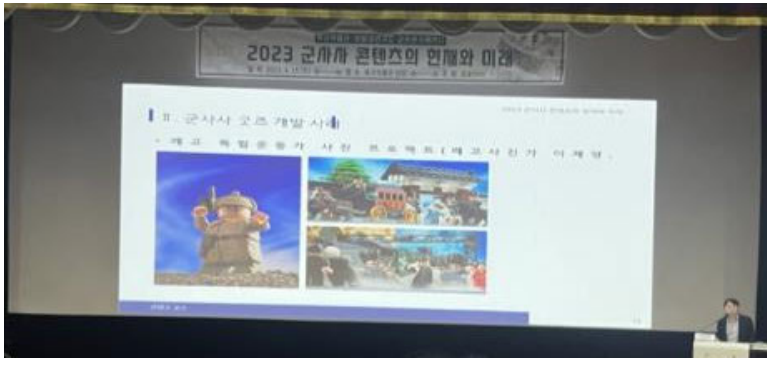
특히 인공지능과 메타 버스가 급격히 발전 및 보급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했을 때, 이정수 대표의 작업 확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콘텐츠 소비자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과 청의 궁궐을 비롯하여 전장도 VR로 실감나게 접하고, 심지어 당시 오스만 제국 궁정도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디지털 분야의 발전은 기하급수 곡선을 그리므로, 휴일도

없이 진심으로 일하는 그의 확장은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

이용호 문화랑 대표는 역사에 기반한 굿즈를 제작 및 판매한다. 그는 굿즈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 용례에서 벗어나, 업계에서는 일정한 테마에 기반하여 제작된 일종의 기념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품은 박물관을 판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기획전 관람 동선 말미에 마련된 임시 기념품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비자는 전시를 관람하며 받은 긍정적인 감흥을 굿즈 구매를 통해 장기적으로 간직하고 싶어 하며, 특히 양질의 굿즈는 이러한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용호 대표는 군사사를 기반으로 한 굿즈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다만 군사사 분야는 대중적 인기가 부족하고, 심미적 변용이 제한되는 탓에 기획과 개발 판매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이 대표는 독립전쟁사 및 레고를 적극 연결 활용한 사례에 주목하여 양질의 스토리가 결합한 창의적 상품 개발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사진 6〉 이용호 문화랑 대표 발표 중 '군사사 굿즈 개발 사례'



콘텐츠 분야 7명의 발표는 업계의 목소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콘텐츠 분야는 연구 분야와 이미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고, 콘텐츠 분야 종사자가 연구력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도 시사하였다. 나아가 연구 분야가 역사학 전공자에게 이제는 안정된 직장을 약속하기 어려워진 현 실태를 고려했을 때, 콘텐츠 분야의 발전·확장이 전공자에게 색다른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도 되었다. 2차 산업계가 모학문의 발전과 유지에 이바지하게 된 것이며, 과거의 연구 분야 우위의 수직적 관계가 점차 역전되어가는 것으로도 비친다.

4. 역사콘텐츠 분야로의 合一을 향해

최근 많은 대학에서 역사학 관련 학과를 통폐합하고 있다. 심지어 역사학을 순수학문으로 독립시켰던 과거의 구분과 달리, '역사콘텐츠학과' 등으로 재편성하여 응용학문처럼 운용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실로 역사학의 연구대상은 과거의 산물인 만큼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연구대상은 물리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순수학문으로서 역사학의 지위는 일견 근대사학이 성립된 이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곧 응용학문으로의 전환이 태생적으로 예정된 분과학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세대는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과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는 것을 반비례 관계로 보지 않는다. 석박사 과정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지속해서 발표하면서, 동시에 콘텐츠 업계에 종사하며 모학문의 대중적 활용에 이바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역사학 전공자가 실질

적으로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학문 자체의 발전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본 세미나 말미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은 콘텐츠 분야의 무한한 발전에 기대를 거는 것이 요지였다. 주목되는 것은 청중의 활발한 토론 참여였다. 특히 자칭 '덕후'로 스스로를 밝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 이들은 연구 분야를 독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루하다는 점을 토로하는 한편으로 콘텐츠 분야가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대중적으로 호소력을 가지면서도 사학적 전문성을 갖추기를 당부한다는 역설은 장내 스피커를 크게 울렸다. 지난날 역사에 대한 자신만의 관심으로 콘텐츠 분야를 사장할 뻔했던 일방적 비판자가 사실 역사콘텐츠의 발전과 확산에 가장 목말라 하던 층위였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사진 7〉 종합토론 현장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과 만화 그리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업종에 따른 우열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기를 요구할 뿐이며, 전문성은 곧바로 인기와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2023 육군사관학교 · 화랑대연구소 군사연구 세미나: 군사사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첨단에서 주도하고, 양질의 성과를 생산해내고 있는 관계자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각 분야 종사자는 자신의 연구와 생산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가 서로 맞닿아 역사학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있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활발한 소비가 '덕후'에 의해 약속되고 있는 점도 느낄 수 있었다.

향후 학 · 덕 · 업이 일치하는 본 세미나가 정례적으로,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연구 분야와 콘텐츠 분야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협력 양상을 현장에서 살펴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인 것이다.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크게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연구소 동정

1. 주요 활동 및 대외 교류

○ 한중 공동세미나 〈한중군사우호대화(韩中军事友好对话)〉

– 일자/장소 : 2023. 3. 24.(금) / 광화문 달개비

– 참석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연구소장, 국방사부장, 최정준 선임연구원

중국 군사과학원

* Ding hao, Yu Maio, Xiao Tiefeng, Li Xiang, Liu Mulin, Li Chuang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 연구원장, 박정재 선임연구위원, 송화섭 객원연구위원

〈『한미동맹 70년사』 발간을 위한 한중 공동세미나〉

○ 2023년 전반기 연구소 체육행사

- 일자/장소: 2023. 4. 7.(금) / 남산
- 참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원

〈2023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체육행사〉

○ 2023년 전반기 전·사적지 답사

- 일자/장소: 2023. 5. 31.(수) / 인천 연수구 일대
- 참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원

〈2023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반기 전·사적지 답사〉

2. 인사 및 교육

○ 임 용

- 군사사부 김윤미 : '23. 5. 15.부

○ 국방대 실무자 교육

- 기획조정실 이정하 : '23. 5. 8. ~ 19.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조선군개요사 • 전쟁사부 • 신국판 • 2023. 4. 30.	이 책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전반적인 약사를 기술한 『朝鮮軍概要史』의 번역서이다. 『조선군개요사』는 총 4장 체제로 구성되었다. 1장 약력에는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부터 한국주차군사령부, 조선주차군사령부 조선군사령부에 이르는 시기 간략한 특징이 서술되어 있다. 2장은 방공, 지상으로 나누어 한반도의 경비상황을, 제3장은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 징병에 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 제4장은 한반도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주둔 일본군에 전반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시체제기 인적 물적 자원동원에서 일본군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조선주차군역사 • 전쟁사부 • 신국판 • 2023. 4. 30.	이 책은 1916년 6월 1일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발간한 『朝鮮駐箚軍歷史』의 번역서이다. 『조선주차군역사』는 1880년 부터 1910을 전후한 시기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전반적인 사항이 서술되어 있다. 제1편은 1880년대부터 청일전쟁일 거치는 시기, 한국주차사령부 시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편에는 한국주차군의 창설부터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러일전쟁 시기의 상황, 군사시설 및 토지수용, 강제병합 전후 일본군의 행동이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일제의 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상세한 편제와 병력 및 활동 양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학술행사 안내

〈군사사 시민강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군사사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8월 31일(목) 14:00~16:30
- ❍ 장소 : 전쟁기념관 2층 문화아카데미
- ❍ 주최 : 군사편찬연구소, 전쟁기념사업회
- ❍ 대주제 :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

[1차] 8월 17일 - 임시정부와 장개석

사회: 정치훈 (前 국방홍보원 앵커)

강연자	강연 주제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
배경한 (신라대)	장개석과 한국독립운동

[2차] 8월 31일 - 광복군, 그리고 연해주의 항일

사회: 정치훈 (前 국방홍보원 앵커)

강연자	강연 주제
한시준 (독립기념관)	광복군과 OSS의 공동작전
박 환 (수원대)	잊혀진 연해주 항일운동의 기록들

※문의: (일반) 02-748-1685 / (군) 900-1685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문헌정보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㊀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헌정보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인터넷 군사사료관

- 주　소 : Archives.imhc.mil.kr
- 주요내용 : 미 기록물관리청(NARA)의 6 · 25 전쟁관련 기록,
  1970년 이후 연구소 발간물의 원문 제공 서비스

『軍史』誌 投稿案內

1. 원고 내용 및 범위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3(신범규 선임연구원)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문헌정보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연구윤리 규정

국.군편소규정 1-13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부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22. 2.18.
일부개정 2023. 4.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318
제2조(적용대상) ····· 318
제3조(적용범위) ····· 318
제4조(용어의 정의) ····· 318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319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320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321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322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322

제7조의 4 (중복게재) ····· 323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323
제7조의 6 (공동연구) ····· 324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 324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 324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325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325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325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326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326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327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327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328
제16조(판정) ····· 328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328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329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329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330
부 칙 ····· 3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 · 사진 · 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 · 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연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 (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사업담당 연구원은 연구편찬 및 연구과제 용역사업 추진시 표절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타 규정 및 연구소장 지시에 따라 논문 유사도 검사(Copy killer, 혹은 KCI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③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1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조정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 · 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세상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김주용(원광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한우(서강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이미숙(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편집간사
신범규(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3/6(第127號)

2023년 6월 5일 印刷
2023년 6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3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3050395)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硏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ilitary History

Vol. 127. 2023. 6.

Choi JinYeoul	The Warship or Freighter Manufacturing in Goguryo-Tang War(644-648) And Fiscalities : The Analysis of ship building cost and mobilized subject
Park, Min-su Kim, Young-jin	A New Window to the Imjin War : Revisiting the Jinglüefuguoyaobian with Case Studies
Bae, Ilsoo Jeong, Heetae	A Study on Yi Sun-Sin's Deeds and Military Thought in War
Park, Hui-seong	Preparation for the 4th Campaign of the 8th Division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Battle of Surisan-Masan
Kim, Samg-Bum	A Study on the Statement Diplomacy of North Korea(1964-1972)
Lee, Byong-Chol	Resistance within the Military Authorities against the Third Reich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9 771598 317009 01
ISSN 1598-317X